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8 No.2 AUGUST 2020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EXECUTIVE OFFICERS 2019.9-2021.8

President	Hong, Jeong-seon(Inha University)
Vice Presidents	Kim, Yang-sun(Hallym University) Kim, Jung-hee(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ong-hoe (Kyunghee University) Ryu, Bo-sun(Kunsan University) Min, Eun-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Woo, Chan-je(Seogang University) Woo, Rim-geol(Shandong University) Yoon, Sang-in(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yeong-ho(Kyunghee University) Cho, Sung-won(Seoul Women's University) Carolina Meira(Univ of Buenos Aires, Argentina/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 USA/English Literature)
Secretary General	Do, Yoon-jeong(Inha University)
Research Planning	Kim, Dong-sik(Inha University) Kwon, Hyeok-ryul(Jilin University) Kim, Seo-young(Kwangwoon University) Kim, Seok(Konkuk University) Kim, Ye-rim(Yonsei University) Moon, Hye-won(Ajoo University) Park, Soo-ye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oo-taek(Kyeonghee University) Yang, Dong-kook(Sangmyeong University) Lee, Hyeong-kw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ng, Cheol-hwan(Yonsei University) Jeong, Ggeut-byeol(Ewha Women's University) Jeoung, Eui-jin(Sangmyeong University) Cho, Kang-sok(Inha University) Choi, Chang-reuk(Nanjing University)
Journal Editor	Oh, Hyung-yup(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2017.9 - 2019.8	
Kang, Yong-hoon(Incheon University)	Kim, Ki-bong(Kyonggi University)
Kim, Dong-kyu(Yonsei University)	Kim, Tae-kyoung(Kyunghee University)
Kim, Ho-young(Hanyang University)	Yoon, Hye-joon(Yonsei University)
Lee, Kyung-soo(Chung-ang University)	Lee, Jae-bok(Hanyang University)
Chang, Se-jin(Hallym University)	Jeong, Seung-hoon(New York University)
Jeoung, Eui-jin(Sangmyeong University)	Cho, Man-soo(Chungbuk University)
Cho, Jae-ryong(Korea University)	Jin, Joo-young(Soonchunhyang University)
Hong, Seok-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in April, August, and December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Membership is open to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The annual membership dues including subscription to the journal are 30,000 won (US \$30) for individual members and 50,000 won (US \$50) for institutional members. Manuscripts for publication and correspondences including change of address should be sent to the IACKS official contact point (E-mail : newiacks@empal.com).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8 No.2 AUGUST 2020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was organized in 1991 in Berlin and incorporated in 1992 in Paris to promote and develop Korean Studies in the world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 research.

권두언 / 9

| 특집기획 | **김현 30주기 추모 특집**

강계숙	『한국문학의 위상』의 현재성에 대한 고찰	15
신동재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 연구 1971~1977년의 저작을 중심으로	47
한래희	김현 후기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 연구	87

|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 | **한국의 영화문화와 프랑스영화**

이수원	1990년대 한국영화와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영화의 재정비 비교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19
-----	---	-----

비교한국학 리뷰

강용훈	한·중 시각문화 관련 연구서의 비교 고찰과 학제적 접근의 지평 확장	153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공성수)와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중국』(탕사오빙)에 대한 서평	

일반논문

박수현	치유를 위한 소설교육과 정전의 재해석 김동리의 「역마」를 중심으로	187
여태천	오염의 메타포와 경계 허물기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에 대해	221
유은경	프랑스 동성결혼 논쟁의 행위자와 담론	259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296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목록	/ 302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303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 306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308
논문 심사 요지서	/ 311
연구 윤리 규정	/ 312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317

Preface / 9

| Special Topic | **Kim Hyeon's 30th anniversary memorial**

A Study on the Present Meaning of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 Kang, Gye-sook ——— 15

Kim Hyun's Formulating 'The ideological type of
Korean literature' ————— Shin, Dong-jae ——— 47

A Study on Theory of Violence in
Kim Hyun's Criticism in 1980's ————— Han, Lae-hee ——— 87

| Issue and Prospect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Korean movie culture and Frech Movie**

Une étude comparative de l'essor de la scène cinématographique en
Corée dans les années 1990 et en France au lendema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 Rhee, Soue-won ——— 119

Comparative Korean Studies Review

The Comparative Book Review of Visual Culture Research Book
in Korea and China ————— Kang, Yong-hoon ——— 153

General Topic

Novel Education for Healing and Reinterpretation of Canon

Focusing on “Yeokma” by Kim Dong-ri ————— Park, Soo-hyun — 187

Metaphor of Contamination and Undoing Discrimination

About Korean ‘female poetry’ since the 1980s ————— Yeo, Tae-chon — 221

Actors and Discourses in French Debate on

Same-sex Marriage ————— Yoo, Eun-kyung — 259

• 권두언 •

이번 호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특집기획 ‘김현 30주기 추모 특집’에 김현 연구의 지평을 넓힌 세 편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들은 2020년 8월 12일 본 학회가 한국불어불문학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에 발표된 글들이다. 한국문학 비평과 프랑스문학 연구에 막대한 유산을 남긴 김현의 30주기를 맞아 기획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프랑스문학자이자 한국문학 비평가이며, 동시에 한국문학사가이자 문학이론가였던 김현을 프랑스문학과 한국문학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김현 연구의 총체적인 상을 만들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려 했다.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이번 호와 다음 호 학회지에 이 학술대회 발표문들을 연이어 수록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강계숙의 『『한국문학의 위상』의 현재성에 대한 고찰』은 김현의 대표적 저작인 『한국문학의 위상』의 현재적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며 『한국문학의 위상』에 실린 글들이 문학에 대한 김현의 비평적 시각과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계숙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김현은 문학의 자율성과 무용성이 문학의 존재 방식이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임을 설파했고, 감각적 쾌락과 반성적 사유가 문학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체험됨을 강조했다. 후기 자본주의 체제가 문학의 자율성과 무용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김현은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성실한 작가’와 ‘비평가-독자’를 호명한다. 강계숙의 연구는 이러한 김현의 호명이 오늘날의 문학 연구자·비평가들로 하여금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음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신동재의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 연구—1971~1977년의 저작을 중심으로』는 한국문학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71년부터 『한국문학의 위상』을 상재한 77년까지를 김현이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한 한 시기로 명명하고 그의 문제의식과 작업 과정을 밝히고 있다. 신동재의 연구에 따르면 김현은 『한국문학사』 저술과 바슐라르 연구를 종합하며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보편적 물음에 도달하고 그 대답으로 ‘문학이란 억압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신동재의 연구는 1970년대의 김현이 사변적 문제의식의 수준을 넘어 한국 문학사의 작품, 사건을 고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원리화’하려고 시도했음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래회의 『김현 후기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 연구』는 1980년 5월의 폭력에 대한 대응이 1980년대 김현 비평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결정한 핵심적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 1980년대 김현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의 전개 양상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한래회의 연구는 고통이 각인된 몸을 통한 부정과 고통의 기억에 머물기의 방법이 김현의 최종적 답변으로 제출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현의 폭력론이 ‘원한(원한을 넘어서) 사랑’, ‘비이성/이성’의 이분법을 넘어 사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 끈질기게 탄핵’할 것을 고집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음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한래회의 연구는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비교한국학 *Compaive Korean Studies*’은 2015년 하반기부터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란을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논문, 혹은 한국학 연구의 전망을 갱신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기획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의 주제는 ‘한국의 영화 문화와 프랑스영화’로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8권 1호에 투고된

논문 중 이수원의 「1990년대 한국영화와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영화의 제 정비 비교—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소개한다. 이수원의 논문은 199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룬 토대들이 프랑스영화와 영화정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정책 기관과 국제 영화제의 출범, 시네필문화의 본격화에서 나타나는 양국 간 연결고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 시네필문화와 영화정책이 프랑스가 선구적으로 닦아놓은 길을 참조했으나, 토착화 및 시대 변화에 따라 고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밝혀내고 있다. 피상적으로 회자되거나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프랑스영화와의 연결고리의 근거들을 프랑스와의 상호관계가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 1990년대 국내 시네필문화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영화문화에 있어서 지자체에 요구되는 역할의 근거로서 프랑스 대비 국가와의 관계 맺기의 차이를 짚었다는 점에서 이수원의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강용훈의 「한·중 시각문화 관련 연구서의 비교 고찰과 학제적 접근의 지평 확장—『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공성수)와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중국』(탕샤오빙)에 대한 서평」은 언어적 텍스트와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양자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2020년 발간된 공성수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소명출판), 탕샤오빙의 『이미지와 사회』(돌베개)를 비교·고찰하고 있다. 강용훈의 서평은, 두 저작이 각기 다른 대상과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탕샤오빙의 저작은 공성수의 저작이 기술하고 있지 않는 사회주의운동 관련 시각문화의 특성을 중국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 공성수의 저작은 사회주의 시기의 중국 시각문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미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근대 초기 동아시아 시각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한 결여 지점을 논하는 동시에, 두 연구서가 시각문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또한 비교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각문화 연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서평은 독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논문이다.

이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일반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리의 『역마』를 재해석하며 치유를 위한 소설 교육에 대해 논하고 있는 박수현의 논문,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에 나타난 오염의 메타포를 고찰하고 있는 여태천의 논문, 동성결혼을 둘러싼 프랑스사회의 논쟁을 재조명하며 이 경험의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려 한 유은경의 논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생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학술대회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특집기획|
김현 30주기 추모 특집

『한국문학의 위상』의 현재성에 대한 고찰
강계숙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 연구
1971~1977년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동재

김현 후기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 연구
한래희

『한국문학의 위상』의 현재성에 대한 고찰

강계숙*

1. 들어가며—문학임문에의 매혹
2. 한국문학의 위상을 묻은 까닭
3. ‘억압’의 총체화와 무용성의 설득력
4. ‘감동’이라는 윤리적 도약
5. 나오며—독자라는 주체, 작가라는 주체

| 국문초록 |

본고는 김현의 대표적 저작인 『한국문학의 위상』의 현재적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학의 위상』에 실린 글들은 문학에 대한 김현의 비평적 시각과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는 이 책에서 그는 자신만의 문학론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김현은 문학의 자율성과 무용성이 문학의 존재 방식이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설파한다. 특히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는 그의 핵심 명제는 자율성과 무용성의 가치를 적극 옹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내용이 ‘억압’에 대한 그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에게 억압은 원초적 행복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부정적인 것의 총체를 뜻한다. 그것은 분화된 사회 제도의 부분적·개별적 역할이 아니라 강제적 메커니즘으로 작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동하는 전체 체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억압에 대해 문학이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는 순간, 문학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억압이 현실세계에서 전체적이면 전체적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문학의 영역은 확대된다. 억압에 관해서라면 문학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김현에게 문학의 무용성은 문학의 가능성의 무한한 확대를 의미하며, 문학의 사회성은 이러한 가능성의 확대가 유발하는 현실과의 싸움을 통해 확보된다.

김현 문학론의 또 다른 특징은 감각적 쾌락과 반성적 사유가 문학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체험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는 ‘감동’을 쾌락과 반성의 모순적 결합을 매개하는 정신적 작용으로 제시한다. 감동은 그것을 느끼는 자에겐 자신의 내면에 예측 못한 이질적인 것이 깊이 침범한 상태이자 그것에 강하게 지배받는 특수한 경험이다. 그것은 여타의 감정과 달리 의식을 일깨운다. 김현은 감동이 각성된 의식이자 대상을 깊고 넓게 감수하는 정신 능력임을 분명히 한다. 그의 문학론에서 감동은 형이상적 사고와 윤리적 성찰을 유도함으로써 감성적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감동하는 자가 사유하는 자’이며 ‘감동하는 자야말로 주체적’이다. 김현의 이러한 문학론은 독자의 주체화와 작가의 주체화를 요구하는 대목에서 그 개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가 문학의 자율성과 무용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성실한 작가’와 ‘비평가-독자’를 호명한다. 그는 독자란 일개 감상자가 아니라 사유하고 판단하는 성찰의 주체라는 것을, 그리고 작가란 문학을 물신화시키는 조건 그 자체와 싸우는 행위의 주체라는 것을 시대적 당위이자 문화적 가치로서 요청한다. 그의 이러한 기대와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문학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주제어 : 김현, 문학론,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의 기능과 역할, 자율성, 무용성, 억압, 감각적 쾌락, 반성적 사유, 감동, 독자의 주체화, 작가의 주체화

1. 들어가며 —문학입문의 매혹

통례에서 벗어남을 무릅쓰고 주관적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본고가 제기하는 질문의 명료함과 단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직업적 특성상 문학입문 수업을 맡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교재 선택을 위해 여러 입문서를 살펴보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도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 초반 내용을 가장 고심한다. 하지만 선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택한다. 특히 이 책의 1~3장은 외우다시피 할 만큼 자주 강의목록에 올려 학생들과 읽는다. 20여년 가까이 이곳저곳에서 강의하면서 크게 바뀌지 않은 커리큘럼이니 선생의 게으름과 구태를 보여주는 예라고 힐난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한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체 강의 내용 중 김현의 이 글들을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꼽는다. 자신들이 왜 대학에 와서 문학을 공부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 학생들의 이러한 평이 낯설지 않은 까닭은 비슷한 반응을 되풀이 목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 또한 대학 입학 첫 학기에 이 책을 읽고 이들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의 비평 중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꼽히는 이 책의 몇몇 구절은 읽었던 그 순간부터 뇌리에서 잊힌 적이 없다. 아마도 그때의 감정과 느낌이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입문서로 여전히 『한국문학의 위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문학에 대한 고민이 진지해질 무렵 이 책이 선사한 울림을 다음과 같이 글로 남긴 예도 있다.

1 이번 학기에도 종강할 즈음 실제로 학생에게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특히 문학의 효용성에 관한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 그럴 만한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민했던 제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효용성에 관한 수업’이란 『한국문학의 위상』의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그 책을 나는 두 권 가지고 있다. 한 권은 서점에서 사서 읽고 감동했고 다른 한 권은 저자가 주어서 감격했다. 그 책이 감동의 샘이 되었을 때 나는 저자에게 홀린 문학도였다. 어떤 감동도 무조건 오지는 않는다. 감동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는 감동의 기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이한 감정의 안개 속에서 태어난다. 감동의 기미, 그러니까, 조산된 감동의 분비물들은 그 책 이전의 저자의 책들,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 그리고 김윤식 선생과 공저한 『한국문학사』 등을 읽으면서 스며 나왔을 것이다. (...중략...) 그리고 난 후에 나는 때마다 들추게 되는 그 책, 『한국문학의 위상』을 읽었다. 그 책은 나의 해방된 사유 위에 하나의 명제를 세워주었다. 기동 같은 명제가 아니라 낙타 같은 명제, 다시 말해 사유를 태우고 끊임없이 표현의 장소를 옮기는 명제가 그 책으로부터 솟아나왔다.²

책이 주는 감동이 자신을 ‘저자에 홀린 문학도’로 만들었고, 문학에 대한 ‘해방된 사유’가 이 책에서 키워졌으며, 평생 풀어야 할 ‘낙타 같은 명제’를 이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고백은 스승을 향한 의례적 상찬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진심의 토로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문학의 위상』이 전하는 감동과 영향과 때마다 계속되는 되새김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필자도 능히 공감하기 때문이다. 문학도의 길로 들어서서는 초심자들의 감흥도 정도와 이해의 차이만 있을 뿐 이와 비슷하다.¹ 학년 신입생을 시창작반 세미나에 끌어들이며 이 책을 가장 먼저 읽히고 싶어했던 선배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문학의 위상』에 실린 글들은 45년 전에 쓰였다. 거의 반세기 전의 일이다. 김현 비평의 정수(精髓)로 꼽히기도 하고,³ 저자 스스로 이 책을 가장 아

2 정과리, 『스핑크스를 마주하기란』, 『문신공방』, 역락, 2005, 208~209쪽.

3 황현산은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김현이 피력했던 문학론에 대해 “민중문학론과 함께 70년대와 80년대를 넘어 90년대까지 한국문학의 한 주류를 형성했다”고 평한다. 황현산, 『문학비평가 김현 - 4·19, 프랑스문학, 김현』, 『프랑스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프랑스 현대비평의 현재와 미래』, 프

끼는 저서로 꼽았다는 것은 지인들의 술회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자체 신화가 되었다고 수사(修辭)될 만큼 한국 비평문학의 전범(典範)으로 꼽히는 김현의 역량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혹은 비평가 자신이 큰 애착을 지녔을 만큼 그의 비평적 사유와 태도가 이 책에 응축되었기 때문에 독자에게 미치는 감응력이 지금까지도 생생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동안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문학의 위상도 달라졌으며, 문학을 사유와 정신을 키우는 교양과 지성의 보고(寶庫)로 여기는 경향도 ‘인문학의 위기’라는 표현에서 짐작되듯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작가도 작품도 엔터테이너화되기를 꺼리지 않는 문화의 대중화는 이제 산업이 아니라 일상적 자연이 되어 가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러한 간단한 일별에서조차 어림되듯 문학을 둘러싼 내적·외적 환경과 문화적 상황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조차 마치 예스러운 골동품에 윤광을 내는 일처럼 시대에 뒤쳐진 낡은 질문을 꺼내 그 가치를 호소하는 일이 아닌지 자문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초입에 들어선 이들에게 『한국문학의 위상』은 강한 인상을 주며 매혹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문학의 고유한 가치와 역량은 다른 문화적 대체물에 의해 쉽게 이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문학에 대한 관심은 소수의 대중에게 이어지지 마련이므로 이 책에 서술된 문학의 가치에 대한 보편적 옹호가 시간의 풍화작용 속에서도 이 책을 살아남게 만든 이유라고 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편론은 지루한 상투가 되기 쉽고, 영향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한국어로 쓰인 문학론 중 가장 매력적인 책으로 『한국문학의 위상』을 꼽을 수 있는 까닭은 여기의 글들이 여전히 문학과 관련된 현재진행형의 문제를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문학의 위상』은 왜 지금까지도 독자에게 깊은 감흥을 전달하는

랑스학회, 2013, 13쪽.

것일까? 독자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에도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것일까? 이 책의 생명력은 무엇에서 비롯하는가? 본고의 궁금증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물음의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보려는 부분적인 시도이다.

2. 한국문학의 위상을 물은 까닭

『한국문학의 위상』이 문학의 존재론에 대한 김현의 비평적 관점과 이론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책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다. 그런데 이 책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현대문학이론’, ‘현대문학의 이해’ 등의 제목을 달고 있지 않다. 문학을 정의하려는 일반적인 문학이론서의 목적을 띠고 있지 않은 셈이다. 문학의 실체에 대한 규명, 그것의 본질에 대한 원론적 설명은 이 책의 의도가 아니다. 김현은 이 책이 『한국문학사』(1973)를 쓰고 난 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문학사 개설서를 쓰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하였다고 말한다.

김윤식 씨와 『한국문학사』를 같이 쓴 이후에 나는 우리가 내세웠던 가설이 가설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행복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문학사란 각주가 잔뜩 붙어 있는 논문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쉬운 개설서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곧 나에게 생겨났고, 그래서 이왕이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문학사를 쉽게 써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그 의무감은 그 이전에 쓴 나의 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나로서는 좀 지나치게 과장한 대목이라든가, 덜 설명이 되어 있는 대목을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과 겹쳐져서 점차 나를 강하게 짓누르는 압력이 되었다. 그 압력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한국문학의 위상—그 전개와 좌표』이다.⁴

『한국문학의 위상』의 집필 의도는 쉬운 문학사의 개설이다. 그것도 현대 문학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학사 전체의 기술이 목적이다.⁵ 실제로 내용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6장과 7장은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문학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대부분의 독자는 이 책이 한국문학사를 기술한 것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책의 전반부, 특히 1~4장에 기술된 내용이 독자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탓이다.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대표되는 질문에 답하면서 문학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한 검토로 시종하고 있는 이 책의 앞부분은 문학 일반론 — 문맥상 김현이 이 책에서 의미하는 문학은 역사적으로 현대 문학, 규범적으로 좋은 문학을 가리킨다. ‘현대’와 ‘좋은’이란 어사(語詞)가 내포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문학의 위상』은 가치중립적 문학론이 아니라 가치정향적 문학론이라 할 수 있다 — 을 서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본래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1~5장은 사실상 6장과 7장의 문학사 개설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문학사 기술은 문학의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일관된 관점 및 이론적 토대와 방법을 요구한다. 김현은 이를 서두에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1~5장이 한국문학사 전체의 서술을 염두에 둔, 문학사 기술을 예비한 방법론으로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6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전개를 서술하는 데 있어, 내가 취하고자 하는 관점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형성된 현대적 문학적 관점이며, 그 서술 방법은 역사적 서술 방법이다.”⁶ 그는 문학이란 무엇이며, 특히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규정이 문학사 기술의 기초라는 점을 잘 알기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

4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96, 250~251쪽.

5 김윤식과 함께 저술한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는 근대의식의 성장기로 파악된 영·정조 시대부터 1960년 4·19혁명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6 김현, 앞의 책, 118쪽.

형성된 문학에 대한 관점'을 이에 대한 답으로 대신한다. 요컨대 '왜 문학은 되풀이 문제되는가'라는 제하의 1장은 문학의 개념이 현재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까지 문학이 정치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가를 밝힘으로써 그의 문학론의 근본명제인 '문학의 자율성'이 대두되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문학사 전체를 조망하기 위한 개념 규정 및 문학적 관점의 표명 또한 목적으로 한다. 이는 그가 "역사적 서술 방법에서 당연히 문제될 것은 시대 구분 문제"⁷⁾이며, "문학적 기능의 변모와 형태의 변화에서 기인한 문학적 시기에 따라"⁸⁾(강조는 인용자) 가설이나마 새로운 시대 구분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그는 한국문학의 전개는 문학의 기능의 변모와 그에 따른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야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문학의 기능과 형태 변화의 중요성은 『한국문학의 위상』의 2~4장의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 여기서 김현은 널리 알려진바 '문학은 씹먹지 못한다는 것을 씹먹고 있다'는, 문학의 무용성을 근대 이후 문학이 보유했게 된 역설적 기능으로 명제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성이 자율적 문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문학이 자율적이고자 할수록 얻게 되는 최종 결과임을 공들여 설명한다. 한편 그것은 필연적으로 '개성적 형태에의 열망'으로 귀결된다. 문학의 자율성-문학의 무용성-문학 형태의 변모는, 따라서, 현대문학의 존재방식이자 그것의 기능 변화의 내적·외적 양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을 문학적 특성을 결정짓는, 그리하여 궁극에는 문학적 체제를 구성하는 기제로 파악하고 이것들의 역사적 상호작용과 전개 양상을 김현은 한국문학에 적용한다. 6장은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① 제1기-삼국통일 이전, ② 제2기-삼국통일 이후부터 무신란까지, ③ 제3기-무신란에서 이조 영·정조 시대까지, ④ 제4기-영·정조에서 현대까지"⁹⁾로 시대를

7 위의 책, 118쪽.

8 위의 책, 119쪽.

구분하고, 한국문학사를 개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자면, 1~4장, 그리고 문학텍스트의 이해를 설명한 5장은 6~7장의 서술을 위한 방법론의 성격을 띤다. 더불어 그것은 문학의 특수한 존재방식과 기능, 사회적 역할과 가치, 미적·정치적 가능성을 논하는 문학 일반론의 성격 또한 지닌다. 이는 문학에 대한 보편적 이론화와 한국문학에의 적용이라는 특수한 용례화를 동시에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위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이미 암시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문학의 위상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 층위의 역임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문학이라는 범주(공간적 지평) 내에서의 위상, 둘째, 개별문학으로서의 역사적 전개(시간적 지평)를 통해 드러나는 위상이 그것이다.¹⁰ 이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학 일반의 보편성을 한국문학의 역사 내에서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정리와 규명이 필요하다. 김병익은 『한국문학의 위상』을 가리켜 “우리 문화와 문학이 주체적 시각에서 새로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 문학이 주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문학사에서 작용한 그 실제화의 범례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것”¹¹이라고 평한다. 이 주체적 시각에 대해 정과리는 “그는 세계와 문학에 대한 서양적 이념에 경도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그것이 한국에 수용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¹²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문학이론과 문학사 서술에 주체적 관점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김현의 일관된 태도에 따라 『한국문학의 위상』의 전반부는 문학원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구식의 문학이론을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김현 그 자신의 문학론의 정립이 시도되고 있으

9 위의 책, 119쪽.

10 이 책의 부제가 ‘그 전개와 좌표’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1 김병익, 「김현과 ‘문지’—정리를 위한 사적인 회고」, 『문학과사회』 12, 문학과지성사, 1990, 1426~1427쪽.

12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사회』 50, 문학과지성사, 2005, 425쪽.

며, 책의 후반부는 그렇게 정립된 문학론에 비취 한국문학의 역사적 전개가 어떻게 그 구체적 면모를 드러내는지, 어떻게 ‘문학’이라는 개념이 한국이라는 시간적·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구현되고 실행되는지를 확인·규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김현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문학의 존재 양태, 문화적 역할 및 이데올로기와의 상관성 등을 서구문학론의 도입과 적용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는 점을 그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¹³

『한국문학의 위상』의 독특한 구성은 문학 개념의 재정립과 문학사를 둘러싼 당대적 과제를 수행하려는 복합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 책의 전후 짜임은 단절적 내용이 한데 묶인 성긴 집합체가 아니라 그 배경에서부터 정교하게 의도되어 중첩된 상호 지시적 구성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문학 일반의 문제, 한국문학의 특수성, 그리고 문학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김현의 도저(到底)한 사유를 집약하고 있다. 그러한 사유의 깊이와 넓이가 빚어내는 글쓰기의 논리적 간명함과 그것의 섬세한 표현력에 많은 독자들이 매혹되는 것일 터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 책의 전반부를 더 또렷이 기억한다. 그만큼 문학 담론으로서의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까닭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3 이는 그가 말한바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가 견지된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란 한국문학이 새롭게 세워야 할 이념형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김현이 “세계사적인 연관에서의 일반성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한국사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학계의 견해에 공감하며 성급히 새로운 이념형을 세우려하기보다 작금의 한국문학에 필요한 자세와 태도로서 제시한 방법이다. 이를 그가 인용한 문장을 변주하여 다시 표현하면, ‘세계문학과의 연관 속에서 문학 일반의 개념과 이론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실린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란 이를 가리킨다. 김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63쪽. (이하 김현 전집의 인용은 『전집』 숫자로 표기함)

3. ‘억압’의 총체화와 무용성의 설득력

김현 문학론의 핵심 명제이자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이다. 김현 스스로도 이 문장을 이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꼽는다. 이 구절이 ‘문학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한마디로 문학이 쓸모없기 때문에 한다’라는 과감한 선언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다. 이 ‘쓸모없음’은 문학의 자율성의 원인-결과이기도 한데, 김현의 설명에 따르면 문학은 정치와 권력, 사회적 이해관계, 실제적 효용성에서 분리되면 될수록 쓸데없는 것이 되고, 쓸데없는 것이 되면 될수록 자율적인 것이 되어 정치에 맞서는 위치에 서서 정치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장치가 된다. 그 결과 문학은 권력과 사회적 실리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것이 된다. 문학의 무용성과 문학의 자율성의 관계는 이처럼 일종의 원환(圓環) 구조를 이루는 상호 인과적 관계에 있다. 김현은 무용성과 자율성의 이러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그러므로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억압’이란 무엇인가? 김현의 비평에서 문학의 자율성과 무용성의 의미는 자주 질문되지만, 그가 말하는 억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질문된 바가 없다. 그 자신도 억압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매우 포괄적인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이 지녀야 할 구체성과 명료성에서 비껴있다. 물론 “억압된 욕망은 그것이 강력하게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¹⁴는 문장에서 유추되는바 억압은 인간의 욕망이 억눌리는 것을 통칭한다. 그런데 여타의 중요 개념을 되풀이 부연하는 것에 비해 억압은 지나칠 만큼 광의의 표현으로, 대강의 뜻으로 사용된다. 왜 그럴까?

14 김현, 앞의 책, 28쪽.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¹⁵라는 김현의 말은 쉽게 긍정된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왔을 때의 답답함을 생각한다면, 유용한 것들은 확실히 인간을 억압한다. 그러나 그 ‘답답함’이란 유용한 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 — 비록 그것이 편의의 자유일지언정 — 의 상실로 인해 유발된 것은 아닌가? 그 편의의 자유가 부여하는 다양한 행동과 실천의 가능성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아닌가? 유용한 것이 인간을 억압하고, 무용한 것이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反)유물론적 발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판도 충분히 제기됨 직하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그리고 필자 또한 이 말에 수긍한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글 전체의 맥락상 어떤 배경에서 대두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가 말한 문학의 무용성이 특수한 무용성임을 무의식중에 감지한다. 요컨대 그것은 아무 데도 쓸 데 없는 무가치함을 뜻하지 않는다. 김현의 말을 빌면, 문학의 무용성은 쾌락의 충족에 유용한 것이다. 그것은 쾌락에 복무한다. 우리의 쾌락에 복무하는 것이 어떻게 무용한 것일 수 있겠는가? 김현은 이를 다음과 같은 서술방식으로 설득한다.

어쩌다가 유년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국민학교 일학년 때의 내 짝이었던 고깃집 아이의 혈색 좋은 두툼한 얼굴이고, 그 얼굴에 겹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과 싸우다가 내가 머리를 거꾸로 하여 처박혔던, 내 집 앞의 개울이다. 그 개울이 끝이 남직한 저 먼 곳에서 춘원의 『무정』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얘기책만 읽고 있다는 꾸지람을 듣고 훌쩍거리는, 어께가

15 위의 책, 28쪽.

좁고 얼굴이 창백한 소년이 떠오른다. 국민학교 오학년 때의 일이다. 그때의 내 고향에는, 유식한 피난민들이, 할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벌여놓은 헌 책방들이 술하게 많이 있었고, 나는 깍뚝한 서울말을 쓰며,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이름도 계집애처럼 부용이라고 불리는 한 아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헌 책방의 소설책들을 거의 다 읽어냈다. 읽었다고는 하지만, 지루하고 무슨 소린지 잘 알 수가 없는 지문은 성큼성큼 뛰어넘고, 멋진 대화같이 느껴진 것만을 읽어가는 괴상한 독법으로 읽은 것이었다. 겨울밤에, 가슴에 베개를 괴고, 해남 물고구마를 늘어붙도록 찌가지고 먹어대며, 이형식에서 오유경에게로, 허송에서 임꺽정에게로, 그리고 오펠리아에서 파우스트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¹⁶

이 대목을 쓰려니까 갑자기 내 의식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음성으로 향한다. 겨울밤엔 고구마나 감, 그것이 아니면 하다못해 동치미라도 먹을거리로 내놓으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벨과 카인의 얘기를,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수절과부의 얘기를, 도적질하다가 벌을 받은 그녀의 친지 중의 한 사람 얘기를 어머니는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하신다. 그때에 내가 느낀 공포와 아픔, 고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아픔이나 고통 밑에 있는,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주는 쾌감을 내가 얼마나 즐겨했던가!¹⁷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은 『한국문학의 위상』을 인상적으로 만드는 연유 중 하나다. 특히 이 책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1장과 2장에서 위 인용문은 글 전체에 걸쳐 중요한 맥락을 형성한다. 둘 다 써 먹지 못하는 문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등장한다. 전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책 따위는 읽어 무엇하느냐는 어머니의 꾸지람 앞에 등장하고, 후자는 그러한 어머니의 꾸중 섞인

16 위의 책, 11~12쪽.

17 위의 책, 28~29쪽.

물음에 문학의 ‘쓸모없음’의 역설적 기능과 가치를 그 답으로 내놓은 뒤에 등장한다. 책읽기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담이 김현에게 문학 체험의 시초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유년의 기억이 문학의 체험과 결부되는 순간, 문학은 일종의 원초적 체험과 같은 것이 된다. 즉 유년의 자리가 문학이 존재하는 자리로 호출되면서 문학은 ‘어린 시절’이 상징하는 세계와 유비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유년기의 추억이 서술되면서 문학은 ‘억압 없는’ 세계, 즉 유년기로 대표되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세계로서 그 성격과 형태가 준비된다.¹⁸ 김현이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꺼내 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갑작스러운 것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억압 없는’ 세계의 시원으로 유년의 회상을 먼저 접하고, 그것이 문학의 세계로 이월되는 과정을 글의 전개에 맞춰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이다. 문학이라는 개념과 억압 없음의 의미가 상호연결되는 것에 우리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억압의 뜻을 따져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의 억압이란 어린 시절의 즐거움, 쾌락, 행복, 평온으로 대변되는 긍정성의 반대향, 그러한 반대향의 총체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억압은 원초적 행복의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부정성, 그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의 총체인 것이다.¹⁹ 그렇다면 억압이야말로

18 유년시절의 의미와 그것의 추억 회상이 갖는 특징에 대해 김현은 알베르 베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알베르 베갱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듯이 꿈과 유년시절은 그것이 아무리 악마적으로 나타날 때라도 그 순진 무구성을 잃지 않는다. 순진성은 내부의 빛으로 내부와 외부를 다 함께 꺼안은 데서 나온다. 아무리 무서운 이미지라도 거기에 순진성이 숨겨져 있으면, 아니 순진성이 자신을 빚처럼 방사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유년시절을 떠올리며 그에 대해 재현하거나 이미지화할 때, 그 속에 내재된 순진성의 정체가 우리 앞에 발하는 구원의 빛과 다르지 않다는 이러한 말은 유년 세계가 왜 ‘억압 없는’ 세계의 표상으로 상징될 수 있는지를 미루어 알려준다. 김현, 『김춘수의 유년시절 시』, 『전집』 4, 173쪽.

19 이러한 내용에 조응하듯, 김현은 유년시절의 문학적 형상에 내재된 순진성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치화한다. “순진함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 중 하나는 가짜 이름의 압력, 일상성 · 관습성이 사물에 부여한 가짜 이름의 무게를 직관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성 · 관습성이 사물에 부여한 가짜 이름의 무게’와 ‘압력’은 억압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글, 173쪽.

총체적이다.²⁰ 이러한 숨어 있는 내적 논리를 따라 유년 세계의 원초적 쾌락과 유비 관계를 이루는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의 총체성의 바깥에 자리한 것, 비록 그것이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쾌락의 향유에는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그 위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유년 세계의 행복에는 균열이 내재되어 있다. 모성적 안온함에 쌓인 이 세계는 필연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꾸지람’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윤리와 규범의 투입에 의해, 그리고 1학년에서 5학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아이들과의 싸움’으로 지칭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갈등과 다툼에 의해 쾌락의 중지를 경험한다. 정과리는 이러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의 기원(起源)을 김현의 고향 체험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김현이 문학의 역할을 ‘쾌감’과 ‘반성’으로 요약할 때, 그것이 각기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이라는 프로이트의 기본 원칙을 지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어린 시절의 회상에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적 작업 —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의 변환 양상 — 을 세밀하게 밝혀낸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정과리는 김현이 궁극적으로 사회성 자체도 쾌락을 줄 수 있는 것, 즉 사회적 윤리를 또 다른 쾌락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문학이 주는 즐거움에 반성적 사유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²¹ 그런데 이 같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유추를 가능케 한다. 만일 사회성 · 윤리와 규범 · 반성적 생각이 쾌락의 대상일 수 있다면, 그러한 쾌락의 억압은 여러 사회적 기구 및 제도의 분화를 통해, 그러한 분화의 메커니즘에

20 쾌락원칙은 현실원칙에 의해 규제되고, 현실원칙의 억제력은 쾌락원칙에 억압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프로이트가 말한바 문명의 질서이며, 문명의 세계를 유지시키는 본원적인 불편이다. 이러한 논리를 대전제로 삼아 현실원칙의 사회적 실현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실제적 변화 양상을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분석틀로 삼은 이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가인 마르쿠제이다. 김현의 ‘억압’에 대한 인식과 ‘억압 없는 문명’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이 마르쿠제의 수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김현의 비평에서 확인되는 마르쿠제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은 한래희,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참조.

21 정과리, 『김현 비평에 있어서의 고향의 문화사적 의미』, 『비평문학』 42, 한국비평문학회, 2011.

따라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인 것으로 작동하는 전체 체제로 대두된다.²² 김현이 말한바 억압은 무의식의 억압부터 의식과 정신의 억압, 감정의 억압, 사유와 실천의 억압, 그러한 억압을 시도하고 수행하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기구의 억제 체제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현이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억압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문명사회인 한, 그리고 이 문명사회가 현대화의 역사적 산물로서 각 분야의 분화 과정을 사회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는 한, 억압은 일부분이나 개별적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편재해 있는 총체적인 현실의 문제이다. 그것의 강제성은, 아도르노의 표현을 빌면, 불가피한 운명과 같다.²³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 사회에 의한 인간의 억압에서 우리는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다. 그렇기에 김현은 억압이란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화되어 작동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억압은 사회적 부정성의 총체, 그것을 실현하는 강제적 메커니즘의 발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적 맥락에 따라 억압은 『한국문학의 위상』 내에서 다

22 이 지점에서 김현의 억압에 대한 인식은 아도르노의 비판이론과 조우한다. 아도르노에게 사회란 그것이 발생한 이래로 강제적인 메커니즘의 총체, 즉 억압의 총체를 뜻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으로 하여금 외적 자연 및 자신의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요하는 자기보존의 원리는 문명이 타락의 역사를 걷게 하는 원인으로, 자기보존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는 필연적으로 억압의 메커니즘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억압적 체계와 그것의 폭력성은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방책을 쓰면 쓸수록 같은 정도로 증가한다. 문명사회의 이러한 총체적 억압체계는 현대사회의 경우 문화산업, 사물화, 이데올로기로 그 부정성을 현시한다. 김현이 『한국문학의 위상』의 3장과 4장에 걸쳐 문학이 사회의 억압체계 속으로 편입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소비사회 내에서 문화산업의 강화, 역승화로 표현되는 물신화 현상,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로의 (무)의식적 편승을 대표적 예로 꼽은 것은 억압의 총체적 체제로서의 사회라는 아도르노의 인식에 공명한 바가 크다. 아도르노의 사회 인식에 대해서는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지성사, 1993, 39~40·111~126쪽. 김현의 비평과 아도르노 미학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아도르노 미학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참조.

23 문병호, 위의 책, 40쪽.

양한 내포를 지닌 어휘로 사용된다. 그것은 쾌락의 금지에서부터 욕망의 억제, 의식의 통제, 공식문화의 압박, 이데올로기의 강제, 사회적 금기, 정치적 지배까지 함축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억압에 대해 문학이 ‘생각하게 한다’고 발화하는 순간, 문학은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억압의 현실에 대응하는 ‘다른 장치’의 위상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억압이 현실 세계에서 전체적이면 전체적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억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문학의 영역은 확대된다. 달리 말해 문학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억압의 크기와 정도에 문학의 자유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억압이 클수록 문학의 생각은 많아지고, 억압이 강할수록 문학의 생각은 솟아오른다. 억압의 총체성은 문학의 소재, 주제, 각종의 인물, 감각과 정서, 이야기의 범위, 이념과 지향 등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힌다. 억압과 관련해서라면 문학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총체적 억압은 문학의 욕망을 키운다.

이제 우리는 ‘써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문학의 그러한 무용성의 가치에 설득되었던 이유 중 하나를 알 수 있다. 문학이 여전히 좋은, 현대적 문학이고자 한다면, 그것의 쓸모없음은 문학의 가능성과 자유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총체적 억압의 반대상(像)을 꿈이 아닌 현실로서 제시하는 사회적인 것이 된다. 김현이 문학을 가리켜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꿈이 갖는 ‘불가능성과의 싸움’이라고 한 것도 ‘싸움’이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실재하는 현실로서의 문학, 그것의 사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회성이 정치성과 멀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현이 주장한 문학의 자율성이 문학의 정치성으로 자주 연결되는 것도 억압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문학의 사회성이,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그 자체의 욕망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적인 것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쓸모없음’은 문학의 가능성의 무한한 확대다. 그러니 그것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긍정적 가치로 인식된다.

4. ‘감동’이라는 윤리적 도약

‘쾌락’과 ‘반성’은 문학이 우리의 정신에 제공하는 두 가지 선물이다. 반성이 쾌락에 비겨 비록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말이다. 김현은 좋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 쾌락과 반성을 함께 체험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독서 체험의 근간에는 감각적 쾌락과 반성적 사유가 한데 결합되어 있다. 얼핏 생각해도 이질적인 이 모순적 체험이 문학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김현 문학론의 고유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래희의 지적처럼 쾌락과 반성의 연결은 논리적으로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쾌락이 감각의 영역이고 반성이 이성의 영역이라고 할 때 두 영역은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이고 조화의 관계라기보다는 불화의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²⁴ 쾌락과 반성은 의식 현상으로서 분명히 대립적이다. 하지만 이를 문제시한 한래희도 “이런 두 이질적 영역의 화해가 문학 감상자의 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문학적 체험의 가치”²⁵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쾌락과 반성 간의 결합 혹은 화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쾌락이 미의 체험이라면 반성은 숭고의 체험이다. 독서 과정에서 미적 체험은 숭고 체험으로 전환되고, 문학 감상자는 각성된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즉 “쾌락과 반성의 종합이라는 김현의 문학적 입장은 미적 영역의 보충물로 고통이라는 숭고의 계기를 필요로 한다.”²⁶ 쾌락과 반성이 미적 체험과 숭고 체험에 속한다는 한래희의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김현은 반성을 가리켜 강요되는 것,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칭하였고, “반성을 강요하는 고통스러운 재미”²⁷라는 역설적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반성이 쾌락

24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의 미와 숭고의 변증법」,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화회, 376쪽.

25 위의 글, 376쪽.

26 위의 글, 396쪽.

27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51쪽.

보다는 불쾌에 근접한 체험인 한 숭고 체험이 불러일으키는 불쾌의 감정과 고통스런 반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쾌락이 반성으로 전환될 때, 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적 체험에서 숭고 체험으로 변환될 때 그것은 필연적 과정인가 비약적 과정인가? 그것은 의지적인 것인가 무의지적인 것인가?²⁸

쾌락과 반성의 모순적 결합을 해명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앞서 살핀 정과리의 독법이다. 그는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 작업을 통해 김현에게는 쾌락원칙이 현실원칙에 대립되는 것으로 추구되지 않았고, 현실 원칙 및 그 원칙의 실제 양상들에 감각적 매력이 부여됨으로써 그것들이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라 문학이 주는 쾌락은 반성적 사유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²⁹ 한래회가 ‘쾌락→반성’으로서의 전환을 설명하고자 숭고 체험을 논리화한다면, 정과리는 ‘반성적 사유=쾌락’이라는 쾌락 자체의 형질변이를 두 요소가 통합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분석한다. 반성이 쾌락으로 어떻게 그 성질이 전환되는가가 정밀한 무의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과리의 설명은 보다 설득력이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무의식적 변환 작업이 ‘김현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 다수’에게도 해당되는지 것인지는 의문이다. 김현은 이러한 의식상의 전이가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일어나는 체험으로 설명한

28 한래회는 쾌락과 반성을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할 때,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의자를 미적 체험을 숭고 체험으로 고양시키는 동력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견해는 김현이 상상력의 힘을 긍정하고 신뢰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특히 상상력을 ‘상상하려는 의지’로 풀이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에 대한 의지와 동격으로 놓는다. 상상하려는 의지는 아름다움에 자극받고, 그렇게 자극된 상상력은 고통스런 현실을 아름답게 바꾸려는 자유의 의지를 키우므로, 미적 이미지와 현실의 고통은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적 결합의 형태로 현상된다. 독자가 문학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상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독자는 쾌락이 반성으로, 미적 체험이 숭고 체험으로, 불쾌가 자유의 쾌로 전환되는 체험을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상상력이라는 외부적 기제를 김현 비평문의 다른 맥락으로부터 추출하여 쾌락과 반성 사이에 삽입해야만 성립 가능하다. 한래회, 앞의 글, 391~396쪽.

29 정과리, 앞의 글, 399~401쪽.

다. 따라서 독자의 독서 체험 중 쾌락에서 반성으로의 의식의 전이는 어떻게 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현의 말을 다시 새겨 읽을 필요가 있다.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 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감각적 쾌락을 동반한다. 그 쾌락은 반성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파악에 이른다.³⁰ (강조는 인용자)

쾌락이라는 감각을 반성이라는 이성으로 옮기는 것, 이질적인 이 두 항목을 매개시켜 상승적 변이를 유도하고 동시에적으로 혹은 선차적으로 결합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감동’이다. 감동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심리적 반응’은 김현에 따르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문학이 우리에게 제공한 감각적 쾌락은 감동이라는 심리적 반응을 거쳐 반성적

30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28쪽.

사유에 이른다. 감동은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할뿐더러 이 직관적 파악 속에서 다른 인간의 기쁨, 슬픔, 고통 등을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며 종국에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케 하는 반성의 길로 이끈다. 감동은, 따라서, 쾌락과 반성을 통일시키는 매개물이다. 그것은 감각과 감정과 이성을 연결 짓고 통합시키는 심리적 거름못에 해당한다. 감동의 이러한 역할 작용에 의해 감각적 쾌가 고통을 동반하는 반성적 사유로 전환되는 상승과 고양의 실현된다. 물론 이 감동의 정체를 실증적으로 밝히거나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³¹ 하지만 문학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심정적 반응은 실재적이며 또한 현실적인 것이다. 주관적인 체험이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개별적 반응이지만, 감동은 문학작품의 독자와 관련하여 그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정서상의, 정신상의 변화이다. 그것은 비유컨대 한 개인의 심리적 정황에 큰 파고를 일으켜 그의 내면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변화이다. 사전적 풀이 그대로, 감동은 크게 느끼어 마음 전체가 움직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감동받은 독자에게 그것은 ‘하나의 사건’³²이다. 감동은 그것을 느끼는 독자에게 자신의 심적 상태에 매우 다른 것, 짐작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이질적인 것이 내면 깊이에 침범한 상태이며, 그것에 강하게 지배받는 특수한 경험이다. 그로 인해 감동은 여타의 감정과 달리 의식을 일깨운다.³³ 그것은 감동한 자를 각성의

31 조연정은 김현이 문학적 반응을 현실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감동’으로 지칭되는 ‘심리적 반응’을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는 김현이 지목한 감동에 대해서는 실증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 조연정, 『김현 비평에서 ‘이론적 실천’의 의미와 비평의 역할』,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338~339쪽.

32 김근호는 주체를 흔들고 새로운 주체를 생성하게 하는 데 작용하는 감정을 가리켜 ‘하나의 사건’이라 표현한다. 주체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감동은 확실히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근호, 『김현 비평에 나타난 감정 소통과 문학 향유의 정치성—소설비평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3, 한중인문학회, 2016, 9쪽.

33 감동이 초래하는 이러한 경험을 미적 체험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식 혹은 사유의 경향을 이끌고 추동한다는 점에서 감동은 숭고 체험에 속하기도 한다. 감동이 주체의 심리적 상태가 정상 수준을 초과하여 ‘크게’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체 내부에서 ‘숭고한 것’의 내적 율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감동이 미적 체험과 숭고 체험 사이의 것, 두 체험을

초입, 각성의 첫 단계로 이끈다. 그렇기에 김현은 감동을 의식과 결부지어 다 음과 같이 표현한다.

감동은 사르트르가 그의 『감동 이론 소묘』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대로 이해를 불가능케 하는 대상의 이해에 새로운 길을 뚫는 의식의 작용이다. (...중략...) 감 동은 대상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대상 이해에 새로운 길을 뚫는 의식의 작용이다. 그 감동은 텅 빈 의식을 올려 그의 모든 체험의 양으로, 체험의 기억·기대로 그 의식을 가득 채운다.³⁴

감동하는 의식은 대상을 크게 증폭하는 의식이며, 더 풍요롭게 느끼는 의식이 다. 감동하는 의식만이 대상을 깊게 그리고 넓게 느낄 수 있다.³⁵

위 인용문은 감동이 일깨워진 의식이자 대상을 깊고 넓게 감수하는 정신 의 능력임을 명확히 지시한다. 감동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선 어떤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형태로 인식 혹은 사유가 행하는 바를 수행한다. 감동의 이러한 힘을 ‘혼의 울림’으로 표현한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감동의 다른 표현인 ‘혼의 울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어구는 바슐라르가 ‘존재의 전환’이라고 정의한 ‘울림 (retentissement)’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김현의 비평세계에 바슐라르가 미친 영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현이 감동을 의식의 일환으로 격상시킨 데는 좋은 작품이 유도하는 체험을 놀라운 정신적 상승 체험으로 규정한 바슐라르 의 ‘울림’ 개념이 깊이 개재되어 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울림’은 “자신이 새

교집합의 상태로 잇는 것임을 의미한다.

34 김현, 『수사와 체험』, 『전집』 4, 131쪽.

35 김현, 『감동하는 의식의 관용적 역사주의』, 『전집』 7, 255쪽.

로 태어난 것 같은, 자신의 영혼이 쇠신된 것 같은 신선한 격양감”으로, “우리들 자신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³⁶ 심화된 의식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존재의 심화에 이르게 한다.”³⁷ ‘울림’의 이러한 존재론적 고양과 성찰성은 김현이 감동을 ‘자기 온 몸으로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것과 인접해 있다. 감동은 감정의 발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자극과 동요, 적극적인 감수(感受)를 요구한다. 우리가 감동을 자주 전율—전율은 몸의 반응이다—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단순히 내적 정서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동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존재 전체가 울리는 일이다. 감동을 둘러싼 이러한 시각은 막스 셸러가 ‘정신적 감정’이라고 지칭한 것을 연상시킨다. ‘혼의 울림’으로서의 감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법과 도덕, 아름다움과 종교 등 고귀한 가치를 파악케 하고 타자와의 진정한 공유를 가능케 하는 도덕적 감정—막스 셸러는 이를 공감능력(sympathy)이라 칭한다—³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볼 때, 김현이 의미한바 감동은 직관과 인접한 지각기능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과 내면에 형이상적 사고와 윤리적 성찰을 유도한다. 그것은 상호 대립하는 쾌락과 반성을 매개한다. 아니, 더 나아가 이성적 사유를 윤리적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감동은 감정의 교류와 나눔을 통한 타자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동감(empathy)의 형태로 현상되는 소통 능력이기 때문이다. 감동을 윤리적 도약의 계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감동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고 행동할 여지를 타진

36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33~34쪽.

37 위의 책, 34쪽.

38 막스 셸러,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과 형태』, 아카넷, 2006 참조.

하는 감성적 실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가치 지향적 특성을 지닌 정동(affect)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한 대상에 정동된다는 것이 단지 그 대상에 감각이 자극되거나 경험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 주변의 ‘모든 것’으로 향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것들, 그것의 도래할 조건들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 짓는 것³⁹을 뜻한다면, 김현이 뜻한 감동은 정동의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혹은 어떤 그림을 보고 혹은 어떤 좋은 문학작품을 읽고 그 음악과 미술과 문학이 나라는 신체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 혹은 변화하게 만드는 어떤 것, 그 변화와 이행 자체”가 정동이라면, 그렇기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존재능력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⁴⁰이라면, 김현이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을 때의 내적 변화(‘감동’)는 정동에 의한 ‘존재능력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정동의 이러한 수행성을 고려한다면, 감동은 현실 개입에의 행동을 예비하는 실천적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동은 성찰적 지성의 다른 이름이며, ‘감동하는 자가 사유하는 자’라고 말해도 좋다. 그리고 김현을 빌어 ‘감동하는 자야말로 주체적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 감각적 쾌락과 반성적 사유를 연결 짓는 정서적 · 인식적 · 윤리적 다리로 감동을 상징한 김현의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문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견해를 일깨운다.⁴¹

39 멜리사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외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63쪽.

40 조강석, 『시와 정동 혹은 감각의 역치값』, 『현대시』, 한국문연, 2020.2, 65~66쪽.

41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감동의 여부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좋은 문학’을 판별하는 근거가 된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감동을 준 작품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다. 이는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동이 감정의 동요를 넘어 윤리적 성찰로의 진입을 촉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문학이 쾌락과 반성을 동반

5. 나오며 — 독자라는 주체, 작가라는 주체

김근호는 김현의 비평이 지닌 특징을 논하면서 “문학 독자는 한 사람의 단 독자적 감정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⁴²고 말한 뒤 김현이야말로 독자 스스로 그러한 비평적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한 비평가라고 평한다. 문학은 문학을 읽는 자에게 감각적 쾌락을 느끼게 하고 반성을 강요하여 인간에 대한 총체적 파악과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의 싸움을 요구한다고 말했을 때, 김현의 이 단언은 확실히 독자를 향해 있다. 그는 쾌락과 반성과 싸움의 주체로 ‘문학을 읽는 자’, 즉 독자를 호명한다. 그는 독자로서의 한 개인이 주체가 될 것을 희망하며 『한국문학의 위상』을 쓰고 있다. 이 책의 글들은 독자의 주체화를 위해 바쳐진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작품을 읽는 자가 어떻게 문학을 통해 주체화를 이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김현 문학론의 핵심이지만, 독자가 한 사람의 감상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될 것을 당위로서 요청하는 것이 이 글들의 또 다른 목적이다. 독자의 주체화에 대한 요구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해명하고 납득시키는 작업은 김현에게 비평가가

하며, 반성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파악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예로 들면, 학생들은 쾌락, 심리적 반응, 반성, 총체적 파악 등의 의미를 단번에, 즉각적으로 깨닫는다. 현진건의 이 빼어난 단편을 읽었을 때의 ‘울림’을 대체로 다들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김현 또한 감동을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를 꺼리지 않았는데, 다음의 예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문화의 주변 국가에서 작업하고 있는 자의 심리적 콤플렉스가 슬며시 생기려고 하고 있을 때 받게 된 『죽음의 한 연구』는 한국문학이 박상룡을 잃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즐거움을 맨 먼저 전해주었다. (…중략…) 나는 그의 소설을 거의 일주일을 걸려서 정독했다. 그리고 완전히 감동했다. 그것이야말로, 내 좁은 안목으로는 70년대 초반에 써어진 가장 뛰어난 소설이었을 뿐 아니라, 『무정』 이후에 써어진 가장 좋은 소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글은 나의 감동의 소산이다. 작품 앞에서 감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비평가를 더욱 즐겁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김현, 『인신(人神)의 고뇌와 방황』, 『전집』 4, 201~202쪽.

42 김근호, 앞의 글, 24쪽.

말이야 시대적 임무와 역할의 하나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의 주체화, 한국문학의 주체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의 위상』의 1장과 2장이 독자의 주체화를 서술하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작가의 주체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후자의 글들에서 김현은 후기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예술작품의 물신화와 역승화 현상 — 소비사회에서의 예술의 자기소외 현상 — 그리고 문학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문학의 상품화 현상을 현대문학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현대의 작가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거듭해서 강조한다. “작가가 싸워야 하는 것은 작품을 물건화시키는 조건 자체”⁴³이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유포에 복무하는 공식문화로의 편입을 작가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 무엇보다 대중의 대중화 현상에 타협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작가에게 부여된 엄중한 과제로 제기한다. 그러면서 작가의 성실성(authenticité)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이 성실성이 어떻게 작품 속에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작가의 세계관 및 진리 현시의 심층적 과정 — 작품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대상과 맺는 전이성적 관계와 개인적 체험의 기초, 무의도적인 진실 내용의 표출과 그 구현 양상 — 을 분석함으로써 상세히 기술한다. 이는 그만큼 작가의 주체화가 작금의 문학이 직면한 문제를 타개할 중요한 방책으로 인식되었음을 방증한다. 독자의 주체화는 이러한 작가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근본 조건이자 문학 생산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⁴⁴ 그렇기에 비평가 김현은 작가의 주체화와 연동하여 독자의 주체화를 기도(企圖)하고 요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인식한 당대 한국문학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문학의 존재방식이자 그 가치로 정립한 문학의 자율성 및 무

43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48쪽.

44 좋은 작품과 작가를 식별하는 독자의 비평적 태도는 작가의 성실성을 키우는 중요한 토대이다. 작가는 독자의 취향과 기호와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예술 창작이 직면한 대중화 현상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좋은 독자는 좋은 작가를 키우는 기본 토양이라 할 수 있다.

용성의 훼손과 도태이다. 그가 판단하기엔 문학의 자율성과 무용성은 근대로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배태된 문화적 산물이다. 하지만 소비지향 사회로 나아가는 자본주의의 체제 내에서 문학의 그러한 현실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일지 김현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는 끊임없이 예술의 물신화와 상품화, 현대사회의 대중화 경향, 공식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등을 경계하고 비판한다. 비판의 강도가 셀수록 위기감의 정도는 크다. 문학예술이 놓인 현대적 제반 환경에 대한 고발은 그의 위기의식을 역으로 반증한다. 특히 문학의 ‘쓸모없음’이 문학의 자율성을 지탱하고 문학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담보하는, 문학의 존재형식의 근간인 한 이것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문학이 직면한 핵심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현은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성실한 작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작가’라는 작가의 주체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가와 그러한 작가가 쓴 작품을 향유하고 감별할 수 있는 독자의 주체화를 함께 요청한다. 이러한 요구와 요청은 자율성과 무용성이 김현에게 당대 문학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주체への 신뢰, 그러한 주체의 탄생이 문학을 통해 가능하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 창작이 현실적 힘을 발휘하리라는 예견은 김현이 데카르트적인 ‘계몽의 주체’에 거는 기대감을 잘 보여준다. 그가 『한국문학의 위상』을 쓰던 1970년대는 계몽의 가치가 낙후된 역사를 극복할 시대적 이념형으로 여전히 강하게 긍정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한국은 계몽주의 자체가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상징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다. 작가와 독자, 그리고 문학예술이 자율성과 무용성을 실현함으로써 반성적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비평가 김현 또한 자기 시대의 계몽적 질서 속에서 사유하고 고뇌한 또 하나의 문학적 주체였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계몽주의의

해체와 주체의 죽음은, 그리고 문학의 종언은 지난 세기 말을 지배한 가장 강력한 문화 담론이자 이데올로기였다. 그 속에서 현대문학의 존재 형태로 여겨진 문학적 가치들은 자기 존재의 논리를 재구성해야 할 만큼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에 휩싸였다.⁴⁵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비평문학은 김현이 그의 문학론의 제1테제로 정립한 문학의 무용성과 자율성을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담론으로 호출하였다. 그 속에서 문학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되물어졌고 재검토되었다. 그러나 그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 부정적 진단은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45년 전 비평가 김현을 우리는 낡은 계몽주의자로 치부해야 할 것인가? “그의 문학론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담론들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가 뜻한바 반성과 성찰이 곧 ‘계몽’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현의 문학론은 이성적 힘뿐만 아니라 감정과 심리적 반응, 감동과 울림, 무의식과 욕망의 움직임을 동시에 가치화한다. 반성은 이성적 사유 외의 기제들을 통해, 그것들에 의지하여 작동한다. 이것은 주체의 의미가 근대적 주체의 개념을 넘어 그 내포가 확장·포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쾌락과 반성이 통일된 주체의 현존을 말하는 순간, 김현의 ‘문학-주체’는 모순적 존재성을 거부하지 않는 다성적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가 말하는 문학적 성찰이 탈계몽, 탈근대의 계기를 이미 내재하고 있음을 생각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실한 작가의 진정성과 비평가-독자의 진지한 성찰은 문학이 오락이나 물품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한, 가치 있는 예술의 지위를 누리하고자 하는 한, 그 자신에 내재된 문화적 사회적 가능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전제되어

⁴⁵ 2000년대 초반 발표된 이광호의 『문학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오늘의 문화 상황과 문학의 논리』(『문학과사회』 51, 문학과지성사, 2000)는 김현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요 맥락에 두고 김현이 던진 질문의 능동 형식(‘하다’)을 수동형식(‘되다’)으로 바꾸어 문학예술의 변화된 내적·외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대표적 글이다.

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이다. 또한 문학의 자유가 무용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데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이념형과 가치로서 재전유될 때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김현의 문학론은 때마다 새겨야 할 정전(正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여전히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읽는다. 그의 문학론은 문학의 문제를 둘러싼, 현재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이자 질문들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문학과 유토피아—김현문학전집』 4,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김현문학전집』 7,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96.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 논문

- 김근호, 「김현 비평에 나타난 감정 소통과 문학 향유의 정치성—소설비평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3, 한중인문학회, 2016.
김병익, 「김현과 ‘문자’—정리를 위한 사적인 회고」, 『문학과사회』 12, 문학과지성사, 1990.
이광호, 「문학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오늘의 문화 상황과 문학의 논리」, 『문학과사회』 51, 문학과지성사, 2000.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사회』 50,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김현 비평에 있어서의 고향의 문화사적 의미」, 『비평문학』 42, 한국비평문학회, 2011.
조강석, 「시와 정동 혹은 감각의 역치값」, 『현대시』, 한국문연, 2020.
조연정, 「김현 비평에서 ‘이론적 실천’의 의미와 비평의 역할」,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한래희, 「김현 비평에서의 미와 숭고의 변증법」,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_____, 「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아도르노 미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_____, 「김현의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황현산, 「문학비평가 김현—4·19, 프랑스문학, 김현」, 『프랑스학회 학술대회 발표집—프랑스 현대비평의 현재와 미래』, 프랑스학회, 2013.

3. 단행본

-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지성사, 1993.
정과리, 『문신공방』, 역락, 2005.
막스 쉐러,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과 형태』, 아카넷, 2006.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외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A Study on the Present Meaning of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Kang, Gye-sook |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gnificance of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a representative work written by Kim Hyun. The writings in this book clearly reveal his critical view of literature. In this book, which answers the question of what literature can do, he develops his own theory of literature and explains the autonomy and uselessness of literature as a unique form of existence and a function of literature. The core proposition of his theory of literature is : 'Literature does not oppress. But it makes us think about oppression.' It is noteworthy that his thoughts on literature is based on his perception of oppression. For him, oppression means the whole of negatives as opposed to primary happiness. According to his point of view, oppression is not a partial function of the fragmented social system, but a whole system of society that operates as a compulsory mechanism.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more literature think about oppression,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literature will be free. Literature can say anything about oppression.

Another characteristic of Kim Hyun's theory of literature is that he emphasizes that when we read a literary work, we experience a combination of sensual pleasure and reflective reasons. He says the combination of pleasure and reflection is made through deep impression. To be deeply impressed is a special experience in which one's inner self is strongly dominated by something different from oneself. Unlike other emotions, it awakens the self. Kim Hyun makes it clear that being deeply moved is an awakening consciousness, and that it is a mental ability to recognize objects in depth. In his view, a deeply impressed person is self-reliant. Meanwhile, his theory of literature clearly reveals its characteristics in the part of describing the self-reliance of the reader and the self-reliance of the author. Recognizing that the later capitalist system threatened the autonomy and uselessness of literature, he strongly criticizes this phenomenon. And he thinks that the way to overcome these problems depends on a sincere writer and a critical reader. He says that readers are those who think and judge about suppressing themselves, and writers are those who fight the conditions of society

that commercialize literature. His thoughts make us realize again what unswerving purpose literature should pursue in spite of the changing times.

Key words : Kim Hyun, theory of literature,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a function of literature, autonomy, uselessness, oppression, sensual pleasure, reflective reasons, deep impression, the self-reliance of the reader, the self-reliance of the author.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 연구

1971~1977년의 저작을 중심으로

신동재*

1. 서론
2.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예비 작업—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학 꿈꾸기
3.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고고학적 탐색—인식론적 방해물과 굴절
4.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한국문학사의 독자적 이론 구축—전통의 단절과 감싸기
5. 이념형 구체화의 결론—‘억압하지 않음’
6. 결론 및 의의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한국문학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71년부터 『한국문학의 위상』을 상재한 77년까지를 김현이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한 한 시기로 명명하고 그의 문제의식과 작업 과정을 밝힌다. 이 시기 그는 단지 사변적 문제의식의 수준을 넘어 한국문학사의 작품, 사건을 고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원리화’하려고 시도한다.

김현은 순수, 참여의 극단화된 이념형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구하면서 한국이 지닌 최난의 역경 경험을 문학적으로 승화함으로써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꿈꾼다.

그는 한국문학사의 작품, 사건을 그 대상으로 삼으며 이념형 탐색 작업을 『한국문학사』에서 본격화한다. 이 저작에서 김현은 새것이 옛것을 인식론적 방해물로 간

* 연세대 국문과 박사과정.

주하고 단절되면서 폭넓게 감싼다는 바슐라르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의 수정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바슐라르 이론을 전면적으로 한국문학사 저술에 적용하는 것을 보류한다. 대신 그는 문학사의 전개를 ‘굴절’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문학의 영향이 비선조적으로 전개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프랑스 유학을 거치며 김현의 바슐라르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는데, 김현은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 이론을 한국문학사 전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체계화시킨다.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서 김현은 한국문학사 전체를 단절과 감싸기 원리로 설명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조가 교체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한국문학사가 오류를 교정하면서 풍요로운 경험과 인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역사관을 내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김현은 『한국문학사』 저술과 바슐라르 연구를 종합하며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보편적 물음에 도달하고 그 대답으로 ‘문학이란 억압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그 의미는 다층적인 것으로서 함석헌식 고난, 4·19라는 정치적 자유, 브르통과 니체가 말한 자유, 바슐라르의 연구에서의 ‘억압이 없는 순수 상상력’의 의미가 모두 융해된 것이었다. 이 명제에는 시대적 억압의 의미가 함의돼 있는데 유신 시대에 문학이 감당할 역할을 ‘억압하지 않음’으로 정의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굴절, 단절과 감싸기, 한국문학의 위상, 억압하지 않음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문학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71년¹부터 『한국문학의 위상』을 저술을 시작, 상제한 75²~77년³까지를 김현이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한 한 시기로 명명하고 그의 문제의식과 작업 내용을 밝힌다. 우선 이 연구에서 기술된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이하 이념형 구체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주 대상으로 삼는 저작들이 왜 71년 이후의 저작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에 대한 사유는 이미 71년 이전에도 진행됐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전 시기는 ‘예비 작업’의 시기라고 명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본격화된 시기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왜냐하면 이 시기 사유에서는 60년대 후반에 진행되던 순수, 참여 등 정치화되지 못한 기존 이념형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수준을 형성, 발전하는 중이었으며, 심지어 한국문학사의 사례들을 들어 논증하였음에도 그것을 하나의 명확한 규칙들로 원리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대적으로 비(非)구체화된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71년부터 김현이 김윤식과 더불어 한국의 근대문학사를 구상, 저술한 것은 그것이 단지 문제의식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문학작품, 사건 속에서 실제적으로 논증, 육화되어 그것을 몇 개의 명제들로서 선명하게 원리화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그것과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문학의 이념형의 구체화 작업’이란 그것이 김현에게 한국문학의 실제적 작품과 역사를 통해 사유됨으로써 ‘원리화’, 다시 말해 ‘구체적 원리화’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

1 『김현 전집』 1~16권(문학과지성사, 1991~1993)에서 인용할 경우 이하 ‘글 제목’, 『전집』 권호, 면수로 표기한다. 홍정선, 「연보-‘뜨거운 상자’의 생애」, 『전집』 16, 447쪽.

2 위의 글, 452쪽.

3 위의 글, 454쪽.

으로 삼는다.⁴ 원리화 작업을 위해 김현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은 그 사유의 원천을 가스통 바슐라르 등의 서양 사상에서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 행해졌던 이식의 방법이 아닌, 한국문학의 실제적 사건과 사유 속에서 구체화되며, 그 결과 일반 문학에 대한 사유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 사유는 김현의 저작『한국문학의 위상』에서 종합되어 그 결론을 보여주므로 이 연구는 1977년을 한국문학의 이념형의 구체화의 마지막 시기도 간주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 시기를 크게 네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자 했으며, 이 시기별 특징에 따라 논문 전체의 체계를 잡고,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문제 제기 역시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김현의 이념형 구체화 시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⁵

① 예비 단계 이념형 구체화의 예비 작업(1967~1971)

60년대 후반 순수, 참여로 극단화된 이념형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구하고, 한국이 지나는 최난의 역경 경험을 문학적으로 승화함으로써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한국문학의 이념형에 대한 청사진 그리기 및 꿈꾸기.

② 본격화 단계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고고학적 탐색(1971~1973)

4 이 연구에서 ‘원리화’ 또는 ‘구체적 원리화’란 어떤 문학작품을 내용 그 이상의 하나의 이론 차원으로 정식화(定式化)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현은 ‘원리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지만, 문학을 이론적, 형이상학적 차원으로까지 구체화하려는 구상을 확고히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한국문학은 문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이다”라는 명제로 제시한 바 있다.(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42쪽 참조)

5 본 연구에서는 위 시기 구분에 따른 대표 저작들을 아래와 같이 한정했다. 이외에도 위 시기에 해당되는 저작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아래의 저작들이 유독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논의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한국문학의 위상』 6장의 경우 작성된 시기는 결론 단계에 속하지만, 그 생각이 첨예화·구체화된 것은 독자화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③단계에 포함시켰다.

① 예비 단계—『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② 본격화 단계—『한국문학사』, 『사회와 윤리』 1장

③ 독자화 단계—『행복의 시학』, 『한국문학의 위상』 6장

④ 결론 단계—『한국문학의 위상』

『새로운 과학 정신』의 논의를 원용하여 전통을 인식론적 방해물로 이해하는 관점을 채택, 『한국문학사』에서 극복, 굴절의 관점을 주창하고, 그것을 실제 한국 근대문학사의 사례로써 논증하기.

③ 독자화 단계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한국문학사의 독자적 이론 구축(1974~1975)

프랑스 유학 기간 바슐라르 이론을 심층적으로 탐구 및 파악, 단절과 감싸기를 한국문학 통사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독창적으로 체계화하기.

④ 결론 단계 이념형 구체화의 결론 도출(1975~1977)

한국문학사라는 고유성의 탐구, 바슐라르라는 보편성의 탐구를 종합해, 70년대 자본화, 유신 시기의 시대상을 ‘극복’하는,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문학이라는 보편성의 차원에 도달시켜 문학의 역할을 ‘억압하지 않음’으로 정식화하기.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 본 연구는 명료하게 ‘이념형 구체화 작업’의 시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②~④단계만을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그것이 확장된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만 ‘구체화 작업’ 시기에 그것이 시작되기 직전의 예비 단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에서는 ②~④시기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지만, ①의 예비 단계 역시 2절에서 논의한다

이 연구는 ①~④의 시기 구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김현 연구에서 한국문학의 이념형과 관련해 기존에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네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문학의 이념형 형성 또는 설정에 대한 논의⁶가 있었으나 70년대 김현 저작 간 관계를 규명하고 그것을 한국문학 이념형의 구체화 작업과 연관시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고 보았다. 둘째, 김현이 바슐라르를 어떻

6 이승은, 「김현의 독서와 비평적 실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1; 정은경, 「필연적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문학사」, 『김현 신화 다시 읽기』, 이룸, 2008; 한보성, 「김현 ‘문학주의’와 한국문학사 서술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게 수용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원용했는지를 다룬 연구⁷는 많았으나 바솔라르 이론이 김현의 한국문학사 기술에 어떤 방식으로 전화(轉化)됐는지, 그중에서도 인식론적 방해물 개념이 어떻게 원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였다. 셋째 김현의 『한국문학사』 및 역사의식에 대한 논의⁸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반면 그가 단절과 감싸기 원리로 한국문학사 전체를 고구한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넷째 『한국문학의 위상』의 핵심 주제인 ‘억압하지 않음’ 논의가⁹ 바솔라르 연구와 한국문학사 연구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논의된 바가 많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기된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김현에게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어떠한 성격의 작업이었으며 실제로 김현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통어했는지를 밝힌다. 그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 성과를 이념형 구체화 작업을 했는지 일별하고, 그가 수행한 작업 간의 내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둘째, 김현이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의 밑자리로서 바솔라르의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원용했는지를 밝힌다. 특히 바솔라르의 이론이 『한국문학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김현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만의 문학사 이론을 구축하는지

7 박연희, 「김현과 바솔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한래희, 「현대문학—김현 중·후기 비평에 나타난 비평 전략의 변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8 조영실, 「김현 문학비평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1; 양정현, 「최인훈과 김현 문학담론의 상호형성 연구—문학적 참여의 시간논리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20.

9 박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7; 조영실, 위의 글; 한래희, 「김현 비평 연구—독서 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10; 한래희,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한래희, 「일반논문—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아도르노 미학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황영범, 「김현 문학비평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3.

알아본다.

셋째, 김현의 『한국문학사』 저술이 어떤 의도로 실현되었는지, 전(前) 세대 문학사가 취한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핀다. 그리고 김현이 한국문학 통사를 단절과 감싸기 관점으로 묘사하였던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서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넷째, 왜 김현이 『한국문학사』 저술, 프랑스에서의 바슐라르 연구의 후속 저작으로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쓰게 되었으며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문학사』 저술과 바슐라르 연구가 어떤 양상으로 종합되어 궁극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총체적 물음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확장되게 되었는지 그 이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상의 연구 문제들을 종합하여 김현이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한 과정의 대략적인 전모와 내적 논리를 밝힌다. 무엇보다 ①에서 ④까지 이념형 구체화의 작업이 수행된 71~77년에 이르는 시기는 김현 비평의 요체를 이루는 시기인 만큼 그 전모를 밝힘으로써 김현 비평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학이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탐구해 그것이 갖는 의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예비 작업

— 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학 꿈꾸기

(1) 한국문학 역시 보편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 이념형 구체화에 대한 꿈

김현에게 이념형이라는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 무렵으로 생각된다. 67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에서 김현은 이념형 대신 사실형, 양식화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그는 좋은 문학의 조건을 성찰하면서

우수한 작품일수록 양식화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하며¹⁰ 이 논의가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는 데서 시작됐음을 은연중 밝힌다. 70년 『한국문학의 가능성』에서는 ‘이념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이전 시기와는 묘한 차이점 역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부터 김현은 본격적으로 그것을 사변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 한국문학 작품들 속에서 사유하며 그것의 내적 규칙들을 사유한다.

그가 이념형에 대한 사유를 한국문학의 실제 작품들로써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개개 작품에 드러나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이 과연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시 한국문학은 제3세계의 후발 문학일 수밖에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영문학, 불문학 등 자신들의 문학사에서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며 스스로 구축해온 세계적인 문학에 비하면 한국문학은 특수성의 차원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 머물 뿐 보편성의 차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또는 도달하기 어려운 문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한국문학 내에서 이른바 “오류 찾아내기”식으로 한국문학 작품들을 성토했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한국문학은 서구의 잣대에 의해 비판·성토했는 신세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한국문학은 그 비참함을 당연한 현상으로 견디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김현은 이런 성토가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한없이 특수성으로만 몰아놓으며, 그것이 보편성으로 접근할 길을 차단한다고 본다.

그는 한국문학 그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단지 ‘오류’의 차원이 아닌 감싸질 수 있는 ‘인식론적 방해물’로 간주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보편성 차원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인식한다. 가령

10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전집』 2, 15쪽.

염상섭의 특수성을 발자크의 보편성에 비추어 성토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¹¹ 오히려 이념형의 구체화란 한국문학의 그 특수성이 어떻게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구하는데 힘이 집약돼야 가능하다. 그는 한국문학이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문학사의 사례들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가령 『찬기파랑가』와 같은 작품은 “무가를 고도의 개인의식으로” “극복”¹²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고도의 정신 세계라는 보편성 차원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김현은 한국문학이 보편성의 영역에 가닿는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모순과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주어”¹³지는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육화”¹⁴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철저히 사회 내부의 모순, 다시 말해 특수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써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의 그 출발점이 내부에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은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과 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 차원의 문학, 다시 말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정신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된다. 전대의 이식론자들은 그것을 선진적 서구문학을 이식하는 것에서 시도하려 했지만 김현은 그 구체화의 출발을 외국문학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¹⁵에서 포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그는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계제 역시 이식받아 성토했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문화의 중심”,¹⁶ 즉 보편성이 무엇인지, 착근된 고유성은 무엇인지를 고구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부의 모순 극복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우리는 김현이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예비 작업에

11 김현, 『염상섭과 발자크』, 『전집』 2, 194쪽

12 김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전집』 2, 65쪽

13 김현, 『최인훈에 대한 네 개의 산문』, 『전집』 2, 346쪽

14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사회』 13-2, 문학과지성사, 2000, 426쪽.

15 김현, 『토속성과 세계성』, 『전집』 13, 435쪽.

16 김현, 『우리는 왜 여기서 문학을 하는가』, 『전집』 1, 186쪽.

서 세 가지를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한국문학사를 살펴볼 때 한국문학은 보편성의 차원을 구현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성은 보편성에 의해 소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둘은 함께 구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
- ② 한국문학 이념형의 구체화 작업은 서구의 이론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문학이 어떻게 스스로의 내부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보편성 차원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 ③ 그러므로 이념형의 구체화 작업이란 한국문학이 특수성을 치열하게 고구함으로써 그 보편성 차원을 고유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돼야 한다.

(2) 주변 문학에서 벗어나기—상처(역경)의 고유성과 보편성

당시 한국문학은 보편성과 고유성, 이 두 가지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압력을 받는 주체 역시 둘로 분열돼 있었다.¹⁷ “서구문화의 밀려옴과 동양문화의 저 쓸쓸한 퇴락 사이에서” “저것도 이것도 아닌, 그러면서 저것이면서 동시에 이것인”¹⁸ 분열상을 겪고 있었는데, 김현은 이 모순 자체를 대좌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친다. 그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문학이 보편성과 고유성 두 가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제3세계 출신의 프랑스 작가 에메 세제르(Aime Cesaire)를 드는데, 아프리카의 독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그 대답 자체가 지극히 보편적”¹⁹이어서 한

17 김현, 「공업 기술 사회와 후진국 문학—알베레스와의 대담」, 『전집』 12, 460~461쪽.

18 정과리, 「다른 육체로 부활할—김현 문학 전집에 대하여」, 『문신공방 하나』, 역락, 2005, 204쪽.

국문학이 방법론적으로 참고할 전범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것이 고유성을 지닌 ‘동시에’ 보편성 역시 지녔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김현은 보편성과 고유성이 별개로 존재하다가 통합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학 진술이 이미 특수한 것이면서 보편적인 것을 이념형으로 사유한다. “주변국의 특수성”, 즉 내부의 모순을 극복한 그 특수성이 “보편성 자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김현의 말은 이런 생각을 함축해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김현은 문학이 한 민족이 갖는 “내밀한 아픔”을 확인하는 “열린 상처”와 같다고 부연한다. 내밀한 아픔이란 그 민족만이 말할 수 있는 고유한 무엇이면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열린 존재인 것이다.

이하에서 다루게 될 김현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의 일환인, 바슐라르 연구, 한국문학사 연구 역시 “열린 상처”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현에게 바슐라르 연구는 보편성에 중점을 두되 한국문학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한국문학사 연구는 고유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방점을 두되 동시에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라는 세계 문학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성과 보편성 모두를 드러내는 이념형이라는 김현의 꿈은 실제로 확고한 그의 신념에 기초한다. 그의 이 신념은 『한국문학사』에서 “한국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명제화되기에 이른다. 그는 한국문학에 대한 이런 사유가 “단순한 희망”이 아닌 “상당한 가능성을 지닌 희망”으로 힘주어 말한다.¹⁹ 그는 그 희망의 근거 역시 상당히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에메 세제르의 경우처럼, 김현은 한국이 제국주의의 이득만 체험하고 피해를 체험하지 못한 유럽과 달리 “최난의 역경”을 갖고 있으며, 그 특수성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 “최상 명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명당(上明堂)”²¹의

19 김현, 「공업 기술 사회와 후진국 문학—알베레스와의 대담」, 『전집』 12, 461쪽.

20 김현, 「한국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전집』 1, 96쪽.

의식, 저력 역시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김현은 한국문학에서는 이 최난의 역경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다시 말해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명작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가 이야기한 ‘열린 상처’, 즉 고유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는 가능성을 지닌 한국의 최난의 역경, 그리고 상명당 의식은 이후 바슐라르에게서는 인식론적 방해물 논의로,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에서는 고통, 억압의 자리로 변용되며, 이후 그의 작업은 그 내부 모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그로써 어떻게 한국문학은 보편성 역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새로운 의미 땅”²²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3.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고고학적 탐색 — 인식론적 방해물과 굴절

(1) 인식론적 방해물로서의 전통

김현의 한국문학사 연구는 한국문학이 보편적 차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꿈을 실제 역사 속에서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즉 그동안의 한국 근대문학사가 고유성과 보편성을 어떤 양상을 보여주었는지 또는 보여주지 못했는지를 그는 실제 작품과 사건들 속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다만 문제는 단지 사건을 살펴보는 수준에서는 그 양상을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전개를 설명할 수 있는 사유를 ‘원리화’하는 것이었는데, 『한국문학사』 1장에는 “문학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태이다”로 시작되는 여러 명제들이 비로소 ‘원리화’된다.

21 위의 글, 97쪽.

22 김현, 『한국문학사 시대 구분론』, 『전집』 1, 23쪽.

김현은 원리화된 명제들 중에서 “문학사가 굴절된다”는 주장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의 방법들을 가스통 바슐라르의 『새로운 과학 정신』에서 가져오고 있다. 특히 그는 문학사 저술과 관련하여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방해물 개념에 주목한다. 바슐라르 이론에서 인식론적 방해물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에 접근하기 위한²³ 정신분석의 도구였으며 기존 오류로 점철된 인식과 단절하고 객관적 인식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²⁴ 이 개념은 바슐라르의 단절과 감싸기 이론에서도 사용되는데, 새것은 과거의 것을 인식론적 방해물로 간주하고 그것을 감싼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김현은 『한국문학사』를 저술하던 무렵에도 인식론적 방해물, 『새로운 과학 정신』의 논의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1장에서 원용한다. 1장에서는 문학사, 과학사 전개에 차이가 논구되는데 뉴턴 물리학,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인슈타인 물리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해 수정·극복된다는 『새로운 과학 정신』의 한 대목이 인용되고 있다.²⁵ 필경 이 대목은 김현이 집필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는 문학사의 경우 과학사와 달리 “수정·극복”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수정·극복이란 『새로운 과학 정신』에서, 새것이 옛것을 인식론적 방해물로 여기고 감싼다는 것, 즉 ‘감싸기’와 대응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감싸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굳이 ‘수정·극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그 의미도 상당히 다르게 기술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현은 문학사에 동원된 상상력이 과학사의 그것과 달리 수정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차이로 과학사의 감싸기를 문학사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학사에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이론적 보

23 김윤채·박지완, 『바슐라르의 ‘단절’ 개념에 대한 세 물음과 그 해명』, 『철학탐구』 27,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0, 109쪽.

24 김현, 『바슐라르의 문학비평』, 『전집』 8, 196쪽.

25 김윤식·김현, 앞의 책, 16쪽.

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 작업을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서 구현한다.

(2) 왜 ‘감싸기’를 보류하고 ‘굴절’이라는 용어를 썼는가?

이식론에서 새로 유입된 서구문학 이론은 한국 전통을 자신에 비해 덜 진보된 것으로 자신의 이론 틀로 제거해야 하는 ‘오류’로 간주한다. 이 관점은 고유성, 보편성을 어떤 관계로 설정할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전통 단절론과 민족문학론이라는 양극단의 대립을 야기시킨다. 이 문제에 대해 김윤식, 김현은 문화 간의 영향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했으며 “굴절” 개념은 이런 의도에서 사용된다.²⁶ 이 개념은 위에서 보았듯 새것이 옛 것(인식론적 방해물)을 만나는 순간 비선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고 토인비식으로 말해 새것과 옛것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도전과 응전’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⁷ 그것은 빛과 같아, 문화를 받아들이는 물체, 또는 토양의 성질에 따라 굴절된다고 얘기된다. 이 논의에서 초점은 유입되는 외부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적인 토양이다. 그래서 외국문학이 종래의 한국문학 전통을 일종의 오류 덩어리로 간주하고, 그것을 진보된 것으로 대체하려는 관점은 거부된다.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서구문학의 영향이 “받아들이는 물체”에 따라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살피고 굴절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찾아 그 요인이 한국이라는 토양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²⁸ 문학사의 전개를 굴절로 바라본 것은 비록 그 내용 자체는 이론적으로

26 위의 책, 30쪽.

27 정과리, 「문학사가로서의 김현」, 『현대비평』 2, 2020. 봄, 164쪽.

28 김윤식·김현, 앞의 책, 30쪽.

매우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이후 김현의 감싸기 논의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생각해볼 부분은 『한국문학사』에서 두 사람이 동의했던 굴절이라는 관점이 이후에는 분기되어 김현에게서만 단절과 감싸기라는 이론으로 발전됐느냐는 점이다. 위에서 김현이 바슐라르의 감싸기 논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문학사』에서는 그것이 문학사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노정을 밟으며 감싸기 이론으로 향했을까? 사실 당시 연구자들 사이에서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단절 논의는 문학사 전개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된 것 같다. 프랑스 유학 중 김현이 망수이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당시 인식을 볼 수 있다. 김현은 망수이에게 바슐라르의 이론을 문학사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데 망수이는 “대변에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그 까닭에 대해 망수이는 “역사를 비선조적으로는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⁹ 이런 당시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김현은 감싸기를 문학사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망수이가 말한 대답에 비추어 생각해볼 때 김현은 적어도 문학사의 경우 비선조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든가, 아니면 비선조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좋다고 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김윤식, 김현 모두 문학사의 “굴절”에 동의한 것에 알 수 있듯 이미 그들은 적어도 문학사에서 문학의 영향이 비선조적인 것으로 기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김현의 경우 이 사유를 바슐라르의 이론을 경유하여 독창적 이론으로 발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그는 인식론적 방해물의 막아섬, 그로 인한 뚜렷한 단절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김현에게 인식론적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이란 단지 이

29 김현, 『인간의 고향을 찾아서』, 『전집』 13, 107~108쪽.

전과 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기저를 파고들어 선행, 후속 이론이 일반과 특수 관계로 “새로운 종합”³⁰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김현의 사유는 프랑스 유학을 거치며 정치해지며 『한국문학사』의 논의를 보완하는 후속 저작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4.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한국문학사의 독자적 이론 구축

—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

(1)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 이론의 등장 배경

김현은 인식론적 방해물 개념을 원용하며 한국문학사의 전개 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것은 이미 2절에서 언급했듯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의 모순에서 탐색해야 한다는 생각의 발로였다. 김현이 본격 한국문학사 이론을 전개하던 1970년대 초는 사회적으로도 한국인의 주체성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활발한 시기였고³¹ 1967년 순수, 참여 논쟁, 1969년 세대 논쟁 등 “경직된”³² 논쟁들로 주요 문제의식들이 촉발된 때였다. 순수, 참여 논쟁은 “서로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이념형”³³에 대한 의문을 일으켜 김현에게 고고학적 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으며 1969년에 격렬하게 전개됐던 세대 논쟁³⁴은 전(前) 시기 문학과 후(後) 시기 문학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게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대 논쟁에서 전통의 단절 문

30 이지훈, 「가슴뚫는 바울라르—열린 합리주의를 위한 인식론」, 『현대 프랑스 철학사』, 창비, 2015, 60쪽.

31 정과리, 「가슴이 답답할 때—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 『문신공방 하나』, 역락, 2005, 198쪽.

32 정과리, 「스펙트럼을 마주하기란—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 위의 책, 208쪽.

33 김현, 『한국문학의 가능성』, 『전집』 2, 63쪽.

34 홍문표, 「10. 1960년대 전통의 추구와 참여문학 논쟁 (3) 신세대와 소시민문학 논쟁」, 『한국 현대 문학 논쟁사』, 창조문학사, 2018.

제가 다뤄졌다는 것이다.³⁵ 즉 60년대 작가와 50년대 작가들의 구별되는 특징을 찾는 논의는 이전 세대(전통)에서 다음 세대(전통)로 어떤 존재 변이를 겪으며 이행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킨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현은 심리적 패배주의와 정신의 사머니즘이 팽배하며 심지어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마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³⁶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집약되는데,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방법론은 한국문학사와 관련된 어떤 지식 획득이 아니라 “지식의 가능성 조건”³⁷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김현은 한국문학사의 내용 그 자체를 규명하려고 하기보다 그 담론적 지식이 형성된 “특정한 내적 규칙”³⁸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고고학적 태도를 통해 찾아낸 “특정한 내적 규칙”은 무엇이 있었을까? 주목할 것은 김현의 바슐라르 연구가 획기적으로 진척되었던 유학 시기, 김현의 한국문학사에 대한 방법론 역시 획기적으로 선명해졌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수학한 1974년 10월부터 1975년 5월까지³⁹ 그는 바슐라르의 “거의 모든”⁴⁰ 글과 논문들을 섭렵함으로써 자료의 빈곤⁴¹을 해결하고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축에 필요한 결정적 영감과 자양분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유학을 기점으로 이전, 이후에 쓰인 그의 한국문학 역사에 대한 두 저술, 즉 『한국문학사』와 『한국문학의 위상』 6장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문학사』에서는 사회 내부의 모순에 대한 극복이 그 기

35 홍정선, 앞의 글, 445쪽.

36 김현, 「『문학과지성』 창간호를 내면서」, 『전집』 16, 49쪽.

37 김정환, 『미셸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과 비판적 지식의 가능성』, 서울대 석사논문, 2011, 61쪽.

38 위의 글.

39 홍정선, 앞의 글, 450쪽.

40 위의 글, 450~451쪽.

41 김현, 「책머리에」, 『전집』 8, 137쪽.

본 원리로 제시될 뿐 그 특정한 내적 규칙의 정치한 형태, 원리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서는 단절과 감싸기가 한국문학 통사를 관류하는 문학사 전개의 내적 규칙으로 해명된다.

단절과 감싸기 이론은 김현의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작업에서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작업인 만큼 이것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감싸기 개념의 경우 몇몇 연구에서 정작 바슐라르에게서 “비중이 없거나 모호했”⁴²으며 김현이 오식, 오역했다고 주장되기도 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중적 함의를 담아 감싸기가, 사용된 방식 면에서 “독창적인 발견”⁴³ “오독을 통한 재창조”⁴⁴라 얘기되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문제는 김현이 바슐라르의 감싸기를 오식·오독했다는 주장이 타당한 주장이냐는 것이다. 잠시 김현의 감싸기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2) 김현의 감싸기 이론 비판에 대한 재검토

① 바슐라르가 말한 감싸기의 의미

먼저 바슐라르와 김현이 감싸기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자.⁴⁵ 바슐라르는 감싸기를 “단절 뒤에 일어나는 종합”⁴⁶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

42 박연희, 앞의 글, 463쪽.

43 위의 글, 462쪽.

44 조연정, 「김현과 바슐라르 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에 관한 토론편」, 『한국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117쪽.

45 감싸기 개념 검토를 위한 바슐라르 원문 번역 및 검토 작업은 모두 정명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연구자는 ‘감싸기’에 대한 광광수 교수의 비판이 일부 국문학 논문에서 검토 없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바슐라르 원문 번역, 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특히 연구자의 프랑스어 능력 부재로 이 연구에 실린 바슐라르 원문 번역은 정명교 교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 수록한 번역 등은 정명교 교수가 면담 자리에서 즉석으로 번역한 것을 연구자가 옮겨쓴 것임을 밝힌다.

46 이지훈, 앞의 글, 56쪽.

여 사용한다. 일레르 바슐라르는 『새로운 과학정신』에서 감싸기(enveloppement)와 포개넣기(emboîtement)를 펼치기(développement)와 대립시킨다.⁴⁷ 대조된 단어들은 근본적 귀납(induction transcendante, 초월적 귀납)과 확대적 귀납(induction amplifiante)을 구분지으려는 의도하에 사용된다. 즉 바슐라르는 다양한 경험이 쌓여 확대된다는 식의 확대적 귀납이 아닌 다양한 경험이 종합되어 새로운 정신적 틀로 초월, 형성된다는 근본적 귀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감싸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목할 것은 새롭게 형성된 그들을 ‘환원’시킴으로써 과거의 정신적 틀을 추론(포지)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바슐라르는 환원-추론의 연쇄 고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환원-추론이란 연역이 행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 어떤 형성된 이론 틀을 가지고서 경험적 세계를 다시 돌이켜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감싸기란 이렇듯 새롭게 형성된 정신적 틀에서 과거의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 연역은 환원의 오기가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김현의 감싸기 개념이 오류였다고 말한 광광수의 지적을 살펴볼 수 있다. 광광수는 김현이 감싸기 논의를 전개하며 환원(réduction)을 연역(dédution)이라고 오식·오역했으며 심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적으로 부추긴 오역”이었다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자신이 찾은 바 원문에는 환원이 있을 뿐 연역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든다.⁴⁸ 이것이 사실일까?

47 요컨대 우리는 본다. 옛날 원리들이 새로운 원리들을 향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들에 의해 옛날 원리들이 감싸여지는 것을. 정신의 세대 이행은 연속적인 상자 씌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뉴턴적 사고와 뉴턴적 사고 사이에는 모순(contradiction)은 없으며 단지 옥여넣기(contraction)만 있다. 그리하여 이 옥여넣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정신적 현상의 내부 안에 가두어놓는 것을 허락한다.(Gaston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N.E.S], 정명교 역, Paris :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0^e édition, 1968. Collection : Nouvelle encyclopedie philosophique, 181 pages. 1^{re} édition, 1934, p.48, 강조는 인용자)

48 “펼쳐지는 아마 réduction[환원]을 déduction[연역]으로 잘못 읽은 듯하다. (...중략...) 짐작컨대, 귀납에 대구적으로 연역을 연상하고 réduction을 déduction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 ‘귀납’에 단절을 뜻할

바슐라르의 『새로운 과학 정신(*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원문을 검토해 보자. 1968년 판 기준으로 연역(*déduction*)은 25쪽 8줄, 41쪽 21줄, 105쪽 17줄, 111쪽 밑에서 9줄, 132쪽 밑에서 1줄⁴⁹에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단지 연역이 등장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감싸기 개념을 해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문에서 연역이란 환원에 연쇄되는 작용으로, 즉 초월되어 새롭게 형성된 정신적 틀을 환원시킴으로써 옛 정신적 틀을 추론, 또는 연역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쓰이며 새로운 것(틀)으로써 과거의 것까지 껴안을 수 있다는, 포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김현은 바슐라르의 연역을 어떤 의미를 이해했을까?

③ 김현의 감싸기를 바슐라르의 감싸기를 오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하의 대목을 보자.

귀납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현대 사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 사상은 과거의 것을 확장·포함하는 것이다. (…중략…) 그것을 그는 발전 *développement*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싸기 *enveloppement*라고 부른다.

— 김현, 『현대 과학이 인식론에 미친 영향』, 『전집』 9, 26~27쪽, 강조는 인용자.)

수 있는 ‘초월’이 바로 붙어 있고, ‘환원’(즉 필자의 오독으로는 ‘연역’)에 ‘확장·포함’의 뜻이 문맥으로 연결돼 있으니, 이 짐작은 틀림없을 것 같다. (…중략…) 이 오독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필자가 귀납·연역에 의한 과학적 탐구과정은 알고 있었을 터이니, 기실 이 지식이 ‘감싸기’의 ‘단절’과 ‘확장’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던 그에게 그 오독을 잠재의식적으로 부추긴 게 아닐까? (…중략…) 『신과학 정신』, p.46의 기타 부분, 그리고 그 전후의 pp.45·47을 모두 살펴봐도, *déduction*[연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216~218쪽.)

49 일례로 원문 105쪽에서 *déduction*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과학적 정신의 심리적 본질은 다음과 같은 성찰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성찰이란 체험 속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규칙 형태들(논리틀) 안에서 사유된다. 그리하여 법칙들은 서로 연동되고, 연역이 귀납과학 안으로 개입한다.(Gaston Bachelard, 정명교 역, 앞의 책, 105쪽, 강조는 인용자)

위 글에서 김현은 귀납적 관점에서는 과거 사상이 현대 사상과 단절돼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 사상이 과거의 것의 확장·포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후자의 의미에서 두 사상은 연결돼 있다. 다만 그것은 초월적으로 귀납되어 과거에서 현대 사상을 추론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현대 사상의 이론적 틀에서 과거의 것은 추론할 수 있다, “연역적”이라는 말은 이렇듯 현대에서 과거 방향으로의 감싸기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쓰인다. 이 대목은 원문의 내용, 즉 새로운 논리틀을 이용해 체험 속에서 발견되는 틀을 이해, 추론할 수 있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연역(dédution)은 환원(réduction)이 오식, 오역된 것이 아니라 바슐라르가 말한 주요 개념이었으며 둘째 원문에서 연역은 감싸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induction, réduction, déduction이라는 공통의 duction(이끌다)이라는 어근 앞에 달라지는 접사들을 통해 단절, 감싸기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쓰인다. 셋째 김현은 감싸기를 “새 이론에 의해 옛 이론이 감싸”⁵⁰이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과거를 자기 “내부(in)에 도입(duction)함으로써 도약(단절)이 이루어지고”⁵¹ 그것을 환원-연역함으로써 옛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본 바슐라르의 감싸기의 골자를 의도에 맞게 파악한 것이다. 넷째 그러므로 김현의 감싸기 개념은 바슐라르의 원 의미를 곡해시켜 원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한국문화사 전개의 내적 규칙 규명과 독자적 방법론 구축

다시 본래의 논의로 돌아오자. 이상의 논의에서 김현의 감싸기 논의가 정당하다는 전거를 제시했다면 이제 그의 단절, 감싸기 논의가 어떠한 것을 의

50 김현, 『현대 과학이 인식론에 미친 영향』, 『전집』 9, 27쪽.

51 이지훈, 앞의 글, 55쪽.

도하였는지 전통의 맥락에서 어떻게 원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그가 단절, 감싸기 이론을 가져온 그 배경을 살펴보자. 김현은 임화, 백철, 조연현 등 전(前) 세대의 문학 서술에 대한 비판의식이 자신이 새로운 문학사를 쓰는 동시가 됐다고 암시한다. 즉 전 세대의 문학사가 한국의 근대문학을 일 본을 통한 서구의 이식사로 “못박”음으로써⁵² 한국 근대문학은 서구문학 이론에 “병적인 경사”를 겪게 됐으며, 전근대에 존재하던 일체의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폐해를 겪게 됐다고 비판하며⁵³ 그리하여 “최대한 한도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의미인”⁵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김현은 이식문화론과 전통단절론이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축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 방법론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이식 관점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문학 이념과 산출된 작품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한국문학을 세련된 것을 만드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⁵⁵

김현은 이식의 관점이란 거부되거나 말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응 원칙으로 밝힌다.⁵⁶ 이식 관점의 극복을 위해 김현은 한국문학사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내부의 모순에 주목한다. 즉 그 전개 과정에서 사회의 모순이 어떻게 파악됐고 그것이 어떤 새 전통에 의해 어떻게 “극복”⁵⁷됐는지 한국문학사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김현이 왜 유독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서 한국문학통사를 대상으로 설정해 단절과 감싸기 관점을 적용하려고 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한국문학사 전체를 제1기에서 제4기의 기간으로 제안

52 김현, 『비평 방법의 완성』, 『전집』 2, 186쪽.

53 위의 글.

54 김현, 『한국문학사 시대 구분론』, 『전집』 1, 21쪽.

55 김현, 『염상섭과 발자크』, 『전집』 2, 198쪽.

56 김현, 『개화기 문학의 두 측면』, 『전집』 13, 260쪽.

57 김현, 『염상섭과 발자크』, 『전집』 2, 198쪽.

하면서 이 전(全)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문학사』에서는 오직 제4기(근대)만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것은 “가능한 최대한도의 미를 싸안을 수 있는 총체”⁵⁸를 드러내려고 한 김현의 저의를 참작해보면 이 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전근대, 근대문학의 총화를 감싸는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하려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하에 진행된다.

그렇다면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구됐는지 『한국문학의 위상』 6장 속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김현은 전통[正]과 다른 전통[反]은 변증법적 과정으로 단절과 감싸기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큰 변화 없이 문학 시기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것⁵⁹이 어느 순간 “구조적 모순”을 이루고 그 모순의 억압을 대항하고 극복하는 새 전통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바슐라르가 말한 근본적 귀납의 성격과 갑작스러운 절단의 의미가 창조적으로 원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현은 새 전통이란 기존 전통의 단순 확대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초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신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서 현재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재에서 과거로의 방향도 제시한다. 바슐라르가 새 정신에서 옛 정신으로 환원-연역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김현은 시조의 종장에서 향가의 낙구를 추론할 수 있으며, 시조가 향가를 감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단절과 감싸기 관점은 당시에 논의되던 근대는 전근대의 계승이라는 주장, 근대는 전근대와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두 가지의 극단적 주장을 모두 파괴하면서 동시에 겨안는다. 가령 김소월이 전통 시가를 계승한 것이라는 설명은 근대가 전근대에서 일방적으로 확대됐다는 식의 설명일 뿐 김소월의 근대적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김소월과 전통 시가가 완전히 단절되

58 김현, 「골드만의 문학비평」, 『전집』 8, 297쪽.

59 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 2」, 『전집』 2, 174쪽.

어 있다는 설명은 김소월이 지닌 전통 시가적인 특성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김현의 단절과 감싸기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버리고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취한다. 김소월은 전통 시가에서 초월적으로 귀납된 것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둘은 단절돼 있다. 그러나 김소월의 시에서 근대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과거로의 환원을 시도한다면 김소월이라는 틀에서 전통 시가의 요소를 연역·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김소월의 시는 전통 시가와 단절돼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감싼다.

이상의 논의에 더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저 전통의 전개 과정의 원리를 언명하는 것이 단절과 감싸기 논의를 통해 드러내려 한 전부였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김현의 단절과 감싸기는 전통의 이행 추이를 보여주는 기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김현의 궁극적 의도는 그 역사의 전개 그 이면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김현이 바슐라르의 단절 개념에서 인식론적 방해물이란 “부정적 화해”⁶⁰를 일으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함으로써 진실에 가까워지게 하며 “풍요”로운 “경험”과 “인식”⁶¹한다고 보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 이론은 한국문학사가 내부의 오류를 극복하면서 미래 지향적 이면서 풍요로운 문학적 경험과 인식이라는 보편적 차원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역사 전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이행 과정을 “하나의 논리적 필연”⁶²으로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전통의 전개에서 이론의 혁신, 수렴, 그리고 숙고를 위한 중단없는 “역동성”⁶³을 부각하는 것 역시 이런 ‘풍요로움’에 대한 지향과 희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60 이지훈, 앞의 글, 54쪽.

61 김현, 『인식론적 방해물과 정신분석』, 『전집』 9, 51쪽.

62 정과리, 『문학사가로서의 김현』, 『현대비평』 2, 2020. 봄, 162쪽.

63 김윤채·박치완, 앞의 글, 110쪽.

5. 이념형 구체화의 결론 — ‘억압하지 않음’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가 한국문학사의 독자화된 이론으로서 구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이론 구축을 통해 그가 구현하고자 한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 다시 말해 보편성에 도달하고자 한 최종 결론은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그가 ‘한국문학’을 넘어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전자에 대한 물음에도 답할 수 있는 것으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는 “한국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폭넓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그가 알고자 한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문학사의 전개라는 고유성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문학이라는 보편성 차원까지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융해될 수 있는 답을 ‘억압하지 않음’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의 ‘억압하지 않음’ 논의를 일별해 보도록 하겠다.

(1) 고유성 탐구와 보편성 탐구의 종합

『한국문학사』에서는 ‘한국문학’이 고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독립된 문제의식으로 등장했던 반면 『한국문학의 위상』에서는 앞선 질문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통합된 결과 ‘문학’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범주에 대한 논의로 발전된다. 이것은 유학 시절 그가 수행한 바슐라르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한국 문학과 하나의 자장에서 통합되면서 한국문학이라는 협소한 범주에서 일반 문학이라는 큰 영역으로 논의가 확장 및 보편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김현의 ‘문학’ 자체에 대한 질문이 프랑스 유학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며⁶⁴ 프랑스 유학은 그 질문이 정치화·확장화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김현은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한국문학사』, 『문학이란 무엇인가 1』, 『문학이란 무엇인가 2』에서는 표면화·침묵화되지 않았던 “문학은 억압을 하지 않되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⁶⁵는 명제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문학사』에서는 “참되고 아름다운 문학”이란 “작가 자신이 그와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생겨난다고 얘기될 뿐⁶⁶ 문학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억압하지 않음’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학의 사명을 ‘억압하지 않음’의 문제로 연결하게 된 것은 두 저작이 저술되던 사이의 시기에 침묵화됐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억압하지 않음’의 논의가 『한국문학사』, 프랑스 유학 기간 바슐라르 연구와 어떤 관련성을 맺으며 등장했는지를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2) ‘억압하지 않음’ 사유의 발단과 전개 및 확장

먼저 김현의 논의 속에서 ‘억압’ 개념은 어떤 양태로 변모돼왔는지 살펴보자. 유년시절 그가 경험한 가장 원형적 형태의 억압은 지킬 것을 요구받았던 여러 ‘금기’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금기와 대비되는 것은, 그에게 쾌락을 제공했던 ‘듣기의 공간’⁶⁷이었다. 심지어 그는 읽으면서도 듣기의 공간을 지향했는데, 이 듣기의 공간이야말로 ‘억압하지 않음’의 그 원형적 형태라고 평

64 「문학이란 무엇인가 1」, 「문학이란 무엇인가 2」는 김현이 프랑스 유학 이전 시기부터 문학 자체에 대해 깊이 사유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저작들은 문학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일련의 소주제들을 설정해 그것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문학 그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규명을 독자적이고 명제화된 원리들로서 제시하지는 않는다.

65 김현, 「책 끝에」, 『전집』 1, 189쪽.

66 김윤식·김현, 앞의 책, 6쪽.

67 이승은, 「김현의 망각과 욕망—김현의 독서가로서의 욕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35, 현대문학연구학회, 2008, 국문초록.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의 억압 개념은 함석헌의 고난 개념과 조우하며 나
은 미래를 위해 감내하는 고난의 의미로 발전된다. 이후에도 억압의 개념은
내면에서 심화·확장되는데,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의미보다 체계적·사회
적 차원의 것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띤다. 이렇듯 김현의 억압의 심화된 의미
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 체험에서 촉발된 고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문학 비평과 불문학 연구는 그 의미를 정교화·세련화시켰
다고 볼 수 있다.

억압에 대한 김현의 개인적 체험이 사회적 차원에서 확장된 사유로 전개된
것은 64년 『존재와 언어』를 출간하던 무렵이었다. 이때 이미 김현은 “경직화
된 모든 사고는 인간을 억압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대
한 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었다. 즉 4·19를 좌절시켰음에도 그것을 계승했다
고 주장하는 5·16 이후 시민적 윤리는 “사회적 학습의 명분”으로 사용됐고
그것은 다시 “대중적 욕망의 구현”으로 변모돼버렸다.⁶⁸ 사람들은 자신의 정
동과 사고가 어떻게 경직화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
에서 김현은 『초현실주의 연구』에서 해방과 자유의 문제를 논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억압 문제가 제시되지는 않지만 구속에 대항하는 자
유의 가치가 내세워진다. 그런데 이 글에서 자유 논의는 김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표현되기보다는 앙드레 브르통과 니체의 목소리를 빌려 드러난다. 김현
은 브르통을 인용하며 “존재의 소리에 응답한다는 것”은 “해방과 자유를 통
해” “존재에 극도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⁶⁹ 주로 타자의 목
소리를 인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때의 억압 논의는 그의 내면에서 완전히
자기화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8 조강석, 『특집논문 -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 문학의 연구』 50, 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15쪽.

69 김현, 『초현실주의 연구』, 『전집』 12, 66쪽.

‘억압하지 않음’에 대한 김현의 사유는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거치며 자기화·성숙화된다. 바슐라르가 말한 순수 상상력은 “억압이 없는 상상력”이라고 정의되는데⁷⁰ 김현이 말한 “문학은 꿈”이라는 명제 역시 바슐라르가 말한 순수 상상력(imagination pure) 개념을 경유하면서 ‘억압하지 않음’의 의미를 껴안는다. 즉 김현에게는 “바슐라르의 충일성의 세계”가 “완전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기제”⁷¹가 된 것이다. 그래서 김현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의 몽상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문학 역시 꿈과 현실의 거리를 보여주어 인간이 어떻게 억압돼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⁷² 이렇듯 바슐라르 연구가 심화될수록 김현 내면에서 상상력이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역시 어떻게 억압을 극복하는지에 맞춰진다.

김현에게 ‘억압하지 않음’의 의미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아도르노였다. 1970년대 초는 세계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붐이 불고 있었는데, 김현은 이 무렵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 그중에서도 아도르노가 말한 고통 논의에서 통찰과 영감을 얻는다. 실제로 아도르노의 주장은 『한국문학의 위상』 곳곳에 인용되는데, 김현이 생각하는 ‘억압하지 않음’의 의미를 대변해주고 있다. 가령 김현은 『문학은 무엇에 대하여 고통하는가』에서 “명백한 고발이란 모순이나 갈등의 저편에 작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아도르노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⁷³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의 서두에서도 아도르노의 『미학』을 인용한다.⁷⁴ 인용하는 대목은 모두 고통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것으

70 김현, 『바슐라르의 문학비평』, 『전집』 8, 205쪽.

71 한래희,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308쪽.

72 김현, 『문학은 무엇일 할 수 있는가』, 『전집』 1, 52쪽.

73 김현, 『문학은 무엇에 대하여 고통하는가』, 『전집』 1, 57쪽.

74 김현,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전집』 1, 59쪽.

로서 김현은 문학이 ‘억압하지 않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영감을 아도르노에게서 상당 부분 획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이것이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현은 스스로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철학적 논의는 “억압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⁷⁵ 이 명제는 김현에게서 “행복한 사회”와 “유토피아”⁷⁶를 향한 “책임 의식”⁷⁷이란 새로운 문제로 확장되며, 억압의 논의는 김현 비평이 취하는 윤리적 태도를 결정짓는 핵심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은 불문학자였던 김현이 어떻게 독일 철학자였던 아도르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까하는 점이다. 함께 프랑스 유학을 했던 김치수의 언급을 참조하면⁷⁸ 김현은 독일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아도르노를 읽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김현은 70년대 일어났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원어(독일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읽은 것인데, 김현에게 아도르노는 독일적 사유의 하나로 파악됐다기보다 앙드레 브르통으로 시작된 김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적 사유 연장선상에서 파악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3)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는 ‘억압하지 않음’ 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김현이 『한국문학사』 그리고 『한국문학의 위상』 6장에서 고민했던 문제는 바로 전통의 계승 문제였는데, ‘억압하지 않음’의 문제와 큰 관련성이 보이지 않고, 각각 별개의 사유가 전개돼 온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현의 『한국문학의 위상』이 앞선 『한국문학

75 김현, 『우리는 왜 여기서 문학을 하는가』, 『전집』 1, 186쪽.

76 위의 글, 187쪽.

77 한래희, 『김현 비평과 정신분석 방법론』, 『현대문학의연구』 66, 현대문학연구학회, 2018, 382쪽.

78 김치수, 『문학적 편력』, 『문학의 목소리』, 문학과지성사, 2016, 22쪽.

사』와 바슐라르 연구의 결과가 통합된 것이었다면 ‘억압하지 않음’의 문제는 전통의 전개 문제, 다시 말해 단절과 감싸기와 무관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선 김현에게 단절과 감싸기는 역사적 고통이 극복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원리로 파악됐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김현에게 전통이 생겨나는 모든 자리는 고통의 자리로, 함석헌식으로 말하자면 “뜻이 있”는 “고난”의 자리로서 이해된다.⁷⁹ 그러므로 전통 속에는 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고통의 정황에 응전하고, 기존 전통은 이질적 타자에 억압을 자행한다. 그래서 김현은 전통1에서 전통2로 이행될 때 전통1은 자신에게 어긋나는 것을 ‘억압’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억압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결국 새롭게 등장한 전통체계는 다시 엄격한 규칙을 세우며 전면화된다. 김현은 ‘억압하지 않음’을 향한 지향(극복)을 한국문학사의 전개 원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김현에게 전통의 이행 논의들이 대체로 문학사회학 범주에서 다뤄진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김현은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제기했던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논의가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도 “수용될 수 있”⁸⁰는지를 밝히고 싶어 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연구 동기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됐던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는 명제 역시 문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학적 명제로 그 외연을 확장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억압하지 않음’의 논의는 당시 시대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김현이 『한국문학의 위상』을 사회학적 관점

79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2016, 465쪽.

80 김현, 『한국에서의 문학사회학』, 『전집』 1, 202쪽.

에서, 당시 그가 살았던 한국사회에 내재하던 억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관련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현 스스로 문학의 이념형이란 그 사회 내부의 모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듯이 마땅히 『한국문학의 위상』 속에 등장하는 억압이란 김현이 살던 70년대라는 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표상하는 개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김현에게 억압의 개념은 사회 내부의 모순을 진단하고 혼란을 “의식적으로 성찰하는”⁸¹ 고고학적 태도에서 나오게 된다. 사실 억압에 대한 논의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김현에게 그 문제가 중시됐던 것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에 대해 문학적 방식의 적절한 대답이 되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김현이 언급하는 억압의 실체는 70년대 한국의 어떤 사회적 모순의 정황과 맞닿아 있을까? 물론 그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김현의 생각을 촌탁(村塾)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그의 글 속에서 우리는 그 정황을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거듭된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사회 속으로 퍼져가던 물신주의와 자본에 대한 무차별적 욕망이다. 이것은 김현에게 문학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김현이 욕망에 대해 분석, 해체를 집중하는 이유가 된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10월 유신 체제이다. 김현은 이미 『광태 연구』에서 고려 무신 정권 치하에서 광태를 안고 글을 썼던 임춘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며 그와 유사하게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영구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정권에 대한 간접 비판을 가한 적이 있었다.⁸² 김현이 『한국문학의 위상』을 쓰던 75~77년의 시기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이미 공고화, 정착화에 접어들었던 시기였다. 즉 당시 한국사회 전반에는 억압의 분위기가 일반화돼 있었다. 김현은 당시 시대적

81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앞의 책, 430쪽.

82 『광태 연구』는 유신 선포 5개월 전인 72년 5월에 발표되었지만,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신승(辛勝), 1971년 10월 15일의 위수령, 12월 6일의 국가 비상 사태 선언, 12월 27일의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발동 등 억압의 징조가 뚜렷해지고 있었다.

억압의 실체를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절대화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가장 한 “교묘한 지배”로 진단한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상황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는 유신 시대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교묘한 지배란 명목과 실제의 괴리를 뜻하는데 국민이 한낱 “권력의 팸러스(phallus)”⁸³로서 전략된 상황을 지칭하고 있다. 실제로 김현과 같은 시기 유학 생활을 했던 김치수는 아주 직접적으로 당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3선 개헌과 유신 선포는 “숨 막히는 경험”이었으며 그 자신은 프랑스로 혼자 도망나왔다는 “죄의식”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서했다고 말한다.⁸⁴ 그리고 그때 독서한 책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것이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김현이 아도르노의 억압 논의에 천착한 것도 유신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이렇듯 정치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음에도 이후 직접적 정치 참여보다는 그 부조리의 뿌리를 분석, 해체하며 그 성찰의 과정을 토대로 사회를 변혁할 힘을 각 개인이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가 현존하는 사회적 억압에 대해 노골적 비판을 쏟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읽혀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의 이런 입장은 비평의 유형학을 주창하면서도 문학적 초월주의, 민중적 전망주의 입장과는 “선을 긋”⁸⁵고 분석적 해체주의의 방법을 채택하여 욕망의 부정성에 대한 문학적 저항을 이어갔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이 유신 시대의 한 가운데서 문학의 명제를 ‘억압하지 않음’에서 찾은 것은 이렇듯 억압이 만연한 시대에서 문학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논구하고

83 조강석, 「대중사회 담론에 잠재된 두 개의 간극이 드러내는 ‘담론의 욕망’」, 『한국학연구』 2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20~21쪽.

84 김치수, 앞의 글, 23쪽.

85 한래희, 「김현 비평에 나타난 ‘비평의 유형학’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학연구』 3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266쪽.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기서 문학이 ‘억압하지 않음’을 수행하는 방식이 “반체제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 개량적인 태도”⁸⁶였다는 것은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김현은 단순히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문학이 반성적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사회를 도전과 응답의 형태로 인식하는, 즉 체제 개량적인 태도로 인지하고 대응할 때 문학은 낡은 사회의 붕괴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으며 그 구조적 모순을 직시함으로써 “사회를 뛰어넘으려는 의지”⁸⁷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억압하지 않음’의 논의는 이후 어떤 논의들로 변모·전개되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김현에게 ‘억압하지 않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바슐라르와 아도르노에게서, 그리고 한국문학사 연구에서는 역사 전개가 진행되는 방향으로서, 시대적으로는 70년대 중반 자본주의적 욕망과 유신 시대를 반영한 것이 된다. 이념형이란 사회 내부의 모순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김현의 사유를 고려해보건대 그의 출발점은 서구의 사상이라기보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유신이라는 사회 내부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즉 4·19 이후 지속된 자유·억압에 대한 내부적 모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구적 논의를 김현 스스로 충분히 자기화·성숙화시켰고, 유신이라는 사회적 모순(억압)에 문학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바슐라르와 아도르노의 이론을 원용하여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다시금 정의하고자 했으며 그 최종적인 성과물로서 바로 ‘문학이란 억압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70년대의 시대상,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바슐라르 연구를 거치며

86 김현, 『문학사의 방법과 그 반성』, 『전집』 4, 302쪽.

87 위의 글.

김현에게 억압의 논의는 이후 더 정치(精緻)해진다. 김현은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 문학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내재된 억압의 실체들을 “의식화”⁸⁸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즉 억압이 마치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으로 둔갑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우상과 파괴적인 시선”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것은 이후 분석적 해체주의라는 작업으로 명명되고, 억압에 대한 사유 역시 확장·심화되는 출발점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억압 그 밑에 자리잡고 있는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김현의 연구는 발전·전개된다.

6. 결론 및 의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네 가지 결론 및 의의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김현은 순수, 참여의 극단화된 이념형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구하면서 한국이 지닌 최난의 역경 경험을 문학적으로 승화함으로써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꿈꾼다. 그는 한국문학사를 일별하며 한국문학이 보편성 차원을 구현한 적이 있음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며 앞으로도 한국문학이 보편성을 구현할 가능성을 높이 본다. 그래서 그는 외국문학을 보편으로 삼아 한국문학의 ‘오류’를 성토, 비판하는 방법을 비판하고, 한국이 ‘열린 상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을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문학사』에서 “한국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명제화된다.

88 김현, 『성찰과 반성』, 『전집』 4, 323쪽.

둘째, 김현은 한국문학의 이념형이 구체화를 위해서 한국문학사의 실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유를 전개하고 그 사유를 하나의 원리로 원리화하려고 한다. 그는 원리화의 그자양분을 바슐라르의 『새로운 과학 정신』 논의에서 얻는다. 김현은 과학적 지식이란 비선조적으로 대치된다는 바슐라르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새것이 과거의 것을 하나의 인식론적 방해물로 여기고, 새로운 논(non)에 의해 폭넓게 감싸진다는 생각을 수용한다. 다만 그는 이 관점이 과학사가 아니라 문학사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데 그것은 문학적 상상력의 수정 불가능성이 과학적 상상력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김윤식과 김현은 그 전개 과정을 주종 관계 및 선조적·직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굴절’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후 그것은 김현의 바슐라르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단절과 감싸기 이론으로 첨예화되었으며 일반 문학에 대한 보편적 사유로 확장된다.

셋째, 김현은 한국문학에 있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정합적으로 고찰하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온 과정, 그리고 그것이 형성해온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국문학사』를 저술한다. 그는 이식문화론, 전통단절론을 비판하고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전개되는 추이를 설명한다. 이 문제의식은 프랑스 유학을 거치면서 한층 바슐라르적 사유들로 더 구체화된다. 『한국문학의 위상』 6장은 단절과 감싸기라는 더 선명한 관점으로 기술된다. 이 저작에서 김현은 한 전통이 다른 전통으로 넘어갈 때 이전 전통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인이 일어나고 이 두 전통이 공존하다가 그것이 후속 전통에 흡수된다는 전통의 단절과 감싸기 이론을 실제의 문학사 속에서 구체화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조가 교체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한국문학사가 오류를 교정해 가면서 경험과 인식의 풍요로움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세계관을 기저에 담고 있는 것이었다.

넷째, 김현은 한국문학사와 바슐라르 연구를 하나의 자장에서 습합하여 한국문학의 이념형을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다. 내면에서 나란히 길항되던 한국·프랑스문학 연구는 『한국문학의 위상』에 이르러 70년대 자본주의적 욕망과 유신이라는 한국의 시대적 억압상에 대한 문학적 응답으로서 ‘문학이란 억압하지 않는다’는 문학의 보편적 명제로 융합된다. 이것은 단절과 감싸기 이론과도 관련된 것으로 한 전통이 다음 전통으로 이동하는 전개가 이전 전통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음 전통의 등장으로 이뤄진다는 데서도 구현되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문학이란 억압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70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억압상을 반영한 것이면서 한국문학의 이념형 구체화를 위한 71~77년에 이르는 일련의 노정을 한 문장으로 모두 감싸는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사회학』(전집1),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전집2),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문학과 유토피아』(전집4),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프랑스 비평사(근대/현대)』(전집8),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전집9),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존재와 언어/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전집12),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김현 예술 기행/반고비 나그네 길에』(전집13),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자료집』(전집16), 문학과지성사, 199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8.

2. 논문

- 김윤채·박치완, 「비슬라르의 ‘단절’ 개념에 대한 세 물음과 그 해명」, 『철학탐구』 27, 중앙대 중앙 철학연구소, 2010.
김정환, 『미셸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과 비판적 지식의 가능성』, 서울대 석사논문, 2011.
박연희, 「김현과 비슬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박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7.
양정현, 「최인훈과 김현 문학담론의 상호형성 연구—문학적 참여의 시간논리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20.
이승은, 「김현의 망각과 욕망—김현의 독서가로서의 욕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35, 현대문학연구학회, 2008.
_____, 「김현의 독서와 비평적 실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1.
이지훈, 「가스통 비슬라르—‘열린 합리주의’를 위한 인식론」, 『현대 프랑스 철학사』, 창비, 2015.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사회』 13-2, 문학과지성사, 2000.
_____, 「문학사가로서의 김현」, 『현대비평』 2, 2020.봄.
조강석, 「대중사회 담론에 잠재된 두 개의 간극이 드러내는 ‘담론의 욕망」, 『한국학연구』 2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_____, 「특집논문—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연구』 5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조연정, 「김현과 비슬라르 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에 관한 토론문」, 『한국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조영실, 「김현 문학비평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1.
한래희, 「김현 비평과 정신분석 방법론」, 『현대문학의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_____, 「김현 비평 연구—독서 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10.

- _____, 『김현 비평에 나타난 ‘비평의 유형학’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학연구』 35,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2014.
- _____, 『마르쿠제 수용과 기억의 문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 _____, 『일반논문—김현 비평에서 “공감의 비평”론과 “현실 부정의 힘으로서의 문학”론의 상관성 연구: 아도르노 미학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_____, 『현대문학—김현 중 · 후기 비평에 나타난 비평 전략의 변화양상』,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 한보성, 『김현 ‘문학주의’와 한국문학사 서술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 홍문표, 『10. 1960년대 전통의 추구하고 참여문학 논쟁 (3) 신세대와 소시민문학 논쟁』, 『한국 현대문학 논쟁사』, 창조문학사, 2018.
- 황영범, 『김현 문학비평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3.
- Gaston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N.E.S], Paris :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0^e édition, 1968. Collection : Nouvelle encyclopedie philosophique, 181 pages. 1^{re} édition, 1934.

3. 단행본

- 고봉준 외 9인, 『김현 신화 다시 읽기』, 이룸, 2008.
-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 김치수, 『문학의 목소리』, 문학과지성사, 2016.
- 정과리, 『문신공방 하나』, 역락, 2005.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2016.

Kim Hyun's Formulating 'The ideological type of Korean literature'

Shin, Dong-jae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calls the period from 1971 when Kim Hyun began planning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o 1977 years when he completed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a period that embodies the ideological type of Korean literature. During this period, he goes beyond just a speculative level of problem-sense and attempts to 'principleize' actual works and events of Korean literature.

Kim Hyun agrees with Bachelard's claim that the new one considers the old as an epistemological obstruction and "wraps extensively" as it is cut off. However, citing the impossibility of the revision of literary imagination, it suspends the full application of Bachelard's theory to Korean literary history. In Chapter 1 of the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e explains the development of literary history as a concept of 'refraction' and argues that the influence of literature develops non-linear.

Kim Hyun thinks that Gaston Bachelard's 'rupture and covering' argument can be used to reconstruct Korean literary history and tries to change the meaning of 'covering' to create a unique perspective of reading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While studying abroad in France, Kim Hyun's understanding of Bachelard intensifies, and Kim organizes the theory of disconnection and wrapping of tradition into a theory that explains the entir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e tries to the dialectic integration in way which to find ideological type of Korean literature. As a result, Kim Hyun arrives at the universal question of 'What can literature do?' which is the answer to which is at its highest point to shape the ideological type of Korean literature. In response, Kim Hyun puts forward the proposition that 'literature does not oppress,' which contains his changed ideas about oppression, freedom and literature.

Key Words : ideological type of Korean Literature, formulation, refraction, rupture and covering,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no suppression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김현 후기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 연구

한래희*

1. 서론
2. 『증오와 폭력』—이기심을 넘어서
3. 『폭력과 왜곡』—원한을 넘어서
4. 분석적 해체주의와 해방적 기획의 조건
5.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1980년 5월의 폭력에 대한 대응이 1980년대 김현 비평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결정한 핵심적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1980년대 김현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의 전개 양상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우선 2절에서 『증오와 폭력』을 중심으로 집단적 증오가 소수에 대한 폭력으로 발현되는 현상에 관한 김현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집단의 증오 이면에는 피해 최소화라는 집단의 이기적 욕망과 이기심의 합리화 작업이 존재한다. 김현에 따르면 이기적 욕망에 대한 성찰과 감시가 폭력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기적 욕망을 기초로 폭력을 설명하는 방식은 광주에서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3절에서는 『폭력과 왜곡』을 중심으로 초월 욕망과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김현의

*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해석을 분석하였다. 서사 텍스트 분석의 결과 김현은 원한과 파괴 충동이 초월 욕망의 뿌리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보편적 해방을 꿈꾸는 유토피아주의의 이면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드러내고, 초월 욕망의 폭력성을 해체하는 것이 비평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 이를 위해 분석적 해체주의 방법론이 제시된다.

4절에서는 김현이 분석적 해체주의라는 방법론을 표방했던 이유를 폭력 문제와 연관하여 검토하였다. 김현은 당시의 한국사회와 문학계를 폭력의 체계로 보고, 보편적 해방의 기획 이면에 존재하는 원한·파괴 충동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분석적 해체주의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시학과 같은 김현 자신의 기획도 자신이 행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고통이 각인된 몸을 통한 부정과 고통의 기억에 머물기의 방법이 김현의 최종적 답변으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현의 폭력론은 ‘원한/ (원한을 넘어선) 사랑’, ‘비이성/이성’의 이분법을 넘어 사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 끈질기게 탄핵’할 것을 고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폭력, 증오, 원한, 광주, 분석과 해체, 고통의 기억, 고통으로 각인된 몸

1. 서론

본고는 김현 후기 비평¹에 나타난 폭력론²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1980년대 김현 비평은 1980년 5월의 비극이 남긴 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하에, 1980년대 김현 비평에서 폭력에 관한 김현의 글에 담긴 내적 논리를 분석해보고 그것에 담긴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김현의 폭력론은 기본적으로 르네 지라르의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진행된다. 가령 『증오와 폭력』에 등장하는 ‘만인 대 일인의 싸움’이라는 개념이나 『덧붙이기와 바꾸기』의 핵심적 개념인 ‘사회의 기본적 폭력’은 모두 지라르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라르의 이론을 당시의 폭력 문제 분석의 유효한 이론적 도구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 김현은 지라르 연구서인 『폭력의 구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욕망의 뿌리와 그것의 구체적 자리,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초월적 자리 등에 대해 사유하면서, 나는 욕망의 뿌리가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모든 욕망은 역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믿음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종합·극복해보려는 내 오랜 시도와 맞붙어 있다. 그러다가 나는 르네 지라르를 읽고 그것이 종교적인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아니 차라리 욕망이 종교의 시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욕망은 심리적·사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다. 욕망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종교를 낳는다. 그 수태·분만의 과정이 지라르에겐 너무나 자명하고 투명하다. (...중략...) 거기에

1 여기서서는 1980년 이후의 시기를 김현 후기 비평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한래희, 『김현 비평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0 참고.

2 ‘폭력론’이라고 하면 폭력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떠올리기 쉽지만, 본고에서 폭력론은 폭력에 관한 이론적·비평적 논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는 더구나, 1980년초의 폭력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밑에 자리잡고 있었다.³

위의 글은 김현이 지라르의 이론에 매료된 이유뿐만 아니라 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 문법 또한 보여준다. 욕망은 심리적 · 사회적 · 역사적인 것이라는 점, 욕망은 폭력의 뿌리이고 종교는 사회적 폭력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욕망이 어떻게 폭력을 낳고, 폭력이 어떻게 종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가라는 물음은 김현 폭력론의 뼈대를 이룬다. 인용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욕망의 뿌리’와 ‘그것을 벗어나는 초월적 자리’에 대한 사유라는 부분이다. 욕망이 폭력의 뿌리라고 할 때, 욕망을 초월하는 자리에 대한 사유는 곧 폭력을 벗어나는 방법과 연관된다. 욕망으로부터의 초월은 폭력의 시대에 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물음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김현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폭력 문제를 다룬 김현의 글을 연대순으로 읽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선/악’, ‘선인/악인’과 같은 윤리학적 용어들이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세계관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준 기독교의 흔적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한 예로 “그가 악인이라면, 그와 맞서 그를 떠돌이로 만든 불박이들도 악인이다. 그들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사랑(혹은 관용)으로 감싼 것이 아니라, 위선과 위계로 내쫓았기 때문이다”와 같은 대목을 보면 인물의 행동을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리학적 개념이 독특하게 사용되는 예로는 다음의 글이 대표적이다.

3 김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문학과지성사, 1993, 19~20쪽.

선한 사람은 양보하고, 악한 사람은 이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의 강한 욕망을 선한 사람은 견디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란 욕망이 강한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⁴

악한 사람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며, 선한 사람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악한 사람이 이기는 이유로 강한 욕망을 선한 사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된다. 서사 텍스트에서 악인이 선인을 이기는 것은 흔한 설정이지만, 김현이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욕망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이 강한 사람이 왜 악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이 이기는 이유가 왜 악한 사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인가라는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선인, 악인과 같은 윤리학적 개념이 왜 위와 같이 설정되었으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전략은 무엇인가는 김현의 폭력론 파악에 핵심적 부분 중 하나이다.

김현의 폭력론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폭력론의 초점이 1980년 5월의 폭력의 원인 규명보다는 폭력적 체계의 비판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폭력에 대한 김현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광주 비극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김현의 폭력론은 1980년 광주라는 특정한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폭력 일반에 대한 비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의 폭력론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다음의 글은 이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태평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 세상의 지배 이념이나 대항 이념의 폭력성은 같은 유형의 폭력성이다. 타기해야 할 것은 공식 문화의 지배 이념뿐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이념의 폭력성이다.⁵

4 김현,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1, 208~209쪽. 인용문은 제주도 신화인 「천지왕 본풀이」에 등장하는 형과 동생의 차이를 악인/선인의 이분법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 일인이 가해자이나 피해자이나 하는 것은 만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피해자 판단의 기준이 확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첫 인용문은 『창세가』에서 미륵 신앙을 신봉하는 피지배 계층이 태평스러운 세상의 도래를 외치며, 지배층에 대한 대항의 방법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보인 것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김현은 피지배 계층이 폭력적 지배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 또한 같은 폭력임을 지적하며 폭력 일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부분에서 비폭력주의나 평화주의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해석에 만족하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폭력에 대한 김현의 대응 방식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인용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통해 누구나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⁷은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이것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폭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은 글을 읽은 후에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현은 왜 폭력 일반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폭력론을 전개하는가, 광주에서의 폭력이 남긴 상처와 죄의식에 문학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는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더 깊은 분석이 요청된다. 폭력에 관한 일반론 차원의 접근과 1980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종합되는 양상을 분석해야 김현 폭력론이 입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5 위의 책, 216쪽.

6 위의 책, 203쪽.

7 『폭력의 구조』에 대한 전집의 설명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그 폭력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김현 폭력론의 핵심적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김현의 폭력론이 분석적 해체주의의 방법론 이해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이다. 김현은 『분석과 해석』(1988)에서 당시의 비평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자신의 비평적 방법론을 분석적 해체주의로 분류한다.

문화적 초월주의란 문학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뜻하며, 민중적 전망주의란 문학이 민중에 의한 세계 개조의 실천의 자리이며 도구이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뜻하며, 분석적 해체주의란 경험적 현실의 구조 뒤에 숨어 있는, 안 보이는 현실의 구조를 밝히는 자리이라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뜻한다.⁸

당시 비평계의 조류를 생각해 보면 문화적 초월주의/민중적 전망주의는 순수/참여의 이분법에 대응된다는 점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논란이 된 것은 분석적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범주이다. 분석적 해체주의는 개념적으로도 생소할 뿐더러 분석적 해체주의로 분류된 이상섭, 김치수, 김현이 동일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논지였다. 김현은 왜 문화적 초월주의와 자신의 비평 간에 분명한 선을 그었으며, ‘안 보이는 현실의 구조를 밝히는’ 방법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시기 김현의 비평적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분석적 해체주의를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김현의 폭력론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김현 비평 연구의 전반적 경향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

8 김현, 『분석과 해석』, 244쪽.

려던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이명원은 「김현의 유년
 시절과 기독교 사상」⁹에서 김현의 비평적 원체험의 근거가 기독교 사상이라
 는 전제하에, 김현의 평생의 화두였던 욕망과 죄, 구원의 문제가 기독교적 사
 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하고 있다. 『폭력의 구조』가 기독교적 성화와 희생양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지적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하나 지라르
 의 폭력론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의 김현 비평에 미친 영향까지는 다루지 않
 았다. 필자는 「김현의 지라르 이론 수용과 폭력 비판」¹⁰에서 김현이 지라르 이
 론을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폭력 비판의 전개 과정과 그것이 김현 후기 비평
 에 미친 영향을 다룬 바 있다. 증오나 원한이란 감정이 폭력에 개입하는 양상
 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고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왜 분석적 해체주의라는 새로
 운 방법론을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한순미는 「‘고향’이라는 미정형의 기호」¹¹에서 고향의 의미 변화에
 서 김현 비평의 숨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현
 이 수행한 싸움의 시작점이자 저항의 중심이 고향이자 광주라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광주 체험이 저항의 장소이고 고난의 시학이 탄생한 곳이라는 점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나 김현이 폭력론을 통해 광주의 고통과 상처를 어
 떻게 극복하려 했는가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박혜원은 「김현 비
 평의 미학적 정치성」¹²에서 김현 비평의 원형(原形)을 원(圓) 구조에서 찾고 시
 기별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분석적 해체주의를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감각적 분할
 선을 해체하고 새로운 감각적 양식을 구축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 새로운
 감각적 양식의 구축에는 광주가 남긴 고통과 상처의 극복이란 과제가 포함되

9 이명원, 「김현의 유년시절과 기독교 사상」, 『한국문학논총』 57, 한국문화회, 2011.

10 한래희, 「김현의 지라르 이론 수용과 폭력 비판」, 『현대문학의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1 한순미, 「‘고향’이라는 미정형의 기호」, 『건지인문학』 17,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16.

12 김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어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해체주의를 광주에서의 폭력 문제와 연결하여 고찰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욕망의 문제, 폭력의 문제, 분석적 해체주의의 방법론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김현 후기 비평에서 그것들이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모아질 주제라는 점을 간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점과 앞서 제시했던 문제의식을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첫째, 『증오와 폭력』을 중심으로 집단적 증오가 소수에 대한 폭력으로 발현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기적 욕망을 기초로 폭력을 설명하는 방식이 지닌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폭력과 왜곡』을 중심으로 유토피아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초월 욕망이 폭력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김현의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접근 방법에 내재한 비평적 전략을 드러낸다. 셋째, 1980년대 후반 김현이 분석적 해체주의라는 방법론을 표방했던 이유를 폭력 문제와 연관하여 검토해보고, 보편적 해방의 기획은 폭력의 구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김현의 답변을 찾아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1980년 5월의 폭력에 대해 문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김현 대응 방식이 어디로 귀결되었는가를 밝히고, 그러한 귀결이 지닌 함의와 시사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2. 『증오와 폭력』—이기심을 넘어서

『증오와 폭력』은 집단적 증오가 소수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는 과정과 그 이면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글이다. 김현은 일인에게 증오가 무의식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만인 대 일인의 싸움’이라 이름 붙이고, 안정효의 『가을

쌈』과 전상국의 『외딴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간학적 현상의 이면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집단이 일인을 증오하고 고립시키는 이유에 대한 김현의 설명이다. 안정효의 『가을쌈』은 만식 엄마와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과 만식 엄마의 고립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만식 엄마가 두 외래인에 의해 능욕을 당하는데, 피해자인 만식 엄마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따돌림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고립된 만식 엄마가 생계를 위해 양공주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만식 엄마를 내쫓으려 한다. 만식 엄마를 고립시키는 마을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김현은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시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고립시킴으로써, 그녀가 겪은 피해라는 전염병에서 자신들을 지키려 한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자기 보호 본능과 같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피해에서 도망가기 위해, 그녀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깨닫고 있다. 만인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한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의 피해를 그의 결함으로 변모시킨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피해받은 사람까지도 결국은 자신의 피해를 자신의 성격적·신체적 결함으로 받아들이고 만든다는 사실이다.¹³

인용문에 따르면, 일인을 고립시키고 증오하는 행위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심리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만인은 일인의 결함 때문에 마을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결국에는 피해자 자신까지도 피해가 자신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게 된다. 즉 만인의 증오는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려는 자기 보호 심리의

13 김현, 『분석과 해석』, 195쪽.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가을쌈』의 해설 후반부에 “집단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모든 과오를 뒤집어씌우는” 집단심리학적 관점이 추가된다. 피해 최소화 심리가 집단적 폭력을 촉발하는 방식에 대한 김현의 문제의식은 전상국 소설의 분석에서 더 분명한 형태로 제시된다.

전상국의 『외딴길』은 만주 할아버지라 불리는 인물과 그의 조카·손자들 간의 싸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을쌈』의 만식 엄마가 무력한 피해자인 것과는 달리 만주 할아버지는 배신·밀고·강간·사기 등 온갖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인물이다. 만주 할아버지의 교활한 계략에 넘어가 조카·손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셋은 “있는 상태라도 지켜내”기 위해 결속해서 만주 할아버지라는 적과 싸운다.

만주 할아버지와 만인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악인/선인의 대립이다. 그러나 일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일인을 적으로 대하는 만인 또한 일인과 같은 동물적 인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만인의 피해 최소화 욕구는 일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이런 공격으로 인해 자기 방어 욕구는 더 공고해진다.

삼인의 결속은 적의 공격성과 같은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 자기 방어 때문에 공격이 가능해지고, 그 공격 때문에 자기 방어가 강화된다. 나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하고 싶다는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약점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음과 이형동질적이다.¹⁴

인용문은 만인과 일인의 대립이 격화되고 만인의 결속이 강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인은 기존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일인을 공격하고, 공

14 위의 책, 202쪽.

격을 통해 자기 방어 욕구가 더 강해진다. 즉 자기 방어 욕구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공격은 역으로 자기 방어를 더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만인은 일인을 악인으로 만들어 일인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합리화한다. 합리성을 가장한 집단적 증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고, 이러한 폭력은 집단 내부에서 ‘무의식적으로’ 공유되어 소수에게 향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김현은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서의 증오를 상호모방¹⁵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것과 연관된 문제가 가해자/피해자의 구분이 때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 일인이 가해자이나 피해자이나 하는 것은 만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것은 피해 최소화 욕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비합리성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악인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인과 일인 간의 싸움에 대한 김현의 설명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기심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만인의 이기심은 싸움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시된다. 만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김현은 만인이 일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사랑(혹은 관용)으로 감싼 것이 아니라, 위선과 위계로 내쫓았기 때문”이라 비판한다. 이러한 윤리학적 설명 방식은 ‘이기주의/이타주의(사랑, 관용)’의 이항대립에 기초해 있다. 이기주의적인

15 증오의 상호 모방을 통한 결속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욕망의 개별성을 상실한 채 집단의 일원으로서 일인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16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안정효의 소설에 나오는 만식 엄마는 시종일관 피해자의 입장으로 나온다. 만식 엄마는 외래인에 의해 능욕을 당한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인물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이며, 피해자 가해자라는 지적은 만식 엄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것은 관용과 같은 보편적 규범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신의 안녕에 관심이라 할 수 있는 이기주의(egoism)가 반드시 공익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것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부러움과 원한으로, 원한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反)한 행동을 하게 된다.¹⁷ 『증오와 폭력』에서는 만인의 증오를 이기주의/이타주의의 이항대립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악이라는 윤리적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익 유지와 피해 최소화 심리가 ‘동물적’ 욕망으로 간주되고, 인간 사이의 대립은 늑대들 간의 싸움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기적 욕망이 폭력의 근원적 뿌리일까, 이익 추구 욕구와 증오의 합리화라는 것으로 1980년대의 폭력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제기해 볼 수 있다. 김현은 우리의 1980년대가 아우슈비츠의 학살이 있었던 1940년대를 상기시키는 연대라 말하고 있는데,¹⁸ 앞서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광주나 독일에서의 집단적 폭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김현의 관점을 따라가면 이기적 욕망의 제어나 욕망에 대한 지속적 성찰 외에는 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찾기 어렵다.¹⁹ 김현이 말하는 이기적 욕

17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131쪽.

18 김현,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3, 150쪽.

19 특정 집단이나 지역, 인물에 대한 증오는 개인의 피해 최소화 심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측면을 지니고 있다. 라캉의 개념을 잠시 빌리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간의 경쟁과 갈등은 상상적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상징적 질서 속의 한 부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위치에서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이 보이는 증오는 이기심의 발로인 것만은 아니다. 상징적 질서의 상호주관적 현실은 “나는 ○○이다”라는 주체의 수행적 발화를 통해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적 발화는 대타자는 무엇을 원하는가(Che vuoi?)라는 대타자의 욕망의 수수께끼에 대한 응답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지라르가 정식화한 희생양의 개념은 대타자로서의 신의 욕망을 희생으로 달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희생은 대타자가 존재하는 보증을 의미한다. (지젝, 주은우 역,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레, 2006, 118쪽) 라캉에 따르면 주체의 상징적 거세를 통해 탄생한 대타자는 상징적 허구의 구성물로 결핍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대타자는 상징적 질서 속 존재들에게 경험의 일관성과 유의미성을 보증하는 존재로,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상징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사회는 구성원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대타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지된다. 개인의 이기심을 강조하는 관점은 자신에게 오히려 피해를 일으키고 심지어 생명까지 요구하는 사회를 복종하는 행동 양식

망이란 것이 이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기심과 다르지 않다면 김현의 폭력론은 윤리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현은 왜 이기적 욕망을 폭력의 뿌리라고 본 것일까, 김현이 말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폭력론인 「폭력과 왜곡」을 읽어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3. 「폭력과 왜곡」—원한을 넘어서

「폭력과 왜곡」은 「증오와 폭력」과 연결되는 글이지만, 문제의식의 초점은 꽤 다르다. 이 글은 「천지개벽(천지왕 본풀이)」, 「창세가」, 「월명사 도술가」, 『장길산』의 네 가지 서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왜 악인이 선인을 이기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김현은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제시한다.

언제 어디서나 악인은 선인을 이기고 있으므로, 악인의 폭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선인이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를 꿈꾼다; 신화에서 소설로 내려오면서, 악인의 폭력적 승리는 초월 욕망에 의해 약화되어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다. 악인의 승리를 나는 나쁜 폭력이라 부르고, 초월 욕망에 의한 폭력의 약화를 나는 종교-문화적 왜곡이라고 부르겠다.²⁰

을 설명할 수 없다. 개인의 욕망이 지닌 폭력성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파괴성에 대한 인식이 폭력의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관점이 지닌 한계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욕망을 아무리 분석하더라도 개인이 사회의 요구에 복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는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역, 앞의 책, 2장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20 김현, 『분석과 해석』, 206쪽.

인용문에서 김현은 악인의 승리를 폭력으로, 폭력의 약화를 왜곡으로 부르고 있다. 악인은 누구이며 악인의 승리가 왜 폭력인지, 폭력의 약화는 무엇이고 폭력의 약화를 왜 왜곡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텍스트에 대한 김현의 분석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어보고 거기에 담긴 폭력에 관한 관점을 추출해보기로 하자.

제주도 천지개별 신화를 풀어 쓴 『천지개벽(천지왕 본풀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천지개벽 후 혼돈의 상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 혼돈이 사라진 후 형과 동생 사이에 이승의 지배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천지왕이 총맹부인과 결혼하고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이승을 형에게, 저승을 동생에게 맡기려 하자 동생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형과 내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동생은 속임수를 써서 이기고 형은 동생에게 이승을 맡긴다.

서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김현은 “악한 사람이란 욕망이 강한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강한 욕망이 있는 한, 이승의 행복한 질서는 세워지지 않으며, 이승의 질서란 속임수에 의한 일시적·순간적인 질서일 따름이라 설명한다. 욕망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욕망이 강한 사람의 반대가 ‘욕망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인 이유도 의문의 대상이다. 악인은 이기려는 강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어되지 않는 욕망은 ‘폭력’이라는 점만 강조될 뿐 이기려는 강한 욕망이 왜 폭력인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창세가』에 대한 김현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천지왕 본풀이』의 형과 아우와 비슷하게, 『창세가』에서는 미륵님과 석가님이 내기를 하는데, 석가와 미륵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에 김현은 주목한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미래불이 석가 다음에 부처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창세가』에서는 미륵이 과거불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도(顛倒)에 대한 김현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석가를 지배 이념화하여 피지배 계층의 원한—나는 이 말을 한이 아니라 니체가 쓰는 르상티망의 뜻으로 쓴다—을 업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미륵을 석가의 위에 놓게 한 것이리라 나는 생각한다. (…중략…) 석가님의 승리는 공식 문화의 승리이지만, 그 공식 문화의 질서는 가짜 질서이다. 그 질서를 깨뜨려 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래불에 귀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 미래불의 이름으로, 반란의 의도를 감추고, 현재의 공식 문화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는, 미래불을 과거불로 바꿔놓고 석가님의 더럽고 축축한 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창세가』를 만든 이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²¹

인용문은 석가님과 미륵불의 전도 이면에는 피지배 계층이 반란을 일으켜 지배 계층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 설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지배 계층의 원한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피지배 계층의 반란을 추동하고 있는 것은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말한 부정적인 도덕으로서의 원한(resentment), 즉 강자에 대한 상상적인 복수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심리라고 보고 있다.

김현의 관점에서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 계층의 대응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피지배 계층이 폭력에 호소하게 될 때이다.

그러나 공식 문화화한 석가적인 것에 대한 대항 문화로 발전한 미륵적인 것이, 그것 역시 폭력화하고 광신화하여, 억압적인 것이 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21 위의 책, 214~215쪽.

않을까? 대응 문화가 공식 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폭력적일 때, 그것을 대응 문화라 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공식 문화의 한 변형이 아닐까? (...중략...) 태평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 세상의 지배 이념이나 대항 이념의 폭력성은 같은 유형의 폭력성이다. 타기해야 할 것은 공식 문화의 지배 이념뿐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이념의 폭력성이다.²²

억압적인 지배 계층에 대한 피지배 계층의 저항이 폭력으로 뒤바뀔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 인용문이 폭력적 지배 질서에 대한 대응으로 김현이 비폭력주의나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손쉬운 해석을 넘어 우리는 대항 문화의 폭력성을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폭력적 체계를 비판하며 나온 대항 문화가 ‘폭력’과 ‘광신’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집단 속에 있는가, 집단 밖에 있는가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김현이 강조했다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강한 욕망/욕망의 제어’의 이항대립에 기초하고 있는 김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배층이 보이는 억압적·이기적 태도에 대해 동일하게 이기적 태도로 대응하며, 지배층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합리화하고 폭력으로 맞선다면 싸움은 ‘동물적’ 욕망의 충돌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위 글에서 ‘광신화’란 ‘합리적 것의 극단화’,²³ 즉 억압에 대한 정당한 반란이란 명분하에 지배층에 대한 원한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스스로 비판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이성의 상태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22 위의 책, 216쪽.

23 김현,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212쪽.

24 대항 문화의 폭력화에는 지라르가 말한 ‘욕망의 무차별 현상이 내재해 있다. 욕망의 상호 모방에 따른 욕망의 무차별성은 지라르 연구를 통해 김현이 얻은 문제의식이다. 보편적인 가치가 무너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김현은 초월 욕망의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개인화되면서, 사람들은 종교-문화적으로 나쁜 폭력을 왜곡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쁜 폭력은 니체적 의미에서의 원한을 낳고, 그 원한은 내재화되어 공격성으로 전환된다. 그것이 전면화될 때, 파괴 자체를 즐기려는 이상 심리, 아니 정상 심리가 나타난다. 파괴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그것의 위험성을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자들은 제의 — 종교 — 문화에 도피한다. (…중략…) 나쁜 폭력은 전면적이지 않고 부분적이며, 항구적이지 아니라 일시적이다. 그 초월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지상에서 그런 초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네 마음 속에 있다. (…중략…) 그렇다면 나쁜 폭력을 낳는 욕망이 바로 초월 세계를 낳는 욕망이 아닌가.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무서워라, 그 욕망이 바로 초월 세계를 낳는 욕망이다. 황석영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천한 것들이 가장 강하게 욕망한다.²⁵

『증오와 폭력』에서 본 바와 같이, 가치의 혼란기가 도래하면 지배 세력들은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집단이나 일인에게 증오를 집중시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듦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여기서 자신들의 증오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인의 결함 때문에 그를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배 세력이 내부적으로 결속하여 자신들의 증오를 합리화하면 할수록 피지배층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파괴 충동을 갖

고 가치의 혼란이 전면화된 상황에서는 순수/비순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개인을 개입답게 만든다는 차이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개인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문화-예술적인 방법이 대안으로 등장하는데, 김현은 종교, 문화에 의해 폭력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지만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력 욕망의 약화를 ‘왜곡’이라 부르고 있다.

25 김현, 위의 책, 221쪽.

게 된다. 김현은 초월 세계를 지향하는 욕망 이면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당황하는 듯한 모양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볼 때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강한 욕망을 지닌 사람의 승리를 폭력적 승리라 본 이유는 피해자(피지배층)의 ‘원한’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를 분석 결과 김현은 피지배층이 바라는 유토피아 세상이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기초해 있음을 발견한다. 즉 피지배층이 바라는 유토피아는 대립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만이 존재하는 평등한 세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망’, 즉 지배층에 대한 원한과 이에 기초한 파괴 충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이 피지배층의 대응 폭력을 기득권층의 폭력과 동일한 종류의 폭력이라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도 여기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지배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항 이념이 폭력에 호소하는 것을 비판한 이유를 비폭력주의로 설명하고 만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김현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표방하는 피지배층의 욕망 이면에 원한의 감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원한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하는 욕구를 넘어서 파괴 충동을 낳고 파괴 충동이 물리적 폭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파괴 충동에 의해 성립된 질서는 또다시 피지배층의 원한과 파괴 충동을 낳기 때문이다.

『폭력과 왜곡』은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교·문화적 노력이 폭력의 중단을 가져오는 데 실패하고, 더 나아가 유토피아적 지향이 또 다른 폭력의 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내보이며 마무리된다. 유토피아적 이념 이면에 원한이 잠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감시와 경계의 태도로 이어진다. 김현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해방을 목표로 한 이념이나 체계는 그 이면에 원한이나 파괴 충동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김현 자신이 지향하는 ‘억압 없는 사회’가 과연 이러한 부정적 충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다른 말로 ‘원한을 넘어서’ 구축된 세계인가라는 질문도 피해갈 수 없다. 분석적 해체주의는 이런 의문들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분석적 해체주의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김현의 답변을 살펴보기로 하자.

4. 분석적 해체주의와 해방적 기획의 조건

서론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현은 1980년대 후반 당시의 비평계를 문화적 초월주의, 민중적 전망주의, 분석적 해체주의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자신의 비평을 분석적 해체주의로 분류한다. “경험적 현실의 구조 뒤에 숨어 있는, 안 보이는 현실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석적 해체주의는 나머지 두 입장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선 분석적 해체주의 관점에서의 민중적 전망주의에 대한 비판을 검토해보자. 폭력에 관한 김현의 분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민중적 전망주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안 보이는 현실의 구조’란 폭력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김현은 서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대립은 다수 집단의 증오와 소수 집단의 원한이 충돌하는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민중주의를 토대로 한 보편적 해방의 기획은 민중의 원한을 동력으로 한다. 민중주의는 증오나 원한의 정서를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리화하고 이성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비이성을 드러내고 있다.²⁶

26 김현은 황인숙 시론인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서 민중주의에 토대를 둔 역사주의가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파시즘

김현의 관점에서 볼 때, 민중의 원한에 기초한 이념적 지향은 민중만을 해방의 주체로 삼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민중주의는 ‘가난한 자’를 ‘구원의 주체’로 보고 가난을 싸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여타의 계급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김현은 분석적 해체의 방법을 통해 민중주의가 원한과 파괴 충동을 투쟁의 기초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 욕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세계는 그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계급들의 싸움의 자리로 나타나는 대신 계급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적 욕망에 대한 본원적 반성의 자리로 나타난다”²⁷라는 부분을 보면 욕망에 대한 분석이 폭력의 구조 극복을 위한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 초월주의가 분석적 해체주의 관점에서 극복의 대상인 이유를 살필 차례이다. 문화적 초월주의는 문학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세계관으로 정의된다. 1980년 이전 김현의 글에서 우리는 문학의 현실 초월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²⁸ 문학은 ‘떠돌이의 자유’란 가능케 한다는 표현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1980년의 비극적 경험 이후 문학을 통한 현실 밖 초월은 자유가 아니라 도피나 자기합리화일 수 있다는 비판이 대두한다. 이에 따라 현실을 벗어난 초월 혹은 자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문학적 자유와 고통의 현실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김현은 ‘현실 밖에 극락이나 천국은 존재하지 않’고 ‘극락과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있어야 한다’라는 점, 시인은 신선이나 천재가 아니라 일상인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적 초월주의

이라 강하고 비판한다.

27 김현은 『치욕의 시적 변용』에서 이성복의 시가 서정적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서사적 자아를 서정적 자아 속에 수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와 같은 해석은 덧붙인다.

28 김현의 문학론은 부제로서의 자유가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부제로서의 자유에 대한 경험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낳고, 이것은 억압적·폭력적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김현의 유토피아적 문학론의 요체이다.

와 자신의 비평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자유’에 대한 분석·해체를 시도한다. 부재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적 화자에 대해 김현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그녀의 그 부재나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초월이나 자유가 아닐까? 그녀는 아직도 그녀의 념마 같은 영혼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자아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²⁹

위의 글은 분석적 해체주의의 방법론을 자신의 비평에 적용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도피주의나 문학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떠한 심리적 동인을 바탕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 김현은 자유 추구의 근원에 존재하는 동인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억압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명제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으로 자유의 근원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김현은 자유가 도피나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지속적 의심과 감시를 통해 자유가 폭력이나 억압으로 변할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분석적 해체주의는 겉으로는 어떠한 사적인 이익이나 복수심도 없이 해방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병리적 동기가 존재한다는 의심의 해석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의 광주의 비극은 분석적 해체주의의 유효성에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김현은 폭력 연구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가장 우려하며 원한과 파괴 충동에 기초하지 않는 해방적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광주의 비극과 끊임없이 마

29 김현, 『말들의 풍경』, 47쪽.

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현 자신의 작업도 자신이 행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한 예로 ‘고난의 시학’이란 방법을 들 수 있다.

김현은 유고집 『말들의 풍경』에서 한국시가 나아갈 방향으로 ‘고난의 시학’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고난의 시학은 “① 나는 고난받고 있다, ② 나는 고난이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 ③ 고난을 야기한 불의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혹은 꺾박받는 자들은 뭉쳐 불의와 싸워야 한다)”로 구성된다.³⁰ 고난의 시학에서 말하는, ‘불의’한 꺾박한 자와의 싸움은 어떠한 심리적 요인을 동력으로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꺾박받은 자들의 싸움이 원한이나 파괴 충동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 힘들다. 특히 광주 비극을 겪은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원한을 넘어서’ 보편적 해방을 추구하는 싸움이 과연 가능할까, 광주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죄의식과 파괴 충동을 극복하고 치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은 고난의 시학에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이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현의 폭력론은 이기적 욕망과 원한, 이성이 낳을 수 있는 폭력성에 대한 의심과 감시를 기초로 한다. 욕망, 원한, 이성은 현실 이면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며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원한에

30 김현은 고난의 시학을 채택한 시인들은 “현실 밖 극락이나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극락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현실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문화적 초월주의가 표방하는 초월이 현실 도피나 패배주의를 합리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비판하며, 자신의 비평에 대해 쏟아지는 문학주의라는 비판이 잘못된 이해의 소산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 흐름만 놓고 보면 『폭력과 왜곡』에서 다뤘던 황석영의 『장길산』의 유토피아 사상과 다르지 않다.

기초한 대응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점에서, 합리적 체계를 지향하는 이성언어는 언제나 억압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해체의 작업은 끝이 없는 작업이다. 그런데 1980년 5월의 폭력은 ‘원한을 넘어서’를 지향하는 김현의 방법론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고난의 시학은 도피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기획이다. 그러나 고난의 시학이 피해자들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기획이라고 할 때, 그 이면에 피해자의 죄의식과 원한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학 또한 또 하나의 폭력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고집 『말들의 풍경』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김현은 고통이 각인된 몸으로서의 ‘말’에 기대를 건다. 이성부 시론 『죽음과 태어남』에서 김현은 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시의 충격적인 전언 중의 하나는, 몸은 언제나 밖에 있다는 것이다. 정신도 때로 밖에 있을 때가 있지만, 몸은 언제나 밖에 있다. 구체적인 것은 모든 규제의 밖에 있으며, 밖에 있으려 하며, 밖에 있게 된다. 몸은 언제나 밖에 있다. 왜? 그것은 불타는 말이기 때문이다. 불타는 말은 관습적인 것, 규제된 것을 참아내지 못한다. (…중략…) 배반할 수 있는 정신보다 몸은 더 믿을 수 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은 불타오르는 말이다.³¹

이성부의 시에 나오는 몸은 1980년의 폭력과 상처가 각인된 몸을 의미한다. 이성부의 몸은 1980년 5월 고향에서 일어나던 비극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상처가 고통스럽게 새겨진 장소

31 김현, 『말들의 풍경』, 146~147쪽.

이다. 즉 그 몸은 광주에서의 폭력이 남긴 죄의식과 가해자에 대한 원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육체라 할 수 있다.³² 정신적 외상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몸은 어떠한 이성적 논리보다 강력한 부정의 기제일 수 있다. 상처와 고통이 존재하는 한 폭력의 질서는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통의 치유를 거치지 않는 한 보편적 해방으로서의 자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몸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몸의 상처와 치열하고 성실하게 대면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임동확 시론에 등장하는 고통의 기억에 머물기라는 방법이다. 임동확은 죄의식과 고통 속에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에 머물기를 고수한다. 처벌과 용서, 망각과 원한이 범죄 행위에 대한 네 가지 대응 방식이라고 할 때,³³ 가해자에 대한 복수나 용서는 생각할 수 없고, 망각 또한 피해자에게는 불가능성의 영역이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폭력이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할 때,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남은 자의 상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한의 발로라 단정할 수도 없지만, 원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 확신할 수도 없다. 또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에 머물기는 이성적 기획의 소산이라 할 수 없지만,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이라 규정될 수도 없다. 역사적 상처에 대한 기억과 기억의 반복 없이는 자유라는 보편적 해방은 불가능하다.

폭력 연구를 통해 김현은 ‘원한을 넘어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화해가 불가능한 만큼이나 원한의 망각이나 해소는 생각할 수 없다. 이

32 이때의 원한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이끈 원한과 동일한 성격의 감정이다. 이청준론에서는 용서하지 않았음을 자살로 보여주려는 ‘정신’을 강조했지만, 부정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몸에 각인된 상처와 죄의식이라는 점을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208쪽.

성부의 ‘몸’은 원한을 넘어서려면 원한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보여 준다. ‘현실의 밖으로 나가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로 귀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한 ‘비극적 현실주의’ 역시 이러한 역설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죽은 자에 대한 기억 혹은 상처가 새겨진 몸을 기초로 한 문학적 부정 또한 원한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은 의미를 잃는다. 몸은 원한/화해의 이항대립을 넘어선 영역에서 자신의 언어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선/악, ‘욕망/사랑’의 대립이라는 기독교적·윤리학적 사고에 이끌릴 때, 김현의 폭력론은 욕망의 제어와 같은 소극적인 해결책에 머문다. 또한 욕망이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에 의해 중층 결정되는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쾌락원칙/현실원칙’의 이분법에 따라 폭력을 분석할 때, 사회·역사적 폭력을 개인적 욕망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폐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죄의 연관관계, 법적 관계를 창출”³⁴한다는 면에서 ‘신화적 폭력’을 거부한 벤야민과 유사하게, 김현은 폐자의 증오를 낳는 모든 종류의 법이나 권력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 김현에게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토대인 법을 폭력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관점은 김현의 사유를 욕망의 폭력성 분석과 윤리학적 차원 간의 대립에 한정시킴으로써, 법(정치)과 폭력, 문학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현은 폭력 분석 내내 원한과 폭력 충돌에서 해방된 대응 방식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기대를 건 방법 역시 ‘원한을 넘어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고통이 각인된 몸에는 분노, 절망, 원한의 감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통의 몸은 치유, 해방, 화해에 대한 기원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이 각인된 몸은 ‘원한’(원한을 넘

34 한병철, 『폭력의 위상학』, 김영사, 2020, 87쪽. ‘죄를 부과하고’, ‘위협적’이고,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폭력은 죄의 연관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 비판을 위하여 |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9, 111~112쪽 참고

어선 사랑, ‘비이성/이성’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한 치유와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고통의 기억에 고집스럽게 머물면서 ‘불의에 대해 끈질기게 탄핵’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 생명’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김현의 폭력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이다. 사회의 ‘완성된 부정성’의 상태에서 절망에 직면하여 “사물을 구원의 관점에서 나타나게 될 모습”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사유의 과제로 제시한 아도르노와 김현은 여기서 다시 만나고 있다.

본고는 김현의 폭력론의 내적 논리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라르, 프로이트, 푸코, 데리다의 이론이 김현의 폭력 분석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전집 4권),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책읽기의 괴로움/살아 있는 시들』(전집 4권),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전집 10권),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3.

2. 논문

- 김혜원, 『김현 비평의 미학적 정치성』,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이명원, 『김현의 유년시절과 기독교 사상』, 『한국문학논총』 57, 한국문학회, 2011.
하정일, 『자유주의 문학론의 이념과 방법』, 『실천과 문학』 22, 실천문학사, 1991.
한래희, 『김현의 지라르 이론 수용과 폭력 비판』, 『현대문학의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한순미, 『‘고향’이라는 미정형의 기호』, 『건지인문학』 17,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16.

2. 단행본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외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_____,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민음사, 2001.
_____,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07.
발터 벤야민, 최성민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역,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2006.
_____,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_____,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한병철, 김태환 역, 『폭력의 위상학』, 김영사, 2020.

A Study on Theory of Violence in Kim Hyun's Criticism in 1980's

Han, Lac-hee | Soongsil University

Based on the premise that Kim Hyun's response to Gwangju's violence was the main factor in determining the problem consciousness and direction of Kim's criticism in the 1980s, this paper analyzed the development patterns and implications the theory of violence of Kim's criticism in the 1980s.

First of all, in Chapter 2, we looked at Kim's problem with the phenomenon of collective hatred being expressed as violence against the minority. Behind the group's hatred lies the rationalization of the group's selfish desire and selfishness to minimize damage. Kim Hyun conclude that only reflection on selfish desires can prevent violence.

Chapter 3 examined Kim's way of explaining psychological mechanisms in which the planning of universal liberation becomes a viol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rrative text, Kim Hyun expresses concern that resentment and the urge to destroy are the root of transcendent desires, and that these urges can lead to a vicious cycle of violence. Given that these doubts can be applied to the whole planning of universal liberation, a new critical methodology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doubt is requested.

Chapter 4 reviewed the reasons why Kim Hyun advocated the methodology of Analytical Dismantlementism in the late 1980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violence. Kim Hyun-hyun views the Korean society and literary circles of the time as a system of violence and presents analytical deconstruction as a way to expose the resentment and the impulse to destroy behind the planning of universal liberation. However, Kim's work is also facing a dilemma that he cannot be free from criticism he has made.

Finally, the conclusion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staying in the memory of injustice and suffering through the body imprinted with pain was submitted as Kim Hyun's final answer. Kim's theory of violenc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think beyond the dichotomy of "hate/love" and "irrationality/reason", and insist on steadily impeaching injustice.

Key words : violence, hate, resentment, Gwangju, analysis and deconstruction, memory of pain, a body imprinted with pain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 |
한국의 영화문화와 프랑스영화

1990년대 한국영화와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영화의 재정비 비교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수원

1990년대 한국영화와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영화의 재정비 비교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수원*

1. 들어가며
2. 1990년대 이전 한국의 영화문화와 프랑스영화
3. 프랑스영화의 재정비—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4. 199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5. 영화적 전통과 국가 지원의 차이
6. 나가며

| 국문초록 |

1990년대 한국영화와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영화의 재정비기는 근 50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룬 토대들이 프랑스영화와 영화정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정책 기관과 국제 영화제의 출범, 시네필문화의 본격화에서 나타나는 양국 간 연결고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 시네필문화와 영화정책이 프랑스가 선구적으로 닦아놓은 길을 참조했으나, 토착화 및 시대 변화에 따라 고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주도의 재정지원이나 시스템 구축이 돋보이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시네필들이 영화의 장을 주도했다는 것도 두드러지는 변별점이다. 이는 프랑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스에서 영화가 국가적 사안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 지원의 대상이었던 반면 한국 시네필문화는 정권과 긴장관계 속에 존속해 왔다는 영화적 전통과 정치·역사적 상황의 차이에 기인한다. 양국 영화 중흥기의 비교에서 드러난 국가와의 관계 맺기의 차이는 오늘날 한국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임을 확인시켜준다. 지자체의 불간섭 원칙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시네필문화의 대중화로써 영화문화가 지역성과 세계성 사이에서 균형을 꾀해야 할 이유이다.

주제어 : 1990년대 한국영화,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영화, 영화정책, 시네필문화, 국가 지원, 지자체 지원

1. 들어가며

“영화는 또한 산업이다(Le cinéma est aussi une industrie)”라고 앙드레 말로가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개입은 제7예술에 문화라는 정체성도 부여한다. 기실 프랑스를 위시한 다수 국가에서 영화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의해 관리된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영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데, 극명한 예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영화를 비롯한 타 문화 분야도 철저히 자유교역의 대상이 되어 민간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처럼 무한 자유 경쟁을 추구하는 경우보다 자국 영화진흥책을 펼치는 국가의 수가 우세해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할리우드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막대하여 각국 정부가 자국 영화산업을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의지의 발로일 것이다. 한국만 봐도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불거졌던 스크린 쿼터 논쟁에서, 비록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으나, 미국의 개방 압력에 맞서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¹

영화를 문화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할리우드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것은, 세계무역의 장에서 완전 개방을 주창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 축으로서 프랑스(및 유럽)의 노선에 합류한다는 의미가 있다. 1993년 GATT 협상에서 제시된 ‘문화적 예외’에서부터 1998년 유엔총회 때 장기 목표로서 제시된 ‘문화 다양성’,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 채택에 이르는 프랑스 주

¹ 1966년 도입된 이래 1970년대까지 126일이었던 국산 영화 상영 일수는 1985년 한미 영화협상을 계기로 146일로 강화되었다가 1996년에는 실질적으로 106일로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한미 FTA 체결을 논의하면서 2006년 7월에는 73일로 단축되었다. 국산 영화 상영일수가 급감했기에 결과적으로 스크린 쿼터 철폐라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일부 수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1980년대에 미국의 외화 수입쿼터 폐지 요구에 따라 배급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정부가 1985년 한미 협상 때 상영시장만이라도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스크린 쿼터를 강화했던 점만은 짚어야 할 것이다. 김미현 외,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현안연구, 2003; 최승희, 이태규, 『한국영화산업 구조 변화와 영화산업정책—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6.

도의 문화 보호정책의 출발점에는 영화와 시청각이 자리했고, 한국영화계는 이런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했다. 프랑스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주로 유럽국이나 프랑코포니 회원국들과 연대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지지를 이끌어냈음을 감안하면, 아시아에서 특별히 한국영화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낸 것은 이 시기 한국영화계의 친프랑스적 경향을 엿보게 한다. 당시 한국 영화문화의 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혼풍 속에 시네필 중심으로 시네마테크운동이나 국제영화제 같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들이 구축되었는데,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와 상기한 문화정책상의 연대의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이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프랑스영화의 장에서 나타난 문화적, 정책적 변화와 표면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는 데 주목한다. 1990년대에 재정비를 거쳐 2000년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과정은² 프랑스에서 2차 대전 종전 후 영화계의 재도약을 견인할 주요 축들이 확립된 뒤 1950년대 말 ‘누벨바그(Nouvelle Vague)’가 등장한 것과 비교될 만하다. 이에 우리는 영화 탄생지이자 시네필문화의 고향인 프랑스가 세계영화사에 끼친 영향력, 다른 한편으로 근 50년이라는 시간차를 감안할 때, 199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토대들이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가정을 세우되, 국가와의 관계 맺기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양국 영화문화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화문화의 초기는 일반적으로 시네필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한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에 시네클럽과 영화비평이 시네필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따

2 2000년부터 한국영화 르네상스론이 해외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영화산업이 이례적인 활력을 띠면서 2000년대 초에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영화들이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2000년 칸 영화제는 네 편의 영화를 초청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공식화했다. 1990년대 한국 영화산업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지나 외, 『한국영화사 공부—1980~1997』, 이채, 2005, 82~83쪽을 참조할 것.

라서 양국의 영향관계에 대한 우리의 가정은 한국 시네필사에서 프랑스영화가 갖는 위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본격적으로 양국 영화의 중흥기를 살펴 보기에 앞서, 1990년대 이전까지 국내 영화문화의 장에 프랑스영화가 끼쳐온 영향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다. 한국영화의 1990년대와 프랑스 영화의 1940년대 중반~1950년대의 상호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본고의 비교분석은 제작 분야는 제외하고, 영화비평과 시네마테크 운동, 국제영화제, 영화정책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말까지 프랑스영화의 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NC(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국립영화센터) 설립과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 출범, 그리고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 <카이에 뒤 시네마>가 논의 대상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한국영화의 장의 변화를 프랑스와의 관계하에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핵심 축들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문화를 구분 짓는 변별점에 대해 한국의 영화적 전통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국가 지원의 현황을 들어 짚어본다.

2. 1990년대 이전 한국의 영화문화와 프랑스영화

1990년대 초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까지, 한국의 영화문화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분단, 6·25전쟁, 1960~1980년대 군사정권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부침 속에서 변화해 왔다. 그 과정에 미친 프랑스영화의 유의미한 영향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되는데, 무엇보다 1970년대 초에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그 영향의 구심점으로서 회자된다. 반면 한국영화계와 대중의 프랑스영화 및 문화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그 한참 전, 프랑스영

화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영되기 시작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이미 1910년대에 프랑스의 영화 시리즈물들이 한국 대중의 인기를 누렸지만, 1920년대까지 영화시장을 지배한 것은 단연 할리우드 영화였다.³ 1차 대전을 기점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 영화들이 해외 시장에서 할리우드에 점유율을 내줬으며 일제 강점기였던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 일본이 할리우드영화에 대한 통제 쪽으로 정책을 선회함에 따라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프랑스영화는 국내에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⁴ 당시 프랑스라는 나라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끼친 정신적 영향은 영화뿐 아니라 문학 등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문학과 영화에서의 근대성이 해외 유학파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시점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인들은 영화를 매개로 지식인으로서의 고민을 이어가려 했기에 프랑스영화를 지지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에 따라다니던 특유의 ‘예술적 이미지’는 재생산되었다. 프랑스영화는 식자층에게 오락성의 동의어였던 할리우드영화의 대체재로서 지성과 예술성을 상징하였으며, 산업적으로도 열악한 국내 제작환경에 희망을 주는 “조선 영화의 모델”로 간주되었다.⁵

이렇듯 1930년대에 프랑스영화가 국내 지식인, 나아가 일반 대중의 뇌리에까지 각인시킨 ‘프랑스적 이미지’는 1945년 해방을 지나 6·25전쟁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확산되었다. 이는 그 이미지의 토대가 된 1930년대 후반 프랑스영화의 인기가 태평양전쟁에 따른 일본의 외화 규제에 의해 잠시 억제되었을 뿐이라는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1950년대 중후반 영화비평에 본

3 김승구,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책과함께, 2012, 30·50쪽. 1920년대에 이르러 영화는 국내 대중문화의 대표 주자로 정착한다.

4 김승구,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 끼친 프랑스영화의 영향」, 『인문논총』 71-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110쪽.

5 위의 글, 119·129쪽.

격적으로 몸담기 시작한 김종원은 6·25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프랑스영화가 미국영화를 품질로 압도”했고 “미국영화는 재미로 보는” 것이었다고 회고한다.⁶ 당시 르네 클레망의 인기, 앙리조르주 클루조의 〈공포의 보수〉나 〈정부 마냥〉에 대한 문인과 영화인들의 호응, 1950년대 말 국내 개봉된 프랑스의 ‘청춘영화’에 대한 그의 증언은 1950년대에도 식자층 사이에서 일관되게 이어진 프랑스영화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여준다.⁷ 그 후 1960년대 초 군사쿠데타와 1970년대 유신체제를 거치며 국내 영화문화는 확연히 경색된다. 외화 수입 통제에 따라 개봉되는 프랑스영화의 수도 감소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영화에 목말라하던 이들의 상당수가 향한 곳이 주한 프랑스문화원이다.

1968년에 설립된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193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문화에 끼친 프랑스영화의 영향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계기였다. 이곳은 군사정권하의 척박한 풍토에서 시네마테크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시네필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의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프랑스문화원은 문화 강국이자 영화 중추국답게 어느 선진국보다도 먼저 발 빠르게 한국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자국 문화진흥의 발판을 구축하려 한 프랑스 정부의 대외 문화 정책의 산물이며, “외국문화원이 한 나라의 문화아카데미”라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지극히 한국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⁸ 그럼에도 1971년 프랑스문화원의 사간동 시대가 열린 직후인 1972년에서 1973년 사이에 ‘살 르누아르(Salle Renoir)’가 개관하면서 이 지하 영사실이 한국의 시

6 김종원 평론가와의 인터뷰, 『영화광을 매혹시킨 젊은 날의 초상—줄리앵 뒤비비에에서 르네 클레망까지』, 『내가 사랑한 프랑스 영화』, BIFF, 2015, 39쪽.

7 위의 글, 38~39쪽. 김종원의 인터뷰는 1930년대와 다름없었던 당시 문인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도 반영하고 있다.(36쪽)

8 임인택, 『프랑스문화원 ‘시네 키즈’ 욕망 채우던 놀이터』, 『한겨레』, 2016.1.19.

네필문화가 싹트는데 기여한 점은 한국영화계는 물론 문화계 전반에 걸쳐 널리 인정되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영화의 숨통을 옥죄던 군사정권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일반 개봉관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무검열·무삭제의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이 문화 해방구를 향해 당시 한국의 시네필들이 모여든 것은 필연성을 띤다. 정권에 의해 금지됐던 희귀영화들을 보면서 “르누아르 극장 세대”⁹가 탄생했고 이들은 “해방구라고 믿었던 슬픈 계토”에서,¹⁰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누벨바그와 로베르 브레송 같은 프랑스 모더니즘 영화의 대표 주자들을 접하며 새로운 영화문법에 눈 뜨고 낯선 영화이론을 섭렵하였다. 감독이자 영화평론가로서 대표적인 르누아르 극장 세대인 정성일은 당시 시네필로서의 갈증을 아래와 같이 회상한다.

“누벨바그 영화들은 우리들을 일시에 장님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새로운 문법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사 용법을 알고 싶었다.”¹¹

이어지는 1980년대는 쿠데타와 신군부의 집권으로 출발하지만, 문화 전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비디오의 등장인 영화 복제를 확산시킴으로써 검열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시기이다. 더불어 프랑스문화원 대신 다양한 시네필 모임과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 희귀영화들에 대한 폭넓은

9 정성일, 『지하실에서 보낸 한 철—‘르누아르 극장’의 연대기(1972~1992)』, 『내가 사랑한 프랑스 영화』, BIFF, 2015, 106~107쪽. 프랑스문화원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독일문화원도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문화 해방구의 역할을 했다. 당시 시네필들의 다수는 두 문화원을 모두 드나들었으며, 독일문화원에서는 ‘동서영화연구회’라는 이름의 시네클럽이 조직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프랑스문화원 세대’로 통칭되는 이유는 프랑스 특유의 이미지와 이후 영화 유학에 있어서 프랑스라는 목적지가 보다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0 정성일, 『애타게 그리워한 영화가 있던 곳—프랑스문화원에 대한 기억』,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바다출판사, 2010, 62쪽.

11 정성일, 『지하실에서 보낸 한 철—‘르누아르 극장’의 연대기(1972~1992)』, 117쪽.

접근이 용이해진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살 르누아르는 초기에 수행했던 시네마테크의 역할을 자연스레 국내 시네클럽들과 공유하게 된다.

1980년대는 부산의 시네필문화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부산은 국내의 영화계에서 무엇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영화평론 모임과 영화제작사가 처음 탄생한, 한국영화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도시이기도 하다.¹² 서울과 약 10년의 시간 격차는 있지만 부산에서도 1980년대 들어 프랑스문화원의 해방구로서의 기능이 발견된다. 통상 ‘부산 프랑스문화원’으로 불리는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980년에 개관한 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보급을 넘어 다양한 프랑스문화 진흥 행사를 조직해 왔다. 이곳이 다른 지역의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달리 지역 시네필문화의 태동에 기여하게 된 것은 부산의 특수한 영화적 환경에 기인한다. 영화문화의 전통도 유구하지만, 무엇보다 처음 설립 당시 부산 프랑스문화원이 부산·경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영화과가 설치된 경성대학교 앞에 자리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¹³ 경성대 영화과 학생들이 이후 1984년 부산 프랑스문화원 내에 ‘시네 클럽’이라는 영화모임을 결성하고, 약 10년이 흐른 뒤인 1993년에는 ‘씨네마떼끄 1/24’ 발족에 주축을 이루며 부산 시네필문화의 재도약을 추동했기 때문이다.¹⁴ ‘시네 클럽’이 신군부하의 빈약한 영화 관람 여건 속에서 부산 시네필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은 사간동의 프랑스문화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1970년대에 문화특구로 기능했던 것과 맞닿는다. 특기할 점은 ‘시네 클럽’을 중심으로 집결한 부산 시네필들의 경우 감독을 꿈꾸는 영화과나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다수여

12 김지석, 『영화의 바다 속으로』, 본북스, 2015, 30쪽.

13 2002년 부산 프랑스문화원은 동구에서 재개관한다. 경성대에는 1985년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영화(연극)학과가 설치되었다.

14 강소원, 「부산독립영화에 대하여 (역사·현황·작품경향)」, 『독립영화』 2, 한국독립영화협회, 1999, 113쪽.

서 창작의 열기가 높았다는 데 있다. 이는 부산의 프랑스문화원 세대가 오늘날 부산 독립영화로 계승된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¹⁵ 서울 프랑스문화원이 1980년대 들어 시네마테크 운동의 주도권을 문화원 밖 시네클럽(비디오클럽)들에 넘겨주면서 문화 해방구의 기능을 마감한 것과 유사하게, 부산 프랑스문화원도 본격적인 예술영화 보급을 표방한 씨네마떼크 1/24과 시네마테크 부산의 탄생 이후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보다 복합적인 프랑스 관련 행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시네필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1990년대 이전까지 프랑스영화와 프랑스문화원이 수행한 역할의 긍정성은 명백하다. 근대를 상징하는 서구에 대한 국내 지식인과 대중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영화 공동체의 장을 뒷받침한 것 자체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탈식민 시대에 한국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처해 있었던 양가적 입장과 프랑스 정부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¹⁶ 이어지는 1990년대는 프랑스문화원을 거쳐 간 미래의 감독과 평론가, 시네필들이 국내영화계에서 전면 부상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영화인들이 참조한 ‘프랑스적 모델’의 근간은 194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 위의 글, 113쪽.

16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문재철, 『영화적 경험 양식으로서 한국 시네필에 대한 연구—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47, 한국영화학회, 2011, 113~138쪽; 박은지, 『부산 프랑스문화원과 트랜스로컬 시네필리아—1980년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75, 한국영화학회, 2018, 211~246쪽.

3. 프랑스영화의 재정비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1) 정책과 외교 — CNC와 칸 영화제

1차 대전을 겪으며 미국에 영화산업의 패권을 넘겨준 프랑스는 2차 대전 중에는 비시 정부의 외화통제 정책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이 90%까지 치솟음에 따라 영화산업의 제도약을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1944년 나치로부터 해방되자마자 지체 없이 자국 영화산업 재정비에 돌입한 프랑스 정부의 행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1946년 같은 해에 국가주도로 공식 출범한 CNC와 칸 영화제가 당시 프랑스의 발 빠른 행보를 반영한다.

CNC는 영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뒤 오늘날까지 프랑스 영화정책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실 CNC가 출범하기 전에도 영화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부서들은 존재했다. 비시 정부 체제라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2차 대전 발발 이전은 물론 심지어 전쟁 중에도 프랑스에서는 영화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논의가 매우 활발하였다.¹⁷ 다만 CNC는 영화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와 영화인들의 수년에 걸친 논의가 처음으로 도출해낸 독립된 기관으로, 예산상의 자율성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이전 영화 관리 부서들과는 차별화된다. 2차 대전 발발 전부터 종전까지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질서한 영화산업을 정리하고 관리하려는 의도, 영화계 측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화기관의 창설을 지지하였다.¹⁸ 그런데 CNC 탄생

17 이를테면 1942년 전까지의 영화담당과(Service du cinéma)와 1942년 이후 공보부 사무국(Direction générale du ministère de l'Information)이 있다. 2차 대전 중 영화 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Paul Légise, *Histoire de la politique du cinéma français. T2: Cinéma entre deux Républiques, 1940~1946*, Paris, Lherminier, 1977을 참조할 것.

18 Claude Degand, *Le Cinéma...cette industrie*, Paris, Ed. Techniques et économiques, 1972, pp.21~22.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 프랑스 영화시장은 할리우드에 잠식당한 상황이었고 프랑스 영화 제작사들

에는 종전 직후 미국과의 관계 또한 작용했다. 전쟁이 끝나고 나자 영화는 프랑스의 대미 외교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당시 전쟁으로 초토화된 프랑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반대급부로 프랑스 내 미국영화 수입 쿼터 유지를 요구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그에 대해 한시적인 스크린 쿼터(연간 16주)로 대응하여 예외적인 블럼-바인 합의(l'arrangement Blum-Byrnes)를 맺었다.¹⁹ 그 후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1946년 8월 워싱턴 협정의 프랑스 국회 비준 과정에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됨으로써 10월에 CNC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²⁰

이 시기에 CNC가 가장 먼저 지원한 분야는 제작(공동제작 포함)이었으며, 그 수단이 된 것은 특별세(TS(A) : Taxe spéciale (additionnelle))였다.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1948년 9월 창설된 이 세금은 영화표 판매액의 8%를 징수하여 CNC의 독립된 예산을 구성하였다. 한시적 기금으로 운용되다가 1959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지원계좌(compte de soutien)'로 발달하였고,²¹ 오늘날까지 CNC에 등록 된 제작자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어 프랑스 영화지원 정책의 핵심인 '자동지원(soutien automatique)'의 근간을 이룬다. 한편 영화지원 정책의 나머지 핵심 축인 '선별지원(soutien sélectif)'도 1950년대에 그 토대가 마련됐는데 시나리오 단계에서 사전 지원하는 입장수익사전지원제(avance sur recettes)가 그 핵심이다. 더불어 1950년대에는 단편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 블럼-바인 합의와 이후 프랑스 스크린 쿼터 및 외화 수입 쿼터의 추이에 대해서는 이수원, 『프랑스 영화지원정책 초창기에 대한 고찰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50, 한국프랑스학회, 2005, 523~538쪽을 참조할 것.

20 CNC는 “공사(établissement public d'Etat)”로서 출범했다. 약 2년 후인 1948년 9월에는 처음으로 프랑스 영화 지원법이 제정된 뒤 1949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정책은 보호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며 전개된다.

21 René Bonnel, *La 25ème image : une économie de l'audiovisuel*, Paris, Gallimard, 2001, p.580.

시행됨으로써 신인 감독들이 장편 데뷔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는 등 국가 정책이 영화산업과 문화의 여건 향상에 가시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²² 이처럼 2차 대전 종전 후 1950년대까지는 CNC를 중심으로 프랑스 영화정책의 근간이 확립된 시기였다.²³

현재 세계 1위 국제 영화제로 인정받는 칸 영화제 또한 1946년에 공식 출범하였다. 지금은 5월로 개최 기간이 고정됐지만 당시에는 9월 20일~10월 15일의 기간에 첫 영화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CNC 탄생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제 영화제 창설에 대한 논의도 전쟁 발발 이전인 제3공화국 시절에 이미 활발했다. 당시 국제 영화제에 대한 구상은 193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진흥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베니스 영화제를 방문한 역사학자 필립 에를랑제(Philippe Erlanger)로부터 발원하였다. 그 해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 리스트가 파시즘과 나치즘의 폭압으로 얼룩지면서, 제3공화국의 예술 교육부장관 장 제(Jean Zay)를 필두로 프랑스 정부가 첫 국제 영화제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영화제 첫 날 독일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영화제는 취소되고 1946년이 되어서야 임시정부하에 공식적으로 1회 칸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었다.²⁴ 프랑스 정부가 주도했던 “개최되지 못한 영화제”²⁵

22 1950년대 초에 프랑스 정부의 단편영화 진흥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노철환, 『1950년대 『카이에 뒤 시네마』의 시네필 평론가 연구—영화문화와 영화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9,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9, 81~82쪽을 참조할 것.

23 그 후 CNC는 시대 변화에 적응해가며 영화, 나아가 시청각과 디지털 분야까지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오고 있다. 2020년 현재 명칭이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로 진화한 것도 영상물 지원의 범위가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24 1939년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 배우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첫 영화제를 화려하게 개최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중단된다. 그래서이겠지만 칸 영화제 사이트는 1946년을 첫 영화제 개최 연도로 공식화하고 있다. 1946년에는 21개국에서 온 장편 45편, 단편 68편이 상영되었는데, 참가국 정부가 영화를 1편씩 추천하여 선정이 이뤄진 것은 칸 영화제가 국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외교의 장으로서 기능했음을 반영한다.

25 다음 책의 제목에서 따온 표현이다. Olivier Loubes, *Cannes 1939. Le festival qui n’a pas eu lieu*, Paris, Armand Colin, 2016.

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파시스트 정권의 노리개가 된 베니스 영화제를 대체할 민주적 대안이라는 명분이 제시되지만, 그 배경에 작용한 미국 할리우드의 이해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미국영화의 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이었던 베니스 영화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변질로 인해 미국이 프랑스를 그 대안으로 삼고자 하여 칸 영화제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프랑스는 미국영화 수입 쿼터 제한을 없애기로 했는데, 비록 2차 대전 발발로 쿼터 철폐가 즉각 실행되진 못했으나 그것이 결국 종전 후 영화계의 반발을 산 블럼-바인 합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²⁶ 종전 후 1950년대까지의 상황은 칸 영화제가 정부 주도로 시작된, 미국영화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 있음을 시사한다. 칸 영화제는 이후 195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화제 마켓(Marché du film)을 출범시키는 등 1950년대 말이 되면 기본 틀을 확고히 하며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영화 행사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²⁷

(2)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사 초기는 발명가 감독과 일반 관객의 시대였다. 그중 영화보기를 각별히 좋아하는 이들이 점차 시네필문화를 만들어냈다. 영화를 보고 논하는 즐거움이 영화정책의 구축보다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에서도 CNC와 칸 영화제로 대변되는 정부의 정책이 개입하기 전에 시네필들의 활동이 시네클럽-시네마테크 및 영화비평을 통해 먼저 활성화된 바 있다.²⁸

26 자세한 관련 사항은 위의 책을 참조할 것.

27 Mairie de Cannes, "L'histoire du Festival de Cannes : de l'anecdote à la légende", <http://www.cannes.com/fr/culture/cannes-et-le-cinema/le-festival-de-cannes/histoire-du-festival-de-cannes.html> *2020.6.29. 검색

28 프랑스 시네클럽의 역사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파리에서 리치오토 키누도가 설립한 Club des Amis du Septième Art가 최초의 시네클럽이다. 에밀리 비커턴, 정용준·이수원 역, 『카이에 뒤 시네마—영화비평의 길을 열다』, 이앤비플러스, 2013, 32쪽.

시네마테크 프랑스제(이하 시네마테크)와 <카이에 뒤 시네마>(이하 <카이에>)는, 영화사 초기에 발원하여 2차 대전의 단절기를 겪은 후 1940년대 중후반부터 제도악한 프랑스 시네필문화의 맥락 속에 위치한다. 프랑스 국경을 넘어 세계 도처 시네필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공간인 시네마테크의 전신은 1935년 앙리 랑글루아가 조르주 프랑쉬와 함께 설립한 시네클럽 ‘Cercle du cinéma’이다. 1년 후인 1936년에 바꾼 명칭인 ‘Cinémathèque Française’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서 깊은 기관이다. 당시 시네마테크는 민간 기관으로 탄생한 뒤, 36mm 필름 프린트의 복원과 보존, 영화교육, 그리고 상영을 주된 활동으로 삼았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된 지 약 4년이 지난 1948년 10월 26일부터 상영관과 박물관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모습의 근간을 갖추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 걸작 영화들을 보존하고 세계영화사의 고전들을 꾸준히 상영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 영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약 8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되 영화인들이 소장 자리를 맡으며 정치적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⁹

1950년대에 전성기를 이룬 프랑스 시네필문화의 중심에는 시네마테크와 더불어 1951년에 창간된 <카이에>가 위치한다.³⁰ <카이에>는 예술로서 영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던 자발적인 시네필들의 토론의 장이자 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교류되는 전문 비평지였다. 무엇보다 누벨바그의 등장을 추동했다는 점에서 <카이에>가 이 시기에 프랑스영화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한 요소로서 제시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누벨바그 감독들이 메가폰을 잡기 전 <카이에>의 필진으로서 활약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¹

29 시네마테크는 1944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68운동 당시 유명한 ‘앙리 랑글루아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동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Laurent Mannoni, *Histoire de la Cinémathèque Française*, Paris, Gallimard, 2006.

30 물론 프랑스 영화비평지의 역사는 그보다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크랑 프랑세>와 <카이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르뷰 뒤 시네마>에 대해서는 에밀리 비커턴, 정용준·이수원 역, 앞의 책, 41~45쪽을 참조할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1950년대 말에 영화 형식상의 실험과 모더니즘을 가시화하며 일군의 신인 감독과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상기한 프랑스 영화정책과 칸 영화제의 기여이다. 누벨바그가 등장하기 전 1950년대 프랑스 영화를 이야기할 때 예술성에 대해서는 〈카이에〉에 실린 프랑수아 트뤼포의 글 ‘프랑스영화의 어떤 경향’의 비판적 논조가 대변하듯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산업적 기틀 확립, 개봉 편수 증가, 프랑스 영화의 세계적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는 전성기로서 평가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1950년대 중후반에 CNC의 영화 지원정책들이 본격화한 동시에 칸 영화제가 필름 마켓을 탄생시키며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한 것에 힘입은 바가 있다. 누벨바그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것도 〈400번의 구타〉가 1959년 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벨바그는 이처럼 1950년대 프랑스영화의 산업적 활기를 발판으로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2차 대전 이후의 산업적 정비와 ‘품질영화’의 흥행과 비판적 거리를 둔 채 세계영화계에 모더니즘을 전파하며 또 다른 의미의 프랑스영화의 재도약을 상징했다고 말할 수 있다.³²

4. 199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한국영화계의 변화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영화정책 담당 공공기관의 재정비, 국제 영화제 출범, 영화전문지 창간, 시네마테크 운동 등

31 이들이 1950년대 중후반 장편 데뷔작을 내놓기 전까지 시네마테크에서 시네필로서 자양분을 얻은 점도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익히 알려져 있다.

32 ‘품질영화(cinéma de la Qualité)’ 혹은 ‘품질전통(tradition de la Qualité)’은 누벨바그 등장 이전, 시나리오 작가의 명성과 스튜디오 촬영, 도제 시스템, 거대 자본에 기대 제작되던 1950년대 프랑스영화의 주류를 지시한다. 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 바로 작가정책을 탄생시킨 프랑수아 트뤼포의 “Une certaine tendance du cinéma français”(Cahiers du cinéma, n°31, 1954)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2차 대전 종전 후 1950년대까지 구축된 프랑스영화 제도의 축들이 한국영화의 장에서도 가시화됐다. 우리는 이런 일치가 1980년대까지 프랑스영화와 문화원의 영향권에 있던 시네피들이 1990년대 들어 자유로워진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프랑스로부터 모델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1990년대 국내 시네피문학의 지형도를 살펴본 뒤 정책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재정립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한국의 시네피문학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영화전문지의 부상(浮上)으로 대변되는 영화비평의 활성화이다. 국내 시네마테크문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살 르누아르를 드나들던 세대 중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영화비평에 투신한 이들이 있다. 앙투안 드 베크가 “영화를 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담론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시네피문화와 누벨바그의 성장 과정을 규정했듯이 영화비평지의 창간은 영화 관람의 열정과 감동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했던 시네피들이 거치게 될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³³ 한국 영화잡지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해외 영화계의 동향을 포함하여 국내 시네피들의 허기를 채워줄 내용의 잡지들은 1984년 〈스크린〉과 1989년 〈로드쇼〉 창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5년 5월에 월간지 〈키노〉와, 다른 한 편으로 주간지 〈씨네21〉이 창간호를 동시에 출간하면서 영화잡지와 비평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³⁴ 발 빠르게 국내외 영화·영상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지의 역할을 내세웠던 〈씨네21〉에 비해 〈키노〉는 월간지답게 보다 심

33 “La cinéphilie, considérée comme une manière de voir les films, d’en parler, puis de diffuser ce discours (...)”, Antoine De Baecque, *La cinéphilie : Invention d’un regard, histoire d’une culture, 1944 ~ 1968*, Paris : Fayard, 2003, p.11.

34 같은 해 12월에는 〈프리미어〉 한국판도 창간되었다. 〈씨네21〉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한국 영화잡지 시장의 전성기가 지난 뒤 2020년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종이 잡지로 존속되고 있다. 〈키노〉는 2003년에 폐간됐다.

충적이고 이론적인 “비판적 시네필리아”의 장을 열었다고 인정받는다.³⁵

그런데 <키노>는 창간호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이론과 사상, 영화비평으로부터 자양분을 취했다. 무엇보다 <키노>가 추구한 작가주의 노선은 <카이에>로부터 발원한 작가주의 및 영화 미학적 접근과 긴밀한 영향관계를 맺었다. <키노>는 당대 프랑스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영화 관련 글이나 인터뷰를 실거나 그들의 저서를 소개함으로써 1990년대 한국 저널리즘 비평의 홍수 속에서 영화비평과 이론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학술적인 비평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를테면 미셸 푸코나 질 들뢰즈, 자크 데리다, 자크 라캉 등 세계적인 프랑스 석학들이 프랑스어로 명명된 ‘discours’, ‘dossier’ 같은 섹션에 게재되었다. 그 외에도 ‘cinémathèque’나 ‘la politique des combats’ 류의 코너, 혹은 특집으로 다룬 주제 『La Lutte de Cinéphile 1895~1996 영화광들은 어떻게 세상과 싸우는가』(1996.5) 등의 제목은 한글 번역 없이 프랑스어가 그대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뚜렷한 프랑스적 색채의 기원은 일차적으로 초대 편집장 정성일의 시네필로서의 여정과 관련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1970~1980년대에 걸쳐 프랑스영화와 비평을 접하였는데, <로드쇼>의 편집진이었을 때 함께 프랑스문화원을 오갔던 김홍준의 글을 꾸준히 실는 등 르누아르 극장 세대 시네필들의 영화비평으로의 진입을 선도했다.³⁶ 국내에 출간된 <카이에> 관련 서적에 실린 그의 추천사에도 “시네필들의 진지”였던 동 잡지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이 배어있다.³⁷

영화비평의 활성화와 동시에 진행된 국내 시네마테크 운동은 그 뿌리를 1980년대에 산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비디오테크 활동에 둔다. 살 르누아

35 이선주, 『영화(KINO)의 시대—영화잡지 『키노』와 1990년대 ‘비판적 시네필리아’의 문화정치』, 『대중서사연구』 23-3, 대중서사학회, 2017, 415~452쪽.

36 당시 김홍준의 글을 읽어 출간된 책이 1990년대 시네필들에게 전설적인 필독서였던 『영화에 대하여 알고싶은 두세 가지 것들』(한울, 1991)이다.(필명 구회영으로 출간)

37 에밀리 비커턴, 정용준·이수원 역, 앞의 책, 9쪽.

르를 대체한 자생적인 국내 비디오테크는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문화학교 서울’이라는 본격적인 시네클럽으로 꽃피운 뒤 2002년에 서울아트시네마로 계승됐다. 문화학교 서울은 1992년에 창립되어 2002년 서울아트시네마와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제작, 평론, 영화제를 아우르고자 시도하며 국내 시네마테크 운동의 본격화를 주도한 곳이다. 2003년 7월에 마감된 이 문화운동이 특별히 프랑스영화와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00년대부터 서울아트시네마가 주축이 된 2기 시네마테크 운동에서는 프랑스영화의 영향력이 감지된다. 이를테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개최된 다양한 상영 행사에 장뤽 고다르, 장 르누아르, 로베르 브레송, 장피에르 멜빌, 에릭 로메르, 클로드 샤브롤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0년에 신설된 ‘시네클럽’ 코너에서도 프랑스영화들을 가장 먼저 상영했다.³⁸ 각종 행사의 명칭에서도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내지 ‘시네클럽’처럼 초기 프랑스 시네필문화의 흔적이 드러난다. 물론 ‘시네마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프랑스산이기에 한국의 시네마테크 운동이 프랑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아트시네마와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한국 고유의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여 독일의 공공영화관 방식을 참조하는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산 지원을 토대로 한 시네마테크 운동을 구상하게 되었다.³⁹

부산국제영화제는 1990년대에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견인한 또 다른 축이다. 1996년 2월 13일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38 당시 에릭 로메르와 로베르 브레송, 장뤽 고다르의 영화가 ‘시네클럽’에서 상영됐다. 201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프랑스영화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지만 ‘필름 아카이브 특별전’ 코너에서 가장 먼저 상영된 것 역시 프랑스영화들이었다. 자세한 상영작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울아트시네마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cinematheque.seoul.kr/> *2020.6.29. 검색.

39 1970년대 독일 공공영화관은 비상업성과 공공성을 띤 문화예술단체의 성격을 인정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김성욱·김경진 대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네마테크”, 『ACT!』 88, 2014.3.31. <https://blog.naver.com/mediact/120211831091> *2020.6.15. 검색.

뒤 8월 7일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3~21일에 1회 영화제가 개최되면서 1996년에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냈다.⁴⁰ 그러나 부산에서 국제 영화제를 열겠다는 구상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문화학교 서울이 주축이 된 시네마테크운동, 영화비평의 신기원을 수립한〈키노〉의 창간과 앞서거니 뒤 서거니 한 셈이다.⁴¹ 이런 BIFF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김지석 전 부집행 위원장·수석 프로그래머가 부산 출신이자 부산 프랑스문화원 세대였고, 나머지 창립 멤버들도 1970~1980년대 서울/부산 프랑스문화원을 거친 시네편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영화제가 프랑스의 문화 및 영화 기관들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⁴² 이를테면 초창기에 영화제 지명도가 낮아 해외 작품 수급에 난항을 겪을 때 프랑스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뒤⁴³ 1998년 3회 영화제 때에 외국 공관 리셉션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문화원 주최로 ‘프랑스영화의 밤’이 개최된 것은 친프랑스적 측면을 보여준다.⁴⁴ 프랑스와의 협력은 이후 2000~2010년대에도 각종 교류 행사와 저명인사의 방문으로 이어졌으니⁴⁵ 첫 20년 동안 BIFF와 프랑스영

40 김호일,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아 영화의 허브』, 자연과인문, 2009, 48·64쪽.

41 1992년 이탈리아의 페사로영화제가 조직한 한국영화특별전에 향후 BIFF 창립 멤버가 될 이들이 참가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BIFF에 대한 창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김지석, 앞의 책, 16·19쪽.

42 아시아 프로그래머를 맡은 김지석을 제외하면 창립 멤버는 초대 집행위원장 김동호, 부집행위원장 박광수, 한국 프로그래머 이용관, 월드 프로그래머 전양준, 사무국장 오석근이었다. 김동호는 영화진흥공사 사장 시절 국내외 영화인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탄탄한 인맥을 구축한 관료 출신의 영화인으로, 프랑스문화원 세대는 아니지만 일찍이 프랑스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박광수는 당시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한 세계적인 한국 영화감독이다. 이용관은 부산 프랑스문화원 앞에 위치했던 경성대 영화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로서 경성대 학생들을 위해 서울의 영화인들을 강사로 영입하였다. 전양준은 영국에서 영화를 공부한 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영화 강의와 평론을 했던 프랑스문화원 세대였으며, 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오석근 또한 부산 프랑스문화원을 드나들었다. 김호일, 앞의 책, 38~39쪽.

43 위의 책, 62쪽.

44 1998년 유니프랑스 사장과 세계적인 배우 이자벨 위페르를 위시한 프랑스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영화제와 프랑스의 영화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19년까지 부산 국제영화제 ‘프랑스영화의 밤’은 매년 첫 토요일 밤에 변함없이 개최되어 왔다.

4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20회 영화제(2015) 때 플뢰르 펠렝 프랑스문화장관이 영화제를 방문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2009년에도 자크 랑 문화 장관이 영화제를 찾았다.

화·문화계의 협력관계는 상당히 돈독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불어 칸 영화제와도 2005년 10회를 기점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위상을 국내외로 공고히 하게 된다.⁴⁶

2002년 BIFF에서는 한국 영진위와 프랑스 CNC 공동 주최로 ‘한국-프랑스의 날’이 개최된 바 있다. 이듬해에 자국 문화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의제가 포함된 ‘WTO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앞두고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주도한 문화 다양성 개념을 지지하기 위한 ‘문화협력 약정 체결식’이 행사의 핵심이었다. 1990년대부터 문화 다양성을 기치로 내건 ‘스크린쿼터문화연대’도 참가한 이 행사는 한국 영화정책과 프랑스 영화정책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⁴⁷ 이처럼 2000년대 초 양국 간 영화·문화 정책상의 연대가 가시화되긴 했으나, 1940년대 중반 출범한 CNC는 영진위의 전신인 영화진흥공사(이하 영진공)를 약 30년 앞선다. 게다가 한국의 영화정책을 포괄한 문화정책은 영진공 탄생 이전에 이미 CNC의 특별세를 참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제정한 바 있다.⁴⁸ 영진공은 1973년 4월에 설립되어 1999년까지 근 25년간 최초의 한국 영화진흥기구로서 영화정책을 담당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

46 1회 때 21개국에서 온 170편을 상영한 이래 11회인 2006년에는 아시아권 첫 필름마켓인 아시아필름마켓(AFA: Asian Film Market)을 론칭하는 등 1996년 출범 당시만 해도 아시아를 대표하던 홍콩 영화제와 도쿄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신력 있는 영화제로서 자리 잡았다. 2005년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의 방문 이래 현재까지 칸 영화제 고위직 인사가 부산을 방문하고 있다.

47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이 2007년 3월 18일에 발효되기까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1990년대 중 후반부터 꾸준히 문화 다양성을 기치로 대내외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운동을 벌였다. 특히 프랑스와의 연대가 2000년 전후로 강화되었는데, 2001년 6월 26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등이 주최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한-불 영화인 토론회’나 2003년 2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CD(국제문화전문가단체) 총회에서의 스크린 쿼터제 발표, 2004년 6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CCD 총회에서 스크린 쿼터 유지를 위한 긴급 결의문 채택 등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양경미,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스크린쿼터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2010, 124~135쪽.

48 김동호 전 영진공 사장·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에 따르면 1972년에 공포된 문예진흥기금은 1940년대에 제정된 CNC의 특별세를 참조하였다. 박물관, 문화행사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에 6.5%를 부과하던 문예기금은 2004년 폐지된 뒤, 영화 분야의 경우 2007년에 생긴 영화발전기금(3% 부과)으로 이어졌다. *김동호 인터뷰, 2020.7.11.

들어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대두되었고, 그 결과 4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정부주도의 영화진흥 기구가 설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표면상으로 CNC 출범과 유사한 배경 속에서 영진공도 탄생한 셈이지만, 출범 당시 군사정권의 관리하에 있다 보니 영화산업 진흥 외에 유신정권의 정당성 강화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전파에 활용됐다는 차이가 있다.⁴⁹

영진공의 역사에서 본고의 논의 대상인 1990년대는 노태우 정부(1988~1993)와 김영삼 정부(1993~1998), 김대중 정부(1998~2003)에 걸쳐있다. 그중 영화인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영진공을 개편하자는 논의의 산물로 집권 초기에 영진위가 탄생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영진공과 영화계의 소통 결과 유의미한 정책적 발전이 도출된 것은 노태우 집권기로 나타난다. 당시 최초로 국고 보조금이 영화진흥에 투입되고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극영화 제작 사전지원사업’이 시행된 것은 돋보이는 성과이다.⁵⁰ 그중 사전 제작지원제는 1950년대 말 도입된 프랑스의 입장수익선지원제와 취지를 같이 한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 건립계획도 확정·발표됨으로써 영화계의 호응을 얻었다.⁵¹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까지 규제와 검열 속에서도 정책상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5월에 이르면 영진위 2기가 출범하면서 영화인들의 영화진흥정책 참여가 확대된다. 이와 같은 영진위의 “제2의 창립”은 시기상으로 문화학교 서울, 〈키노〉, BIFF보다 한발 늦은 것이었다. 1기의 잠움을 거친 후 2기 때에 프랑스와의 정책적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프랑스

49 이혁상,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김동호 외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362~365쪽.

50 위의 책, 395쪽.

51 1997년 준공된 서울종합촬영소는 영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동 촬영소의 건립은 김동호 이사장 시절인 1989년 5월에 문공부가 영진공의 건립계획을 승인하면서 본격화된 후 1990년 12월 26일 영진공에 의한 확정·발표로 가시화될 수 있었다.(위의 책 400쪽)

문화원 세대이자 프랑스 유학과 출신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영화정책의 중 주국 프랑스를 참조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⁵² 2000년을 전후로 칸에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가 알려지면서 영진위는 BIFF와의 공조하에 칸 영화제 ‘한국영화의 밤’을 정착시키는 등 프랑스 영화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프랑스 영화정책을 다양하게 참조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진위는 타국 영화기관과의 협력 또한 확충하는 동시에 국내영화계의 현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세분화해갔다.

5. 영화적 전통과 국가 지원의 차이

지금까지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 중흥기를 비교한 결과, 한국 시네필문화와 영화정책 기관이 프랑스가 닦아놓은 길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1990년대의 전환기를 거쳐 2000년대 초 한국영화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와 더불어 프랑스로부터 수용한 초기의 노하우들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편성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키노〉가 추구한 작가주의에는 〈카이에〉가 선도한 작가주의와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존재했다. 영국의 〈사이트 앤 사운드〉와 좌파적 성향의 또 다른 프랑스 영화 월간지 〈포지티프〉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프랑크푸르트학과와 탈식민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슬라보예 지젝, 발터 벤야민, 로빈 우드, 조나단 로젠봄 등 프랑스 출신 외의 동시대 사상가들과 영화평론가들을 고루 소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불어 〈키노〉의 작가주의 노선은 당시 국내 정치·사회의 맥락이 투영된 것으로 “영화의 자본화에 대한 저항”이자 “이론을 통한 계몽, 전략으로서의 현실 개입”을

52 2기 영진위를 이끈 이충직 위원장은 1기 영진위의 잡음을 잠재우며 취임한 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본격 가동시키고 칸을 필두로 한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특징으로 하는 투쟁성을 담보했다.⁵³ 서구 이론과 영화비평의 도입으로 대변되는 엘리트주의는 일부 국내 학자들이 <키노>를 비판한 근거였지만, 2003년 7월 99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기까지 <키노>의 담론적 실천은 영화적 투쟁을 사회정치적 투쟁과 연계시키며 시네필들간의 연대와 영화 친구, 우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음으로써 국내 영화비평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네필들이 주도한 BIFF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독일 같은 서구 영화선진국은 물론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영화 기관 및 공관과의 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간 것으로 나타난다. 영화를 탄생시킨 문화강국 프랑스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며 ‘아시아’에 무게중심을 두려는 방향성은 영화제의 정체성 확립, 다변화된 대외관계 구축은 물론 탈서구화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양국 영화문화의 재정비기를 비교한 결과 드러나는 본질적 차이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비해 시네필들의 주도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결국 영화제와 국가간 협력 수위의 간극에서 발원한다. 양 측의 협력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와, 1990년대 초 문민정부 출범 전후의 한국은 매우 상이한 상황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영화산업 및 정책의 기반을 닦아가는 것은 물론 국제 영화제 출범에 있어서도 시네필들이 주된 동력이었고, 정부는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영화 진흥을 본격화하는 기구가 “제2의 창립”을 선포하며 지원정책을 늘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프랑스는 CNC의 출범에서 드러나듯 국가와 영화제의 결속이 전쟁 중에도 지속됐을 정도로 훨씬 강력했다. 물론 다른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공권력과 영화제의 대립이 발견되며, CNC 출범에도 정책에 의해 영화산업을 감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었음은 자명하다. 심

53 이선주, 앞의 책, 435쪽.

지어 누벨바그 감독들이나 독립적인 영화제작 방식을 추구한 타 감독 중에서도 프랑스 정부의 영화정책에 반기를 든 예들이 있다.⁵⁴ 칸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국가 개입이 컸던 만큼 영화예술의 진흥 대신 외교의 장으로서 기능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국 영화 지원의 당위성에 있어서는 확고했기에 영화에 대한 재정지원을 상당히 일찍 시작했고 매 고비마다 영화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정책사를 새로 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프랑스적 전통의 근간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프랑스가 영화 탄생지로서 지켜온 명분과, 오랜 기간 대척점에 있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는 미국에 영화산업의 패권을 넘겨준 이래 오늘날까지 할리우드에 대하여 영화 중주국으로서의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 국가이다. 게다가 영화의 태동지이기에 프랑스에서의 영화제, 시네마테크, 영화잡지, 심지어 영화지원 기관까지도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위상을 구가하며 많은 타 국가에 모범이 되었으니, 영화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진흥해야 할 분야로 자리 잡았다. 국가가 영화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한국영화사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어 1990년대 초까지 역사적, 정치적 부침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화적 전통의 구축 자체가 영화계와 정권의 직간접적인 대립 속에서 진행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영화의 공동의 적이 항상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이었다면, 군사정권이 지속된 1960~1980년대까지 한국 시네필들에게 공동의 적은 오히려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각종 검열과 억압 속에서 영화의 품질은 저하되고 시네마테크운동은 음성적으로 전파됐으니, 시네필들과 국가의 소원한 관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동일 맥락에서 1980년대 들어 독립 영화를 중심으로 영

54 대표적으로 장피에르 멜빌은 CNC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제작방식을 취했고, 그런 연유로 누벨바그 감독들의 청송을 받았다.

화문화의 일부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진보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것 또한 자연스러워 보인다.⁵⁵ 다만 1990년대 초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국영화계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밀월관계와 적대관계를 거듭하고 있는 점이 프랑스에서 영화계와 국가가 보여주는 일관된 유대와 대비된다. 국가가 영화를 억압하고 검열한 역사가 길다보니 국내영화계의 양상은 관혹은 보수 정권에 대한 불신, 요컨대 이념과 연관된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시네필문화에 대한 국가 지원은 진보, 보수 정권의 손바뀜과 무관하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BIFF는 국가 지원 없이, 국내 시네마테크 운동이나 영화비평과 마찬가지로 시네필들의 노력이 꽃피운 결실로, 그런 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앞장섰던 칸 영화제 초창기와 BIFF의 초창기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김지석은 영화제가 자리 잡기까지의 어려움으로 “영화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무”, “영화제 운영 경험 전무”, “심의와 통관 등 영화제 주변 환경 문제” 세 가지를 들며 초기의 “악전고투”에 대해 솔직한 바 있다.⁵⁶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은 극복되었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예산 조달 문제는 오래도록 BIFF가 처한 난관이었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1998년 3회부터 비로소 한정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00년대에 부산시가 전체 예산의 50~60%를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산이 안정화되기까지, 재정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아시아의 칸’으로 불릴 만큼 위상이 제고됐으나, 국가로부터 약 50%를 지원받는 칸 영화제와는 달리 국고 보조금은 늘 제한적이었던 것이다.⁵⁷

55 1980년대 한국의 독립 영화는 “1970년대 한국영화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장산곶매의 1989년 작 〈오 꿈의 나라〉가 보여주듯 대학 영화운동도 그 일부를 구성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1999, 119~120쪽(유지나 외, 앞의 책, 73쪽에서 재인용).

56 김지석, 앞의 책, 23~29쪽.

57 이에 대한 김동호 초대 집행위원장의 경험담은 김호일, 앞의 책, 182~197쪽을 참조할 것. 2017년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고 보조금은 늘었으나 부산시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

BIFF를 둘러싼 국가 지원 문제 외에, 서울에 시네마테크 전용관을 설립하는 과정의 난항도 시네필문화에 대한 국가의 시선이 프랑스의 경우와 대비됨을 입증한다. 2002년 설립 이래 시네마테크협의회와 서울 아트시네마는 고정된 상영관 없이 임대 상영관을 전전했다. 2007년 영진위에서 전용관 논의가 나왔으나 정권 교체 및 영진위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유야무야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0년 이래 서울시 차원의 시네마테크지원과 전용관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5년 서울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지 5년 만인 2020년 2월 5일 예야 드디어 ‘서울시네마테크(가칭)’라는 이름하에 영상복합문화공간이 착공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중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국가보다 지자체가 개입한 점이 BIFF와의 공통점이자 파리 시네마테크와의 차이점이다.⁵⁸

결국 영화 관람에 대한 열정에서 출발한 시네필문화의 뿌리에 있어서는 양국이 동일하지만 그 문화의 유지에 중차대한 예산에 있어서 한국 시네필들은 국가가 아닌 시나 여타 지자체에 기대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 전통의 차이, 즉 영화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프랑스에서의 위상과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데에 기인한다. 프랑스에서 영화가 국가가 나서서 수호하고 지원하는 분야로서 고유의 위상을 자랑하는 반면, 한국에서 영화는 지금껏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 영화 정책을 총괄하는 영진위의 지방 이전은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영화의 위상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 담당 공기관이 이전했기에 영화가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의미라기보다, 실제로 영화가

58 고현실, 『영화계 숙원 충무로 ‘서울시네마테크’ 오늘 첫 삽...2022년 완공』, 『연합뉴스』, 2020.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58400004?input=1195m> *2020.6.20. 검색. 현재 서울 아트시네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중은 총 예산의 약 30%인데, 공공 기관의 지원이 50%는 돼야 한다는 것이 윤영진의 판단이다. 김성욱·김경진 대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네마테크”, 『ACT!』 88, 2014.3.31. <https://blog.naver.com/mediact/120211831091> *2020.6.15. 검색.

관 및 행사 유치,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나서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네필문화의 존속을 위해 지역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처럼 국가의 확고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지자체와의 공존과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시네필 문화 고유의 생존체계로 바라봐야 할 사안일 것이다.

6. 나가며

1990년대 한국사회가 맞이한 문화 빅뱅의 중심에는 영화가 자리했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한국영화의 장을 뒤흔든 쇄신의 양상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50년대 말 누벨바그가 등장할 때까지 프랑스영화의 장에서 부각된 변화와 유사성을 보인다는데 주목했다. 당시 한국 영화문화가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가정을 수립한 뒤, 그 가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비평과 시네마테크 운동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는 시네필문화와, 국제영화제, 영화정책 기관 등의 주요 축을 기준으로 양국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군사정권하의 1960~1980년대를 거치며 프랑스영화와 프랑스 대외 영화(문화)정책이 한국의 시네필문화는 물론 영화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영향은 1, 2세대 한국 시네필들이 1990년대에 이르러 영화계의 주요 분야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프랑스와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칸 영화제나 CNC 출범에서 국가가 주도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BIFF는 물론 영진위에서조차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초기 프랑스의 영향은 국내 시네필문화가 보다 성숙해지고 고유의 생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양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부터 시네필문화는 영화정책이든 프랑스와 차별화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풍토에 적합한 시네필문화의 토착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의 측면에서 국가와 맺는 관계가 프랑스 영화계와 상이하다는 필연성 때문이다. 한국 시네필문화가 국가로부터의 지원에 있어서 프랑스의 막강한 영화지원 방향을 모델 혹은 근거로 삼으려 했으나 국내에서 영화의 위상은 제7 예술의 탄생지인 프랑스에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 즉 영화를 국가적 사안으로 바라보는 프랑스의 전통은 한국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영화계와 정권이 맺어온 긴장관계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힘들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2020년에 이른 현재, 서울시네마테크나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 상황은 한국 시네필문화의 존속이 국가보다는 지자체와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자본의 출처에서부터 연원하는 이런 한국 시네필문화의 방향성이 향후 대중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개방과 더불어 지역성과 세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고유의 생산적 모델로서 정착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본고의 비교학적 논의는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의 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영화 교육기관이나 제작 등 타 분야를 포섭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표면적인 유사성 이면에 존재하는 각 핵심 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21세기의 변화된 맥락을 고려하여 향후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상적으로 회자되거나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프랑스영화와의 연결고리의 근거들을 프랑스와의 상호관계가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 1990년대 국내 시네필문화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영화문화에 있어서 지자체에 요구되는 역할의 근거로서 프랑스 대비 국가와의 관계 맺기의 차이를 짚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현실, 『영화계 숙원 증무로 ‘서울시네마테크’ 오늘 첫 삼...2022년 완공』, 『연합뉴스』, 2020.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58400004?input=1195m>(2020.6.20 검색)
- Mairie de Cannes, “L’histoire du Festival de Cannes : de l’anecdote à la légende”, <http://www.cannes.com/fr/culture/cannes-et-le-cinema/le-festival-de-cannes/histoire-du-festival-de-cannes.html>(2020.6.29 검색)
- 김성옥 · 김경민 대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네마테크”, 『ACT!』 88, 2014.3.31.
- 김홍준 · 정성일 · 허문영 오픈토크 “1995~2015 변모하는 영화의 풍경”, 2015.3.28, 서울아트시네마.
- 유성관 · 김홍윤, 『대담—정성일, 구회영을 만나다』, 『영화천국』 48, 한국영상자료원, 2016.
- 임인택, 『프랑스문화원 ‘시네 키즈’ 욕망 채우던 놀이터』, 『한겨레』, 2016.1.19.

2. 논문

- 강소원, 『부산독립영화에 대하여 (역사 · 현황 · 작품경향)』, 『독립영화』 2, 한국독립영화협회, 1999.
- 곽용수 · 김형석 · 이주훈 · 조영각 대담, 『‘문화학교 서울’의 기억』, 『독립영화』 18, 한국독립영화협회, 2003.
- 김승구,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 끼친 프랑스영화의 영향』, 『인문논총』 71-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 노철환, 『1950년대 『카이에 뒤 시네마』의 시네필—평론가 연구: 영화문화와 영화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9,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9.
- 문재철, 『영화적 경험 양식으로서 한국 시네필에 대한 연구—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47, 한국영화학회, 2011.
- 박은지, 『부산 프랑스문화원과 트랜스로컬 시네필리아—1980년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75, 한국영화학회, 2018.
- 양경미,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스크린쿼터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10.
- 이선주, 『영화(KINO)의 시대—영화잡지 『키노』와 1990년대 ‘비판적 시네필리아’의 문화정치』, 『대중서사연구』 23-3, 대중서사학회, 2017.
- 이수원, 『프랑스 영화지원정책 초창기에 대한 고찰—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50, 한국프랑스학회, 2005.

3. 단행본

- 구회영, 『영화에 대하여 알고싶은 두세가지 것들』, 한울, 1991.
-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 김미현 외,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현안연구, 2003.

- 김지석, 『영화의 바다 속으로』, 본복스, 2015.
- 김호일,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아 영화의 허브』, 자연과 인문, 2009.
- 에밀리 비커턴, 『카이에 뒤 시네마—영화비평의 길을 열다』, 정용준·이수원 역, 이앤비플러스, 2013.
- 유지나 외 『한국영화사 공부—1980~1997』, 이채, 2005.
- 이혁상,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 정성일,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바다출판사, 2010.
- 정성일, 『지하실에서 보낸 한 철—‘르누아르 극장’의 연대기(1972~1992)』, 김동호 외, 『내가 사랑한 프랑스 영화』, BIFF, 2015.
- 최승희, 이태규, 『한국영화산업 구조 변화와 영화산업정책—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6.
- Bonnel, René, *La 25ème image : une économie de l'audiovisuel*, Paris, Gallimard, 2001.
- De Baecque, Antoine, *La cinéphilie : Invention d'un regard, histoire d'une culture, 1944~1968*, Paris, Fayard, 2003.
- Léglise, Paul, *Histoire de la politique du cinéma français. T2 : Cinéma entre deux Républiques, 1940~1946*, Paris, Lherminier, 1977.
- Loubes, Olivier, *Cannes 1939. Le festival qui n'a pas eu lieu*, Paris, Armand Colin, 2016.
- Mannoni, Laurent, *Histoire de la Cinémathèque Française*, Paris, Gallimard, 2006.

Une étude comparative de l'essor de la scène cinématographique en Corée dans les années 1990 et en France au lendema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Rhee, Soue-won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ette étude porte sur l'essor de la scène cinématographique en Corée dans les années 1990 et en France au lendema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Nous avons pris comme hypothèse que les principaux moteurs de cet essor en Corée étaient sous influence française. En effet, les institutions et la politique cinématographique coréennes se sont inspirées de la France, mais en Corée ce sont les cinéphiles qui ont pris l'initiative de cette renaissance; en France l'initiative de l'Etat se révélait significative. En témoignent la comparaison de quelques moteurs principaux, soit la création d'un établissement public et d'un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et le mouvement cinéphilique(critique et cinémathèque). L'écart entre les deux pays provient de la différence du statut du cinema et des contextes historico-politiques. Si le cinema a fait l'objet du soutien constant en France indépendamment de l'alternance du pouvoir, il n'a jamais été une priorité étatique en Corée; les milieux du cinéma coréen ont plutôt entretenu des rapports de tension avec le pouvoir. Avec le temps, les cinéphiles ont adapté le savoir faire acquis à la situation sur place, en s'orientant vers d'autres références que la France. D'autre part, les rapports distants avec l'Etat les a conduits à demander le soutien des collectivités régionales. Il en faudrait une meilleure conscience de l'intérêt public et de la non-intervention par les collectivités régionales ainsi que l'esprit d'ouverture de la cinéphilie coréenne, ceci pour maintenir l'équilibre entre la localité et l'internationalité.

Mots-clés : essor du cinéma coréen dans les années 1990, cinéma français au lendema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politique cinématographique, cinéphilie, soutien de l'État, soutien des collectivités régionales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

『비교한국학』 리뷰

한·중 시각문화 연구서의 비교 고찰과 학제적 접근의 지평 확장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공성수)와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중국』(탕샤오빙)에 대한 서평
강용훈

한·중 시각문화 관련 연구서의 비교 고찰과 학제적 접근의 지평 확장*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공성수)와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중국』(탕샤오빙)에 대한 서평

강용훈**

1. 시각문화 연구와 학제적 접근
2. 시각적 삽화·소설 서사의 상호 텍스트성과 융합 예술사 서술
3. 사회주의 시각문화의 역사화와 중국 당대문화의 중층적 이해
4. ‘시각성’이라는 문제틀과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

| 국문초록 |

최근 학술장에서는 언어적 텍스트와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양자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공성수)와 『이미지와 사회』(탕샤오빙)도 그러한 연구서들이다. 이 연구서들은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라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시각문화 형성 및 변천 과정을 살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저작은 각각 한국의 시각문화와 중국의 시각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고, 공성수의 저작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신문연재소설 삽화를, 탕샤오빙의 저작은 사회주의 중국이 건설된 194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시각문화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9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각기 다른 대상과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탕샤오빙의 저작은 공성수의 저작이 기술하고 있지 않는 사회주의운동 관련 시각문화의 특성을 중국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지점을 환기시켜 준다. 반면 공성수의 저작은 『이미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근대 초기 시각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시기의 중국 시각문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미지와 사회』가 결여하고 있는 지점을 드러내준다. 이 서평에서는 그러한 결여 지점을 논하는 동시에, 두 연구서가 시각문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또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각문화 연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

주제어 : 시각문화, 학제적 접근, 시각성, 이미지, 융합, 비교문화

1. 시각문화 연구와 학제적 접근

‘시각’이라는 말에는 신체기관의 일부인 ‘눈’을 지칭하는 뜻과 ‘감각’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렇기에 마틴 제이는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자연적 부분”과 “문화적 부분”이 뒤얹혀 있음을 지적하며 그 경계 역시 혼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시각적 관찰 행위를 “서로 다른 시각체제들이 지닌 암묵적인 문화적 규칙들을 살피는 것”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시각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틴 제이는 『모더니티의 시각체제들』이라는 또 다른 글에서 근대의 시각적 문화를 대표하는 체제로 “데카르트적 원근법(Perspective)주의”를 들었지만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이 대표하는 “묘사의 미술”, “바로크적인 시각의 폭발적인 힘”과 같은 다층적 시각 체제들이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 체제들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마틴 제이의 견해는 시공을 달리하여 변화해온 여러 시각 문화들을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²

여기에서 말하는 ‘시각 체제(the scopic regime)’ 개념은 기존 연구에서 서술했듯이 “프랑스 영화학자 메츠(Metz, 1982)가 처음 제시”했으며 “영화관이라는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배치”에 의해 영화 관람 행위가 구조화되고 “관람자를 주체로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비추어 주은우는 시각 체제가 “다양한 물질적·제도적 실천들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하며 그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주체’, 즉 시각적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³ 마틴 제이와 주은우는 모두 근대의 시각 체제에서 지배적인 것을 데카르트적 원근법으로 규정했고,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원근법에 동요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지

1 마틴 제이, 전영백 외역, 『눈의 편파—20세기 프랑스 철학의 시각과 반시각』, 서광사, 2019, 27쪽.

2 마틴 제이, 최연희 역, 『모더니티의 시각체제들』,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출판부, 2004, 37~50쪽.

3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23~24쪽.

적한다. 그 동요에는 카메라의 출현이나 대도시의 불거리 장치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출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이다.⁴

기존의 한국문학 연구에서도 시각성 관련 논의는 문학작품 내부에서 시각적 주체가 형성된 과정에 초점⁵을 맞췄고, 2010년대에는 “보는 주체”의 탄생⁶이 “근대적 주체성의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문학사를 시선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문학의 영역 안에서 시각성의 양상들을 분석하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텍스트의 내적 논리 속에서 이미지”를 읽은 후 이를 “당대의 사회적·문화적·제도적 환경과 접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최근 연구는 “시각 이미지와 문자 텍스트의 관계와 ‘이접’ 가능성”을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과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들의 문제의식을 변용하고 있다. 동시에 그 연구는 ‘이미지’를 매개로 텍스트의 내적 논리와 “문화사 속에서 해당 이미지들의 사용 용례와 관습”을 분석하는 작업을 결합시키려는 문제의식 또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후 소개할 ‘시각문화’에 대한 학제적 연구들과 접속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⁷

2010년대 전후로는 “언어적인 것과 시각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국 근대문학을 형성한 상호매개의 역사”가 사진을 넘어 “1910년대 말의 영화(활동사진)와 근대 (서구)미술의 출현까지 포함하는 시각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4 위의 책, 402쪽. 근대의 시각 중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 편, 정성철 외 역, 『모더니티와 시각의 체계모니』, 시각과언어, 2004; 마틴 제이, 전영백 외역, 앞의 책 참조.

5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장수익, 『1920년대 초기 소설의 시점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8; 나희덕,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시각성 —‘보는 주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 논문, 2006.

6 이광호, 『시선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15, 32·41쪽.

7 이상의 논의는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한국시학연구』 42, 한국시학회, 2015, 294·300쪽. 이에 대한 비판적 논평과 재반론으로는 김남시, 『시각이미지에는 있으나 언어에는 없는 것 — 시이미지 연구 방법론을 위한 제언』, 『한국시학연구』 48, 한국시학회, 2016; 고봉준, 『시 이미지 연구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제언』,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방법론(2) — 문학 이미지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분석한 연구 또한 발표되고 있다.⁸ 이러한 연구는 언어예술과 시각예술의 혼종 지대를 탐색하며 언어적 텍스트가 시각적 예술과 주고받은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학제적 접근의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문학·예술·영화의 상호 매개의 역사”가 “유럽과 비유럽 언어들 사이”, 그리고 “제국 본토 일본과 식민지 한국 간의 위계적 관계들을 횡단”하는 양상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⁹

이 논문에서 함께 평하려고 하는 두 권의 연구서 또한 ‘시각문화’가 지니는 학제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다. 2020년 발간된 공성수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소명출판)¹⁰은 “소설과 삽화 사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역동적인 접점들”(3)을 추적하며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예술사의 가능성”(4)을 탐색하고 있다. 반면 탕샤오빙의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 중국』은 “2015년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출판사에서 *Visual Culture in Contemporary China : Paradigms and Shift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중국어판은 “2018년 상하이 푸단대학 출판사에서 『유동하는 이미지—당대 중국 시각문화의 재해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으로, 한국에서는 2020년 번역 출판되었다. 『이미지와 사회』는 『프롤로그』에서부터 학제간 연구를 표방하며 “당대 중국 시각문화의 논리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예술 작품 및 예술적 실험들”에 대해 서술하겠다고 말한다.¹¹ ‘시각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영화학이나 미술사학에서 이미 연구되었던 작품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보려고 한 것이 이 연구의 의의인 것이다.

8 테드 휴즈,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자유의 경계선』, 소명출판, 2013, 24·28쪽.

9 위의 책, 33쪽.

10 공성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 소명출판, 2020. 이하 이 책과 관련된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하고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로 지칭한다.

11 탕샤오빙, 이현정 외역,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 중국』, 돌베개, 2020, 7·31쪽. 이하 이 책과 관련된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하고 『이미지와 사회』로 지칭한다.

이 두 연구는 각각 한국의 시각문화와 중국의 시각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지나나 학제적 접근을 통해 근대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시각문화 형성 과정을 재조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그러한 서술 과정에서 비교문화 연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 또한 두 연구의 공통점이다. 공성수의 저작에서 1920년대의 대표적 삽화가인 안석영이 “인상주의, 입체파, 야수파, 초현실주의와 같은 서구의 다양한 회화 양식을 접목”(235)시켰음을 분석한 부분, 이상의 삽화 속에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문자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던 미래파의 정신이 투영되어 있다”(302)고 서술한 부분에서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탕샤오빙 역시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운동이 만들어낸 시각체계를 미래파의 시학과 비교하고 있다.

물론 공성수의 저작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의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시각문화에 대해 논하고 있고, 탕샤오빙의 저작은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된 194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시각문화의 변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시기의 차이 때문에 두 저작에 나타난 시각문화 관련 서술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개별 저작이 결여하고 있는 지점을, 다른 저작을 통해 보충하는 작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

본론의 분석에서 다시 상술하겠지만, 식민지 시기 삽화를 연구하고 있는 공성수의 저작에서는 KAPF, 즉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과 관련된 문학작품의 삽화가 어떻게 시각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194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시각문화를 분석하고 있는 탕샤오빙의 저작은 공성수 연구의 비어 있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탕샤오빙의 저작에서는 근대 초기 중국의 시각문화가 사회주의 중국의 시각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근대 초기 식민지 조선의 삽화를 연재하고 있는 공성수 저작과 비

교하여 보았을 때 탕샤오빙 저작의 결여된 지점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서평에서는 그러한 결여 지점을 논하는 동시에, 시각 문화에 대해 두 저작이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또한 비교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각문화 연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2. 시각적 삽화 · 소설 서사의 상호 텍스트성과 융합 예술사 서술

(1) 신문연재소설 삽화의 위상 변화 탐색과 근대적 시각 주체의 형성

공성수의 저작에서는 소설 삽화의 역할을 “이미지를 통해 소설 서사를 재현”(9)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 한 규정에는 시각문화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삽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점과 “서사적 연구 대상”(10)으로 소설 삽화를 정의하는 관점이 동시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서론에서부터 삽화가 소설 속 담화, 혹은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시각적 재현을 초과하는 지점, 즉 “소설의 언어가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10)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의 서술 방식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그 관점은 이 저작에서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들인 ‘상호텍스트성’, ‘메타 텍스트(metatext)’, ‘겉텍스트(paratext)’에 집약되어 있다. 삽화를 “서사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복판에서 소설과 끊임없이 상호텍스트적(intertextual)으로 소통”(13)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소설 삽화는 “소설 담화의 내재적 구성 원리를 반영”하는 영역이자 “소설 연구의 우회적인 접근”(14)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소설과 삽화가 불일치하는 순간들, 혹은 글과 그림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균열의 지점들”(16)을 포착하며 소설 삽화가

“독립적인 미적체계”(17)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과 삽화의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문제들은 이를 탐색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원론적 차원의 강조에 머무를 우려도 있다.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는 “일간지 문예면의 ‘신문연재소설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신문연재소설란에서 소설과 삽화는 하나의 지면 아래 인접하여 공존하고 있었고, 그 공존의 양상은 독자들의 독서 행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근대 초기의 신문연재소설란은 공성수의 연구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2단 내지 3단으로 이뤄진 ‘소설면’과 그 한가운데에 배치된 ‘삽화면’으로 구성”(18)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판 배치는 언어적 텍스트와 회화를 동시에 읽는 독자들의 다층적 독서 과정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결텍스트로서의 삽화”(20)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신문연재소설란’이 지니는 융합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문문예면의 연재소설란을 “소설과 삽화, 문자언어와 시각언어”(32)의 협업으로 바라보았기에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는 소설사와 미술사로 구분되어 있던 근대 예술사의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양자가 교섭하고 있는 양상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포착해냈다. 『저자의 말』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소설과 삽화의 융합 예술사”(4)를 효과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근대 초기의 ‘신문’이라는 매체, 그리고 그 매체의 문예면에 대한 면밀한 탐색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저작의 2장 『1910년대 초반—신문연재소설의 탄생과 매체교섭』, 3장 『1910년대 중반—번안소설·삽화의 유입과 신파의 감성』, 4장 『1920년대 초 중반—근대소설의 형성기 삽화 미술의 실험』은 그러한 융합 예술사적 구도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1910년대 초반부터 1920년대 초중반까지 신문연재소설 지면에 대한 탐색을 통해 공성수는 신문연재소설의 양식적 변화가 연재

소설 삽화의 변모 양상과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해냈다. 그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소설의 서사적 내용을 재현하는 데 주력했던 삽화가 그 제한적 역할을 탈피하여 독립적 위상을 부여받기 시작한 과정과 연동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1910년대 초반 『매일신보』에 신문연재소설란이 탄생한 후 그 지면에 신소설이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 삽화는 소설 속의 주요사건과 줄거리를 이미지의 형태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는 연재소설의 “서사문법에 익숙하지 않은”(45) 독자들에게 서사의 전개 양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신소설 삽화는 “스토리 층위의 사건들을 재현”(57)하는 동시에, “소설이 빈틈으로 남겨 놓은 서사의 결핍” 지점을 이미지의 형태로 채워넣으며 “이야기 내부에 사실감을 극대화”(55)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1910년대 중반 신소설을 대체하여 『매일신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번안소설에서 삽화는 핵심 줄거리를 설명하는 데 방점을 두지 않았고, “소설 서사의 정서적인 분위기나 인물의 내면 심리, 혹은 배경에 대한 묘사”(94)와 같은 부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직접 설명하는 요약적 이미지”를 제시했던 신소설 삽화가 “‘눈’으로 보여주는 극적 이미지”(99)를 제공하는 번안소설 삽화로 대체된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변모 과정은 연재소설 삽화의 역할 자체가 줄거리를 전달하는 기능 대신 “이미지 자체의 미적 효과에 집중”(105)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환된 것과 연동되고 있기에 신문연재소설의 삽화가 독자적 위상을 부여받기 시작했다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성수의 연구는 신소설 삽화에서 번안소설 삽화로의 전환을 “미장센의 강조라는 맥락”(106)으로 설명하며 번안소설의 삽화가 프레임의 연출을 통해 “대상을 응시하는 특정 주체의 자리”(137)를 화면 안에 만들어놓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의 인용 부분 역시 이러한 서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삽화가 소설을 재현한다는 말은 결국 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사적 행위가 이미지를 통해 메타적으로 재현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변안소설 삽화는 바로 그와 같은 서사적 소통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헤게모니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청각이 아닌 시각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는 주체, 시선을 통해 대상을 포착하고 시선으로 욕망을 인식하며, 시선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보다 근대적인 주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변안소설 삽화가 지금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46)

위의 인용문에서는 두 가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변안소설 삽화가 연재 소설의 서사를 재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서사를 재현하는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메타적’인 위치를 부각시킨다. 이때의 ‘메타적인’ 위치라는 궁극적으로는 프레임을 연출하여 “눈에 보이는 대상을 포획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152)를 구획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삽화의 메타적 재현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을 ‘이미지’에서 찾으며 이를 근대적 시각 주체가 탄생하는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시선의 주체가 소설 세계 내부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면 공성수의 연구는 소설과 삽화의 융합 지점을 문제 삼으며 근대적 시각문화 전반을 문제 삼는다. 이를 통해 공성수는 대상을 응시하는 근대적 주체를 ‘작가’의 자리에만 귀속시키지 않았고, 독자 역시 이러한 다층적 시선 실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다.

(2) 삽화의 탈경계적 위상과 이항대립 구도의 잔존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근대소설의 형성기 삽화 미술의 실험』을 논하고 있는 4장 ‘1920년대 초

중반' 부분이다. 1920년대는 『매일신보』 외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창간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구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 삽화가 이용되기 시작한다.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는 이 시기 전문적 미술교육을 받은 조선인 화가들이 소설 삽화에 참여했다는 점, 또한 “삽화의 이름이 소설가의 이름과 나란히 표기”(160)되기 시작했음을 강조한다. 신소설과 변안소설의 삽화에 대해 논할 때 이 연구서는 삽화 창작자들의 고유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이는 삽화 창작자들이 독자적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1920년대 초중반 신문연재소설 삽화의 특성을 논할 때에는 김창환, 고희동, 김복진, 안석주, 이상범, 노수현 등 전문적 삽화가의 고유명을 열거하고 있다. 그중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석영 안석주다.

이 연구서가 여러 삽화가 중 안석주를 예로 든 것은 그가 나도향의 『환희』, 이광수의 『재생』, 최독건의 『승방비곡』 등 대중적 반향을 일으킨 1920년대 초반 신문연재소설의 삽화가라는 점, 그리고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다양한 신문을 넘나들며 활동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한 화풍에 경도”되지 않은 채 “인상주의, 입체파, 아수파, 초현실주의와 같은 서구의 다양한 회화 양식을 접목”(164)시켰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석영의 삽화를 분석할 때 이 논문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주의적 재현의 미술로부터 탈피”(166)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안소설의 삽화는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신소설 삽화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리얼리티, 즉 재현된 이미지와 실제 대상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 석영의 삽화는 “선과 면, 형태가 강조되는 비구상적 이미지”, “조형을 통해 내면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이미지”(166)를 전면에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소설의 삽화들과 전적으로 구분된다.

특히 석영의 삽화에서 절단된 신체들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이미지를 분

석하며 “비정상적으로 분할된 육체들이 역설적으로 인물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그 뒤틀린 욕망의 본질”(178)이 함께 폭로되고 있음을 분석한 부분, “등장 인물의 생각과 심리, 그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재현의 공간으로서의 ‘얼굴’”(181)이 등장하고 있음을 부각시킨 부분, 석영의 삽화에 사용된 그림자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의 내면적인 욕망을, 그리고 때로는 인물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의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수사적 장치”였다고 해석한 부분은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석영의 삽화를 통해 공성수는 “삽화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 즉 “문자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가 불가능한 시각적 이미지의 힘”을 보여주며 “삽화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려는”(213) 전략을 부각시킨다. 이 지점에 이르면 신문연재소설란에 배치된 삽화는 더 이상 소설 속 서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위치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 개별적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부여받는다. 근대소설의 삽화들을, “글 텍스트 이면의 숨겨져 있는 욕망과 무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기표”이자 “그 자체로 풀려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기호”(222)로 규정한 부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 석영 안석주의 삽화를 분석하고 있는 4장 부분은 이상과 박태원의 삽화에 대해 서술한 6장 『1930년대 초반—모더니즘 소설과 삽화의 탈경계적 사유』와 긴밀한 조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석영의 삽화를 분석한 4장에서 연재소설의 문자언어로부터 독립적 위상을 부여받은 시각적 이미지의 힘을 부각시켰다면 6장에서는 다시금 독립된 위상을 부여받은 삽화와 소설 간의 장르적 경계가 유동하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박태원의 삽화를 분석할 때 이 연구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삽화에 나타나고 있는 문자들이다. 앞에서 제시한 4장까지의 분석에서 소설은 문자언어로 구성된 서사 예술로 규정되고 있었던 반면, 삽화는 이미지를 주요 표현 수단으로 삼는 시각문화의 한 유형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

과 박태원의 삽화에 나타난 문자들은 이러한 이항 대립 구도의 경계를 어지럽힌다. “어떤 의미도 지시하지 않”(292)은 채 텅 빈 기표로 존재하며 그 권위를 전복시키고 있는 이상·박태원의 삽화 속 문자가 그들이 추구했던 혼종적 글쓰기와 연결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상과 박태원의 자작 삽화는 문자를 중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와 서체(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삽화들과 변별된다. 그중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박태원의 연재소설 『반년간』과 함께 배치된 박태원 자신의 삽화 속 ‘간판’의 이미지와 박태원의 대표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배치된 이상의 삽화 속 문자들이다.

간판 속 문자를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는 『반년간』의 삽화에 대해 저자는 “이미지가 대상을 완벽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환상”이 깨져버린 후 “언어기호로서의 문자”(287)를 통해 대상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경성의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관찰하고 싶은 충동을 구보가 느끼는 부분에 배치된 이상의 삽화에는 음절 단위로 쪼개진 한자어가 산포되어 있으며 저자는 이를 “이른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캘리그래피(calligraphy)의 놀이가 지금 이 삽화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302)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 잘 정리하고 있듯이 1930년대 초반 박태원과 이상의 삽화 속문자에는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거나 근대적 일상 공간의 체험을 구체화”하는 특성과 “텅 빈 기표처럼 사용되거나 혹은 추상적인 그림처럼 변화”(307)하는 속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이 장의 제목이기도 한 “삽화의 탈경계적 사유”(269)와도 긴밀하게 조응한다. 그러나 이 연구서는 1930년대 초반 삽화의 탈경계적 특성을 다층적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그러한 특성 중 하나의 지점에만 특권적 의미를 부여하며 다시금 ‘문자와 이미지’의 이항 대립 구

도에 간혀버리는 한계를 드러낸다.¹²

근대의 주요한 특징을 “문자를 통한 제도화”로 규정된 후 “삽화와 문자를 통해 이 세계를 표현할 때 그것은 제도와 질서를 통해 일상을 지배하는 근대 권력의 작동 방식과 조응하는 것처럼 보인다”(307)고 한 부분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문자’는 근대 권력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삽화 이미지는 그 권력에 편입되는 대상으로만 한정될 우려가 있다. 이는 문자언어와 시각 이미지 간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축하려고 했던 이 연구서의 문제의식 자체를 무화시키는 의미 부여이기도 하다. 이상의 삽화에 나타나는, “문자를 활용한 캘리그래피의 놀이와 언어적 유희”를 “근대적 기획의 핵심으로서 문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시기 예술가들의 사활을 건 탈출 시도”(307)로 해석한 부분에서도 유사한 한계가 발견된다.

또 다른 한계는 이 책의 5장인 「1920년대 후반—근대소설의 정착과 소설 삽화의 대유행」에서 이 시기 삽화의 특징 및 시대적 담론을 리얼리티에 대한 공유로 국한시켰다는 데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20년대 전반의 안석영 삽화를 분석하며 이 시기의 삽화예술이 리얼리티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4장의 논의와도 일정 부분 배치되고 있다. 또한 5장에서 분석한 1920년대 후반 삽화의 ‘리얼리티’ 관련 서술은 이 책의 6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삽화’들과 대비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대비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한국문학사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이항 대립구도로 해석했던 오랜 관습을 삽화 예술사의 형태로

12 도윤정 역시 공성수의 연구가 이상의 삽화를 해석하며 근대 풍경의 지표 역할을 하는 문자와 지시 작용에 벗어나 “의미작용 기능”을 지연시키는 문자, 이 두 가지 역할을 구분했다는 점을 지적한 후 “공성수가 분석한 두 범주의 문자의 기능 모두 문자가 이미지와 동일한 바탕면에 놓이면서 발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윤정, 『이상의 삽화 분석—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삽화의 화면 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15,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9. 27쪽.

반복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이 연구서에서도 1930년대 초반의 삽화를 분석하는 6장에서 이상과 박태원을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로 한정시켜 생각하기 보다는 이 시기의 다양한 예술적 지형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 이해”(273)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1920년대 후반의 소설사와 삽화를 분석하는 5장 부분에서 “시대의 담론으로서 리얼리티(즘)”(264)만이 부각되어 있는 점, 1920년대 전반 비구상적이고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했던 안석주 삽화와 문자를 부각시킨 이상·박태원 삽화를 매개할 수 있는 융합 예술사적 지형에 대한 탐색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이 연구서의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는 애초의 문제설정과는 다르게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의 예술사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이항 대립 구도로만 규정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카프문학, 비평, 미술, 영화에서의 언어적-시각적 관계의 교섭”이 “1930년대 문학적 모더니즘의 시각적 실험을 고취”시켰으며 “향토주의와 함께 시각적 대중문화가 카프와 1930년대 모더니즘 양자의 중심적 관심사”였다는 선행연구,¹³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에서도 1920년대 초중반 신문 연재소설의 주요 삽화가로 언급되었던 김복진이 “다다의 파괴적 성향과 구성주의의 건설적 측면을 함께 아우르는 미술”을 구상하며 이를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인식했다는 선행연구¹⁴가 이미 발표되었기에 더욱 아쉬움을 불러 일으킨다. 뒤의 장에서 보게 될 『이미지와 사회』는 중국의 시각문화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 시기 중국 시각문화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양상을 다루고 있기에 KAPF 혹은 분단 이후 북한의 시각문화를 다루게 될 미래의 연구에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13 테드 휴즈, 나병철 역, 앞의 책, 56·84쪽.

14 홍지석, 『카프 초기 프롤레타리아 미술 담론』,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18쪽.

3. 사회주의 시각문화의 역사화와 중국 당대문화의 중층적 이해

(1) 사회주의 시각문화의 생산방식 탐색과 아방가르드적 성격

『이미지와 사회』는 ‘시각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와 장르에 속하는 일군의 예술작품”들을 검토하며 “당대 중국인들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창조”(31)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탐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서의 저자 탕샤오빙은 우선 시각문화에 대한 미국의 최근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표적 연구는 W. J. T 미첼의 연구로, 이 책에서는 “시각적 전환”을 부각시킨 미첼이 시각문화 연구를 “미술사와 문학, 철학, 영화/대중문화 연구, 사회학, 인류학 등을 연결시킨 새로운 혼종적 학제 간 연구”(33)로 규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곧 “시각문화 연구라는 학문 분야의 자기 정립”(33)을 가져왔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탕샤오빙은 이러한 미첼의 견해를 높이 평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2005년 『미국의 시각문화』라는 책의 편집을 담당했던 할러웨이(David Holloway)와 벡(John Beck)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 “시각문화를 역사화하여 보는 일의 중요성”(37)을 강조한다. 시각적 체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체계적으로 재생산된 과정을 검토하며 당대의 지배적 시각체계와는 “다른 유형의 역사적 비전과 과정들”(38)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후반기 격렬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겪었던 중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특히 유효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지와 사회』는 “현대 중국의 긴 혁명의 역사”(41)가 당대 중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며 “당대 중국의 시각문화를 역사적 변화와 지속이라는 폭 넓은 배경”(43)속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이는 1940년대 후반 새롭게 건설된 사회주의 중국을 “문화적 모더니티의 추구라는 장기적 프로젝트의 연장

선”(61) 아래 바라보려는 노력이며 중국 혁명의 오류와 폭력에만 초점을 맞췄던 서양의 통상적 관점들로부터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탕샤오빙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주의 시각문화 생산 방식을, “현대적이고 새로운 감성과 감정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규모의 실험들”이자 “새로운 보기(seeing)의 방법을 생산”(63)한 실천들로 인식하고 있다. 탕샤오빙의 관점은 그러한 실천들이 아방가르드운동과 연결된다고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표적 예로, 『인민미술』이라는 잡지의 창간호 사설인 「신중국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자」에 나타난 ‘표현’ 개념을, 탕샤오빙은 아방가르드적 특성과 연결시킨다.

새로운 문화 생산 방식의 건설이라는 의욕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행자들과 설계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았다. 어떻게 예술을 공공의 경험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전통적 형식과 기법을 현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예술가들이 자기 개조를 실현하여 변화한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의 임무는 사회주의적 눈 혹은 시각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사실 아방가르드의 정신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의 혁신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개조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술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78)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탕샤오빙의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건설 과정 시기 문화 개조운동에 대해서 서술할 때 그 개조운동이 지니는 집단적 성격보다는 그 개조운동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의 자기 변혁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인민을 이해하고 인민에게 배울 수 있도록 자기를 개조”(82)하는 작업, 더 나아가 그 개조를 위해 예술적 형식을 혁신하고 예술을 새롭게 정의했던 작업을 부각시킨 후 이를 ‘아방가르

드의 정신'과 연결시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탕샤오빙의 문제들이 가장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의 2장 『사회주의 시각문화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2) - 어느 역사화가 주는 계시』이다. 탕샤오빙은 이 장의 시작을,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119)하기 위해 열린 상설전시회에 왕스궈(王式廓)의 목탄 드로잉 〈피묻은 옷〉(1959)이 전시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왕스궈의 작품은 사회주의 중국 국가건설 시기의 토지개혁운동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예술가에게 있어, 토지가 없는 대다수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이 기획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서술하는가”(124)와 같은 문제들을 초래했다.

탕샤오빙은 이러한 왕스궈의 작품이 토지개혁운동을 문학적 혹은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던 중국의 문학/문화적 전통들을 각색한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지와 사회』에서는 중국 토지개혁운동을 다룬 저우리보(周立波)의 소설 『폭풍취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왕스궈의 〈피묻은 옷〉에 등장하는 다층적 인물들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저우리보의 소설이 1954년 무렵 이미 연환화(連環畫)로 각색되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피묻은 옷〉의 창작 과정은 사회주의 시기 “매체와 장르를 가로지른 각색의 결과”(141)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도 탕샤오빙이 학제적 시각, 즉 언어 텍스트와 시각적 이미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왕스궈의 목탄 드로잉이 지니는 예술적 가능성을 서술할 때 탕샤오빙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프레드릭 제임슨에 의해 전유된 루카치다. 탕샤오빙에 따르면,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성(totality)”을 밝혀내는 것”,(145) 즉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여 아직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발전의 추세를 포착”(146)을 중요시했으며 프레드릭 제임슨은 『정치적 무의식』에서 이러한 루카치의 총

체성 개념을 “역사의 종착점에 대한 어떤 희망적 관점”(147)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지와 사회』는 루카치와 제임슨의 관점들을 차용하여 왕스콧의 〈피 묻은 옷〉이 지니는 의의를 부각시킨다. 〈피 묻은 옷〉은 “농민들이 지주를 공개적으로 성토했다는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획득했던 공개적 호소대회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통해 “운동의 전체 면모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고, 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147) 순간을 담아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탕샤오빙은 왕스콧의 드로잉과 스케치에 표현주의적 색채가 드러나 있으며, 이는 독일의 케테 콜비츠가 판화에서 형상화했던 독일 농민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탕샤오빙은 표현주의를 둘러싼 루카치와 에른스트 블로흐의 논쟁을 서술하고 있지만, 왕스콧이 궁극적으로 택한 관점은 루카치의 길, 즉 “새로운 집단 정체성의 형성을 시각화”(162)하는 작업이었음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탕샤오빙의 해석은 다음 지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탕샤오빙은 왕스콧의 〈피 묻은 옷〉이 “사회주의 신중국의 농민들을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적 어휘와 문법”(165)을 완성화하고 체계화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적 어휘와 문법에 대해 서술할 때 탕샤오빙은 예술가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왕스콧의 세계관이 형성된 과정을 밝혀내는 작업의 중요성만을 부각시킨다. 왕스콧의 작품을 해석할 때 루카치와 블로흐의 논쟁을 표면적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계와 긴밀하게 연동된다.

루카치는 『표현주의의 위대성과 몰락』에서 표현주의자들이 “작고”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계기들을 배제하고 “본질”을 시간적·공간적 인과관계로부터 유리해내며 “전형적인 특성들을 제거”해버린다고 비판한다.¹⁵ 반면

15 루카치, 홍승용 역, 『표현주의의 위대성과 몰락』,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87, 45~46쪽.

에른스트 블로흐는 『표현주의에 대한 논의들』에서 “표현주의가 파괴나 변조, 그리고 그 아래에 이루어지는 몽타주나 변형들”, 더 나아가 “표면적인 연관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그 파괴된 빈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예술적 시도였음을 강조했다.¹⁶

물론 왕스궈의 완성된 그림에서 전형적 인물들이 부각되었기에 루카치와 블로흐의 논쟁 중 루카치에 초점을 맞추어 〈피 묻은 옷〉을 분석하는 탕샤오빙의 시각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형적 인물들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는 왕스궈의 스케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표현주의적 예술 경향의 영향이 여전히 개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탕샤오빙은 〈피묻은 옷〉에 담긴 양자, 즉 루카치적 전형의 논리와 표현주의적 예술 창작 방식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 사회주의 시각경험의 정치성과 복수적 문화 인식의 모호성

탕샤오빙은 사회주의 중국이 건설되던 시기인 1950년대 외에도 문화혁명 시기인 1960~1970년대 시각예술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서술하며 중국 시각예술의 역사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해당 시기 시각예술들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에만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 탕샤오빙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된 중국 당대미술”(229)에 사회주의 중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러한 차용의 정치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앤디 워홀로 불리는 왕광이(王廣義)다.

『이미지와 사회』에 따르면, 왕광이는 “노동자 혹은 홍위병과 같은 중국 사

16 에른스트 블로흐, 『표현주의에 대한 논의들』, 위의 책, 63쪽.

회주의 시대의 주인공들”을 등장시킨 시각적 아이콘과 “코카콜라나 루이비통 등 서구의 유명 브랜드”(229) 로고들을 병치시킨 〈대비판〉 시리즈로 대중적 인기와 평단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했다. 이러한 왕광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즐기는 능숙한 전략가”(233)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탕샤오빙은 왕광이가 “‘사회주의 시각경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에 대한 복수적(pluralistic) 인식을 표현”(233)했고, 이를 통해 당대 미술 전반에 대해 비판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왕광이는 “‘사회주의 시각경험’을 재검토하겠다는”(234) 견해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피력했지만, 탕샤오빙은 그러한 관점이 1980년대 말 〈마오쩌둥—붉은 격자 1호〉 같은 작품부터 왕광이에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시각문화를 재조명하고 재상상”(240)하는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당대미술의 형식과 위계를 재배치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펍시콜라와 문화대혁명 시기의 공농병(工農兵) 형상을 병치시켜 놓은 1998년 유화 〈대비판—펍시콜라〉에 대해서는 “두 개의 시각 시스템 사이의 비공시성(non-synchronicity)”을 보여주며 “욕망과 소비의 현대 상형문자”이자 보편언어인 상업적 로고와 “지금은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의 잔상”이지만 “여전히 또렷하고 강인한 선과 동작으로 표현”(246)되는 중국의 정치적 주체 사이의 거리를 부각시켰다고 주장한다. 탕샤오빙은 랑시에르의 개념을 빌려와 이러한 왕광이의 작품이 “현재의 시각적 질서를 파괴”하며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를 가능”(249)하게 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왕광이의 작품이 지니는 시각성을 의미화하는 부분에서 탕샤오빙은 랑시에르가 『정치에 대한 열가지 테제』에서 “정치의 본질은 불일치”라고 말한 것을 차용한다. 불일치를 “감각적인 것과 그 자체 사이의 틈을 현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¹⁷만 인용하고 있기에 탕샤오빙은 이를 ‘이미지’나 ‘미학’과 관련된 랑시에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랑시에르

사유의 출발점인 알튀세르가 마오쩌둥의 모순론 및 중국 문화혁명의 실천적 경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랑시에르 논의들과 왕광이의 작품을 연결시키는 탕샤오빙의 논의는 흥미롭다. 왕광이의 〈대비판〉 시리즈에 차용된 시각문화가 중국 문화혁명 시기 유행했지만, 90년대 이후 중국 주류 사회의 인식에서는 불편함을 자아내는 문화적 자료들이라는 점 또한 그 논의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탕샤오빙은 〈대비판〉에서 왕광위가 부각시킨 공농병의 형상이 “문화대혁명 시기 대량으로 생산되고 널리 전파되었던 공격적인 시각문화”였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에 대해서는 “특유의 시각적 문법과 어휘가 생산되었고, 미술에 대한 급진적 이해와 혁신적인 창작 방법들이 등장”(250)한 때로 규정한다. 특히 마오쩌둥이 희망을 걸었던 관료체제 바깥의 청년들, 즉 이른바 홍위병은 격정적인 반전통 의례를 수행했는데, 탕샤오빙은 이 운동에 영감을 준 것으로 “1920년대 소련 미래주의 시인 마야코프스키”(253)의 구성주의적 상상을 들며 홍위병 미술운동이 “고유한 시각체계를 생산”(253)하고 “예술을 생활 속으로 돌려놓을 것을 선언”(254)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탕샤오빙은 사회주의 중국 건국 초기의 시각문화 생산 방식을 ‘아방가르드운동’과 연결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홍위병의 미술운동 역시 “20세기 초 유럽의 아방가르드운동과 유사한 지향점”(255)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미지와 사회』에서는 홍위병운동이 지닌 아방가르드적 성격이 “미술영역에서의 본격 모더니즘(high modernism) 혁명과는 분명히 거리”(255)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홍위병 미술운동이 “독일 표현주의 작품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257)을 받은 중국 현대 목판화의 정전들을 활용하여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과 어휘”(257)를 생산하고 코드화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7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08, 253쪽.

탕샤오빙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화대혁명 시기의 “사회주의 시각경험”(261)이 개혁·개방의 길을 택한 이후 변화하게 된 1990년대 전후 중국에서는 망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글로벌 세계경제를 상징하는 아이콘들과 충돌시키는 왕광이의 시도에는 “당대의 시각적 질서에 균열”(261)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분명 흥미롭지만, 그럼에도 왕광이가 차용하고 있는 문화혁명의 아이콘이 당대 시각적 질서의 틈을 현시하며 당대 중국사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¹⁸ 효과까지 발생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탕샤오빙 역시 “왕광이가” 사회주의 시각경험 “으로부터 되살리고자” 한 것을 “일종의 정체성과 역사적 유산”(269)으로만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왕광이가 “구미의 헤게모니적 힘에 대항”(271)할 수 있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탕샤오빙의 해석에 입각했을 때 왕광이의 문화적 대결은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적 질서 위에 성립된 당대의 지배적 시각문화에 균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균열이 당대 중국사회의 시각문화에 균열을 내 자기 몫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을 현시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물론 탕샤오빙 역시 사회주의 시각성이 “왕광이 세대 중국인들의 정체성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는 점, 왕광이가 “냉전의 필연적 산물”(272)이었던 혁명문화를 새롭게 다시 보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와 사회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 사이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274)으며 왕광이가 현재의 미술시장의 “주목할 만한 수혜자”(275)라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반세기 전에 홍위병 미술운동을 촉발시켰던 열망들의 희미한 메아리”(277)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든다

18 위의 글, 253쪽.

는 점에서 왕광이의 예술적 실천은,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탕샤오빙의 관점은 역사와 문화를 복수적으로 인식하려는 문제들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왕광이 실천들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이라는 또 다른 예술 시스템 안에 포섭되어 버렸던 역사적 아방가르드운동의 한계들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는 탕샤오빙의 논의에서 모호하게 서술되고 있다.¹⁹

그럼에도 탕샤오빙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각문화에 대한 자신의 발화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수용될 지를 면밀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영문으로 먼저 발표된 『이미지와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당대 중국문화를 수용하는 서양의 시각을 문제 삼으려는 데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반체제 가설”(285)로 이에 대한 탕샤오빙의 비판적 견해는 이 책의 6장 『당대 중국의 미술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서 서술된 아이웨이웨이(艾未未)에 대한 입장에서 단적으로 표출된다. 탕샤오빙은 중국 밖에서 누리고 있는 아이웨이웨이의 “스타로서의 지위가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라는 그의 역할”(334)로 인해 얻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당대 중국의 미술을 바라보는 서양의 시각이 “미술시장의 규모를 평가”하거나 “정치적 자유 혹은 억압의 정도를 평가”(337)하는 양극단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한다.

19 탕샤오빙은 『중국미술에서 아방가르드 개념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아방가르드운동에 대한 자신의 이해는 페터 뷔르거의 저작 『아방가르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탕샤오빙은 “부르주아적 미술 제도를 비판하고 미술을 삶의 실천으로 되돌리려는(다사-통합하려는 욕망)”을 역사적 아방가르드운동의 동력으로 규정한 뷔르거의 견해를 높이 평가하며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말까지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였으며 또한 해방구”였던 옌안(延安)에서 생성된 미술운동 역시 “혁명적인 아방가르드운동 중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의 문화혁명기의 미술을 “국가 아방가르드주의”라고 지적한 노먼 브라이슨의 견해를 비판하며 이 시기 중국은 “단순히 억압적이거나, 더욱이 일관된 정치적 통제와 권력의 체제가 아니었으며, 미술이 언제나 국가에 종속적인 것도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문화혁명기의 미술이 “옌안 시기로 대표되는 중국혁명의 초기로 돌아가려는 욕망”을 드러냈기에 “아방가르드적 감수성이나 운동과 연결되고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상의 내용은 탕샤오빙, 신정훈 역, 『중국미술에서 아방가르드 개념에 대하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0, 209~211·217쪽.

탕샤오빙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시각문화를 바라보는 서양의 단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중국 당대 미술의 복합성을 드러내려 하고 있고, 이는 서양의 미술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각문화 속에서 누렸던 중심적 위치”로부터 떨어져 주변부에 자리하게 된 “판화라는 예술 양식”(340)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투쟁적 혁명예술로 기능”했던 판화가 “공동체적 생활에서 점차 자취”(343)를 감추고 미술시장에서도 외면 받게 된 상황 속에서 학교에 기반을 두면서도 “학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실험”(360)하고 있는 당대의 판화작가들에게 『이미지와 사회』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탕샤오빙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행위로 환원”(385)될 수 없는 당대 중국 미술, 더 나아가 중국 시각문화의 복합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탕샤오빙의 관점은 『에필로그—멀리서 바라보는 중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당대 중국의 사회, 문화, 정치의 역사적 정당성과 그 복잡한 생태를 인정”하고 “중국의 문화와 예술을 정치적 저항 혹은 외부에서 기대하는 정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행을 극복”(401)하자는 제안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탕샤오빙의 관점은 중국을 타자화하고 단선화시키는 서양의 시선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의 중국어 번역판 서문에 담긴 몇몇 구절들은 이러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서양의 공론장’을 벗어나 발화될 때의 위험성 또한 보여준다. 『중국어판 서문』에 나타난 “중국의 문화생산이 21세기에 보여준 새로운 모델 및 에너지”에 대한 강조와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당대 중국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향된 이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중국의 일반 민중이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게 된 긍지 및 자부심”(17)을 강조한 부분은 ‘서문’이라는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대 중국의 시각체계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의 국가권력, 혹은 랑시에르의 어법을 빌리자면 치안의 질서²⁰에 대해 탕샤오빙이 충분한 거리감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4. ‘시각성’이라는 문제들과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

최근 학술장에서는 언어적 텍스트와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양자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공성수)와 『이미지와 사회』(탕샤오빙)도 그러한 저작들이다. 이 저작들은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라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시각문화 형성 및 변천 과정을 살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저작은 각기 다른 국가의 시각문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고, 공성수의 저작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 신문연재소설의 삽화를, 탕샤오빙의 저작은 사회주의 중국이 건설된 194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시각문화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각기 다른 대상과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탕샤오빙의 저작은 공성수의 저작이 기술하고 있지 않는 사회주의운동 관련 시각문화의 특성을 중국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가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환기시켜 준다. 반면 공성수의 저작은 『이미지와 사회』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근대 초기 시각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주

20 랑시에르는 “집단들의 결집과 동의, 권력의 조직, 장소들 및 기능들의 분배, 이러한 분배에 대한 정당화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전체”를 치안(police)이라 부르자고 제안하며 치안의 질서가 “어떤 활동은 가시적인 것으로 다른 활동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어떤 말은 담론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말은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 알아듣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랑시에르, 진태원 역, 『불화』, 도서출판 길, 2015, 61·63쪽.

의 시기의 중국 시각문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미지와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 준다. 그렇기에 두 저작을 비교하는 작업은 한국과 중국의 시각문화 관련 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서평은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가 소설사와 미술사로 구분되어 있던 근대 예술사의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양자가 교섭하고 있는 양상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포착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융합 예술사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1910년대 초반부터 1920년대 초반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 책은 신문연재소설 삽화의 변모 양상을 탐색하며 근대적 시각문화 전반을 탐색한다. 그 결과 작가 뿐 아니라 독자 역시 이러한 다층적 시선 실험을 공유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석영 안석주의 삽화, 이상과 박태원의 삽화를 분석하며 삽화와 소설의 매체적, 장르적 경계가 해체되는 양상 또한 서술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니지만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는 박태원과 이상 삽화에 나타난 문자가 언어적 유희의 특성을 드러내며 근대적 문자 질서를 탈피했다는 점에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억압적) ‘문자언어’와 (해방적) ‘시각 이미지’라는 이항 대립구도의 틀에 갇혀버렸다. 또한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의 신문연재소설 및 삽화의 특성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이항 대립 구도 하에서 서술했다는 점 역시 이 연구서의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반면 탕샤오빙의 『이미지와 사회』는 당대 중국의 시각적 체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을 탐색하며 당대의 지배적 시각체계와는 다른 유형의 과정을 보여주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시각문화가 변화해온 과정을 중국의 격렬한 사회·역사적 변동과 연결시켜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각문화를 아방가르드적 운동, 루카치와 블로흐의 표현 논쟁 등 다층적 의미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탕샤오빙의 저서는 중국 사회주의 시각문화를 루카치적

논리, 즉 전형적 인물의 창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는 반면, 그 문화의 형성에 미친 표현주의적 예술의 영향을 충분히 고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미지와 사회』는 문화혁명 시기인 1960~1970년대의 혁명적 시각 문화가 “글로벌화된 중국 당대 미술”(229)의 팝아트에 차용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분석할 때 탕샤오빙은 랑시에르의 개념을 차용하여 모순된 성격을 지니는 이미지가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치성에 주목하고 있다. 탕샤오빙의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시각문화를 바라보려는 서양의 단선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당대 시각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연구서는 사회주의 시기 및 중국 당대 시각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혹은 랑시에르의 어법을 빌리면 치안의 질서가 개입한 양상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을 지닌다. 사회주의 건설 이전, 즉 근대 초기 중국의 시각문화가 사회주의 건설 이후의 시각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이미지와 사회』의 한계로 볼 수 있다.²¹

그럼에도 두 연구서는 ‘시각성’이라는 문제틀을 통해 영상/회화 예술과 언어/문자 예술이 관계 맺어온 양상들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공성수의 연구는 신문연재소설과 삽화가 혼용되는 지점을 문제 삼으며 작가 뿐 아니라 독자 역시 근대적 주체의 시선 실험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

21 이 서평은 두 연구서를 비교하며 각각의 연구서에서 비어 있는 지점, 이를테면 『소설과 삽화의 예술』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운동(=카프)’ 관련 시각문화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과 『이미지와 사회』에서 중국 근대 초기 시각문화에 대한 고찰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점은 각각 한국과 중국의 시각문화 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향후 근대 초기 한국과 중국의 시각문화, 분단 이후의 남북한 시각문화와 사회주의 중국의 시각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생겨날 것이다.

여주고 있다. 탕샤오빙의 연구는 중국의 시각적 체계가 변모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당대의 지배적 시각문화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두 연구의 문제의식이 한 단계 심화되면 언어예술과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 연구의 지평 또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 고봉준, 『시 이미지 연구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제언』,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 김남시, 『시각이미지에는 있으나 언어에는 없는 것—시이미지 연구 방법론을 위한 제언』, 『한국시학연구』 49, 한국시학회, 2016.
- 나희덕,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시각성—‘보는 주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06.
- 도윤정, 『이상의 삽화 분석—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삽화의 화면 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15,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9.
- 장수익, 『1920년대 초기 소설의 시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한국시학연구』 42, 한국시학회, 2015.
- , 『시 이미지 연구방법론(2)—문학 이미지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 탕샤오빙, 신정훈 역, 『중국미술에서 아방가르드 개념에 대하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0.
- 홍지석, 『카프 초기 프롤레타리아 미술 담론』,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2. 단행본

- 공성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 소명출판, 2020.
-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08.
- 랑시에르, 진태원 역, 『불화』, 도서출판 길, 2015.
- 루카치 외, 홍승용 역,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87.
- 마틴 제이, 최연희 역, 『모더니티의 시각체제들』,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출판부, 2004.
- 마틴 제이, 전영백 외역, 『눈의 폼파: 20세기 프랑스 철학의 시각과 반시각』, 서광사, 2019.
- 이광호, 『시선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15.
-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 탕샤오빙, 이현정 외역, 『이미지와 사회—시각문화로 읽는 현대 중국』, 돌베개, 2020.
- 테드 휴즈,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소명출판, 2013.

The Comparative Book Review of Visual Culture Research Book in Korea and China

Kang, Yong-hoon | Incheon University

In recent academic venues, studies that cross the boundary between linguistic text and visual art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 continuously published. The two studies compared in this paper are also such works.

These works have in common that they examine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the visual culture of individual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two works set only the visual culture of different countries as the subject of study. The two works set different countries and periods for study.

Tang Xiao-Bing’s work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culture related to the socialist movement that Gong Sung-soo’s work does not describe in a Chinese context. On the other hand, Gong Seong-su’s work reveals the limitations of “image and society” focusing only on the visual culture of China in the socialist period in that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visual culture in the early modern period, where “Image and Society”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herefore, the work of comparing the two works can play a role in revealing the direction in which studies related to visual culture in Korea and China should proceed in the future.

Key Words : Visual cultu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Visuality, Image, Fusion,
Comparative culture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

일반논문

치유를 위한 소설교육과 정전의 재해석
김동리의 「역마」를 중심으로
박수현

오염의 메타포와 경계 허물기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에 대해
여태천

프랑스 동성결혼 논쟁의 행위자와 담론
유은경

치유를 위한 소설교육과 정전의 재해석*

김동리의 「역마」를 중심으로

박수현**

1. 머리말
2. 「역마」 교육의 현장—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3. 주제 혹은 교육에 관한 고찰
4.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과 인문교육의 만남
5.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김동리의 「역마」에 대한 기존의 교육 방식을 검토한 결과, 교육 내용이 정형화된 점과 다양성과 심도 면에서 빈약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심화를 제안한다. 또한 문학의 내면화를 이끌만한 활동이 부족하며 주제가 학생들에게 호호하게 수용되기 쉽다는 점을 간파하고, 학생 자신의 심리적 현실과 작품의 연결 고리를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의 정신적 성장과 심리 치유를 위해 문학교육은 학생의 당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인문교육과 제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부각하고, 자아의 비대화가 문제의 원인이며 자기중심주의의 극복이 치유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핵심 원리, 성과사회, 대한민국의 근대화 기획, 근대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인문

* 이 논문은 2019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교육을 수행하면서 교육 내용의 확충을 도모하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상호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

주제어 : 김동리, 역마, 문학교육, 문학 교과서, 경전, 치유, 인문교육

1. 머리말

문학교육의 장에서 정전으로 자리 잡은 소설 작품들이 있다. 가령 최인훈의 『광장』,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동백꽃』 등이 그것이다. 정전 교육은 지당하고 중요하며 손쉬우나 그그늘 역시 간과할 수 없는바, 교육 방식이 정형화된 패턴을 이룰 가능성이 그중 하나다.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검증받은 방식이기에 그것은 전복되기 보다는 유지되기가 더욱 쉽다. 그러나 시대에 걸맞게 정전 목록도, 교육 방식도 갱신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전을 발굴하거나 기존 정전의 교육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거니와, 이 논문은 우선 후자의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문학교육적 정전 중 하나인 김동리의 『역마』¹의 교육 방식을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동리 또는 『역마』에 대한 국문학계의 선행연구의 다대함에 비해서, 문학교육학계의 선행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본격 학술논의의 장에서, 『역마』를 문학교육적 시각으로 최초로 논의한 이대규의 연구는 『역마』에서 “인간의 지를 넘어 선 곳에 운명이 있으며, 그 범주를 용인해야 한다는” “동양적 사유”²

1 이 소설은 7차 문학 교과서들 중 6종, 2007 개정 문학 교과서들 중 3종, 2009 개정 문학 교과서 중 3종, 2012 고시 문학 교과서들 중 2종에 수록되었다.(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205쪽; 이미선, 『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 교육 방법 연구—『만세전』, 『삼포 가는 길』, 『역마』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12, 49쪽 참조) 『역마』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었다. 이 작품이 2015 개정 문학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고 하여 정전의 지위를 잃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라면 언제든 다시 교과서에 진입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이 이전에 사라졌던 것을 부활시키면서 몇 가지 항목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식으로 일어나듯, 교과서 수록 작품도 정전 목록들 사이에서 돌고 돌 수 있다. 이 논문은 『역마』의 교육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며 향후 교과서 수록의 타당성을 지지하되, 우선 그 교육방안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2 이대규, 『소설 교육과 텍스트 내면화—『驛馬』와 관련지어』, 『현대문학이론연구』 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119쪽.

를 읽어낸다. 이 연구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 인물의 특성, 동양적 사유와의 연관 등 폭넓은 차원에서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하지만, 아무래도 교육적 고려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작품론에 가까워 보인다. 이 논의는 “학습자와 텍스트를 어떻게 매개하여 학습자의 수용(내면화)를 도울 것인지 그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³ 한다는 문제의식을 피력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쉽게도 찾을 수 없다. 정호웅의 연구는 “정주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사고방식과 통상의 도덕률이 지배하는 공간인 화개”⁴와 “억압의 공간인 현실세계 너머 존재하는, 그런 현실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매개하는 이상적 공간”⁵인 “화개협”을 비교한다. 이 연구는 ‘운명애’로 규정되는 기존의 해석에서 진일보하여 “자유와 충족의 이상적 공간”⁶인 화개협의 의미를 부각한 면에서 신선하지만, 역시 교육적 고려가 부족한 작품론의 차원에 머무른다.⁷ 두 선행연구는 모두 문학 교과서에 「역마」가 구현되는 양상에 관한 분석과 진단을 생략하고, 문학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아니한다.

이 논문은 「역마」의 공식적 교육내용을 고찰하고, 새로운 교육내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문학교육이 학생들의 심리적 현실과 밀접한 연관 아래 심리 치유와 정신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다. 이 원칙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누차 논증했거니와,⁸ 지금 중요

3 위의 글, 120쪽.

4 정호웅, 「김동리 소설과 화개—「역마(驛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281쪽.

5 위의 글, 285쪽.

6 위의 글, 286쪽.

7 이밖에도 「역마」를 통해 한국인의 대표 정서인 ‘정(情)’과 ‘한(恨)’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중등 문학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논의이므로 자세한 언급을 생략한다. (이근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고찰—김동리의 「역마」에 나타난 정(情)과 한(恨)의 문화를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21,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011.)

8 문학교육이 왜 학생의 심리 치유와 정신적 성장에 기여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예의 원칙의 타당성에 관해 상세히 논증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의 논증은 생략한다. 박수현, 「도덕과 문학교육—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 것은 원칙의 정합성에 관한 논증이 아니라 방안의 축적적이다. 그 방안의 축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역마』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심리적 현실과 접점을 찾아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심리 치유와 정신적 성장을 유도할 것인지 중점을 두고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 치유를 위해 문학교육과 인문교육의 접목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융합적 문학교육 즉 종교학, 철학, 사회학과 제휴하는 문학교육의 가치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학작품도 참조할 것인데, 이는 상호 텍스트 교육의 가능성 역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문학교육을 인문교육과 접목하자고 논하는 이유는 현 문학교육의 장에서 교육내용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후에 다시 보겠지만 작금의 문학교육은 과거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추수하며, 특히 정전이라면 각 교과서마다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정형화된 내용을 가르친다.⁹ 작품에서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점을 마련해 주는 일과 더불어 교육 내용을 심화하고 다양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되거나, 이에 이 논문은 판에 박힌 주제 해설과 틀에 박힌 활동 대신, 학생들의 당면 문제를 환기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과 제휴하는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심리 치유 과정에서 인문학적 지식의 쓸모가 꽤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⁰ 병을 치유하려면 병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병에 대한 지식은 치유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학 교과서 고찰,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박수현, 「심리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 연구—윤대녕의 『은어 낚시 통신』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3, 우리문화회, 2017; 박수현, 「청소년의 연애 심리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25,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등 참조

9 이러한 사례에 관한 논증은 박수현, 「문학교과서와 정전 교육의 재구성—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참조

10 이에 관한 상세한 논증은 박수현, 「청소년의 연애 심리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참조

2. 「역마」 교육의 현장 —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김동리의 「역마」를 가장 최근에 수록한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그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들 중에서, 「역마」는 두 종에 수록되었다. 각 교과서에서 「역마」가 수록된 대단원명과 중단원명 그리고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역마」 수록 단위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비상교육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
비상교과서	문학과 자아	문학과 내면화

〈표 2〉 중단원 또는 소단원의 학습목표

출판사	학습목표
비상교육	내용과 형식 및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서사 문학을 감상할 수 있다.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서사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서사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할 수 있다. ¹¹⁾
비상교과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¹²⁾

「역마」 교육에서 ‘비상교육’ 교과서는 2012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성취기준 ①, ②, ⑤, ⑥을 구현하고, ‘비상교과서’는 〈문학과 삶〉 영역의 성취기준 ⑪에 따라 제작되었다.¹³⁾ 각 교과서가 「역

11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45쪽.

12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2014, 286쪽.

13 본문에 언급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12, 135~139쪽 참조.

영역	성취기준
문학의 수용과 생산	①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②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 ⑤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한다. ⑥ 작품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
문학과 삶	⑪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마」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학습활동은 학습목표와의 유기적 연관 하에 제작되며,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길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2. ‘성기’가 바라는 삶과 ‘성기’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해 말해 보자.
3. 이 작품의 결말을 살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보자.
 - ① 이 작품의 결말에는 세 갈래 길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세 갈래 길이 각각 ‘성기’에게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
 - ② ‘성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향을 떠나는 결말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4. 다음은 영상으로 제작된 ‘역마’이다.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의 특성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 ① ‘계연’이 떠나는 부분에서 추가되거나 바뀐 장면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표현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②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 글과 영상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해 보자.
5. 자신이 ‘성기’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때의 마음을 상상하여 일기로 써 보자.¹⁴

14 한철우 외, 앞의 책, 69~70쪽.

(나)

1.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기’가 처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
 - ① 다음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그려 보자.(체 장수 영감, 옥화, 계연, 성기)
 - ② ①을 바탕으로, ‘옥화’가 ‘계연’과 ‘성기’의 혼인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 ③ ‘성기’와 ‘체 장수 영감’의 삶이 지닌 공통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성기’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말해 보자.
 - ① 아래의 세 갈래 길이 ‘성기’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 ② 다음 결말 부분에서 ‘성기’가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와 같은 결말에 담긴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말해 보자.
 - ③ 만일 자신이라면 ‘성기’와 같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을 나누어 보자.
3.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기’가 집을 떠난 이후의 사건을 새롭게 구성해 보자.¹⁵

(가)와 (나)는 등장인물들의 관계, 세 갈래 길의 의미, 결말에서 성기가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동일하게 묻는다. 이들은 전체 활동 중 분량이나 중요도 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 활동이다.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묻는 활동은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 파악을 돕는다. 세 갈래 길은 화개, 구례, 하동으로 향한 길을 의미하며 각기 과거의 삶, 운명을 거역하는 삶,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뜻한다. 결말에서 성기가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운명에 순응하는

15 우한용 외, 앞의 책, 298~299쪽.

삶에 따르는 즐거움과 안정감 때문이다. 세 갈래 길과 콧노래 관련 활동은 ‘운명의 순응’이라는 주제를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핵심적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두 교과서의 활동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엇비슷하다. 이는 『역마』의 교육 내용이 일종의 전범을 따라 구성되었다는 불편한 의심을 파생한다. 『역마』의 교육 내용은 세 갈래 길의 의미, 성기가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 등으로 정형화된 것이다. 작품을 통해 교육할 지점이 훨씬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이렇게 협소하게 제한된 점은 아쉽다. 더욱이 두 교과서에서 『역마』가 실린 단원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성취기준도 다르다. 다른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진입했다면, 그에 따른 학습활동도 해당 성취기준의 요구에 부합하게 각기 달리 구성되어야 마땅하다.¹⁶ 후반부로 가면 특유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흔적을 보이는 활동은 있지만, 이는 아무래도 지엽적·부차적이다. 학습활동의 3단 구성에서 대개 학습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활동을 가운데에 배치하는데,¹⁷ 위의 (가)와 (나)에서 핵심 활동은 공유된다. 이는 교과서 집필진이 학습활동 제작 시 과거의 유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혐의를 파생한다. 특히 정전의 경우 학습활동 구성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추수한다는 사실에 관한 문제를 선행연구에서 제기했거니와,¹⁸ 『역마』의 경우도 이 문제점을 빚겨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 학습활동과 학습목표의 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 편은 학습활동이 학습목표의 실현을 위해 긴밀한 상호연관성 아래 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한 편은 학습목표와 무관하더라도 문학 그 자체의 이해를 위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논문의 2장은 전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에서 자유로운 문학교육을 꿈꾸지만, 현행 문학 교과서를 분석할 때에는 그것이 기왕에 성취기준·학습목표·학습활동의 긴밀한 연관을 전제로 제작된 것인 만큼 그 전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핵심적 활동이 주제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두 교과서에서 주제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그 주제 파악으로 이끄는 장면을 동일하게 제시했는데, 이 역시 문제적이다. 주제를 동일하게 파악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제 파악을 유도하는 장면은 다수인데, 그중 특정한 장면에만 서로 다른 교과서들이 동일하게 주목하고 있다.

17 김혜영,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의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43쪽 참조.

18 박수현, 『문학교과서와 정전 교육의 재구성—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참조.

특유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한 활동이 미약하나마 존재한다고 논했거니와, 이제 그 활동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가)에서 예의 중복되는 활동을 제외하면 활동 4와 5가 남는다. 이것이 학습목표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교과서가 『역마』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의 경우, 『역마』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 단원에 수록되었다. 중단원 첫머리의 ‘소설 감상의 길잡이’는 이 단원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설을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줄거리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작품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사건들의 순서, 인과관계, 갈등의 고조와 해결 등을 중심으로 작품의 구성을 간파하고, 문체, 표현 방식, 시점 등 서술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시대 상황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감상한다.¹⁹ 요컨대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의 양상, 문체, 표현 방식, 시점 등을 주목하고, 이밖에도 작가의 삶, 시대 상황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후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서 깊게 답습된 활동이 아닌 활동 4와 5는 상기 교육 방향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가? 활동 4는 영상으로 제작된 『역마』를 제시하며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한다. 이것이 “내용과 형식 및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서사 문학을 감상할 수 있다”²⁰는 학습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 매체에 따른 차이를 묻는 활동 4는 학습목표에서 빗나갔다고 할 수 있다. 활동 5는 “자신이 ‘성기’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 생각해 보고, 그때의 마음을 상상하여 일기로” 쓰게 한다. 이것이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서사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²¹는 학습목표를 염두에 두

19 한철우 외, 앞의 책, 45~46쪽 참조.

20 위의 책, 45쪽.

고 제작된 활동이라면, 등장인물의 마음에 이입하여 그 마음을 글로 쓰는 활동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소박하며 평면적이라서 작품의 비판적·창의적 수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비판적·창의적 수용을 유도하려면 보다 심층적이고 적극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활동 구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더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활동 4와 5를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서사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할 수 있다”²²는 학습목표를 구현한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활동 4는 타인이 창작한 영상과 글의 효과를 비교하게 할 뿐 학생 본인의 재구성·창작 활동을 유도하지 않고, 활동 5의 경우 성기의 입장에서 일기 쓰기는 재구성이나 창작 능력을 키우는 데 불충분해 보인다. 전체 활동을 볼 때 (가)의 경우, 인물·사건·갈등 등 내용 파악에 관한 최소한의 배려는 했다 하더라도, 문체나 시점 등 형식이나 특히 작가의 삶과 시대 상황 등 다양한 맥락에 대한 고려는 찾을 수 없다. 즉 “내용과 형식 및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서사 문학을 감상할 수 있다”²³라는 학습목표를 삼분의 일만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비판적·창의적 수용이나 재구성·창작 관련 활동은 없거나 상당히 빈약하다. 특히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며 읽거나 작품의 비판적·창의적 수용을 유도하려면 보다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는 〈문학과 내면화〉에 실린 「역마」에 따른 학습활동이다. 중단원 해설은 〈문학과 내면화〉 단원의 주안점을 이렇게 소개한다. “문학 작품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작품에 담긴 주제가 독자의 내면세계와 만나 소통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된다. (…중략…) 이는 개인의 내면세계가

21 위의 책, 45쪽.

22 위의 책, 45쪽.

23 위의 책, 45쪽.

문학 작품을 만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각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만나기도 한다. 이렇듯 문학은 자아의 발견을 돕고, 자아를 성장시킨다.”²⁴ 이 설명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작품의 문제의식이나 주제가 독자의 내면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 그것이 개인의 내면세계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 독자는 작품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한다는 점 등에 이 논문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문학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훌륭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된 활동은(나)의 2-(3)과 3이다. 자신이 성기라면 세 갈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하자는 활동 2-(3)에 대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운명에 순응하거나 거역하거나 현실에 머무른다 이상의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 문제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성기의 상황을 단순 가정하여 상상력을 펼치게 유도할 뿐, 학생 자신의 문제를 연상하게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성기의 상황에 자신을 대입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는 있어도, 자기 고유의 문제에 대한 숙고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자신의 문제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문학의 내면화への 통로는 막힌 셈이다. 성기가 집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활동 3은 학생들의 단순한 상상력을 고취하고 창작 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을지언정, 학생 본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나)의 경우 핵심 활동은 작품의 줄거리와 주제 파악에 바쳐졌고, 나머지 활동은 학생 본인의 현실에 대한 환기력을 가지지 않기에, 문학의 내면화에 기여하는 활동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내면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학생 본인의 문제를 주목하게

24 우한용 외, 앞의 책, 287쪽.

해야 한다. 작품을 통한 자아 발견과 성장을 촉진하려면 학생의 절박한 심리적 현실에 대한 발견 또는 작품 속 상황과 학생 현실의 밀접한 연관에 관한 실감을 유도하는 활동이 보다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역마」와 학생 현실 사이에 연결 고리 만들기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또한 앞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활동의 제작도 중요하지만, 교육 내용 자체가 확충·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논한 바 있다. 현재 교육 내용이 세 갈래 길과 콧노래의 의미 등으로 판에 박힌 정론에 고착되었기 때문에 개성적인 학습활동이 산출되기 어렵다.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된다면 학습활동은 자연스럽게 다채롭고 심도 있게 확장되고 변주될 것이다. 이 논문은 「역마」의 교육 내용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일환으로 문학교육과 인문교육의 접목을 제안하려고 한다.

3. 주제 혹은 교육에 관한 고찰

「역마」에서 성기는 어릴 적부터 사주에 시천역(時天驕)이 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성기의 역마살을 풀기 위해 “중질”을 시켰다. 그럼에도 성기는 “어디로 훨훨 가보고나 싶”²⁵은 소망을 이기지 못한다. 어머니 옥화는 성기가 결혼하여 화개에 정착하며 역마살을 풀기를 바란다. 그녀는 어느 날 집에 들른 체 장수 영감의 여식 계연을 머느릿감으로 은근히 점찍어두고 성기와 가까이 지내도록 유도한다. 성기와 계연은 진심으로 연모하는 사이가 된다. 그런데 옥화는 우연히 체 장수 영감이 자신의 아버지이며 계연이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옥화는 계연을 떠나게 하며, 성기는 중

25 김동리, 「역마」, 『무녀도·황토기-오늘의 작가 총서 1』, 민음사, 2008, 211쪽.

병을 앓는다.

성기가 계연과 결합했다면, 역마살 혹은 운명을 극복했다 할 수 있었다. 운명과 맞대결하려는 것은 옥화의 의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할머니, 체장수 영감, 옥화로 이어진 인연의 실타래로 인해 좌절되었다. 옥화 자신을 둘러싼 인연의 실타래가 운명과 대결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린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그녀의 의지를 꺾은 것은 그녀 자신의 혈연 즉 필연이기 때문이다. 이는 운명의 필연성 혹은 거역 불가능성을 재차 보여준다. 결국 이 소설은 운명에 맞서 결연히 싸우려는 옥화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운명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다. 이 점에서 “운명을 거스르는 인간의 노력이 보잘것없음을 보여”²⁶ 준다는 교과서의 해설은 옳다.

주목할 것은 운명을 깨달았을 때 성기의 반응이다. 앓아누운 성기는 옥화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는다. 이때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²⁷ 이 장면에서 성기는 계연과 혈연관계라는 사실 즉 그녀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고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체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는 서술은 성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수동적으로 체념한 것이 아니라 체념하기로 능동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이 결단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자는 결단이기도 하다. 이 결단이 “형형한 두 눈”으로 형상화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체념과 순응의 결단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후 성기는 회복하고 옛장수가 되어 길을 나선다. 이는 역마살이라는 운명에 성기와 옥

26 우한용 외, 앞의 책, 297쪽.

27 김동리, 앞의 글, 230쪽.

화가 모두 순응했음을 보여준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²⁸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 특유의 평화와 안정을 볼 수 있다.

성기는 자아의 의지를 체념하고 운명이라는 우주적 질서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찾았다. 운명에 순응하는 마음은 그의 병을 치유했다. ‘운명예의 순응’은 치유의 방식이자 구원의 방식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운명관”²⁹을 내재한다거나, “인간과 운명의 문제를 바탕으로 인간 구원의 주제를 형상화”³⁰한다는 교과서의 해설은 맞다. 이는 『역마』 연구사 초창기부터 제출된 견해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한 그러면서도 자기의 일상을 결정하고 있는”³¹ “운명의 발견”,³² “인간은 현실 속에 내재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³³ 등은 『역마』의 주제로 일찍이 간파되었던 바다.

교과서가 적시한 주제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나 이 주제는 너무나 추상적 이어서 청소년의 마음에 실감 있게 다가가기 어렵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운명이나 구원이나 모두 자신의 삶과 별 관련 없이 ‘책에만 나오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용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학습활동은 ‘운명예의 순응’이라는 주제를 청소년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절실하게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혹은 청소년의 현실에 적실하게 연결할 고리를 마련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이런 질문이 대두된다. ‘운명예의 순응’이라는 추상적인 주제에 청소년

28 위의 글, 231쪽.

29 한철우 외, 앞의 책, 71쪽.

30 우한용 외, 앞의 책, 297쪽.

31 김윤식, 『사반과의 대화—김동리와 그의 시대 3』, 민음사, 1997, 76쪽.

32 위의 책, 77쪽.

33 노철, 『반근대주의와 신명(神明)의 사회적 의미—김동리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4, 민족어문학회, 1995, 160쪽.

이 공감할 여지 혹은 그것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여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청소년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청소년이 예의 주제를 어떻게 자신의 문제에 접목할 것인가?

4.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과 인문교육의 만남

청소년의 심리적 현실과 『역마』의 주제 사이에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입시·성적과 연관된 학업 스트레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과도한 입시·성적 경쟁에 시달리며 그로 인한 이례적인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중핵적인 요인이며, 우울증, 감정 조절 능력 상실, 가출 충동 등 각종 문제적 정황을 야기한다. 이는 심지어 자살 또는 자살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16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빈번하게 지목되는 요인이 학업 스트레스이다.³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 원인 중 학교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서구권 나라들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우울·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 약물과 음주 문제로 거론되는 실정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노정한다.³⁵ 고등학생 4명 중 3명이 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³⁶ 자살

34 예컨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에서 죽고 싶은 이유가 학교 성적 때문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40.7%에 달한다고 한다.(원경림·이희중,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에서 학교유대감,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교사유대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한국청소년학회, 2019, 80쪽 참조.)

35 박재연·정익중,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 71~74쪽 참조.

36 최준영,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충동 간의

충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절반 내외나 된다³⁷는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때 주목할 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만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성적보다 학업 스트레스 자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 또는 자살 생각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³⁸

(1) 운명예의 순응 혹은 자아에서의 해방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이면에는 개인의 노력을 신화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그것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다. 현대사회와 학교는 이 이데올로기를 지당한 진리처럼 주입하며,³⁹ 자기계발서의 유례없는 성공은 노력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예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학생들은 일단 입시·성적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무한정 채찍질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 압박감 자체도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롭거니와 더 해로운 것은 예의 이데올로기가 실패에 대응하는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다. 실패는 오로지 본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여겨지기에 학생들은 학업 실패 앞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탓하다가 자존감 상실, 자기 비하, 우울증으로 빠져든다.

관계, 『사회연구』 16,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 216쪽 참조

37 위의 글, 212쪽 참조

38 박재연·정익중, 앞의 글, 87쪽 참조

39 유사한 맥락에서 이은경에 따르면, 상업주의와 결탁한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는 이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윤리만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이은경, 『중독을 유발하는 사회와 교육 그리고 치유 가능성에 대한 탐구—클리어 지침과 영성 교육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6, 한국실천신학회, 2019, 451쪽 참조)

이때 학생들이 의지와 노력을 신화화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온다면 정신적 부작용을 극복하기가 보다 쉽다. 즉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 보다 큰 우주적 질서로 보자면 실패가 자기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 다른 더 좋은 길도 있다는 사실, 자기 노력에 모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실패에 따른 정신적 부작용을 극복하기가 용이하다.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자기의 성취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다. 그 위치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로 변경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단 하나의 근원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인 차원을 벗어나서 보다 큰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마음은 개인에게 지워진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 이는 자기중심주의의 극복과 다르지 않으며, 자기 탈피는 치유의 방식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마』의 주제인 ‘운명애의 순응’이라는 관념과 학생의 심리적 현실의 연결 고리를 마련할 수 있다. 성적 스트레스로 고달픈 학생들은 성기의 실패와 자신의 실패를 연관 짓고, 성기의 치유 방식에서 자기 문제의 치유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학교육은 성기처럼 자기 의지의 실패로 괴로웠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성기가 자기 의지의 실패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운명의 차원을 수용함으로써 평화를 찾았음을 발견하게 하고, 이 사실을 학생들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질문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앞에서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더 큰 우주적 질서를 상상하면서 의지의 좌절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치유할 가능성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에서의 해방은 치유의 방식이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구원의 방식으로 설파하는 원리와 상통한다. 오강남에 따르면 ‘자아에서의 해방’은 거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인간을 얽매는 몇 가지 우상, 즉 진짜가 아니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여겨져 인간을 구속하

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기’ 또는 ‘나’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는 지금의 ‘나’를 “최고의 현실, 가장 진실한 실재, 궁극적인 무엇으로 착각하며 산다.” “자기 우상 숭배”의 삶은 얼핏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현대인의 바른 자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그것은 고달프기 그지없는 삶이다. 나의 바탕, 나의 근원, 나의 참 의미인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참나(眞我)’가 아니라, 어두운 눈에 잘못 비친 ‘나라고 하는 의식(假我)’에 얽매인 삶이기 때문이다.⁴⁰

이상의 인문학적 통찰을 『역마』 교육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성기가 사랑의 실패에 좌절하여 병든 것은 자기 의지의 신화화, 즉 자기에게 얽매인 마음의 귀결이다. 사랑을 이루려는 자기 의지가 강했고, 그것이 실패했음에도 그것을 고집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자기 의지가 실현되지 않았기에 그는 병든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성기가 병든 이유는 사랑에 얽매인 자기가 진짜 자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연인에 대한 집착이라는 작은 자기에 머물렀기에, 작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팠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현재 학업에서 마음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현실에 지나치게 좌절한다면, 그것 역시 자기 우상화에서 멀지 않다. 현대 사회는 학생들에게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우상화하거나, 이는 자아의 비대화를 낳는다. 자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자아 바깥으로 더 높고 넓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아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실패의 탓을 돌리며 자아를 들들 볶아대는 것이다. 문학교육은 상기 인문학적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면서, 그것과 연관지어 성기의 발병 원인을 이해하게 하고, 성적 스트레스로 괴로운 학생의 현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게 할 수 있다.

40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신의 실체에서 종교 전쟁까지』, 김영사, 2013, 130~134쪽 참조.

성기는 자기 의지를 체념하고 운명에 순응하기로 결단하면서 생의 활력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이는 자아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인다. 앞서 성기의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에 깃든 것이 범상치 않은 결단이라고 논했거니와, 이 결단을 가능케 한 각성은 종교적으로 ‘밝아짐’, ‘깨침’, ‘깨달음’ 등의 어사로 지칭되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회개’ 즉 ‘메타노이아’라고 일컬었는데, 이는 “생각하고 보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것,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근원되시는 분으로 완전히 돌아섬,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재에 접함으로써 가치 체계, 의식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등을 의미한다.”⁴¹ 인간은 자아보다 더 높고 넓은 차원을 수용하고 자아를 그것에 의탁함으로써 의식 구조 자체를 변경하며 그 결과 평화와 안식을 찾는다. 이러한 메타노이가 운명에 순응하자는 성기의 결단과 통한다. 단적으로 “자기를 없애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잊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무아(無我) 등으로 표현되는 ‘자아에서의 해방’이 종교적 삶의 기본 태도”⁴²이거니와, 이는 소설 결말 부분 성기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⁴³ 문학교육은 상기 참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기의 결단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학생이 자아에게 무거운 짐 지우기를 잠시 멈추고 더 넓고 높은 우주적 차원을 상상하게 할 수 있다. 우주적 차원

41 위의 책, 136쪽 참조

42 위의 책, 143쪽.

43 유사한 맥락에서 정재걸 외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분리된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이 영원으로 진입하는 길이라는 혁슬리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인간이 개별적 자아라는 허상에 기초해 분리를 강화시킨 채 신성한 근본 바탕을 부정한다면 곤경에 처한다고 논한다. 또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려면 먼저 자아를 부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야 한다. 인간이 분리되고 독립된 ‘나’를 벗어나 전체에 합일했을 때, “그 전체는 모든 존재가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화엄(華嚴)의 자연”이다.(정재걸·홍승표·이승연·백진호·이현지, 『제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마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영혼의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3-1,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180~194쪽 참조) 한편 자기 포기는 중독 치유에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예컨대 알콜 중독 치유에서 자기 포기나 무조건적 행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이는 “나 중심주의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행복하면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 포기와 회심은 거의 동일하며, 회심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힘과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포기한다.(이은경, 앞의 글, 464쪽 참조)

은 반드시 종교 혹은 신의 영역이 아니어도 좋다. 거창한 초월적 차원이 아니어도, 실패가 개인 탓이 아니라는 정도만이라도 깨닫게 하면 좋을 것이다.

머리말에서 청소년의 심리 치유와 정신적 성장을 위해 문학교육과 인문교육을 접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서도 『역마』 교육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문교육 자료를 소개했거니와, 더 심화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운명예의 내말김’ 개념은 대대로 철학자와 종교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인문학자들의 사유를 빈번하게 거쳤다. 우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인문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저명한 철학자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주어, 유명한 ‘초연한 내말김’ 개념을 파생했다.⁴⁴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을 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는 모든 것을 놓아둔 셈이 된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왕국이나 세계 전체를 (손에서) 놓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놓은 것이 아닐 것이다.”⁴⁵ “그대가 모든 사물들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가 벗어난 만큼, 그대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그대를 그대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비우는 한에서, 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들어 오신다는 것은 등가적(等價的) 교환이고 정당한 거래이다.”⁴⁶ “우리가 자기나 자기 것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든 모르는 관계없이, 모든 갈등과 모든 불안은

44 신상희, 『하이데거의 초연한 내말김』, 『철학』 62, 한국철학회, 2000, 261~262쪽 참조. 참고로 하이데거의 ‘초연한 내말김’ 개념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이데거는 근대적 사유 즉 표상행위에 구속된 의욕하는 사유를 거절한다. 근대적 사유의 형이상학적 의지를 떠난 태도가 무의욕의 태도이며, 사유의 시원적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관계 맺는 태도다. “사유의 시원적 본질로서의 초연한 내말김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자체의 말 걸어움”에 귀 기울이는 동안 우리에게 알려진다. 진정한 물음은 묻는 자로부터 발원하지 않고, 사태 자체로부터 역행적으로 다가온다.(위의 글, 260쪽 참조)

45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요셉 쿤트 편역, 이부현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독일어 논고』, 누멘, 2009, 72~73쪽.

46 위의 책, 74쪽.

모조리 다 자기를 고집하는 데서 비롯된다.”⁴⁷ 에크하르트의 성찰대로, 모든 갈등과 불안은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모든 것을 버려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즉 버려야 할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인 셈이다. 누군가가 자기를 비우는 정도에 비례하여 신이 그에게 들어온다. 여기에서 신은 단순히 기독교의 하느님만을 뜻하지 않는다. 김동리의 ‘운명’ 역시 신이며, ‘자아’의 바깥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적 질서는 모두 신이다. 요컨대 자기를 버려야 우주적 질서를 깨닫고 그에 순응하면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운명예의 순응’은 키에르케고르의 ‘무한한 체념’과도 통한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무한한 체념 속에는 고통 속에서의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있다.”⁴⁸ “무한한 체념 안에서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의 영원한 가치를 자각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체념은 믿음에 앞서 있는 마지막 단계다.”⁴⁹ 신 즉 초월적 힘의 현현을 체험하려면 먼저 무한히 체념해야 한다. 신의 실재를 느끼기 위한 선결 조건이 무한한 체념이다. 자신을 죽여야 우주적 질서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본질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자아에서의 해방’이다. 이것은 『역마』의 주제인 ‘운명예의 순응’과 동폐에 놓인 개념이다. 그런 면에서 “우주를 초월하는 영적 실재와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그것과 조화시킴으로써 개인과 단체에서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⁵⁰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토인비의 언술 역시 인문교육 자료로 사용할 만하다. 자기중심주의의 극복, 그것은 종교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곤경을 타개할 대안이기도 하다.

47 위의 책, 125쪽.

48 최양 키에르케고르, 임춘갑 역, 『공포와 전율—코펜하겐 1843년』, 치우, 2011, 90쪽.

49 위의 책, 92쪽.

50 A. J. Toynbee, *Surviving the Future*, London : 1971, pp.66~77(오강남, 앞의 책, 159쪽에서 재인용.)

(2) 학업 스트레스의 기원들

지식은 치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를 바닥까지 파헤치는 지적인 통찰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지식 중에서도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지식이 특히 중요하다.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때 질병의 발생 원인을 알면 치유와 예방에 도움을 받는 사정과 마찬가지다. 학업 스트레스, 입시 지옥, 성적 지상주의 등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그 발생 기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일은 마음 건강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여 성적과 입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한 인문학적 견해를 『역마』 교육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면 좋다. 일단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

첫째, ‘성과사회’에 대한 통찰을 참고 자료로 도입할 수 있다. 한병철에 따르면, 지난 세기는 안과 밖, 나와 남, 친구와 적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설정했던 면역학적 시대였다. 타자성은 방어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세계화, 탈경계화, 혼성화 흐름과 함께 긍정성 과잉의 시대가 도래했다. 20세기가 타자에 방어하면서 금지, 명령, 법률 등으로 사람들을 규제하던 “규율사회”라면, 21세기는 프로젝트·이니셔티브·모티베이션 등이 지배하는 “성과사회”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만이 성과사회를 규정하는 조동사다. 이 사회의 주민은 “복종적 주체”가 아닌 “성과주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다.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를 빙자한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성과와 노동은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는다. 성과사회는 극단적 피로와 탈진을 야기한다.⁵¹

다시 말해 20세기에 사람들은 나와 남이 확실히 구분되는 사회에서 타자

51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12~67쪽 참조

를 설정하고 그와 싸웠다. 21세기 탈경계, 세계화 조류와 더불어 나와 남의 구별이 약화되면서, 적이 따로 없는 자유롭고 관용적인 사회가 도래한다. 타자와의 싸움이 사라지자 개개인의 성과만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된다. 타자를 착취하는 대신 각자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명령은 성과사회를 규정한다.⁵² 바야흐로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한한 피로를 느낀다. 현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과주체로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보편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은 위에서 논한 세계사적·사회학적·사상사적 맥락을 지닌다. 또한 한병철 역시 “후기 근대의 노동하는 동물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자아로 무장되어 있다”⁵³고 논하면서, 자아 또는 개인이 지나치게 팽창한 사실에 주목한다. 본 논문이 학생들의 심리적 곤경의 원인으로 지목한 자아의 비대화가 성과사회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문학교육이 이러한 견해를 참고 자료로 소개한다면 학생들이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 특유의 성적 지상주의가 1970년대 근대화 기획과 연관된다는 통찰을 참고할 수 있다. 70년대 근면·성실·노력·인내 등 개인 윤리와 규율이 강조되었고 과학·합리성·효율성 등 근대적 지식체계의 효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기회가 평등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불평등을 사회구조의 탓이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기획의 일환이기도 했다. 정권

52 유사한 맥락에서 이은경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특징은 개인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 즉 능력지상주의다. 한편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넘쳐나고, 한편에서는 인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이은경, 앞의 글, 443쪽 참조)

53 한병철, 앞의 책, 40쪽.

은 급속한 근대화·산업화를 추진했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했는데, 이 실제적인 불평등의 탓이 정권으로 돌려지면 정권이 위협해지기 때문에 불평등은 개인의 탓으로 귀착되어야 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근면·성실·노력·인내라는 슬로건이 배포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적 성취는 온전히 개인의 능력과 자기 규율에 달렸다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⁵⁴ 앞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개인의 노력을 신화화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논했거니와, 그 한 기원이 70년대의 근대화 기획과 맞닿아 있다. 문학교육은 상기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면서,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살포했던 근면·성실 이데올로기가 곧 개인과 자기를 과잉 부각하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특유의 성적 지상주의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할 수 있다.

(3) 반근대성의 교육적 적용

개인 또는 자아의 과잉 부각이 학생들의 심리적 곤경으로 귀결된다는 논의는 근대성에 대해 잘 알려진 사실을 상기시킨다. 자아와 주체의 선험성, 인간간의 합리적 이성 특히 도구적·기능적 이성에 대한 신뢰, 진보에의 신념은 근대성의 특질로 운위되어 왔다.⁵⁵ 신적 질서를 부정하고 개인에게 무한한 힘을 부여하는 것,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합리성에 기

54 권보드래·김성환·김원·천정환·황병주,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212쪽 참조.

55 이성환, 『근대와 탈근대』,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173~191쪽 참조. 이성환은 근대성의 주요 자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한다. “데카르트에 의해 구체화된 의식·주체(자아), 수학적 이성, 이성 중심주의, 보편적 주체나 보편적 이성, 이원론, 데카르트에 의해 주창되고 뉴턴에 의해 체계화된 기계적 세계관”,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의 발견, 인과율과 결정론”, “합리성”, “계몽에 대한 열광과 진보에 대한 믿음”(위의 글, 174쪽) 등이 그것이다.

반하여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근대성의 주요 자질이다. 그렇게 보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근대성이 거느리는 그늘과 밀접히 연관된다.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신념이 인간의 의지와 이성적 노력, 직선적 진보만을 과잉 강조하는 면에서 근대성과 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근대성을 반성하는 것, 즉 반(反)근대성 혹은 탈근대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역마」 교육내용의 다변화를 위해서 유용하다. 흥미롭게도 반근대성은 김동리 소설의 특징적 자질로 언급되어 왔다. 이 지점에서 김동리 소설의 반근대성과 학생 심리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

오래전 김윤식은 김동리 소설에서 “근대성(근대주의)에 대한 비판”⁵⁶을 읽어냈다. 김동리가 “무녀, 전설, 사주 등에 근거한 전통적인 믿음 체계를 통해 근대적 합리주의가 물고 온 가치체계의 혼란을 이겨내는 거점을 확보하고자”⁵⁷ 했다는 노철의 논의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근대성에 대한 반발은 김동리 자신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⁵⁸ 이처럼 반근대성은 김동리 소설의 특징적 자질로 부각되어 왔다. 「역마」는 여러 의미에서 반근대성을 구현하지만,⁵⁹ 본 논문은 자아와 개인의 우상화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의 반근대성에 주목

56 김윤식, 『문협정통과의 사상구조—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 아세아문화사, 1994, 101쪽.

57 노철, 앞의 글, 160쪽.

58 “근대주의의 말로에서 도달된 과학 만능주의와 물질 지상주의와 기계 문명주의 등은 고대에 있어서의 신화적, 미신적 제신의 우상처럼, 중세에 있어서의 계율화한 전제신의 압제처럼, 또다시 한 개 새로운 근대적 우상이 되어 인간에게서 꿈과 신비와 낭만과 그리고 구경적인 욕구를 박탈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간은 이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욕에 도달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제3휴머니즘이란 표어로써 대표되는 제3세계관의 지향이라 일컫는 것이다.”(김동리,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의 전망』, 『문학과 인간—김동리 전집 7』, 민음사, 1997, 92쪽.)

59 각 논자에 따라 근대성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김윤식의 논의에서 근대란 “일차적으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성취와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점으로 하는 인간의지”(김윤식, 『문협정통과의 사상구조—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 101쪽)이며, 노철의 논의에서 “근대란 이성적 사유가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한 데카르트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신과 물질 사이에 모호한 존재를 추방시킨 세계”(노철, 앞의 글, 150쪽)다. 김동리의 논의에서 근대는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김동리, 앞의 책, 92쪽)이다. 각 논의에서 근대성은 자본주의 성립과 민족국가 건설 지향의지, 이성중심주의, 과학만능주의와 물질지상주의로 의미화된다.

하며, 바로 그것에서 교육의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즉 「역마」를 교육하면서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아와 개인의 우상화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의 폐단을 일깨운 이후, 인문교육으로서 근대성의 주요 자질을 설명하고, 자아와 개인의 우상화가 근대성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김동리의 「역마」가 어떤 식으로 반근대성을 구현하는지 이해시키고, 반근대적 의식 체계가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을 상호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왕」은 운명의 위력을 다룰 뿐만 아니라 반근대성을 논정하는 면에서도 「역마」와 유사하다. 이는 「오이디푸스 왕」의 교육적 상호 텍스트로서의 적실성을 승인한다.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아들 오이디푸스를 버린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의 실현을 막기 위해서였다. 장성한 오이디푸스는 같은 예언을 듣는데, 예언의 실현을 피하고자 양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예언은 모두 이루어진다.⁶⁰ 라이오스, 이오카스테, 오이디푸스 모두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 이성으로써 인간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운명은 인간의 의지·이성·노력을 비웃듯이 자신을 실현한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제 눈을 찔러 설명한다. 오이디푸스는 원래 스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정도로 지혜와 이성애 자신만만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지혜와 이성애 한계를 드러냈다. 눈이 대체로 인간 이성애 대한 제유로 통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의 설명은 인간의 무력과 이성애 한계를 웅변한다.⁶¹ 따라서 작품 자체가 근대성 비판과 동궐에서 있다. 문학교육은 「오이디푸스 왕」을 상호 텍스트로 읽히면서 「역마」와 유사성을 찾게 하고, 반근대성의 자질을 설명하면

60 소포클레스, 강대진 역,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 왕』, 민음사, 2009 참조

61 강유정, 「콜로노스 숲에서의 글쓰기, 눈먼 오이디푸스의 소설」, 『오이디푸스의 숲』, 문학과지성사, 2007, 22~24쪽 참조

서『오이디푸스 왕』이 어떻게 반근대성을 구현하는지 발견하게 하며, 그것과『역마』의 반근대성을 비교하게 하면서 작품과 삶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통찰로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심리적 현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문학교육, 인문교육과 접목하는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역마』교육에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활용 가능한 인문학적 내용을 제시했다. 이상의 내용을 실제 문학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 간간이 논했으나,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은 우선 작품의 이해에서 시작하는데, ‘세 갈래 길’과 ‘꽃노래’ 아닌 다른 부분들, 가령 ‘성기의 발병’이나 ‘성기의 형형한 눈’ 등에 주목하면서 문학적 이해를 돕는다. 이후 학업 스트레스에 관심을 환기하면서 성기의 처지와 학생의 현실을 연관 짓는다. 다음에 인문교육을 수행하는데, 예컨대 에크하르트 사상을 간략하게 예시하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그것과『역마』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찾게 하며, 본인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게 한다. 이 절차는 범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논한 인문학 자료들의 교육적 활용에 공히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뼈대는〈인문학 자료 이해-자료와 작품의 연관점 찾기-학생 본인의 문제에 적용하기〉로 간추려진다.⁶² 사실 구체적인 방법 설계는 교육내용의 구축에 비해 단순한 작업이다. 문제는 교육 내용 자체의 심화와 다양화이며, 향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고 보인다.

62 이때 앞서 논의한 사안을 모두 교육 내용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강박은 불필요하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남김없이 실현되어야 할 학습목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참조점을 제공할 교육 내용의 가능성을 가급적 풍부하게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 교육 방법의 설계보다는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심화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작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양화·심화된 교육 내용이 구축되면 구체적인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5. 맺음말

김동리의 『역마』를 구현한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한 결과, 세 갈래 길과 콧노래의 의미 등으로 교육 내용이 정형화되었고, 활동들과 학습목표의 유기적 연관성이 희박했다. 특히 문학의 내면화를 이끌만한 활동이 부족했는데, 이에 학생 자신의 당면 문제를 연상하게 하는 활동의 구상이 요청된다. 학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들이 지나치게 단순·소박한 점도 문제적인데, 이는 교육 내용이 다양화·심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는 올바르지만, ‘운명예의 순응’이라는 주제는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호호하고 추상적으로 수용되기 쉽다. 이에 작품과 학생 현실 사이에 연결 고리를 제시해야 할 당위가 더욱 부각된다.

이 논문은 학생의 정신적 성장과 심리 치유를 위해 문학교육이 학생의 심리적 현실에 주목하고 인문교육과 제휴하기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인 학업 스트레스를 떠올리게 하고, 자기 의지의 좌절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기의 상황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하며, 자아의 비대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과 자아에서의 해방 또는 자기중심주의의 극복이 치유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핵심 원리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 에크하르트와 키에르케고르의 사상 등을 중심으로 인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통찰 역시 치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바, 성과사회와 70년대 근대화 기획에 관한 참고 자료를 사용하면서 성적 지상주의의 기원을 통찰하게 유도한다. 또한 근대성에 관한 지식과 연계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근대성의 그들과 연관됨을 깨닫게 하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상호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이 심리 치유를 위해 인문교육을 경유한 문학교육의 가능성이다. 현재 문학교육에서 교육 내용이 빈약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 내용의 확충과 보

강에 중점을 두었다. 낙관적으로 기대한다면 이 연구 결과는 비단 학생의 심리 치유뿐만 아니라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계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상 심리 치유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은 공존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누차 논했거니와, 심리 치유에 인문학적 통찰력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필자의 지론이기도 하다. 한편 문학교육은 중고등학교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차후 학교 바깥의 문학교육의 장에서도 이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응용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동리, 『역마』, 『무녀도·황토기—오늘의 작가 총서 1』, 민음사, 2008.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2014.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2. 논문

김혜영, 『교과서 현대소설 제재의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노철, 『반근대주의와 신명(神明)의 사회적 의미-김동리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4, 민족어문학회, 1995.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박수현, 『도덕과 문학교육—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고찰』, 『어문논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_____, 『심리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 연구—윤대녕의 『은어 낚시 통신』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3, 우리문학회, 2017.

_____, 『청소년의 연애 심리 치유를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25,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_____, 『문학교과서와 정전 교육의 재구성—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박재연·정익중,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

신상희, 『하이데거의 초연한 내맡김』, 『철학』 62, 한국철학회, 2000.

원경림·이희중,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에서 학교유대감,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교사유대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한국청소년학회, 2019.

이근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과 한국문화에 대한 고찰—김동리의 『역마』에 나타난 정(情)과 한(恨)의 문화를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21,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011.

이대규, 『소설 교육과 텍스트 내면화—『驛馬』와 관련지어』, 『현대문학이론연구』 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이미선, 『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 교육 방법 연구—『만세전』, 『삼포 가는 길』, 『역마』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12.

이성환, 『근대와 탈근대』,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이은경, 『중독을 유발하는 사회와 교육 그리고 치유 기능성에 대한 탐구—클리어 지침과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66, 한국실천신학회, 2019.

- 정재걸 · 홍승표 · 이승연 · 백진호 · 이현지, 『제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마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영혼의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3-1,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 정호웅, 『김동리 소설과 화개—『역마(驛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 최준영,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충동 간의 관계』, 『사회연구』 16,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

3. 단행본

- 강유정, 『오이디푸스의 숲』, 문학과지성사, 2007.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 국어과 교육과정』, 2012.
- 권보드래 · 김성환 · 김원 · 천정환 · 황병주,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테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 김동리, 『문학과 인간—김동리 전집 7』, 민음사, 1997.
- 김윤식, 『문협정통과의 사상구조—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 아세아문화사, 1994.
- _____, 『사반과의 대화—김동리와 그의 시대 3』, 민음사, 1997.
-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신의 실체에서 종교 전쟁까지』, 김영사, 2013.
-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요셉 쿤트 편역, 이부현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독일어 논고』, 누멘, 2009.
- 소포클레스, 강대진 역, 『오이디푸스 왕』, 민음사, 2009.
- 쇠얀 키에르케고르, 임춘갑 역, 『공포와 전율—코펜하겐 1843년』, 치우, 2011.

Novel Education for Healing and Reinterpretation of Canon

Focusing on “Yeokma” by Kim Dong-ri

Park, Soo-hyu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teaching methods of Kim Dong-ri’s “Yeokma”. It finds that the contents of the teaching are stereotyped and poor in terms of diversity and depth. It proposes diversification and deepening of educational contents. It also finds that there is a lack of activity to guide the internalization of literature and that the subject is vaguely accepted by students. It raises the need to present a link between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students and the literary work. For the mental growth and psychological healing of students, the education of literature can partner with the humanities education, evoking interest in the student’s immediate problems. Specifically, it highlights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reminds them that overcoming self-centeredness is a way of healing. In this process, various humanities education on the core principles of religion, performance society, modernization pla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odernity can be carried out. Sophocles’s “King of Oedipus” can be used as mutual text.

Keywords : Kim Dong-ri, Yeokma, literature education, literary textbook, canon, healing, humanities education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

오염의 메타포와 경계 허물기*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에 대해

여태천**

1. 문제제기
2. ‘여성’이라는 위험한 자리
3. 오염과 더러움의 메타포
4. 은폐된 폭력과 저항의 언어
5. 몸의 가능성과 경계 허물기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자리에 대해 다시 묻고,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가 이를 어떻게 형상화했는가를 살피고 있다. 특별히 ‘여성 시’에서 발견되는 ‘오염’과 ‘더러움’의 메타포가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결과이며, 그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 시’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최승자, 김혜순, 허수경, 김이듬, 김민정의 시를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 시인들은 자신들이 당면했던 제도적 모순에 대해 격렬하게 발언했으며, 이 점에서 ‘여성 시’가 갖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눈여겨보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절대 권력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여성에게 주체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당연히 주어져야 할 인간적인 지위마저 무너뜨려 왔다. 여성은 가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언제나 ‘위험한’ 자리였다.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정해놓은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가부장제에서 여성 주체가 더러움과 오염으로 낙인찍히고 존재론적 재난을 겪는 일은 비밀비재했다. 오염된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아왔는가를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여성 시’들은 이전까지의 시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개성을 드러내는데, 그동안 쓰지 않았던 비속어나 거친 언어를 표출한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들의 언어는 자신들이 겪은 깊은 절망과 위기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여성 고유의 역할이 세계의 폭력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었다. 생명의 탄생이나 삶의 항상성과 관련된 여성적 가치를 일깨우는 다양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근원적인 모성성의 가능성을 여성의 몸을 통해 형상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애적 성 정체성의 틀 안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면서도 그것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온 ‘어머니들’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젠더의 규범적 재생산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족이라는 제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명성의 근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완고한 이성애적 남성중심주의 질서를 허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 그 방식은, 한편으로 지배문화에 대한 대립과 부정에 지나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부장제, 위계질서, ‘여성 시’, 젠더, 오염, 메타포, 은폐된 폭력, 저항의 언어, 몸, 허물기

1. 문제제기

한국 여성 시의 역사에서 1980년대는 비약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다.¹ 1980년대 이후에야 한국문학은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가부장적 제도의 파생적 문제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동안 한국사회는 ‘희생하는 어머니’를 과대포장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교묘히 숨겨왔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시인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과격한 언어들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대체로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²을 지닌 시인이었다. 그들의 시는 여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성에 대한 자각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획을 그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 시인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시인’으로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한국문학사에 특별한 표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여성 시인에게 굳게 닫혀 있던 성적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했다.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겪었던 압박감의 근원에 가부장적 질서와 절대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성’을 그 기준으로 ‘여성’을 정의하려는 행위란, 결국 권력이 ‘성 정체성’을 강요하면서 그 존재의 기반을 유지해 왔음³을 충분히

1 이혜원, 「실비아 플라스의 시와 1980년대 한국 여성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화회, 2010, 238쪽.

2 이 글에서 ‘성 정체성’은 주어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산물로서의 ‘젠더(gender)’의 의미로 사용한다. 젠더란 가능성으로의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협동의 결과다.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젠더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젠더란 수행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젠더는 어떤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수행적이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것과 그가 수행하는 조건에 달려 있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55쪽 참조.

3 미셸 푸코(M. Foucault)에 의하면 ‘19세기에 성은 억압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거짓말이다. 권력(지식, 정치)은 성을 매개로 하나의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성의 해방을 주장하게 되고, 자아의 비밀을 마치 성이 다 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성의 해방을 주장함

히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가령 1970년대 ‘여성 시’⁴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부정하는 데 그쳤고,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남성지배문화를 극복하는 “대안의 모성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논리,⁵ 혹은 “모성성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강요를 벗어나 독립적이며 자발적으로 행해질 때 세상을 구원할 미래가 보인다”⁶는 논리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여전히 이성애적 성 정체성의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 시인들은 자신들이 당면했던 제도적 모순에 대해 격렬하게 발언했다. 이 점에서 ‘여성 시’가 갖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눈여겨보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자리에 대해 다시 묻고,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시’가 이를 어떻게 형상화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 시’에서 발견되는 ‘오염’과 ‘더러움’의 메타포가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결과임을 확인하고, 그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 시’의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완고한 이성애적 남성중심주의 질서에 간혀 ‘여성 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으로써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권력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성적 욕망은 법의 작용에 의해서만 성적 욕망이라는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자체의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확대를 정당화”(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삶의 의지』, 나남, 1990, 141쪽)시켜 왔다. 푸코는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해부했다. ‘여성 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4 ‘여성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고 사용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성’의 개념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매우 난처한 문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별성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여성 시’로 표기한다. ‘여성적인 것’이 결국 ‘젠더’의 개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기존의 젠더 구도에서 이야기해 왔던 한정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다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5 배옥주,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모성성의 특성』,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31,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18, 179쪽 참조.

6 팽경민, 『고정희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모성성』, 『비평문학』 47, 한국비평문학회, 2013, 282쪽.

7 현재까지 이러한 시각에서 문학에서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 글이 그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보면서 ‘여성 시’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다.

2. ‘여성’이라는 위험한 자리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고 서툴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의 보호와 안내가 필요하다’와 같은 편향된 생각은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종종 마주치게 된다. 이와 같은 낭만적 구도 뒤에는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인 남성의 의도된 전략이 숨겨져 있다. 동일한 경력임에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고,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젠더의 관점에서도 자리 혹은 위치의 문제가 위계적 질서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인다. 주디스 버틀러(J. Butler)가 “체제에 의해 규제된 주체들은 그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의 필요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정의되고 재생산된다”⁸고 말했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체제 즉 위계적 질서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물론 버틀러는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적 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젠더의 개념까지 문제 삼고 있지만, 무엇보다 남성적·이성애적 억압이 역사적으로 권력체제를 강화하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오랫동안 집의 주인으로 행세해 왔음을 한국인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권위적이면서 남성중심적인 ‘가장’이라는 말에는 여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제는 소멸되었지만,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호주제’란 집

8 주디스 버틀러(J. Butler), 조현준 역, 앞의 책, 87쪽.

의 주인이 남자임을 증명하는 매우 ‘이상한’ 제도다.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 없이 남성은 ‘호주제’ 안에서 집의 주인이었으며, 그들이 허락한 권위를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누려왔다. 여성은 남성이 주인인 집에 허락을 받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집밖으로 함부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여성이 그 집에서 사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장’이라는 말에는 그 집에서 누가 인간일 수 있고 누가 인간이 아닌 자로 전락할 수 있는 지가 담겨 있다. 근대 초기 한국의 몇몇 여성들은 집안에서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훨씬 더 큰 모욕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집밖으로 나왔으며, 그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여성에게 당연히 허락되어야 할 집이라는 보호의 장소를 박차고 나가 새로운 그들의 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집을 벗어나 집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행위에서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자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집이 여성에게 아직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980년대 허수경이 돌아갈 집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대목이다.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돌아갈 집이 없는 나는

모두의 집을 찾아 나섭니다

밤별에는 집이 없어요

구름 무지개 꽃잎에는 우리의

집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간

집에는 살 수 없는 것

세월이 가슴에 깊은 웅덩이로 엉겨 있듯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 불행한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아 불행한 세대가
세월의 깃을 재우는 일조차 다른 것
그래서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배고픈 어미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땅을 가로질러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하고 꿈을 꾸고

아버지 나는 갑니다
모두의 집을 찾아 칼을 들고
눈물 재우며

— 허수경, 『아버지,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1988) 전문

‘당신’과 ‘나’ 사이의 갈등은 아버지인 ‘당신’이 과거이며 자식인 ‘나’가 현재라는 구도에서 쉽게 드러난다. 과거와 현재는 곧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 나뉜다. 갈등은 언제나 그렇듯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의 그것이며, 나아가 시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물론 두 세대 모두 “가슴에 깊은 웅덩이”를 품고 있을 만큼 ‘불행’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아픈 비극이며, 이 사실은 언제나 시인에게 큰 슬픔일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이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이 ‘집’이라는 점이다. 기성세대인 아버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화자인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이 사정은 2연에서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이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화자인 ‘나’는 “아버지가 돌아간/ 집에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불행이 남아 있어서거나 그것을 잊기 위해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아예 ‘살 수’조차 없다는 말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상처의 불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3연에서 말한 것처럼 “세월의 깃을 재우는 일조차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집에는 애초부터 화자인 ‘나’의 자리란 없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신 화자는 “배고픈 어미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땅”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미가 배고프다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무시당해 왔던 여성의 처우를 짐작케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더라도 아무도 구해주려 오지 않았다. 남편의 폭력은 가벼운 가정사일 뿐이며, 어미가 배를 품는 일 역시 그 집의 일이다. 어미는 자신이 굶을지라도 자식과 남편에게 끼니는 제공하려 애를 썼을 것이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배고픈 어미”가 있는 곳, 그자리가 집이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이다. “배고픈 어미”에게 집이 없었듯이 지금의 화자인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없다. 물론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하고 꿈”을 꿀 수 있으리라고 화자는 말한다. 그것은 곧 “모두의 집”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 아버지 “당신의 집”이 아니라 “모두의 집”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칼을 들고/ 눈물 재우며” 해야 할 위험한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밖이고, 여성은 안이라는 고정관념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그 집에 여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집의 주인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성은 ‘여자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어디 싸돌아다니냐’는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 시기에 한 인간이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인간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었다. 『아버지,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는 그 집이 화자인 ‘나’에게 애초에 없었음을 선언하면서 어떤 삶이 살 만하고 어떤 삶의 경

우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한다. 어쨌거나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여성에게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삶에 희망을 놓거나, 주체의 인간적인 지위를 손쉽게 무너뜨려 왔다는 것이다. 여성은 그가 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언제나 ‘위험한’ 자리여야 했다.

3. 오염과 더러움의 메타포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남성을 위한 공간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오염원이라거나 오염된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앞서 이야기했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이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성보다 특히 여성이 스스로를 정상적인 분류체계에서 밀려난 존재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큰 역할을 했다. 여성에게는 언제나 오염이라는 낙인이 붙어 다녔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남성의 기준에 의해 더러운 여성과 깨끗한 여성으로 나누어졌다.⁹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정해 놓은 영역에 있는 것은 허용되고, 깨끗한 존재로 분류된다. 반면 그 영역의 밖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사회 안에 어떤 적법한 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더러움과 오염에 대한 메타포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되었던 시기는 근대계몽기였다. 새로운 근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부적절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거부야 했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한 그 당시 한 신문에 게재

9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78쪽 참조. 비슷한 사례로 흑인 전용 구역에 들어간 백인은 자신이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느낀다. 반면에 백인 전용 구역에 들어간 흑인은 그 자신이 오염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된 글에는 오염(汚)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경계가 분명히 나타난다.

① 혼 날은 백두산령이 동해룡신을 청하야 모혀서 혼 가지 문대를 데출하되
귀관하에 오예물이 만히 싸혀 내 디방에 위싱씩지 방해됨이 불쇼하니 청결법을
신속히 실시하라 하엿는디

—『시스평론』(『대한매일신보』, 1908.1.8) 중에서

② 츠레츠레 씻고 보니 더러운 물 몇 만통이 거름보다 심하고나 위싱회에 교
섭하여 구루마로 실어다가 동문 밧긔 내버린 후 청결하게 거저하니 신턴디가 여
괴로다

—『시스평론』(『대한매일신보』, 1909.8.13) 중에서

인용한 글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계몽기에 오염과 더러움에 대한 거부가 유독 신체와 결부되어 확산된 것은 위생담론의 영향이 크다.¹⁰ 위생담론은 근대과학의 산물이지만, 인용한 글 ①에서는 백두산 신령이나 동해 용왕신과 같은 비현실적인 캐릭터의 입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당시 전근대적 이념과 근대의 이념이 구분되지 못한 채 혼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글 ②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으로 위생담론을 활용하고 있다. 더러운 대상이 ‘몸’이고 그 몸을 씻고 난 물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은 글 ①의 비과학적인 언술에 비해 훨씬 논리적인 설득력을 지닌다. 물론 더러운 몸을 씻고 난 뒤의 세계가 ‘신천지’가 될 것이라는 계몽적인 언술이 한뼉하고 있다. 이처럼 문명이라는 언표가 지니는 위력은 그렇지 못한 다른 대상을 더러운 것, 불량

10 스티븐 켄(S. Kern)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 공중위생이 진보하면서 청결한 생활과 환경은 문명의 기호가 되었다. 스티븐 켄, 이성동 역, 『육체의 문화사』, 의암출판문화사, 1996, 59~60쪽 참조.

스러운 것으로 손쉽게 강등시켰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대상과 주체를 차별화하려는 근대 이성의 폭력이 숨어 있다. 정상적인 것들이 아닌 불량한 것들은 근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청소의 대상이 되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근대계몽기 위생담론의 오류와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의도가 맞물려 그 이후에도 오염과 더러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은 채 존속했다는 점이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오염이 바로 그것이다. 오염이란 “상징체계의 부산물”이다.¹¹ 그 결과 가부장적 질서의 잔재가 남아 있던 1980년대도 아닌 2000년대 여성들이 자기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래 인용한 시는 ‘얼룩(오염)’에 대한 한 젊은 여성의 이상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순식간이다 얼룩이 큰일이다 이불을 뒤집어쓰면서 추위는 시작된다 냄새나고 화끈거린다 두근두근 한다 몰래 흘침을 바꾸고 퍼놓았다 깨킨다 올리다가 다시 내린다 이불 속 깃털을 뽑는다 큰 타조의 날개는 사라지고 발간 민머리 누더기, 이상한 얼룩이 묻은 이불은 논리가 없다 귀찮아 견어챘다가 다시 껴안는다 제대로 꿰매지지 않는 기억은 비버델수록 스며들고 씻을수록 번져간다 어느새 늙고 추악한 소녀를 돌돌 말고 있다

천상에서 이불을 털고 있나 검은 구름을 뚫고 희뿌연 깃털들이 뿜어나오는 저녁, 자살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이 집을 떠날 때 나는 거울을 보며 마구 머리칼을 자르고 있었다 찻는 내리던 밤이었고 넓고 폭신폭신한 이불이 베란다 아래

11 줄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109쪽 참조

펼쳐져 있었다 모두의 기대를 배반하고 난 눈을 뜬다 의사만 조금 웃는다 태어나
던 순간에도 이랬을 것이다

— 김이듬, 『별모양의 얼룩』(『별 모양의 얼룩』, 2005) 중에서

이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이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얼룩이 생긴 이불은 이미 순수성을 훼손당했다. 훼손의 분명한 증거 중의 하나는 ‘냄새’다. 그 결과로서의 화자의 심리적 상태는 ‘화끈거린다’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과의 사랑이 낳은 결과로 이불에 얼룩이 묻었다. 얼룩이 묻은 이불을 두고 “냄새나고 화끈거린다”라고 말하는 화자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첫째, “냄새나고”는 그 ‘얼룩’이 매우 부정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둘째, “화끈거린다”는 그 ‘얼룩’에 대한 화자의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낸다. 얼룩의 냄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냄새가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얼룩이 지닌 부정성 탓이 크다. 어쨌든 그 원인은 대상 그 자체에 있다. 하지만 얼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태도는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약 어떤 대상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다. 혹은 그것이 특별한 현상이라면, 그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대상 혹은 현상을 허용할지 말지는 화자가 결정할 문제지만, 실제로는 외적인 요인이 개입한다. 얼룩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부정성이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염된 이불을 깨끗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얼룩이 생긴 이불은 “폐매지지 않은 기억”이며,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더럽힌다. 그러니 “비벼댈수록 스며들고 씻을수록 번져간다.” 화자는 어느새 “늙고 추악한 소녀”가 되었고, 급기야 이불이 화자를 돌돌 말고 있다. 그러고는 자살하기 위해 “거울을 보며 마구 머리칼”을 자른다. 누가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들었나? “자살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이 집을

떠날 때”라는 구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녀 스스로가 아닌 외부적 강압이 그녀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이다. 그녀는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얼룩이며, 잘못 인쇄된 글자 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더러움은 그것의 등가물들인 부패나 감염처럼 그 자체의 부정적 측면도 문제지만 동일성을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더러움은 존재의 한계와 관련된다. 더러운 것은 주체에게 있어 그것이 구별과 차이의 체계인 한 언제까지나 짙어져야 하는 위협을 표상한다.¹² 가부장제에서 여성 주체가 더러움과 오염으로 낙인찍혀 존재론적 재난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특히 여성에 관한 오염의 의식화 과정은 성별의 엄격한 구별, 달리 말하면 남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는 것에 대한 강박적 관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진실의 복잡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의 안과 밖으로 세계를 양분한다.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깨끗한 여성이란 보이지 않는 여성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깨끗해지기 위해선 그 질서가 인정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성 주체가 그 영역을 이탈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성 주체는 더러운, 더러울지도 모르는 자신을 지우는 일에 삶을 탕진해야 하는 것이다.

눈물 한 방울 들고 가는 여자 있어.

눈물 한 방울 들고 세상을 지우며

지우며 가는 여자 하나 있어.

눈물 한 방울 들고 제 얼굴도 지우며 가는

여자가 하나 있어.

12 줄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 서민원 역, 앞의 책, 114쪽 참조.

절름발이 여자가 간다.
 부러진 다리에서
 부러진 다리를 꺼내며, 꺼내며
 여자가 하나 걸어간다.

울음아, 네가 끌고 가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 끌어올리는 뜨거운 리듬이 있어
 리듬이 지우며,
 지우며 가는 세상이 하나 흐리어 있어.

— 김혜순, 『리듬』(『또 다른 별에서』, 1981) 전문

여자는 “눈물 한 방울”을 들고 “세상을 지우”면서 “제 얼굴도 지우며” 흐린 세상을 걸어간다. “눈물 한 방울”은 여자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절름발이”가 그 여자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의 직접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무관한 것도 아니다. 물론 여자가 신체적 불구라는 의미의 “절름발이”는 아니다. “부러진 다리에서” “부러진 다리”를 꺼내며 걷는다는 점에서 “절름발이”는 정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상태의 비유에 불과하다. “절름발이”라는 이 비유는 한편으로 정상인이라는 동일성의 세계 외부로부터 온 위험이다. 또 한편으로 “절름발이”가 여자이며 그가 “제 얼굴도 지우며” 걸어가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이 비유는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 특히 어머니의 상징적인 중요성은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필요했다. 가령, “울음아, 네가 끌고 가는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대목은 가정의 대의적인 목표가 개별자로서의 여자의 삶을 희생하도록 요구했던 한국사회의 모습과 어렴풋이 겹쳐진다. 사실 이러한 희생하는 어머니의 상징성은 우리의 역사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어머니란 언제나 희생자, 자유

가 없는 여자, 순교자를 떠올리게 한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가부장제의 희생자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충실한 조력자로서의 이중적인 경험을 해야만 했다.¹³ 그 경험은 이성애가 제도화된 사회에서 여자 아이가 ‘정상적인’ 여성이 되기 위하여 그녀가 경험한 첫 번째 여성인 어머니로부터 얻은 최초의 의존성을 남성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확인된다.¹⁴ 동시에 가부장제에서 어머니가 교묘하게 딸을 조종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도, 자유로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딸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새로운 여성성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¹⁵

그럼에도 여자가 왜 “세상을 지우며” “제 얼굴도 지우”는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이유는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제 얼굴”을 지우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정당성을 지운다면, 그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성의 선택과는 무관하다. 주어진 자리는 협소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또한 미미하며, 그것마저 정해져 있다.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정해준 자리를 여성 주체가 이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에서 여자가 했던 것처럼 불온한 “제 얼굴”을 지워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오염된 자신을 지워야만 다시 그 질서 안으로 편입될

13 조혜정은 한국의 여성이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만 인정되었으며, 가부장제의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은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근대화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강조한다(『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58~114쪽 참조).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자궁에 잉태한 생명을 성장시키는 대지와 닮아있으며, 그 대지의 원형적 이미지는 포용과 희생의 모성애로 발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배옥주, 앞의 글, 196쪽)와 같은 논리는 긍정적인 모성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희생을 요구받았던 여성 주체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보여준다.

14 아드리엔느 리치(A. C. Rich)는 사회적 보상과 처벌, 역할 활동, 이탈에 대한 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성애 제도가 자유롭게 선택된 인간의 경험이 아님을 누차 강조한다.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269쪽 참조.

15 이혜원, 앞의 글, 258쪽.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염에 대한 극도의 의식화는 의식의 대상으로부터 더
러움 자체를 완벽하게 몰아내려는 것과 같다.

여성이 스스로를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이 오
염되었다는 인식으로 종종 나타난다. 가부장적 질서가 특히 여성의 몸을 훼손
하는 것은 몸이 인권을 인정받는 한 장소이기 때문이며, 그 몸을 훼손하는 것
은 그 장소를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권의 근본적인 박탈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
다.¹⁶ 그러나 여성의 몸은 죽음과 삶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놀라운 장소다. 줄
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에 따르면 이는 ‘아브젝트(abject)’에 해당한다.

상상적 이질성인 동시에 현실의 위협인 아브젝트는 우리를 부르고, 결국에 가
서는 삼켜 버린다. 아브젝트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 더 가깝다. 그것 자체가 지정된
한계나 장소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어중간하고 모호한 혼합물인 까
닭이다. 반역자, 거짓말쟁이, 양심을 속이는 일, 파렴치한 강간자, 구하는 척하면
서 살해하는 자……. 이 모든 범주는 법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브젝트
일 수 있다.¹⁷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의 아브젝트는 매우 다
양한 차원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크리스테바는 도덕을 거절하는 것은 아브젝
트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도덕을 거부하는 행위가 도덕에 대한 관념
을 지니지 않거나, 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반항·자유주의·자살적인 범
죄처럼 모종의 위대성을 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브젝트의 또 다른

16 한나 아렌트(H. Arendt),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532쪽 참조.

17 줄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 서민원 역, 앞의 책, 25쪽.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더럽고 천하며 역겨운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어떤 경계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애매 모호하고 복합적인 혼합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혹적이면서 위협적이고, 영양분은 많으나 혐오감을 자아내는 여성의 몸은 아브젝트에 해당한다. 몸이 가만히 있더라도 거기엔 어떤 의미화가 발생한다. 그것은 몸이 제공하는 것이다. 대체로 머뭇거리거나 단호한 것으로, 매력적이거나 꺼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남성은 여성의 몸을 훼손함으로써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었다.

너는 나에게 몸을 자꾸만 자꾸만 달라고 달라고 하고

너는 내 몸을 마구 짓밟고

신경과 핏줄은 마구 늘어져 이 땅에

얼기설기 줄기처럼 흩어지고

내 머리는 날마다 네 입김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햇별은 욕설 손가락질보다 더 뜨거워

나는 또 머리로 머리를

퍼런 네 새끼를 낳고야 마는구나

— 김혜순, 『수박』(『우리들의 음화』, 1990) 전문

그 훼손의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었음을 이 작품은 보여준다. 남성으로 보이는 ‘너’는 “나에게 몸을 자꾸만 자꾸만 달라고” 요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나’의 몸을 소유하고자 한다. 그러고는 “내 몸을 마구 짓밟”으며 훼손하고 오염시킨다. 원하지도 않는 “퍼런 네 새끼를 낳”는다는 점에서, ‘너’는 ‘나’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몰아세우고 급기야 절멸에 이르게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몸이 훼손되었을 때, 여성 주체가 보이는 사후적 반응이다. 여성 주체는 “욕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오염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원인은 여성 주체에게만 있지 않고 남성 주체에게도 있다.

여자의 자궁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오염된 바다)

열려진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바다의 햇빛에 눈이 부서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 최승자,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즐거운 일기』, 1984) 중에서

인용한 최승자의 시에서 여성의 몸은 오염되었다.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여자의 자궁”은 “오염된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자궁 역시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고 해야 할까? 스스로 자신의 몸이 오염되었다고 말하는 여성 주체는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러나 이 작품의 의도는 자리를 빼앗겨 훼손된 여성이 스스로 그 오염된 몸을 통해 그 원인인 남성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훼손된 몸은 말할 수 없는 주체를 대신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저항한다.¹⁸ 김혜순의 시 『리듬』에

18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성적인 고백의 경우에 화자가 대체로 몸이 했던 일 혹은 몸이 겪은 일에 관해 말하려 한다고 적고 있다. 화자가 고백의 상황에서 몸의 특정한 수동성을 강요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세에서도 몸이 주장할 수 있는 행위는 그게 무엇이든 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274~275쪽 참조). 몸은 정당한 발언

서 “절름발이”나 “부러진 다리”가 몸의 주체가 처한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에서 최승자는 “여성의 몸을 ‘아브젝트’로 형상화함으로써 상징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의 타자성을 환기”¹⁹한다. 말하자면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자궁으로부터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주체의 훼손을 몸의 훼손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염된 자궁에서 병든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러니 여성 주체가 당한 훼손은 여성 주체의 몸으로만 남지 않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새로운 오염원(“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만 들어섰다. 오염된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아왔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종종 여성의 몸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저마다의 몸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어디로인지 떠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영원히 눈먼 항구.

알타미라 동굴처럼 거대한 사원의 폐허처럼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 있다.

새들의 고향은 거기.

모래바람 부는 여자들의 내부엔

새들이 최초의 알을 까고 나온 탄생의 껍질과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다.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

권을 지니지 못한 주체에게는 마지막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19 박주영, 『실비아 플라스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여성분노의 미학적 승화』,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279쪽.

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

— 최승자, 『여성에 관하여』(『즐거운 일기』, 1984) 전문

인용한 작품은 ‘여성 시’에서 그 이전까지 배제했던 여성적 체험을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출산/낙태’의 체험과 같은 금기시되었던 영역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여성에게 자궁이란 생명의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지만, 최승자에겐 더 이상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장소다. 여성의 자궁이 ‘무덤’이라면, 그곳은 이미 죽음의 장소이며 여성성이 훼손된 공간이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존재하는 몸이야말로 “한계나 장소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어중간하고 모호한 혼합물”로서의 ‘아브젝트’일 수 밖에 없다.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을 무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라는 물질성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다. 어쩌면 신화적이어서 환영에 가까워 보이는 그 몸은 실재로서의 몸으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의 몸은 “알타미라 동굴”이나 “거대한 사원”, 혹은 ‘바다’처럼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린 동굴과 사원은 “폐허”이거나 굳어진 ‘죽은’ 바다이기도 하다. “탄생의 껍질”과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는 “여자들의 내부”란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인 것이다. 사랑의 대상으로서든 모성적 생명체로서든 몸의 상실을 무덤으로 설정한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다. 여성의 몸을 훼손시킨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4. 은폐된 폭력과 저항의 언어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더러움이 단지 자리의 이탈에서 비롯되는 혼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리가 있다’

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각자의 정해진 위치가 있어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존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맡은 바를 이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모든 사람과 사물이 우주적 질서 안에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통적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논리와 가깝다. 이러한 근거 없는 가정이 차별을 은폐하는 위계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²⁰

종종 남성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불가사의한 힘으로부터 기존의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남성보다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모종의 불길한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 여성을 두고 교활하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 그 주장은 남성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묘한 전략처럼 보인다. 여성 주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성들의 주장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다름없다. 그 변명이 실존의 차원에서 폭력의 형태로 드러났음을 한국사회의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폭력에 저항하기란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지 않았다. 현실에서처럼 문학에서도 그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저항도 허락되지 않았을 때, 여성 주체들은 오염된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려고 한 적이 있다. 영혼은 육체의 누추함을 잊기 위해 발명된 하나의 유토피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희생하는 어머니’란 여성 주체가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위로하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현실에서는 고통스러운 육체가 있을 뿐이다. 고통의 원인은 아버지와 당신으로 존재하는 남성들의 폭력이

20 김현경, 앞의 책, 75쪽.

21 미셸 푸코(M. Foucault)는 “몸의 서글픈 위상학을 잊게 해주는 유토피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은 아마 영혼이라는 거대한 신화”(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29쪽)라고 말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의 눈에 보이는 인간다움의 표시보다는 정작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낸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상을 진실로 믿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다.

다. 그 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떤 삶은 전혀 삶으로 간주되지 않고 인간적인 것도 될 수 없다.²² 말하자면 거기엔 한 개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더 큰 차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두 편의 시에서 폭력의 과정과 그 배후의 맥락을 읽을 수 있다.

①

어머니의 어두운 뺨속에서 꿈꾸는
먼 나라의 햇빛 투명한 비명
그러나 짓밟기 잘 하는 아버지의 두 발이
들어와 내 몸에 말뚝 뿌리로 박히고
나는 감긴 철사줄 같은 잠에서 깨어나려 꿈틀거렸다
아버지의 두 발바닥은 운명처럼 견고했다
나는 내 피의 튀어오르는 용수철로 싸웠다
잠의 잠 속에서도 싸우고 꿈의 꿈 속에서도 싸웠다

— 최승자,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이 시대의 사랑』, 1981) 중에서

②

너는 나를 버렸지,
이젠 헤어지자고
너는 날 버렸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22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어떤 삶은 전혀 삶으로 간주되지 않고 인간적인 것도 될 수 없다. 그런 삶은 인간을 나타내는 지배적 틀에 맞지 않음으로써, 처음에는 담론 층위에서 그런 사람을 인간 밖의 것으로 탈-인간화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것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이 폭력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문화 속에 탈인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46쪽)고 폭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날 버렸지.

수술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웠을 때
시멘트 지붕을 뚫고 하늘이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의 껍데기에 가득 찬 공기도 보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도 못 넘기고
지붕도 하늘도 새도 보이잖고
그러나 난 죽으면서 보았어.
나와 내 아이가 이 도시의 시궁창 속으로 시궁창 속으로
세월의 자궁 속으로 한없이 흘러가던 것을.
(...중략...)
오 개새끼
못 잊어!

— 최승자, 『Y를 위하여』(『즐거운 일기』, 1984) 중에서

작품 ①은 ‘너’(아버지)가 대표하는 권위적 질서에 대한 거부감과 ‘너’와 ‘나’ 사이의 가학-피학의 관계를 과격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 폭력이 극단적인 까닭은 “아버지의 두 발”이 화자인 ‘나’의 몸속 깊숙이 들어와 “말뚝 뿌리”로 박히기 때문이다. “감긴 철사줄 같은 잠에서 깨어나려 꿈틀거렸다”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폭력이 한 개인의 무의식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1980년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던 억압적인 정권 역시 매우 치밀하게 시민을 통제하고 유린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짓밟기 잘 하는” ‘너’(아버지)의 권력은 “운명처럼 견고”했으며, 딱히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조차 없는 것

들어있다.

작품 ②는 ‘너’(당신)로 인한 ‘출산/낙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주체가 얼마나 아프게 탄생되어야 했는지를, 동시에 사랑의 서사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폭력적인 것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여성의 육체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수술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특별한 육체적 경험은 육체 그 자체의 오염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장면을 상상하는 일에만 낯설음을 유발한다. 이 작품에서 여성만이 겪는 ‘출산/낙태’의 체험은 여성성의 발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의 시궁창 속으로” 흘러간 것이 “내 아이”만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기도하다는 점이다. 이 화자에게 삶이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너는 나를 버렸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버리는 일(“나는 나를 버렸지”)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너’와 ‘나’ 사이의 가학-피학의 관계가 ‘나’ 안에서 재발하게 되었나? ‘너’의 무지막지한 폭력이 ‘나’의 인간으로서의 의미마저 앗아갈 수 있을까? ‘나의 버림’에는 화자인 ‘나’가 져야 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버림받은 여성’에 대한 낙인과 멸시가 엄연히 존재한다. ‘나’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작품에서 발견하기 어렵지만, ‘나’는 무작정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그럴 수만은 없다고 말하는 지점이 바로 은폐된 폭력에 대한 저항이다. 버려졌다는 것은 오염의 메타포이며,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통제에서 벗어남이다. 어찌면 시의 화자는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편의 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여성 주체가 남성의 폭력을 그대로 수용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①에서 화자는 “운명처럼 견고”한 “아버지의 두 발바닥”을 상대로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싸운다. ②에서 화자는 더 적극

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면화한다. 자신을 버린 ‘너’에게 “오 개새끼”라며 욕을 한다. 죽을 것처럼 힘든데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대해 말하지만 화자가 실제로 어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그 대답은 언제나 또 다른 억압으로 늘 여성 주체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남성 폭력에 대한 여성 주체의 저항하기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저항하기는 삶을 통째로 걸고 하는 방식이어서 더 비극적이다. 여기서 사용된 저항의 언어는 욕망과 몸을 포기하고 난 뒤에 발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저항의 언어는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몸이자 진정한 존재로서 자신을 사라지게 하거나 파괴할 때, 오직 그럴 때에야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구현체로서의 희생은 저항의 언어가 된다.

1980~1890년대 한국의 여성 시인들이 드러낸 혁신적인 사유만큼 시적 표현에서의 새로움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그 이전까지의 여성스러운 시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개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여성 시’에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비속어나 거친 언어를 표출한 데서 온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들의 언어는 자신들이 겪은 절망과 위기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 여성 시인들은 억압된 언어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을 자유로운 형식의 언술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텅, 텅, 텅)

애야, 누가 왔나 보구나 이거 문 두드리는 소리 아니니

(텅, 텅, 텅)

못 때리는 소리잖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 문은 결코,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텅, 텅, 텅)

애야, 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보렴

(텅, 텅, 텅)

그럴 피가 없어요, 아버지

(텅, 텅, 텅)

네 허벅살이라도 베어내야 하지 않겠니?

(텅, 텅, 텅)

소용없어요. 어차피 흙이 핏물을 다 쓸어 내릴 텐데요, 뭐

(텅, 텅, 텅)

이 고얀 년아, 육실혈 년아, 벼락 맞아 똥질 년아, 이년아, 네가 날 살려야지

(텅, 텅, 텅)

下官은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그만 아가리 닥치고 잠이나 퍼 자요

—김민정, 『마지막 舌戰』(『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2005) 중에서

시에서 읽을 수 있는 아버지와 딸의 ‘설전’은 보편적 가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화자는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특히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 진술은 그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절대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부정은 “아빠, 아빠, 이 개자식, 나는 다 끝났어”²³라고 끝맺는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1932~1963)의 시 『Daddy』와 여러 측면에서 닮았다. 이와 같은 ‘아버지 부정’의 시들이 1980년대 이후 한국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실비아 플라스가 번역 소개되는 시점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당시 폭력적인 정권의 강한 억압이 팽배했던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²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 시’가 이전의 ‘여성 시’와 달라지는 지점은 과감한 시어의 사용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마지막舌戰』 역시 기존의 ‘여성 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속되고 거친 말과 욕설이 많이 사용된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아버지가 딸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사용하는 비속어와 욕설이 서로에게 모욕을 준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얀 년아, 욕실혈 년아, 벼락 맞아 똥질 년아”라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다. 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겠지만, 그 말은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흔히 딸(자식)에게 사용해 왔던 어법이었다는 점이다.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아버지의 말과 몸짓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딸에 대한 인격적인 자리마저 빼앗기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딸(자식)들이 오랫동안 저 말을 들어 왔다는 것은 그 세계가 하나의 규칙이었음을 보여준다.²⁵ 반면에 “아버지 그만 아가리 닥치고 잠이나 껴 자

23 실비아 플라스(S. Plath), 박주영 역, 『실비아 플라스 시 전집』, 마음산책, 2013.

24 이혜원, 앞의 글, 242쪽.

25 김현경은 모욕을 상호작용 의례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해한다. 그래서 모욕을 “감정의 표현 내지는 잘못된 재현으로 이해할 때, 말과 몸짓이 지니는 수행적 차원은 간과”(김현경, 앞의 책, 108쪽)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 김민정의 시 『마지막舌戰』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상호작용 의례의 규칙에 어긋나 있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예전부터 수용되어 왔었고, 딸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라고 딸이 말했을 때, 그것은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딸의 감정 표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아버지의 말과 행동처럼 이미 규칙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자식의 도리를 문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버지 그만 아가리 닥치고 잠이나 펴 자요”라는 말을 두고 윤리적 인식의 부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미 딸은 상호작용의 의례라는 경계를 허물고 그것이 잘못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과 행동은 ‘자식된 도리’에서 이 해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익숙한 시어들로는 표현하기 힘든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거칠고 날선 언어들에 과감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항의 언어 뒤에는 여성이라는 어떤 기원에 대한 희망, 혹은 정체성은 없다. 저항의 언어란 오직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불안한 주체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이다.²⁶ 언어는 언제나 말하는 주체로 하여금 그 말의 억압된 리비도의 근원에 가 닿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5. 몸의 가능성과 경계 허물기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이후 ‘여성 시’는 여성적 체험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식의 각성뿐 아니라 표현면에서도 이들의 시는 여성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여성 시’의 언어와 언술의 한계를 과감하게 돌파하는 혁신적인 방법으

26 주디스 버틀러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말한 “행위, 수행, 과정 뒤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행위자’는 그 행위에 부가된 허구에 불과하다. 행위만이 전부이다”라는 말을 이어받아 “젠더의 표현물 뒤에는 어떠한 젠더 정체성도 없다. 정체성은 결과라고 알려진 바로 그 ‘표현물’ 때문에 수행적으로 구성된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131쪽)고 말하고 있다.

로 ‘여성 시’의 표현 가능성을 확대했다. 그 결과 여성의 의식과 언어에 가해지는 억압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저항하는 가운데 ‘여성 시’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여성 고유의 역할이 세계의 폭력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특히나 생명의 탄생이나 삶의 항상성과 관련된 여성적 가치를 일깨우는 다양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작품에 대해 “포용과 헌신으로 이타적 생명을 형상화시켜 억압된 세계를 구원하는 근원적인 모성성”²⁷을 보여준다는 평가는 한편으로 타당하다. 아래 작품은 근원적인 모성성의 가능성을 여성의 몸을 통해 잘 보여준다.

물동이 인 여자들의 가랑이 아래 눕고 싶다
 저 아래 우물에서동이 가득 물을 이고
 언덕을 오르는 여자들의 가랑이 아래 눕고 싶다

땅속에서 싱싱한 영양을 퍼올려
 굵은 가지들 작은 줄기들 속으로 젖물을 퍼붓는
 여자들 가득 품고 서 있는 저 나무
 아래 누워 그 여자들 가랑이 만지고 싶다
 짓이겨진 초록 비린내 후욱 풍긴다

가파른 계단을 다 올라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물동이들이 줄기 끝

27 배옥주, 앞의 글, 202쪽.

위태로운 가지에 쏟아 부어진다
허공중에 분홍색 꽃이 한꺼번에 핀다

분홍색 꽃나무 한그루 허공을 닮는다
겨우내 텅 비었던 그곳이 몇 나절 찬찬히 닮인다
물동이 인 여자들이 치켜든
분홍색 대걸레가 환하다

— 김혜순, 『환한 걸레』(『불쌍한 사랑 기계』, 1997) 전문

‘대걸레’는 더러운 곳을 닦거나 흠쳐 내는 데 쓰는 물건이다. 그 ‘대걸레’가 ‘환한 걸레’로 변하는 과정, 그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이 작품은 보여준다. 이 야기의 주인공은 건물을 청소하는 여자다. ‘걸레’가 너절하고 허름한 물건이 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것처럼, 그녀의 일은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녀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계단을 올라 건물의 이곳 저곳을 닦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 행위는 나무가 땅속에서 “싱싱한 영양”을 퍼 올려 “굵은 가지들 작은 줄기들 속으로 젖물을 퍼붓는” 것에 비유된다.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자의 대걸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깨끗한 ‘꽃’이 핀다. 그러니 그 ‘꽃’은 깨끗해진 건물이기도 하고, “분홍색 꽃나무 한그루 허공을 닮는다”는 표현으로 보자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여자 자신이기도 하다. 화자는 청소하는 여자, “물동이 인 여자들의 가랑이 아래 눕고 싶다”고 말한다. 왜 가랑이 아래인가? 그곳은 우리 몸의 근원이며, 생명의 힘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경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가랑이 아래 눕고 싶”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 자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젖이겨진 초록 비린내 후속 풍”기 기도 한다. 그 ‘비린내’가 ‘젖이겨진’ 이후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

다. 그것은 한편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몸의 상징이며, 또 한편으로 하찮은 신분에 지나지 않는 청소하는 여자를 비유한다. 더군다나 ‘결레’라는 말의 의미가 왜곡되어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종종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 작품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결레가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는 오염되고 훼손된 여성의 몸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환한 결레』는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기존의 여성성을 부정하지 않은 듯 보이면서, 억압되지 않은 낯선 풍요로움을 지닌 타자성으로서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있다.

남성성 중심의 사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관계된 현상을 문제 삼는 일이 여성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자궁이나 월경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성성을 다룬 시라고도 말할 수 없다. “본래의, 혹은 순수한 여성성에 기대는 것은, 젠더에 대한 설명을 복잡한 문화적 구성물로 규명하려는 당대의 요구를 거부하는, 감상적이고 편협한 이상”²⁸에 지나지 않다는 버틀러의 생각은 여성성에 대한 오랜 착각을 일깨워준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 범위 안에서 젠더를 인식할 수 있는 지표가 등장할 때, 그 작품을 ‘젠더’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했다. 그 해석의 과정에서, 자신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여성이 덜 폭력적이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혐오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²⁹ 이제 우리는 생명성의 근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완고한 이성애적 남성중심주의 질서를 허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 젠더의 규범적 재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족의 재생산이 제도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8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155쪽. 성은 더 이상 내적 기질이나 정체성의 ‘진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직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29 조혜정, 앞의 책, 338쪽 참조

젠더 편향적인 사회에서 ‘여성적인’ 지표를 소거한 채 표현하는 일이란 기존 사회에서 용인하는 ‘주체’의 모습을 체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이다. 그것은 극단적인 남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성적 신체나 여성으로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성의 구분 자체를 무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해방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폭넓은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 없는 섬들에 살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이름 없는 것들이지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여도 좋다고 말하던

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 같지 않나요

이름 없는 세월을 나는 이렇게 정의해요

아님, 말 못하는 것들이라 영혼이 없다고 말하던

근대 입구의 세월 속에

당신, 아직도 울고 있나요?

오늘도 콜레라가 창궐하는 도읍을 지나

신시를 짓는 장군들을 보았어요

나는 그 장군들이 이 지상에 올 때

신시의 해안에 살던

도롱뇽 새끼가 저문 눈을 껌벅거리며

달의 운석처럼 낮선 시간처럼

날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면 나는 당신이 바라보던 달걀 프라이였어요

내가 태어나 당신이 죽고

죽은 당신의 단백질과 기름으로

말하는 짐승인 내가 자라는 거지요

이거 긴 세기의 이야기지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야기지요

—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2011) 전문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름 없는 것들” “말 못하는 것들”의 긴 시간에 대해 말한다. “말하는 짐승”으로서의 화자의 지위는 여전히 ‘짐승’이다. “어느 백인 장교”나 “신시를 짓는 장군들”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밀려나 가장자리로 내몰린 존재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근대 입구”에 가보지 못했으며, 근대가 한참 지난 후에도 ‘근대’라는 개념이 아우르고 있는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신시의 해안에 살던 / 도롱뇽 새끼”는 곧 화자 자신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화자가 스스로 “말하는 짐승”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 비록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사실은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존재다. 그것은 화자가 아직도 ‘짐승’의 처우를 받고 있으며, “백인 장교”나 “장군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 “말하는 짐승”이야말로 “백인 장교”와 “장군들”이 저질렀던 폭력의 역사를 제 몸에서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스스로 짐승이 되어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여기서 인간과 짐승의 대립은 표현 그대로 인간중심주의가 지닌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들’ 안에서 차별적인 지표인 젠더, 인종, 장애 등의 문제를 끌어안으면서 다시 밖으로 표출한다. 이러한 차별적 지표들을 과감하게 허물 수 있는 말이 바로 ‘짐승’이다. 허수경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경계 자체를 허물기 위해 ‘짐승’의 몸과 말을 빌려 왔다.

인류는 어떤 존재들을 끊임없이 삭제하려는 것을 통해 인간의 자리를 규정해 왔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울타리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짐승’의 몸과 말로 그 경계의 울타리를 허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인간에 대한 차별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인간’이라는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여성 시’가 지배문화에 대한 대립과 부정에 지나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여성 시인들이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저항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 단계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민정,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열림원, 2005.
김이듬, 『별 모양의 얼룩』, 천년의시작, 2005.
김혜순, 『또 다른 별에서』, 문학과지성사, 1981.
_____, 『우리들의 음화』, 문학과지성사, 1990.
_____, 『불쌍한 사랑 기계』, 문학과지성사, 1997.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_____, 『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1984.
허수경,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8.
_____,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실비아 플라스, 박주영 역, 『실비아 플라스 시 전집』, 마음산책, 2013.
『대한매일신보』

2. 논문

- 이혜원, 『실비아 플라스 시와 1980년대 한국 여성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박주영, 『실비아 플라스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여성분노의 미학적 승화』,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배옥주,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모성성의 특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31, 원광대인문학연구소, 2018.
팽경민, 『고정희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모성성』, 『비평문학』 47, 한국비평문학회, 2013.

3. 단행본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삶의 의지』, 나남, 1990.
_____,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스티븐 킨, 이성동 역, 『육체의 문화사』, 의암출판문화사, 1996.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Metaphor of Contamination and Undoing Discrimination

About Korean 'female poetry' since the 1980s

Yeo, Tae-chon |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sks about the phase of 'female' in Korean society, and studies how Korean 'female poetry' have expressed this since the 1980s. The metaphor of 'contamination' in 'female poetry' since the 1980s, that is the result of the patriarchal hierarchy. And this article looks at th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new possibilities of 'female poetry' against hierarchical violence.

Since the 1980s female poets in Korea vehemently spoke about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they faced, in this regard the explosive energy of 'female poetry' is important to note. They realized that the cause of their suffering was patriarchal hierarchy and absolute power, and they actively denied it. Female has always been 'dangerous' within the patriarchal hierarchy. It is not allowed to be outside the realm established by the patriarchal hierarchical order, and it is bound to become a dirty being. In patriarchy, it was not uncommon for a female subject to be stigmatized by dirt and contamination. The contaminated female's body shows how she has been physically and mentally oppressed within the patriarchal hierarchy.

Since the 1980s, 'female poetry' expressing profanity or harsh language has not been used in the past. At the same time, they have shown how female's unique role in conceiving and protecting life can change the world's violence. Various works have been published that awaken the feminine values related to the birth of life or the homeostasis of life, and have embodied the possibility of fundamental maternity through the female body.

Nevertheless, it is a limit to dealing with the 'female' problem in the framework of heterosexual gender identity. It is time for a cold analysis of the mothers who have been victims of patriarchy and who have been faithful supporters of it. Heterosexualism and family system were the backgrounds for gender normative reproduction. Now we have to ask if the possibility of being a source of vitality could break down a rigid heterosexual male-centered

order. 'Female poetry' should be a new resistance to seek identity within oneself. It should be a way without losing the excessive energy of conflict and denial against the dominant culture, on the other hand completely undoing discrimination against humans.

Key words : patriarchy, hierarchical order, 'female poetry', gender, contamination, metaphor, concealed violence, language of resistance, body, undoing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프랑스 동성결혼 논쟁의 행위자와 담론*

유은경**

1. 서론
2. 결혼제도의 변화와 시민연대협약(팍스)의 도입
3. 팍스에서 동성결혼으로
4. 동성결혼법 논쟁
5. 프랑스 예외성의 설명요인
6. 동성결혼법 통과 이후
7. 포스트 동성결혼 논쟁 -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PMA)과 대리모출산(GPA) 논쟁
8.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의 장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가치와 논리에 입각해 격돌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프랑스사회의 예외적인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협약 및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 통과에 이어서 동성부모성 및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대리모출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립구도는 기존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가족주의 및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한편으로, 젠더질서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4321). 꼼꼼한 평가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페미니스트 진영과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진보적인 정치권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있다. 논쟁은 주로 반대 진영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찬성 진영이 반론을 제시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주요 쟁점은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수호, 아이를 가질 권리 대 아이의 권리, 동성결혼 법제화가 가족제도에 미칠 영향 등이었다. 반대 진영의 열정적인 참여는 동성결혼법 자체가 지닌 특별한 성격과 함께 동성결혼법 논쟁이 정치적인 갈등의 소재로 작용한 정치화 현상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제어 : 동성결혼, 동성부모성,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모두를 위한 결혼,
시민연대협약(팍스)

1. 서론

1990년대 말 이래 프랑스에서는 성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소재 중 하나가 되었다. 시민연대협약(파스,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과 남녀동수제(파리티테, parité),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포르노에 관한 논쟁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다.¹ 과거 사적인 영역에서의 친밀성의 문제로 다루어지던 주제들이 공적 논의의 장에 들어온 것이다. 프랑스는 견고한 가족구조와 가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규범으로 인해 북유럽과 대비되는 유형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또한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또 다른 전통이 최근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가족구성체의 자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간의 평등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여전히 강한 전통주의 세력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진영이 격돌한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의 사례를 논쟁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프랑스의 가족 및 성소수자 분야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이 자유롭게 경쟁을 벌이는 다원성의 나라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동성결혼법을 둘러싼 격렬한 대립은 프랑스사회가 보여온 예외성의 또 다른 사례로 인식되기도 한다. 멀게는 프랑스대혁명과 68혁명, 가깝게는 노란 조끼 시위 등을 통해 프랑스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강력한 저항의 전통을 보여준 바 있다. 사안의 성격이나 이념적인 성향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성결혼법에 대한 반대투쟁은 왜 프랑스는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반대 투쟁에 대중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모두를 위한 결혼(Mariage pour tous)’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어온 ‘동성부모성(Homoparentalité)’ 및 ‘의학적 도움

1 Fabre, Clarisse · Eric Fassin, *Liberté, égalité, sexualités*, Belfond, 2004.

을 받는 생식(PMA, 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커플의 부부구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동성부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정을 둘러싼 논의가 가족의 질서, 그리고 가족과 결혼은 무엇인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회질서의 근간이었던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이념에 반하는 동성부모의 입양권과 부모권 획득을 둘러싸고 동성커플의 부모 역할 수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과 아이의 성 정체성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대립구도는 기존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가족주의 및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한편으로, 젠더질서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진영과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진보적인 정치권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민연대협약과 ‘모두를 위한 결혼’, 그리고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관련 논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프랑스사회에서 동성애가 제도화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루고자 한다.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가치와 논리에 입각해 격돌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프랑스사회의 예외적인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성커플에 관한 논의를 다룬 자료, 프랑스 동성결혼 논쟁을 다룬 학술적인 문헌과 함께 논쟁의 양 진영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였다. 아래에서는 팩스에서 동성결혼을 거쳐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에 이르는 관련 주제들을 시간 순으로 다룬다.

2. 결혼제도의 변화와 시민연대협약(팩스)의 도입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즉 네덜란드가 대표하는 혼인제도를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과 독일

의 동성 간 생활동반자제도,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같이 혼인제도와 유사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²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으며 1999년 프랑스, 2001년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2000년 12월 법으로 혼인과 이혼, 입양을 포함해 이성결혼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동성커플에게 부여하였다. 이어서 벨기에(2003), 스페인(2005), 캐나다(2005),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노르웨이(2009), 스웨덴(2009), 아이슬란드(2010), 아르헨티나(2010), 덴마크(2012), 브라질(2013), 프랑스(2013), 우루과이(2013), 뉴질랜드(2013), 영국(2013), 룩셈부르크(2014), 핀란드(2014), 아일랜드(2015), 미국(2015), 콜롬비아(2016)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2017년 6월 30일에는 독일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동성커플의 권리 보장에서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6개 국가는 모두 동유럽 국가들이며 시민결합만 허용하는 8개 국가 중 5개 국가가 동유럽 국가들이다. 심지어 폴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처럼 헌법에 동성결혼 금지를 명문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유럽에서도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자’, 가톨릭운동, 극우 단체 등이 성소수자 반대투쟁에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³ 아시아에서는 2018년 5월 17일 대만이 최초로 동성

2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기념 발간 자료집 2006~2018), 2019, 55쪽.

3 동유럽 지역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폴란드 동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4만 명의 스위드니치는 집권당인 민족주의 정당 ‘법과 정의(PiS)’의 거점 도시이다. 2020년 1월 말 이 도시는 유럽 전역에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도시의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에 4가지 언어로 ‘성소수자(LGBT) 없는 구역’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많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의 퍼포먼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목표는 스위드니치가 “문화혁명을 선동하며 아이의 순수함, 가족과 학교의 권위를 공격하는 급진세력에 맞서 LGBT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선언하려는

결혼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2015년 4월 1일 시부야구에서 동성 파트너에게 파트너쉽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8년 현재 6개의 지방 자치체가 이 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⁴ 포르투갈(2010) 과 같이 동성결혼은 인정하지만 일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일본, 호주, 멕시코 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의 도입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동성부모성,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의 여성동성커플 및 미혼자 개방에 관한 논쟁으로 동 성 간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단계를 밟고 있다. 이 과정은 결혼, 성, 가족의 현실과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혼인 관련 법의 역사를 보면 서구사회 역시 양성평등과 다양성 인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혼인만이 혼인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다가 혁명 후 1791년 헌법 제7조에서 ‘법률은 혼인을 민사계약으로 간주 한다’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혼인에 대한 민사적, 비종교적 개념이 민법의 제도에 적용된 것이다.⁵ 이렇게 종교적인 결혼이 아닌 세속적인 결혼 제도가 도입되었고 결혼은 교회나 마을공동체가 아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 적인 개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을 배경으로 근대 이후 유지되어 온 결혼제도에 균 열이 가기 시작한다. 사실혼은 1972년에 인정되었으며 1987년 말위레(Malhuret) 법은 결혼한 부부를 모델로 사실혼의 파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⁶ 결혼은 더 이상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것이다.

계획에 맞서는 것이었다. 결국 이 도시는 이 선언을 채택했고 이후 폴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약 90개의 보수적인 색채의 도시에서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https://www.reddit.com/r/france/comments/f8cyco/europe_de_l'est_la_guerre_du_genre_est_d%C3%A9clar%C3%A9e/, 2020.7.2 검색.

4 김효진, 『현대 일본의 성소수자와 동성파트너쉽』, 『일본학』 46,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8, 159쪽.

5 전영, 『프랑스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7, 7쪽.

6 Blöss, Thierry, “L'égalité parentale au coeur des contradictions de la vie privée”, In Bloss, T. *La dialectique des rapports hommes et femmes*, Paris : PUF, 2001, p.49.

아이의 지위와 권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결혼이 아닌 방식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혼외출생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도 배척했었다. 혼외자녀는 ‘자연적인 아이(enfant naturel)’라고 불리었으며 이 용어는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간통으로 출생한 아이는 ‘간통아이(adultérin)’라고 불렸다. 17세기 절대왕정 시대부터 시작해 20세기 초까지도 결혼제도 밖에서 출생한 아이는 ‘사생아(batard)’라고 불리었으며 미혼모가 되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었다. 1912년에서야 친권을 따지기 위한 차원의 아버지 찾기가 허용되었으며 1972년 친권법 개정에서 적자와 결혼 외 출생자 간의 유산상속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혼인을 기준으로 하는 적자와 서자 간의 실질적 차별이 사라졌으며 2005년 법령에 이르러서야 모든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⁷ 오랜 기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프랑스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로서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 방향으로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결혼의 탈제도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⁸

팍스는 이러한 진화의 결과이자 이를 더 가속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례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가족구조의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에서야 동성애를 범죄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팍스에서 동성결혼으로 이어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의 비범죄화의 연장선상에서 1997년 당시 조스팽이 이끌던 좌파정권은 시민연대협약을 통해 전통적으로 이차적인 시민의 지위에 있던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추방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다.⁹ 프랑스에서 이러한 변화는 주로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다양성, 가족

7 Haut conseil de la famille, *Architecture de la politique familiale : éléments de problématique*, 2011, p.38.

8 Gargoullaud, Stéphanie et Vassallo, Bénédicte, *Réinventer la famill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p.19

9 Fassin, Eric, *L'inversion de la question homosexuelle*, Editions Amsterdam, 2008, p.23

의 민주화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성결혼 논의와 연관성이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을 자유로이 구성할 권리의 확대일 것이다.¹⁰ 시민연대협약은 기존 방식의 결혼 이외에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한 것이며, 그 결과 중 하나로 동성애부부의 사회권이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 팩스 법안의 도입은 가족 관련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가족법 전반의 변화 추세,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동성애가족을 수용하는 법적·사회적 의미가 컸던 팩스는 이와 함께 혼인 및 이혼 비용 절감 및 절차를 간편화하고 커플 간 관계의 많은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였다.

일반적으로 ‘팩스’라 불리는 것은 1999년 11월 15일 99-944 법과 2006년 6월 23일 2006-728 법을 가리킨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커플에게 팩스체결이 허용되면서 이성애 커플에게는 결혼과 동거의 실질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호적에는 어떠한 것도 명시되지 않으며 특별한 의무조항도 없이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팩스라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에이즈의 확산 속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보호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그 일환으로 동성커플에 대한 인정의 요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또한 동성커플이 겪던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법적 인정이 없는 상황은 가족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강한 개입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동성애자 자녀가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가족이 동성애 친구의 병문안을 거절한다거나, 동성애자 자녀의 사망 시 함께 거주하던 공간에 동성 파트너가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유품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동성커플의 의사

10 한국에서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가족구성권을 주장하는 흐름이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서 가족』(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기념 발간자료집 2006~2018), 2019.

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부조리한 양상이 있어 왔다.

한편 섹슈얼리티의 복잡한 상황은 동성커플보다 성전환부부의 경우에 더 큰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까미유(Camille)와 모니카(Monica)는 둘 다 남성으로 태어나 현재는 둘 다 여성이다. 까미유는 성전환을 하였지만 모니카는 하지 않았다. 이들의 사랑은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양성애자이나, 이성애자인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섹슈얼리티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혼에서의 혼돈 역시 마찬가지다. 팩스의 성공적 안착 이후에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겪는 삶의 경로의 특수성,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의 주거의 독립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청소년기 말기에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것과 같은 상황, 부모와 형제자매에 의한 수용과 인정의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팩스법안 통과 후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토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개선되었다.¹¹ 시민연대협약이라는 제도의 도입은 가족의 구성과 해체에 대한 자유의 신장,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책임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 족양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¹²

3. 팩스에서 동성결혼으로

1999년 팩스제도의 제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새로운 계약관계를, 다른 이들에게는 인류 종말의 서곡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개의 프랑스로 나뉘는 균열은 유례없는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법 제정

11 Rault, Wilfried, "Des relations familiales à l'épreuve du pacs", In Courduriers, Jérôme & Agnès Fine(dir.), *Homosexualité et Parenté*, Armand Colin, 2014, p.122.

12 유은경, 『양육수당제도 개혁을 통해서 본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55-2,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이후에도 지속된 갈등은 ‘2006년 상속과 증여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한 팩스제도의 개정을 낳게 된다. 2006년 개정으로 팩스는 많은 조항이 수정되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팩스체결 사유를 호적증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고 동거의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팩스계약에 따른 재산제도가 혼인에서의 공동재산제에 비하여 훨씬 번거롭고 거래의 위험도 컸기 때문에 2006년 개정에서 재산제도가 공유제에서 별산제로 변경되었다.¹³ 또한 팩스 커플의 생활관계, 친자관계 관련 법률들이 정비되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은 의학적 불임진단을 받은 이성부부 사이에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2011년 7월 7일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이성커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혼인 유무를 떠나 일정한 공동생활을 함께 한 기간의 증명 없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또한 파트너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이전 팩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생활, 물질적 도움과 부조 등 상호부양 의무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결혼에 버금가는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팩스가 배우자에 대해 결혼이 적용하는 규칙들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국적, 상대 배우자 성 사용, 상대방의 친인척과의 법적 관계는 허용하지 않으며 친자관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팩스는 단지 엄마만이 아들과 딸의 아버지를 인지하며 부성의 인지(*présomption de paternité*)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입양도 마찬가지이다. 두 배우자는 동일 아동을 동시에 입양할 수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이렇듯 팩스는 커플의 지위를 준 것이지 가족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¹⁵

동성결혼은 이러한 팩스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다.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 2004년 베글(Bègles) 지역의 사건이 동성결혼 인정을 위

13 전영, 앞의 책, 44쪽.

14 위의 책, 52쪽.

15 Baligand, Jean-Michel Henri, “La notion de famille vue sous l’angle notarial”, Wiewiorka, Michel(dir.). *La famille dans tous ses états*, les entretiens d’Auxerre, 2018, p.174.

한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4년 6월 민법이 배우자의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두 남성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해 7월 보르도의 지방법원은 이렇게 맺어진 프랑스 최초의 동성결혼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항소를 했지만 2007년 3월 13일 무효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당은 부부관계 및 동성부모성에 관한 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가 승리함에 따라 ‘모두를 위한 결혼(Mariage pour tous)’이라는 명칭의 동성결혼 관련 법안이 도입된다. 2013년 4월 23일, 프랑스 하원에서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이 331명의 찬성(225명 반대)으로 통과되었다. 무려 136시간 46분의 법안심의를 거친 끝에, 그리고 그보다 더 격렬했던 장외에서의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으로 이제 동성결혼과 이들의 입양이 허용되었다.

4. 동성결혼법 논쟁

‘모두를 위한 결혼’에 관한 2013년 5월 17일 법 제정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홉 번째,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 날은 마침 세계 동성애혐오반대투쟁의 날이었다. 이 법의 통과로 민법 1편 5장 1절 14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결혼은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에게 의해 체결된다.” 그리고 평등, 그리고 자유의 공유라는 원칙에 입각해 결혼, 입양, 상속에서 동성커플에게 새로운 권리의 길을 열어주었다.¹⁶ 프랑스에서 동성

16 첫째, 혼인의 측면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성커플에게 혼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가족수첩(livret de famille)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제 서로 다른 성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표현인 ‘époux’와 ‘épouse’가 사라지고 대신에 수기로 커플의 구성방식에 대해 기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부(père)와 모(mère)라는 표현도 ‘부-모(père-mère)’라는 단일한 범주에 의해

결혼법 제정은 제도적, 사회적 ‘혁명’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 법안 통과 주역이었던 토비라 장관 역시 ‘문명의 개혁(réforme de civilisation)’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제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이미 2012년 1월 26일에 발표한 프랑수아 올랑드의 대선 공약 60개 중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입양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이 올랑드의 공약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유례없는 갈등을 동반한 것이었다. 이 역사적인 논쟁의 주된 행위자와 담론을 살펴보자.

(1)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인 승인은 한편에게는 결혼제도에 대한 손상으로, 다른 한편에게는 동성결혼, 모두를 위한 결혼으로 불리어졌다. 2012년 11월 7일 의회에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날까지 프랑스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많은 시민단체, 정치가, 종교인, 철학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가족, 인류의 유산”과 같은 언론기사, 법안에 반대하는 ‘모두를 위한 시위’ 그룹의 반대가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양 진영 간의 진지한 논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⁷ 이로 인해 논쟁이 종료된 후 양 진영 모두 상대방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성

대체되었다. 이 법은 또한 동성결혼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5월 18일 이전에 제3국에서 동성의 두 사람 간에 체결한 혼인을 인정한다. 한편 프랑스인은 동성의 외국인과 혼인할 수 있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출신자도 프랑스에서는 혼인을 할 수 있다. 둘째, 결혼의 권리로부터 입양의 권리가 성립된다. 동성결혼법은 두 배우자가 공동으로 한 아이를 입양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한다. 입양한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한은 두 배우자가 공유한다. 한편 파스의 경우에는 두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입양아의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결혼은 파스보다 더 보호의 정도가 강하다. 배우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상속인이 된다. 모두를 위한 결혼은 남겨진 배우자가 유족연금, 즉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s://www.lemariagepourtous.info/>, 2020.7.2 검색)

¹⁷ Baligand, Op.cit. p.176.

보다는 열정이 지배한 시기였던 것이다.

비교해보면 1999년 시민연대협약 도입을 둘러싼 프랑스사회의 상황은 2013년 동성결혼 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쟁의 경우보다는 덜 갈등적이었다. 당시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존재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좌파와 우파 간의 논쟁은 거의 없었고 극우파의 반대 입장만이 부각되었다. 물론 당시 시민사회의 상황은 달랐다. 동성애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동성애혐오 현상과 이에 대한 비판이 전 사회를 뒤흔드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동성애혐오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기시되어 왔던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시민연대협약을 둘러싼 논쟁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동성결혼 논의의 초기 상황을 보면, 2012년 7월 3일 장마크 에이요(Jean-Marc Ayrault) 장관이 동성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의 준비를 알린 의회에서의 논의에서는 반대입장 표명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치인들보다는 시민사회가 법안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급진적인 여성주의자인 크리스틴 부탱(Christine Boutin)과 가톨릭 근본주의 성향의 씨비타스(Civitas) 연구소의 알랭 에스카다(Alain Escada)가 여론과 미디어에 힘입어 법안의 찬반 양 진영을 이끄는 대표자로 등장하였다.¹⁸ 시위를 주도한 조직인 ‘모두를 위한 시위(Manif pour tous)’의 주요 인물로는 이 모임의 대표인 뤼도빈 들라 로셰르(Ludovine de La Rochère), 부대표인 알베릭 뒤몽(Albéric Dumont), 주민의 표를 의식해 반대 진영의 또 다른 핵심세력이 된 ‘아이를 위한 시장들의 모임(Collectif des maires pour l'enfance)’의 대변인 프랑크 마이어(Frank Meyer), 『동성결혼에 대항하는 동성애자(Homosexuel contre le ‘mariage pour tous)’』의 저자 장 뤼에르 들롬-미야(Jean-Pier Delaume-Myard)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것은 교회의 역할이었다. 입안 초기 추기경 바르바

¹⁸ Delahaie, Yves, *Mariage pour tous vs Manif pour tous*, édition Golias, 2015.

랭(Mgr. Barbarin)은 동성결혼이 일부다처제와 근친상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진 가톨릭교회의 열정적인 반대 진영 참여는 사람들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교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기존의 평가에 의문을 던지게 할 정도였다. ‘모두를 위한 시위’라는 이름의 시위를 주도한 가톨릭 세력은 ‘우파에 의한 프랑스의 오월’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권을 규탄하는 가장 격렬한 우파의 사회운동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이끈 대규모 시위에 등장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본요소이다’, ‘모든 이는 남자와 여자에 게서 태어났다’, ‘허구적 친자관계는 노’, ‘아이는 권리가 아니다’ 등의 주요 구호와 그들의 성명서 및 팸플릿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성결혼 논쟁은 프랑스에서 가톨릭교회가 공화국의 압력집단으로서의 힘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교회는 여전히 공적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있는 행위자였던 것이다. 팩스 제정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 이전까지 아무도 1999년의 침묵하던 교회가 아니라 파리 거리의 시위에서 투쟁하는 교회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종교세력은 당시 법무장관의 이름을 딴 ‘토비라(Taubira)’ 법안에 반대하는 폭동의 선봉에 섰고 마치 십자군전쟁 때처럼 시위를 조직하고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프랑스에서 가톨릭 신자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다수 종교이며(1986년에는 81%가 가톨릭 신자였음), 2009년 가톨릭신문 *La Croix*의 조사에 의하면 신자의 4.5%만이 미사에 참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1999년 1월 31일, 팩스 반대를 위해 모인 시위 행렬은 10만이 넘었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2012년 8월 15일, ‘모두를 위한 시위’에 집결하였다. ‘씨비타스’라고 불리는 근본주의적 가톨릭 진영의 지도자인 알랭 에스까다(Alain Escada)는 신의 목소리를 구현한다고 주장했다.¹⁹ ‘하나의 아빠와 하나의 엄마(un père et une mère)’는 동성

¹⁹ Delahaie, Op.cit. p.57.

결혼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호였다.

그렇지만 종교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프랑스사회의 대표적인 세 종교인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모두가 아니라 가톨릭만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가톨릭계의 입장 역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일부 신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교회는 이것이 개인적인 입장 표명일 뿐 가톨릭계 전체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신교계에서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동성부모성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신앙에서 이를 반대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슬람의 경우 1905년 법 이후 프랑스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정교분리주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화국의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유대교 최고랍비 질 배른하임(Gilles Bernheim)²⁰은 유대교 교리에 입각해 동성결혼을 비판했지만 이것이 프랑스 유대인들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불교계에서도 불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²¹

20 Bernheim, Gilles, *Mariage homosexuel, homoparentalité et adoption*, 2013.

21 <https://www.lemariagepourtous.info/debat-44.html>(2020.6.10 검색).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종교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흑인이 백인에 비해 성소수자 권리 증진 이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로서의 연대의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적 요인의 배경에는 종교적 요인이 존재한다. 흑인의 대부분은 노예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보수적인 종교를 믿고 있으며, 이 종교가 흑인들의 정치·사회적 태도 형성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백인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다는 것이다.(후지사키 요시애, 강신재·진영재, 『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3, 한국의회발전재연구회, 2019, 38쪽)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소수자인 무슬림 이주민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반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종교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라 베지트는 2000년도까지는 덜 종교적인 국가가 동성결혼 도입에 더 관용적이었으나, 이후로는 캐나다, 스페인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종교성과 관용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평가한다.(라 베지트,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6, 9쪽)

종교계 곁에는 우파 정치인들이 있었다. 국민운동연합(UMP)을 필두로 한 공화주의적인 우파 세력은 동성결혼법 제정이 인본주의의 종말이라며 격렬했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물론 이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공개적으로도 의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극우파나 전통적인 우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우파 단체들도 진창과도 같은 논쟁의 장에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팍스의 사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좌우파 간의 논쟁은 없었고 극우파의 법안 반대만이 두드러졌다.

반대편에는 좌파가 있었다. 사회당 및 좌파와 가족정책의 관계를 보면, 공화국의 보수주의 전통에 반대하기 위해 좌파가 가족주의의 가족모델은 거부했지만 가족수당만이 아닌 좌파 고유의 가족모델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등, 현대성 등 최근의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했다. 이렌 테리(Irène Théry)가 주도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일련의 정부 보고서는 가족을 부동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관계가 교차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정의했으며,²² 중도좌파 잡지인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도 가족 내부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선 직후 좌파

22 법적인 의미의 가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프랑스 Larousse 사전에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로 형성된 집단, 결혼과 친자관계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 같은 혈통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세대 집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한부모,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등의 다양한 현대가족의 모습을 포괄하지 못한다. 아이의 존재가 가족구성에 필수적인가? 합법적 아이와 입양된 아이의 구분은 필요한가? 아이가 없는 부부는 가족인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Baligand, Jean-Michel Henri, “La notion de famille vue sous l’angle notarial” Wiewiorka, Michel(dir.), *La famille dans tous ses états*, les entretiens d’Auxerre, 2018) 한부모가족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지 않으면서 한 아이 혹은 여러 아이들을 기르는 가족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Journal Officiel*, Sénat du 26 avril 1990) 그런데 한부모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이 공식 규정이 한부모는 동거인과 살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공식적인 정의와 더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은 재구성가족의 경우이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재구성가족은 결혼을 했던 안했던 성인커플과 배우자 가운데 한명이 전 커플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이 있는 가족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Baligand, Ibid)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입장의 차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제출된 동성결혼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좌파 정당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통일된 행보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녹색정당인 유럽생태녹색당(EELV)이 2003년부터 동성결혼 인정을 주장해 왔고, 2008년에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1년에도 파트릭 블로흐(Patrick Bloche)가 유사한 취지의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는 5명의 후보가 동성결혼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²³ 좌파급진당(Parti radical de gauche)은 「현대적인 좌파(La gauche moderne)」, 좌파전선(Front de gauche)은 「인간 우선(L'Humain d'abord)」이라는 강령집에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로 동성결혼을 포함시켰다. 신반자본주의당(Nouveau Parti anticapitaliste), 노동자투쟁(Lutte Ouvrière)과 같은 좌파정당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정당과 함께 동성애자 단체들과 여성주의 단체(SOS Homophobie, Act Up-paris, l'Inter-LGBT, le Planning familial, Osez le féminisme 등), 반인종주의 단체 및 인권단체(Amnesty International, Ligue des droits de l'homme, MRAP, SOS Racisme), 노동조합(CGT, CFTD, UNSA, SNES, FSU), 일부 가족단체와 학부모단체(Union des familles laïques, FCPE, Union nationale lycéenne), 그리고 250인 이상의 문화예술인과 방송인도 이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2012년 12월에서 1월까지 동성애단체들이 좌파 정당들과 노조들의 지지 아래 대규모 법안지지 시위를 했다. 2013년 1월 27일 파리시위에서는 40~50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지지시위에 참여했다.²⁴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양상은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성결혼이 논의된 모든 국가에서 동성애자·양성애자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은 이 운동의 정치적 목적인 결혼권에 이견을 가졌다. “동성결혼을 위해 싸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결

²³ Delahaie, Yves, *Mariage pour tous vs Manif pour tous*, édition Golias, 2015. p.12

²⁴ *Le Figaro*, 2013.1.27.

혼에 맞서 싸우는 편이 더 나아요.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타도하자는 거죠.”²⁵ 일부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이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돌이킬 수 없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혼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커뮤니티에 세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결혼은 이성애적 가족 형태를 채택한다는 의미이며, 결혼은 동성애자에 고유한 가족 형태, 더 나아가 이들의 문화 전반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이로 인해 커뮤니티 내부에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⁶ 한국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해 유사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성혼과 동등하게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주장은 법률혼의 유일 무이한 지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유의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2) 논쟁의 쟁점과 논리

논쟁은 주로 반대 진영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찬성 진영이 반론을 제시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의 양상을 살펴보자.

첫째, 반대 진영은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수호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웠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가족 구성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동성커플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성커플에게는 혼인한 커플과 동등한 권리(상속, 유족연금 등)를 부여하는 시민연대협약 정도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진영은 이에 대해 결혼 제도가 항상

25 라 베지트, 김현경·한빛나 역,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6, 56쪽.

26 위의 책, 239~241

27 가족구성권연구소, 앞의 책, 24쪽.

동일한 모습을 띠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론의 근거로 내세웠다. 족내혼 제도와 같이 다른 집단 성원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특정 시기에 만들어졌고 사랑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 정해주는 대상과 결혼하는 등의 관행이 적어도 19세기까지 프랑스 등 유럽사회에도 존재했다. 이러한 제약이 점차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제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동성결혼법 역시 이를 요구하는 프랑스의 사회적인 조건과 달라진 결혼관이 반영된 것으로 수천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결혼제도의 한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 단체인 SOS 동성애혐오(SOS Homophobic)가 반대 진영의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인 씨비타스의 수사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보자. 이 단체는 반대 진영이 ‘호모결혼(mariage homo)’, ‘게이결혼(mariage gay)’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선호하는 목적은 이 법이 동성애자라는 일부 집단의 특수한 이해를 대변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반대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반박한다. 즉 지금까지의 결혼은 이성애자들에 국한된 특수한 제도이고 이제 동성결혼법을 통해 모두가 결혼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²⁸

28 이상과 같은 프랑스의 논의 구도는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험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영국의 동성결혼법(2013)을 둘러싼 의회의 논쟁을 다룬 정희라(2016)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혼법을 지지하는 측은 성적 취향 때문에 결혼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권에 반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성결혼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민적 파트너십이 이미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파괴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의 재산상과 양육에서의 혼란, 그리고 복혼제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종교적 자유의 차원에서 교사나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 믿음에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담론이 제시되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사법절차와 평등보호 조항을 담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당시 지지자들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1960년대

둘째,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비판이다. 사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반대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 자체가 아니라 동성부모성에 반대한다고 했다.^{29,30} 동성커플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아이를 가질 권리를 겨냥한 것이다. 팩스 등으로 동성 간의 결합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는 균형잡힌 아동기를 보장해주는 아빠와 엄마를 필요로 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이미 너무 자주 부모 중 하나를 빼앗아간다. 이런 경우를 늘리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³¹

이러한 주장과 같이 반대 진영은 아이를 가질 권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우선시했다. 이 권리는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가질 권리, 또는 자신의 아빠와 엄마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는 두 명의 성인에 의해 길러져야 하며, 이들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 진영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동성결혼의 경우 역시 아이를 키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터 제도적으로 확대된 시민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자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용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결국 전통적 가족관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에 위협한 태도라고 주장하였다.(유성진,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여론과 정당정치 그리고 연방주의』 31-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185~186쪽)

29 Michel Huyette, “Petite synthèse finale à propos du mariage pour tous”, *Journal du droit des jeunes*, n°325, 2013.

30 부모성 논의는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 등 학계가 개입한 가운데 동성부모의 인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효과나 아이의 성 정체성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가족사회학자 끌로드 마르탱에 따르면 가족을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 — 이혼, 재혼, 동거, 시민연대협약(PACS) — 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다양한 가족의 인정으로 인한 개인과 부모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재규정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동성혼자들의 양육권인정문제이다.(Martin, Claude, “Le soutien à la parentalité : une nouvelle politique en Europe?”, *Politiques sociales et familiales*, n°118, 2014.)

31 *La Voix du Nord*, 2013.4.22.

생물학적 요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 또는 이성커플이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아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방법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이나 입양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커플의 아이를 가질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성커플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기술의 이용과 입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동성부모의 양육이 ‘아이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진영의 주장은 관련 연구 결과들로 반박될 수 있다. 동성부모도 이성부모와 유사하며 심지어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의 측면에서는 동성 부모가 더 나은 측면이 있고 학교생활에의 적응의 측면 역시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것이다. 또한 반대 진영이 우려하는 성 정체성의 혼란 역시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동성커플 가정의 아이들은 이성커플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주로 이성애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미 2002년 미국교육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발표한 바 있는 내용과 부합한다. 동성커플 가정의 아이와 이성커플 가정의 아이를 비교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당시 이 학회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동성커플의 남성 부모가 이성커플의 남성 부모에 비해 더 권위적이고 부모 역할과 아이의 발달을 더 중시하고 아이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³² 르몽드가 70개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시 이러한 우려가 실증적인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³³ 동성커플이나 이성커플이나 아이 양육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의 성적 지향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동성커플에 의해 키워진다고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³² <https://laviedesidees.fr/L-interet-de-l-enfant.html>, 2020.6.20 검색.

³³ Enfants d'homos : des études scientifiques positives mais aux multiples biais - LeMonde.fr

다. 동성커플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성적 지향보다 이들이 학교나 동네에서 경험하는 동성애혐오라는 것이다.

한편 모두를 위한 시위의 대표 뤼도빈 들라 로셰르(Ludovine de La Rochère)의 시누이인 세실 뒤테이 들라 로셰르(Cécile Dutheil de la Rochère)는 흥미롭게도 모두를 위한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비판의 근거 중 하나는 ‘모두를 위한’이라는 표현이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2012년부터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구호와 달리 프랑스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위대보다 동질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자기확신이 강한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프랑스 전체가 아니라 반동적인 프랑스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우파는 자신들이 더 이상 프랑스의 정통성을 대변하는 주류가 아니며, 반대로 프랑스인 다수의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랑드가 동성결혼 인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표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고 집권 후 순리대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³⁴

동성결혼 반대 진영 중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논리적인 전국가족단체연합(UNAF)³⁵이 2012년 10월 29일 발간한 보고서 『동성커플의 결혼, 친자관계, 부모권 문제』(La question du mariage, de la filiation et de l'autorité parentale pour les couples de même sexe)³⁶에 대한 찬성 진영 학자들의 비판을 보자. 36쪽 짜리 이 보고서는 동성결

34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6/10/18/la-france-reactionnaire-de-la-manif-pour-tous_5015579_3232.html, 2020.6.20 검색.

35 현재 프랑스의 가족단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전국 단위의 단체로는 전국가족단체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UNAF)과 함께 전국민간보건사회사업체연합(Union National Interprofessionnelle des Organismes Privés Sanitaire et Sociaux, UNIOPSS)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전국가족단체연합은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가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가족 분야 시민단체이며, 가족수당 정책의 보편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유은경,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와 부모성 담론의 부상』, 『페미니즘연구』 16-1, 한국여성연구소, 2016.)

36 www.unaf.fr/spip.php?article15142, 2020.6.20 검색.

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전국가족단체연합은 종교적, 심리적, 교육학적, 철학적, 인류학적, 정신분석학적 측면을 강조했던 당시 반대 진영의 일반적 경향과 달리 민법상의 지위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 단체는 동성결혼법안이 결혼과 친자관계(filiation)에서 성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가 이 법안에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주로 이러한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변화가 민법, 따라서 프랑스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현재 프랑스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아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³⁷ 이에 대해 찬성 진영은 동성결혼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성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입양에 단지 반대의 성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일한 성 사이의 관계도 포함시키는 식으로 성 간의 차이를 재규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형태인 두 명의 배우자(un époux et une épouse)로 구성된 혼인한 커플과 함께, 두 명의 동성 배우자(deux époux ou deux épouses)로 구성된 커플도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입양된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아버지만 또는 하나의 어머니(이미 미혼여성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듯이), 그리고 두 명의 어머니 또는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법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민법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이로 인해 프랑스인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기게 하지도 않는다.³⁸

37 Théry, Irène(dir.), *Mariage de même sexe et filiation*, Editions de l'EHESS, 2013, p.17.

38 Ibid, p.19.

5. 프랑스 예외성의 설명요인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예상을 뛰어넘은 격렬한 양상을 띠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동성결혼이 종교, 가족, 생명 윤리 등의 문제가 얹힌 복잡한 사회갈등의 코드가 된 것이다. 격렬했던 논쟁의 양상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둘로 갈라진 프랑스사회의 균열을 단기간에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동성결혼제도는 빨리 정착되었다. 법과 가족 분야 전문가인 사회학자이자 동성결혼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렌 페리는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후 5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진행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법이 이제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논쟁 당시 우파, 특히 가톨릭계의 유례 없는 대중 동원을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제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정확히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프랑스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결과는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모두를 위한 결혼에 우호적이었다. 다시 말해 반대 여론의 정도가 과대평가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프랑스의 예외적인 양상이 프랑스의 강한 보수성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시위를 그토록 격렬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동성결혼법이 가진 특별함이 강한 동원력 또는 열정적인 참여를 설명해준다. 이 법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팩스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가톨릭교회에 강한 반향을 일으

³⁹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8/04/23/la-loi-sur-le-mariage-pour-tous-a-ete-un-facteur-extremement-puissant-d-integration_5289153_3224.html, 2020.6.20 검색.

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계기로 변화된 시민결혼과 여전히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종교결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종교계 밖에서도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양성 간의 구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집단을 추가했을 뿐 기존의 관계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둘째, 타자에 대한 거부에서 격렬한 반응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반대 진영에 가담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증오했던 이유는 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자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저 이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일 수 있다.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다는 것, 더 정확히 얘기해 다름의 권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상정하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타자에 대한 증오가 역사적인 동원력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⁰

셋째, 동성결혼 반대운동에 함축된 보수이념의 부상을 들 수 있다. 가족사회학자 끌로드 마르탱(Claude Martin)은 모두를 위한 시위는 행정부에 대한 캠페인의 성격을 띠었고 그래서 우파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운동과 견해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편승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⁴¹ 극단적인 보수세력은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적인 태도로 인해 프랑스 가족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위기

⁴⁰ <https://www.lemariagepourtous.info/le-veritable-enjeu-derriere-le-757.html>, 2020.6.20 검색.

⁴¹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4/10/06/la-manif-pour-tous-confisque-le-debat-sur-la-question-familiale_4501195_823448.html, 2020.7.2 검색.

담론은 과장된 것이며 최근 프랑스인들의 주된 관심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위예뜨⁴² 역시 유사한 시각에서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법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이 논쟁을 집권 좌파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즉 동성결혼은 점점 더 거리에서 대중이 가담하는 양상을 띤 권력 투쟁을 위한 도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혼 논쟁이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과격한 언쟁이나 심지어 물리적인 충돌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넷째, 이 운동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가족 사회학자 프랑수아 드 생글리(François de Singly)는 이것이 그 사안 자체에 대한 견해보다 현재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사회학자 이렌 페리 역시 모두를 위한 시위는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드 생글리는 이 점을 “프랑스인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란 조끼 현상이 이 점을 잘 보여주었던 것이다. 유사한 시각에서 가엘 브뤼스티에(Gaël Brustier)는 『보수적인 68운동』이라는 책에서 동성결혼 반대투쟁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프랑스사회에 누적된, 임계치에 달한 불만을 보수적인 양상으로 분출하였음을 보여주었다.⁴³

6. 동성결혼법 통과 이후

동성결혼 법안 통과 후 5년, 미카엘(가명, 30세)은 2013년 4월 23일 동성결혼 법안이 채택되기 전 몇 개월의 상황을 떠올리며 “나는 이렇게 강한 증오의 물

⁴² Huyette, Op.cit.

⁴³ Brustier, Gaël, *Le Mai 68 conservateur : Que restera-il de la manif pour tous?*, Les éditions du cerf, 2014.

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프랑스에서는 거리 곳곳에 ‘모두를 위한 시위’의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시위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모든 매체에서, 직장에서, 사석에서 프랑스인들이 이 사안에 몰두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가 사람들의 논쟁의 소재가 된 것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기도 했다. “우리 동성애자들은 법안 통과 이전까지 적어도 국민 중 일부에게 비주체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툼(가명), 24세) 이전까지 사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성적 지향의 문제가 갑자기 공적인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많은 성소수자에게 트라우마를 준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위축되었다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2013년은 나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동성결혼 논쟁 이전에 나는 내 정체성이 사적인 주제였다고 생각했었다. 2013년 이후 나는 점점 더 ‘급진화’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내게 기쁨을 느꼈다.”(까미유(가명), 32세) ‘모든 다른 이들처럼’이라는 꿈이 동성애자들에게 현실이 된 것이다.⁴⁴

동성결혼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매년 7,000건 정도의 동성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 직후인 2014년 10,522건을 기록한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대략 한 해 신고되는 결혼의 3% 정도이다. 반대 진영이 우려한 것은 동성 간의 섹슈얼리티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구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성결혼이 이성결혼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며 동성 간의 결혼식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전통의상이 쓰이는 등 성의 구분이 유지되고 있다. 많은 묵시록적인 예상이 쏟아졌지만 결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pères et mères)’라는 표현이 민법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부모 1(parent 1), 부모 2(parent 2)와 같은 표현이

⁴⁴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8/04/23/cinq-ans-apres-le-mariage-pour-tous-le-bilan-au-gout-doux-amer-des-personnes-lgbt_5289569_3224.html, 2020.7.2 검색.

법전에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실제 '모두를 위한 시위'의 대변인 중 하나였던 리오넬 롬브로소(Lionel Lombroso)는 “토비라법이 거대한 변동을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결과가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했지만 사회가 그로 인해 큰 변화나 문제를 겪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았다.⁴⁵

7. 포스트 동성결혼 논쟁

—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PMA)과 대리모출산(GPA) 논쟁

동성결혼이라는 커플의 구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적으로 입양, 인공수정, 연대친권(coparentalité)과 같은 아이 관련 논의로 이어졌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될 때 반대 진영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것이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PMA)과 대리모출산(GPA)으로의 길을 연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PMA;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⁴⁶이란 난포자극, 채란, 채정, 수정 배양 등 불임 커플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의학적 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채형복, 2018: 61) 이 분야는 프랑스의 경우 이미 19세기 초부터 관련 기술들이 등장했다. 이미 이때 인공수정(당시에는 커플 간 기증의 방식이었다)이 시행되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1790년에 인공수정이 시도되어 2년 후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이 방식은 비난과 기소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거부의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⁴⁵ https://www.huffingtonpost.fr/2014/04/23/premier-anniversaire-loi-mariage-gay_n_5191263.html, 2020.6.20 검색.

⁴⁶ 전문가들은 AMP(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그러다가 1973년이 되어서야 1967년에 제정된 피임허용법과 1975년 낙태를 허용하는 법으로 촉발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이 재 등장하게 된다. 그 결과 1982년 최초로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가 탄생했고 이후 매년 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이 방식을 통해 태어난다. 대리모출산(gestation pour autrui, GPA)은 대리모가 여성이 불임인 커플의 배아를 통해 임신 해 아이를 출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과 달리 대리모출산은 1994년 생명윤리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 시술 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이 시술을 통해 태어나 프랑스에서 살게 된 아이가 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제 이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을 여성 동성커플과 미혼 여성에게 허용하 는 법안이 추진된 것이다. 올랑드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지만 이후 사회당 등 좌 파가 내려놓은 이 의료기술의 개방이 2015년경부터 다시 뜨거운 이슈로 되돌 아왔다. 2015년 6월 고등양성평등위원회(Haut Conseil à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와 권리옹호(Défenseur des droits)라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두 민간기 구가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의 개방에 우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추진하게 된 주된 근거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불임 상황의 혼인한 이성커플에게 허용되는 이 기술을 동성커플에게는 금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이 인정된 커플은 동성이 든 이성이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47 2018년 5월 29일 집권당 소속 의원 50여명은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모든 이를 위한 PMA, 평등의 행위”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게재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 가족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기혼 커플이든 파스체결자든 동거커플이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든 별 거중인 경우든, 한부모가족이든 재혼가족이든, 동성부모의 가족이든, 누구나 아이에 관해서는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가족이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위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신체적 이유로 인해 엄마가 될 수 없는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 고통, 분노, 부정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이에게 PMA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 의원들은 모든 이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부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되는 다양한 방식이 동일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역시 모든 여성에게 허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동성커플에게는 허용되었지만 미혼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⁴⁸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의 확대 적용 역시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구 사 회주의권 국가들에서 그리고 서유럽 지역에서는 정교회 사회인 그리스와 사 이프러스와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일부 지역 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개신교 신자가 다수인 서유럽 국가들은 모 두 확대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국 가의 주류 종교가 일부 사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진영은 이 법안은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 을 가지는 등 병리학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의 적용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출산력이 있는 독신 여성이나 여성 커플에게까지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당초 이 기술의 의학적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이 기술은 시장논리에 종속되는 서비스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의 이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이러 한 재생산 시장은 프랑스가 견지하고 있는 법적, 생명윤리적 원리, 즉 인간의 신체에 값을 매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인종, 지 능 등의 기준으로 정자의 가격이 매겨지는 등 프랑스사회가 법적으로 견지하 고 있는 입장과 모순되는 상황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반대 진영의 구호에는 “아이라는 최상의 이해”와 같은 예상할 수 있는 구호도 있지만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와 같이 극좌파를 떠올리게 하는 구호도 있다. 또한 이 의료기술의 확 대 적용이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의학

48 Sainte Marie, Benedicte Flye, *PMA, Le grand débat*, Michalon, 2018, p.75.

적 도움을 받는 생식의 개방이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와 친가를 빼앗음으로써 이들의 가족적인 기원과 가족의 특성을 알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의 확장이 이 분야가 의료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이행하고 상업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에 대해 찬성 진영은 이성커플에 국한해 시술되는 현재도 이 분야는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반박한다. 불임의 원인은 많은 부분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즉 직업적인 경력이나 학업을 위해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2018년 INSEE의 통계에 따르면 25~29세 청년 5명 중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등의 이유로 출산력이 떨어진 나이에 출산을 원하면서 불임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출산력의 경우 30세 이후 떨어지게 되고 36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한다.⁴⁹

불임 문제는 여성동성커플이든 미혼여성의 경우이든 완전히 병리학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해당 여성들에게 불임 상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⁵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 자체로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10세경부터 생리를 해오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임은 심각한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라는 얘기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한 고통과 아이에 대한 이들의 강한 욕망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어떤 금전적인 지출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려 하는 이들의 강한 욕망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⁵¹

2019년 7월 26일 마크롱 정부는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을 독신 여성과

⁴⁹ Ibid, p.99.

⁵⁰ Ibid, p.102.

⁵¹ Ibid, p.104.

여성 커플에 개방하는 생명윤리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결국 이 의료기술을 여성 동성거플과 독신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상원 심의를 통과했으며 7월 초 하원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대 진영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인 차원의 시위, 매일 상원 앞에서 진행되는 시위, 매우 적극적인 SNS 활동, 그리고 소위 ‘아빠 없는 PMA’, ‘생식 시장’으로의 길을 여는 위험성, ‘아버지 실종의 제도화’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대중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모두를 위한 시위, 가톨릭 가족단체(Associations familiales catholiques), 알리앙스 비타(Alliance Vita)가 합류한 ‘Marchons enfants!’이라는 이름의 기구가 주도한 2019년 10월 6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의 시위에 낙태반대운동 그룹과 보수적인 가톨릭 단체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30만 명이 거리에 나섰던 2013년 모두를 위한 결혼 반대시위 당시에 비하면 시위 참가자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8. 결론

위에서 우리는 프랑스 동성결혼 논쟁을 팩스 논쟁에서 의학적 도움을 받는 생식 논쟁으로 이어지는 긴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다. 주로 좌파 정권의 대선 공약 등 정치권에서 시작되어 광범위한 대중이 격돌하는 집합행동을 초래해 프랑스사회를 둘로 갈라놓을 정도의 상흔을 남기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논쟁을 이끈 행위자들과 담론은 프랑스 가족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두 진영,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의 대결과 맥을 같이 한다. 결혼, 가족, 아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립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었다. 가족과

성의 현실은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식 역시 조금의 시차를 두긴 하지만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가 지닌 현실과 인식의 괴리의 정도만큼 사회갈등의 진폭이 결정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동성결혼 논쟁의 격렬함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그 자체만큼이나 이념 갈등 및 정치투쟁의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성에 관련 사안의 과도한 정치화는 프랑스인들에게 중요한 다른 사안들을 은폐시키는 도구로 쓰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개인들 간의 견해 차이보다 훨씬 증폭된 대립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독 격렬했던 프랑스의 경험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진통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 여러모로 소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Baligand, Jean-Michel Henri, “La notion de famille vue sous l’angle notarial” Wiewiorka, Michel(dir.). *La famille dans tous ses états*, les entretiens d’Auxerre, 2018.
- Bernheim, Gilles, *Mariage homosexuel, homoparentalité et adoption*, 2013.
- Blöss, Thierry, “L’égalité parentale au coeur des contradictions de la vie privée”, In Bloss, T. *La dialectique des rapports hommes et femmes*, Paris : PUF, 2001.
- Brustier, Gaël, *Le Mai 68 conservateur : Que restera-il de la manif pour tous?*, Les éditions du cerf, 2014.
- Fabre, Clarisse · Eric Fassin, *Liberté, égalité, sexualités*, Belfond, 2004.
- Delahaie, Yves., *Mariage pour tous vs Manif pour tous*, édition Golias, 2015.
- Fassin, Eric, *L’inversion de la question homosexuelle*, Editions Amsterdam, 2008.
- Gargoullaud, Stéphanie et Vassallo, Bénédicte., *Reinventer la famill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 Haut conseil de la famille., *Architecture de la politique familiale : éléments de problématique*, 2011.
- La Voix du Nord*, 2013.4.22.
- Le Figaro*, 2013.1.27.
- Martin, Claude, “Le soutien à la parentalité : une nouvelle politique en Europe?”, *Politiques sociales et familiales*, n°118, 2014.
- Michel Huyette, “Petite synthèse finale à propos du mariage pour tous”, *Journal du droit des jeunes*, n°325, 2013.
- Sainte Marie, Benedicte Flye, *PMA, Le grand débat*, Michalon, 2018.
- Théry, Irène(dir.), *Mariage de même sexe et filiation*, Editions de l’EHESS, 2013.
- Rault, Wilfried, “Des relations familiales à l’épreuve du pacs”, In Courduriès, Jérôme & Agnès Fine(dir.), *Homosexualité et Parenté*, Armand Colin, 2014.

2. 논문

- 김효진, 「현대 일본의 성소수자와 동성파트너십」, 『일본학』 46,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8.
- 유성진,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여론과 정당정치 그리고 연방주의』 31-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 유은경,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와 부모성 담론의 부상」, 『페미니즘연구』 16-1, 한국여성연구소, 2016.
- _____, 「양육수당제도 개혁을 통해서 본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55-2,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 정희라, 「영국 의회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 논쟁—2013년 동성결혼법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7-2, 서강대 국제지역문화원, 2016.
- 채형복, 「프랑스 동성결혼법—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강원법학』 54, 강원대 비교법학연구

소,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정책 브리프』 vol.13, April 2016.

후지사키 요시에, 강신재 · 진영재, 『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3,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2019.

3. 단행본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기념 발간 자료집 2006~2018), 2019.

라 베지트, 김현경 · 한빛나 역,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6.

전영, 『프랑스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7

4. 기타

https://www.huffingtonpost.fr/2014/04/23/premier-anniversaire-loi-mariage-gay_n_5191263.html (*Huffingtonpost* 2014.4.23. 기사 “Un an après le mariage gay, la France attend toujours le déluge annoncé par les opposants”)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8/04/23/cinq-ans-apres-le-mariage-pour-tous-le-bilan-au-gout-doux-amer-des-personnes-lgbt_5289569_3224.html (*Le monde* 2018.4.23 기사 “Cinq ans après le ‘mariage pour tous’, le bilan au goût doux-amer des personnes LGBT”)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4/10/06/la-manif-pour-tous-confisque-le-debat-sur-la-question-familiale_4501195_823448.html (*Le monde* 2019.8.19 기사 “La Manif pour tous confisque le débat sur la question familiale”)

<https://www.lemariagepourtous.info/le-veritable-enjeu-derriere-le-757.html> (*Mariage pour tous* 공식 사이트 2013.4.22 기사 “Le véritable enjeu derrière le mariage pour tous”)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8/04/23/la-loi-sur-le-mariage-pour-tous-a-ete-un-facteur-extremement-puissant-d-integration_5289153_3224.html (*Le monde* 2018.4.23 기사 “La loi sur le mariage pour tous a été un facteur extrêmement puissant d’intégration”)

www.unaf.fr/spip.php?article15142 (프랑스가족단체연합(UNAF) 2012년 보고서 파일 “Dossier d’analyse sur les questions du mariage, de la filiation et de l’autorité parentale pour les couples de même sexe”)

<https://laviedesidees.fr/L-interet-de-l-enfant.html> (Collège de France 웹진 *La vie des idées* 2010.5.20 기사 “L’intérêt de l’enfant”)

<https://www.lemariagepourtous.info/debat-44.html> (*Mariage pour tous* 공식 사이트 2012.12.28 기사 “Il faudrait un grand débat national”)

<https://www.lemariagepourtous.info/> (*Mariage pour tous* 공식 사이트 2014.4.23 기사 “A ceux qui ont été blessés, gardez la tête haute”)

https://www.reddit.com/r/france/comments/f8cyco/europe_de_lest_la_guerre_du_genre_est_d%C3%A9clench%C3%A9e/

3%A9clar%C3%A9e/ (인터넷 언론 *Reddit* 2020.2.21 기사 “Europe de l’Est : la guerre du genre est déclarée”)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6/10/18/la-france-reactionnaire-de-la-manif-pour-tous_5015579_3232.html (*Le monde* 2016.10.18 기사 “Cécile Dutheil de la Rochère : ‘La France réactionnaire de la manif pour tous’”)

Actors and Discourses in French Debate on Same-sex Marriage

Yoo, Eun-kyung |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This article tries to verify which actors competed with which values and logics in the debates on French law on same-sex marriage, and explain what caused the exceptional enthusiasm shown by the no side participants. Since the 1990's, French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conflicting social debates on the diverse themes related to family and sexuality like as *PACS*, *Mariage pour tous*, Homoparenthoo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surrogate mother. There were the familist and conservative NGOs which are anxious to protect a traditional gendered order on one side, and the feminists and political left on the other side. The controversy usually consisted of the critics of no side and the reply made by yes side. The main issues were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arriage institution, rights to having children vs. rights of children, social impact of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tc. The exceptional eagerness of no side can be explained by the unusualness of the law on same-sex marriage, the politicization of the debates, etc.

Key words : same-sex marriage, homoparenthoo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Mariage pour tous*, *PACS*

논문 접수일 : 2020. 7. 15	심사기간 : 2020. 7. 16~8. 5	게재확정일 : 2020. 8. 10
----------------------	-------------------------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1991.12.29 국제한국학및비교학회 (Association Internationale Etudes Coréennes et Comparées)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 (독일 베를린 : 참가자 6명)
홀머 브로홀로스 (독일 본대학교 교수)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김문학 (일본 경도대학교 학위과정 이수중)
송영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워드 캠퍼스 교수)
고송무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교수)
김필영 (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1992. 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김필영)
-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술대회
1993. 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뱅 카톨릭대학교)
-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장”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회사함
- 1995.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권 발간
1996.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권 발간
- 1996.10. 4- 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1997. 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1997.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권 발간
-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 1998.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4권 발간

1999. 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 1999.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5권 발간
2000. 6. 9 제9회 국내학술대회(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2000.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6권 발간
- 200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7권 발간
2001.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8권 발간
2001. 7. 3 제10회 국제학술대회(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 200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9권 발간
2002. 6. 7 제11회 국내학술대회(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6.29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1호 발간
- 200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2호 발간
2003. 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2003.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1호 발간
- 200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2호 발간
2004.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1호 발간
- 2004.11.30 단행본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발간(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UC/Berkeley, USA)
- 200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2호 발간
2005.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1호 발간
2005. 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서울대학교)
- 2005.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2호 발간
2006.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1호 발간

- 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 2006.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2호 발간
-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7.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1호 발간
2007. 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 한국현대문학회,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7.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2호 발간
2008.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1호 발간
2008. 7. 1-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 2008.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2호 발간
2009.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1호 발간
2009.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2호 발간
-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 2009.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3호 발간
2010.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1호 발간
2010. 5. 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2010. 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2010.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2호 발간
-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1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3호 발간
2011. 4.21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 공동주최 :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1.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발간
2011. 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화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 201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발간
2012.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1호 발간
2012. 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 문화관광부
2012.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2호 발간
-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201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 발간
2013. 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 한국문학번역원
2013.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1호 발간
2013. 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발간
- 201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발간
2014.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1호 발간
2014. 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 한국연구재단
2014.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2호 발간
2014. 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사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 대산문화재단

- 201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3호 발간
2015. 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2015.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1호 발간
2015. 7. 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 · 문화 연구의 탈경제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2호 발간
-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 2015.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발간
2016.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1호 발간
2016. 7. 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2016.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2호 발간
-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 2016.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3호 발간
2017.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1호 발간
2017. 7. 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2017. 8.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2호 발간
- 2017.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3호 발간
2018. 2. 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2018.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1호 발간
2018. 7. 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 2018.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2018.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2호 발간
- 2018.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3호 발간
2019. 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둥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1호 발간
2019.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2호 발간
-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옥)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 2019.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3호 발간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1호 발간
2020. 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2020.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2호 발간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목록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울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1993-1995	이여복 1936-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1995-1997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1997-1999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1999-2001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2001-2003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2003-2005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2005-2007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2007-2009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2009-2011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2011-2013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2013-2015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2015-2017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2017-현재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
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
사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
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및 후원비
 -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2015년 12월 12일 개정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 투고는 학회 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면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비전임) 100,000원/(전임) 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 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 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 논문의 체계는 ① 논문제목, ② 성명과 소속, 직위, ③ 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서양어초록(서양어 제목과 저자명, 소속기관명 포함)과 주제어의 순서에

따르며 각주제어(Key- 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한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1)-①-㉠의 순서로 붙인다.
 -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 ③ 논문, 작품은 「」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서양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 ㉣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대상

-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조 심사

-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만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제6조 이의 신청

-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 요지서

항목	점수	10	8	6	4	2	비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유(0)		무(10)			
총점							

논문 제목				
심사 요지				
평가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 _____ 직급 _____ 심사위원 _____ ㉠
입금은행 (은행) 계좌번호 ()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언,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언·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소속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
-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

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기재논문 3. 해당 기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 ① 부정행위
-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회장 홍정선(인하대/한국문학)

부회장 김양선(한림대/한국문학), 김정희(서울대/불문학), 김종희(경희대/한국문학), 류보선(군산대/한국문학), 민은경(서울대/영문학), 심원섭(일본 도쿄대/한국문학), 우림걸(중국 산둥대/한국문학),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윤상인(서울대/일문학), 이명호(경희대/영문학), 조성원(서울여대/영문학),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 Argentina/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 USA/English Literature)

총무이사 겸 재무이사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연구이사 김동식(인하대/한국문학), 권혁률(중국 길림대/한국문학), 김서영(광운대/철학), 김석(건국대/철학), 김에림(연세대/한국문학), 문혜원(아주대/한국문학), 박수연(충남대/한국문학), 박주택(경희대/한국문학), 양동국(상명대/비교문학), 이형권(충남대/한국문학), 장철환(연세대/한국문학), 정끝별(이화여대/한국문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강석(인하대/한국문학), 최창록(중국 남경대/한국문학)

편집이사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박효환(경기대, 대산문화재단/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역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예란(광운대/신문방송학), 김용희(평택대/한국문학), 김태경(가천대/일문학), 김혜경(University Aix-Marseille/한국문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서여명(남경대/중국문학), 손유경(서울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성천(경희대/한국문학), 이승은(연세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New York Univ./영화학),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순천향대/영문학), 최영진(중앙대/영문학), 홍석경(서울대/언론정보), 홍용희(경희대/한국문학), Sora Park(Univ. of Canberra, Australia/Communication)

출판이사 여태천(동덕여대/국문학)

섭외이사 서여명(중국 남경대/한국문학)

기획이사 정은귀(한국외대/영문학)

감사 박동호(경희대/한국어학), 조병준(인하대/불문학)

총무간사 고재봉(인하대/한국문학), 정영진(인하대/한국문학)

편집간사 박현익(고려대/한국문학)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오형엽(고려대/한국문학)

편집위원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태경(가천대/일문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New York Univ./영화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만수(충북대/불문학, 연극),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순천향대/영문학), 홍석경(서울대/언론정보)

| 윤리위원회 |

윤리위원장 오형엽(고려대/한국문학)

윤리위원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동식(인하대/한국문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심원섭(일본 도쿄대/한국문학),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이철의(상명대/불문학), 정명교(연세대/한국문학), 홍정선(인하대/한국문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SN 1226-2250

발행일 2020년 8월 31일

발행인 홍정선

발행처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인 오형엽

우)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남 205호 홍정선 교수 연구실 (용현동)

Tel (032) 860-7995

E-mail newiacks@empal.com 고재봉, 정영진(총무간사)

학회계좌 (하나은행) 824-910004-75705

예금주 도윤정

제작처 소명출판 Tel. 02)585-7840

값 18,000원

*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소유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